중편소설

강강수월래

김석문

평양출판사
주체109(2020)년

차 례

1. 병신년 시월 그믐……3
2. 꽃잎을 닮은 해안……22
3. 이제 남은 단 한가지……44
4. 그럴만한 리유……50
5. 돌아온 추격선……60
6. 별빛 흐르는 돌산도의 밤……80
7. 할수 있을 때 할수 있는껏……89
8. 투 옥……98
9. 회 남 이……114
10. 《환대》……125
11. 의심……135
12. 서낭당에서 찾은 흔적……146
13. 잠들수 없는 밤……155
14. 고모가 들려준 이야기……163
15. 덫……174

16. 달밤의 륜무……179
17. 물고기부신 …… 195
18. 가이샤꾸……210
19. 넓은 바다 한 귀퉁이에서 ……227
20. 《바다의 제왕》 ……243
21. 강강수월래 ……259

1. 병신년 시월 그믐

새벽바람을 가득 안은 순찰선의 돛폭은 푸륵푸륵 소리를 내면서 팽팽하게 부풀어올랐다. 긴 밤을 거기서 보낸듯 아까부터 돛대우에 앉아있던 낯모를 물새 한마리가 흐트러진 궁둥이의 하얀 속털을 주둥이로 쓱쓱 문대기고나서 서쪽하늘을 바라보며 이따금 길게 울었다.

파도가 배전을 들이치는 단조로운 음향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노대들도 삐걱거리지 않고 그 노를 쥔 격군들의 먹임소리마저 없었더라면 정말로 이 바다가 아직도 잠을 자고있는듯이 생각될것이다.

등개는 격군들이 있는 갑판아래에서 나와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갑판우에 설치된 루대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를 띄여본 군졸들은 저저마다 《교련관나으리, 벌써 일어나셨소이까?》 하고 문안인사를 여쭈었다.

그들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등개는 두어걸음에 한번씩 고개를 숙여보였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 멀리 수평선의 경계가 어슴푸레해졌다. 하늘에는 새별이 유난히 빛을 뿌렸다. 미명을 앞둔 바다라 칠흑같던 검은 장막이 차츰차츰 벗겨져가고있었다.

등개가 2층루대우에 올라서자 반나마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있던 군교 팔동이가 곱지 않은 눈길로 치떠보았다.

《흥, 몰래 기찰이라도 나왔나?》

《기찰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가?》

《금방 교대를 해놓구선 안심이 되지 않아 <렴탐>까지 나왔으니 말일세. 왜, 이 팔동이가 뿌연 막걸리를 좋아한다구 이 머리속까지 흐리터분한줄 아나?》

《원, 사람두…》

등개가 사람좋게 웃으면서 팔동의 잔등을 철썩 갈겼다. 등개와 팔동이는 어릴 때부터 한마을에서 함께 자란 죽마고우였고 전란이 터지자 수군에 함께 들어가 수차례의 죽을고비도 함께 넘나든 절친한 사이였다.

등개는 팔동의 곁에 나란히 서서 바다쪽에 눈길을 돌리고 아직 채 밝지 않은 수면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일망무제한 바다는 스러져가는 밤기운에 취해 조용히 파도를 일구며 뒤척이고있었다.

온 바다에 이 배 하나만이 떠있는듯싶었다.

참다못해 팔동이가 입을 열었다.

《보라구, 쥐 죽은듯 고요해. 이 바다에서 언제 왜란이 있었던가싶거던… 싸움이 없으니 갑갑증이 다 날 지경이네. 그저 이런 때에는 술생각이 절로 난다니까! 등개, 이제 수영으로 돌아가거들랑 내 막걸릴 한사발 사겠네. 그간 이모저모로 신세를 좀 졌어야지…》

《그런 소리 말라구. 자네와 나사이에 신세를 지구말구 할게 뭐가 있겠나.》

《그래두 신세야 신세지. 빚을 지군 못 참는 성미란걸 자네두 잘 알면서 그러누만…》

《그래? 그것 참… 헌데 한사발이나 가지구 될가, 한독쯤이면 몰라두. 엥이, 안 마시겠네.》

《또또… 제가 술맛을 알면 얼마나 안다구…》

팔동이가 모난 얼굴에 징글사 한 웃음을 띠우며 일이라도 칠듯 팔을 썩썩 걷어붙이고 다가왔다.

《가만있게! 오지 말라구.》

등개는 벌써 팔동이의 소름끼치는 그 놀음을 간파하고 두 팔을 겨드랑이에 바싹 모아붙이며 밤송이처럼 웃몸을 옹송그려 방어자세를 취하였다.

《다시한번 말해보라구. 정말루 안 마실텐가?》

《사나이 한입으로 어찌 두말을 할가.》

팔동이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와락 등개에게 달려들었다.

《애개개!》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는 등개는 사납게 달려드는 팔동이때문에 몸을 비틀며 루대꼭대기에서 태질을 쳤다.

《그만, 그만하라구! 아이구, 사람 살려라!ㅡ》

《암만이구 소리쳐보지… 어때, 이래두야?》

《흐흐흣, 간지러… 아하, 간지러워!》

《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테다.》

《그만둬, 제발 그만두게!》

《어디 한번 혼쌀나봐!》

한참동안 엎치락뒤치락하며 찧구 까불던 두 군교는 숨이 턱에 닿아서야 씩씩거리면서 잠시 들뜬 가슴들을 진정시키였다. 요즈음 해상근무로 서로 만나는 일이 드문했지만 그들은 마주서기만 하면 순간에 동심에 들어 어릴 때처럼 장난을 쳤다.

《에, 숨차다. 어때, 혼났지?》

《십년 체증이 뚝 떨어졌네. 다신 그러지 말게.》

《거야 내 맘이지. 헌데 자네 정말로 술을 아예 끊었나?》

《끊기야 뭘… 그저 지금은 좀 아니다싶어서 그럴뿐이지.》

등개는 한쪽으로 삐뚤어진 전립을 바로잡으며 일어나 앉았다.

《왜? 지금이야 태평시기가 아닌가.》

《태평은 무슨 개똥… 일시적일뿐이야.》

정색해진 등개가 옷을 활활 털며 벌떡 몸을 일으켜세웠다.

그통에 팔동이도 덩달아 란간을 붙잡으며 바닥에서 일어났다.

《임진년에 불시에 들이닥쳤던것처럼 조만간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올건 뻔해. 지금 쉬쉬하며 돌아가는 소문을 자네 못 들었나? 그놈들의 재침입은 이제 시간문제라니까.》

등개는 란간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며 아직은 어둡고 고요하기만 한 먼바다쪽으로 시선을 던져버렸다.

검푸른 바다가 불안스레 출렁거리는것 같았다.

그러나 팔동이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웬걸,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노릇일세! 그만큼 혼쭐이 난 왜구들인데 어디라고 감히 기여든단 말인가! 어제 수영에 왔던 옥관자를 붙인 대감이 하는 말을 자네도 들었지? 왜적들과의 <강화담판>이 거의 무르익었다구… 통신사가 왜나라로 건너갔다네. 이제 그 일만 잘되면 왜병은 조만간 물러갈거구 전란도 끝장이 날걸세.》

《그랬으면야 여북 좋겠나. 헌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저 섬나라오랑캐놈들이 여간만 간사하고 능청스러워야 말이지.》

등개는 이렇게 말하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팔동이 등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걱정두 팔자다. 우리 같은 군교나부랭이들이 걱정한다구 뭐가 달라진대? 싹 걷어치우라구! 그걸 생각할 벼슬아치들은 따로 있어. 주제넘은 생각일랑 말구 우리 아까 하던 막걸리생각이나 마저 하세나.》라고 하며 그의 몸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기는것이였다.

등개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팔동의 손을 밀며 핀잔을 놓았다.

《뽕딸 생각일랑 말구 바다나 잘 살피게.》

그 말에 팔동이는 《허허ㅡ》 하고 웃음을 흘리였다.

《이것 보라구, 등개. 자네가 아직 그 집 주모를 본적이 없어서 그래. 허리가 얼마나 잘룩한지 아나. 얼굴은 또 얼마나 밴밴하다구… 치마를 요렇게 들구 발벰발벰 술좌석을 오구가는데 히야, 그때마다 얼핏얼핏 드러나는 흰버선하구 매끈매끈한 장딴지를 보느라면 정말로 숨이 꺽꺽 막힐 지경이라네.》

팔동이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치마입은 술집계집의 걸음새를 흉내내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통하여 등개도 도저히 웃지 않을수가 없었다.

《허허ㅡ》 하고 허거픈 웃음이 등개의 입에서 새여나오자 팔동은 더욱 신이 나서 주막집녀인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한번은 말이야, 히히… 그 아낙네가 술을 따르다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아, 고것이 내 무릎에다 훌쩍 술을 흘리지 않았겠나. <이크, 치겁다!> 하고 놀라는차에 그 계집이 <아이, 어쩌나…> 아, 요리면서 제 치마를 뭉텅 들어 그걸로 무릎을 쑥 문대주겠지, 히히. 그바람에 난 온몸이 찌릑찌릑해져서 사지가 마비되는듯싶더군. 왜 그런가? 흐흐, 글쎄 내 손이 내 무릎우에 놓여있었거던.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가. 그 주모의 치마밑에 내 손이 들어간셈이 됐지 뭔가! 손끝에 닿은게 내 허벅지인지 주모의 허벅지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니까! 심장이 그냥 쿵닥쿵닥 방아질을 해대는데 이거야 어디 진정을 할수가 있어야지… 그래 내 막걸리 한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 벌떡 일어나 나오구말았다네.》

《하하하.》

별안간 허리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치는 등개를 팔동은 헤식은 웃음을 담은 눈길로 쳐다보았다.

《임자두 참, 우…우습지?》

등개는 그냥 머리를 흔들어대며 웃기만 하였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습한 대기를 헤가르며 높아갔다.

비꼬는듯 한 등개의 표정에 속이 달아오른 팔동은 성가시게 매달리며 《왜 이리 크게 웃는거야? 사람들이 듣겠네!》 하며 등개의 입을 막으려들었다.

《이거 좀 조용하게!… 그날 정말 일어서서 내 발로 나왔다니까. 이건 사실이야.》

《그럴테지. 암, 그렇구말구! 하하하!》

등개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웃어대였다.

《제길할, 정 약을 올릴텐가!》

《하하하, 그럼 그 주모의 서방녀석한테 늘씬하게 얻어맞구 쫓겨난건 딴 녀석이였던게지. 자넨 곱게 나왔다니 말이야, 하하하…》

《젠장… 늘씬하게 맞기야 뭘… 기껏해야 계집 손목 한번 잡았다가 짚신짝에 얻어맞은걸 가지구, 괜히… 허허허… 난 그 서방녀석이란게 그런 왈패일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장담하건대 난 꼭 한대만 맞았을뿐이야. 그것도 비껴맞았지.》

《으하하!》

등개는 아예 너털웃음을 터뜨리였다.

《제길, 계속 웃을테야?!》

약이 바싹 오른 팔동은 등개의 량쪽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럼을 피워댔다.

《아갸갸, 아얏! 그만… 그만… 하라니까! 앗하하!》

등개는 연방 죽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너무 간지러워 등개가 눈물까지 찔끔 흘리고나서야 팔동이는 그에게서 떨어졌다.

《잘못했지?》

《내가 졌네, 졌어. 이젠 됐지?》

《에끼, 이 사람아!》

팔동이도 얼굴에 웃음을 담고 등개의 가슴팍을 슬쩍 쳤다.

《하하하!》

등개와 팔동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먼바다를 바라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사이에 순찰선은 남해도의 변두리를 에돌아 퍼그나 바다길을 축내였고 눈앞으로는 돌산도가 가까워지고있었다.

거밋거밋한 섬의 자태가 점점 다가오자 문득 팔동이가 이런 말을 꺼냈다.

《자넨 언제까지나 삼보녀를 그렇게 내버려둘셈인가? 왜적들도 물러갔는데 이젠 마련을 봐야 하지 않겠나.》

팔동이의 그 말에 등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삼보녀!

가만히 입속으로 불러만보아도 명치끝이 찌르르해지며 가슴이 자꾸만 들먹여진다. 삼보녀는 다름아닌 등개와 약혼을 한 랑자의 이름이였다.

등개는 저도 모르게 허리춤에 항상 매달고 다니는 깜찍스레 생긴 표주박에 손을 얹어보았다. 볼록하고 매끈매끈한 뒤면에 손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등개의 마음속으로는 형언할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파동을 일으켰다. 표주박은 등개와 삼보녀가 약혼한 사이임을 밝히는 정표와도 같은것이였다. 무쇠덩이같은 그의 심장을 꽉 채워버린 그 랑자는 어려서부터 등개에게 목수일을 배워준 장주 곡진의 외손녀였다. 장공일을 하던 등개와 삼보녀의 부모들은 다 왜란초기에 무도한 왜적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란리때 왜적에게 생때같은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어찌 등개와 삼보녀의 부모들뿐이랴. 임진왜란은 등개와 삼보녀만이 아닌 이 나라 백성들 누구나에게 커다란 슬픔과 재앙을 가

져다준 횡액과도 같은것이였다.

바다건너 섬오랑캐들은 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다.

100여년간의 국내전쟁으로 한껏 사나워진 사무라이무리들을 가까스로 휘여잡은 도요또미 히데요시에게는 시급히 풀어야 할 난문제가 한가지 있었다.

수많은 다이묘들과 제장들이 《관백》인 히데요시에게 《스스로》 칼을 바치고 항복해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정예》한 대군이 남아있었고 그만한 병력이면 웅근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었다. 따라서 섬나라의 《관백》에게는 피에 주려있는 《용장》들과 걸핏하면 칼부터 빼드는게 버릇처럼 굳어져버린 휘하 사무라이들의 과잉된 용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깡그리 배설하고 소모시킬 대상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도요또미는 그 대상지를 조선으로 선정하였다. 본시 바다도적의 피가 꿈틀거리고있는 흉악한 왜인들로서는 태평스런 기운에 둘러싸여 호젓한 젖빛안개속에 잠들어있는듯 한 기름진 조선땅을 그대로 한옆에 곱게 내버려두고 못 본척 한다는게 속이 부걱부걱 끓어오르는 모양이였다. 도요또미의 심정도 다를바없었다.

하여 조선침공준비를 갖추라는 《관백》의 령이 전국에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사무라이들은 밤잠을 잊고 칼을 갈았다. 달밤에 썩썩 칼을 가는 소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바다건너 조선땅에까지도 들릴상싶었다.

그때문인지는 모르나 왜적들이 우리 나라에 침입하기 썩 이전부터 나라안에서는 별의별 흉흉스런 소문들이 가만가만 떠돌았다. 신묘년(1591년)에 한강상류로부터 죽은 자라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와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강물빛이 갑자기 붉어져 주변사람들이 모두 근심에 싸였다는 소문이다. 또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는 임금이

정사를 보는 대궐안의 숲속에서 비둘기처럼 생긴 재빛색갈의 낯모를 새 한마리가 밤새도록 《각각화도.》, 《각각궁통개.》라고 슬프고도 다급하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 입, 저 입을 거쳐 장안을 좁다하게 휘젓고 다녔다.

《각각화도》라는 말은 《각자 화를 피하여 멀리 도망하라.》는 뜻이고 《각각궁통개》라 함은 《각자 갑옷과 전동을 착용하라.》는 소리라 풀이하는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말들같았다.

이상한것은 그 새가 울기 시작한 그날이 바로 임진년(1592년) 4월 임인일인데 바로 그날에 왜구들이 부산에로의 침입을 시작했다는것이였다.

어쨌거나 이 모든 풍설들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는 알수 없어도 나라에 재앙이 박두했음을 알리는 전조 같은것들이 꽤 있었다는 설명으로써는 충분할듯싶었다.

임진년 4월 임인일 즉 1592년 4월 13일 잔파도 설레이던 조선반도의 한끝 부산앞바다로는 대마도를 거쳐 바다를 건너온 왜적의 함선들이 끝이 안 보이게 몰켜들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허락도 없이 떼거리로 쓸어들어온 도적배들은 못난 원숭이들처럼 들까부는 섬오랑캐들을 그야말로 한바리씩 통채로 쏟아놓았다.

임진왜란이 바야흐로 시작된것이였다.

긴칼과 조총으로 무장한 섬나라의 망나니들은 꽥꽥 알지도 못할 소리를 사납게 울부짖으며 신성한 땅을 감히 어지럽히였다.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고 산간벽지의 금수들마저 격분으로 이를 갈았다.

부산과 동래가 련이어 침략자들의 무지스런 발길아래 짓이겨졌고 겁을 먹은 관료배들은 저저마다 제 살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임금마저 보따리를 싸쥐고 뒤문으로 빠져서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피난길을 떠나버렸다.

인정많고 맘씨고운 이 나라의 백성들은 왜적의 칼날앞에 수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칼부림에 이골이 날대로 난 도요또미 히데요시의 사촉을 받은 섬오랑캐들은 단숨에 큰길을 따라 조선땅 주요거점들을 겁탈하였다. 무너진 경상도의 수군과 륙군을 시까스르며 진격을 거듭한 오랑캐들은 부산에 기여오른지 불과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조선봉건왕조의 오랜 수도를 함락시키고말았다. 물밀듯이 쓸어드는 왜군의 조총소리와 매캐한 화약연기는 실로 무덤구뎅이에서 뛰쳐나온 형형색색 도깨비들의 지랄발광을 방불케 하였다.

나라님도 버리고 간 조상의 땅이 바다를 건너온 도적의 발굽아래 치를 떨었다. 살륙의 낮과 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죽음의 아우성조차 살아남지 못했다.

원통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한이 맺혀 식지 못한 더운 피는 그대로 지심에 고여 부글부글 암장처럼 끓어번지다 못해 마침내 활화산이 되여 이 땅우에 터져올랐다.

백성들의 의병투쟁은 시작부터 이렇듯 처절하였다.

임금님은 수레에 올라 피난길을 떠났어도 백성들은 향토를 저버릴수 없었다.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한마디의 말에 량반과 관료배들은 줄행랑을 놓았지만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나라의 인민들은 절대로 그들의 뒤를 따를수가 없었다.

누구의 말이였던가. 《나라는 임금의 나라도 아니고 관리의 나라도 아니다. 나라는 오직 백성의 나라일뿐!》이라는.

국난을 당한 이때 제 살구멍을 찾은것은 통치배들뿐이였고 나라를 위하여 서슴없이 목숨을 내던진것은 오직 백성들이였다. 짓밟히고 천대받던 이 땅의 백성들은 나라의 운명을 고

스란히 떠안고 죽음이 도사리고있는 왜적과의 싸움터에로 용약 달려나갔으며 오랑캐들의 흉탄에 피를 쏟으면서도 열손가락으로 이 땅을 부둥켜잡고 몸부림을 쳤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이 나라 의병들은 고향땅을 강점한 섬나라오랑캐들을 무찔러 죽음마저 불사하고 멸적의 창검으로 임진년의 력사를 새로이 써나갔다. 성가퀴에서 혹은 어느 이름모를 산골짜기에서 그들이 흘린 남모르는 피가 고이고 모여 가증스런 원쑤들의 머리우에 죽음과 공포의 파도로 덮쳐들었다.

흉악한 원쑤들은 전률하였다. 파렴치한 왜오랑캐의 털부숭이심장들은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선 조선백성들의 분노에 찬 노성에 한줌도 못되게 오그라들었다.

오랑캐를 물리치는 가장 통쾌한 격전은 바다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등개는 그 모든 승리의 기쁨들을 낱낱이 기억하고있었다.

옥포해전과 합포해전 그리고 적진포해전에서 오만을 떨던 왜적의 침략함대는 기절초풍할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입고 황급히 패주하였다.

첫 싸움에서부터 조선수군의 위용에 압도된 왜구들은 그후부터는 감히 맞서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가장 볼만 했던것은 거북선이 처음으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조선수군의 제2차출전이였다.

《왜적의 함대가 이제 곧 사천, 곤양, 로량앞바다로 기여든다 하오이다!》

경상우수영으로부터 날아든 전갈을 받아든 좌수사 리순신은 지체없이 왜적을 맞받아 함대들을 출동시켰다.

경상도앞바다에 이르니 과연 섬오랑캐놈들의 싸움배들이 포구에 새까맣게 몰켜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까마귀들이 바다를 한벌 뒤덮은것 같았다.

《적을 유인하라!ㅡ》

리순신장군의 령에 따라 조선함대는 거짓공격을 단행하다가 하나, 둘 포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등개가 타고있던 판옥선(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수군의 기본 싸움배)도 지기 시작하는 썰물에 때를 맞추어 배머리를 뒤로 돌렸다.

《도망친다! 추격하라!》

해적출신으로 바다싸움에선 이골이 텄다고 하는 왜장 가끼누마 마사가께가 리순신장군의 유인전술에 걸려들었다.

《도망치는 조선함대를 놓치지 말고 추격하라, 빨리!》

혁혁한 전공에 눈이 어두웠던 가끼누마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줄도 모르고 배갑판에 설치한 높은 다락꼭대기에 올라 자기 함대를 싸움에로 독려하며 호통을 쳐댔다.

《하하하! 너희들도 보고있느냐? 이제 곧 바다의 신인 이 가끼누마 마사가께앞에 조선의 수군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아다께부네라고 부르는 십여척의 호화스런 다락배들은 《도주》하는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을 쫓아 헐레벌떡 넓은 바다로 뛰여나왔다.

등개는 악악 고함을 지르며 자기들의 배를 뒤쫓아오는 왜적들을 향해 연방 화살을 날려보냈다.

핑핑핑ㅡ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위를 벗어난 살들은 마치 그 끝에 눈이 달리기라도 한것처럼 어김없이 왜적들의 숨통을 꿰질렀다. 왜적들은 악에 받쳐 조총을 란사하였다. 왜적의 흉탄이 무질서하게 날아와 사방에 들이박혔다.

《앗!》

등개는 펑끗하고 관자노리쪽에서 뭔가 튀는 느낌에 눈을

감았다.

(맞았구나!)

볼편을 타고 뜨끈뜨끈한것이 흘러내렸다. 피같았다. 하지만 아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등개는 살며시 얼굴을 만져보았다. 분명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매로 그것을 썩 닦아낸 등개는 무심결에 옆을 돌아보다 깜짝 놀라 두눈이 휘둥그래지였다.

바로 자기의 발밑에 돌격장 송만춘장군이 얼굴에 온통 피자박이 된채로 쓰러져있지 않는가! 가보니 이미 숨져있었다.

《돌격장이 숨졌다!》

등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돌격장이 죽다니…》

《악귀같은 왜적들!》

모여온 군사들은 저저마다 주먹들을 내흔들며 격분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돌격장을 잃은 군사들은 흡사 성이 난 호랑이들처럼 길길이 날뛰였다.

《제길, 어째서 그냥 꽁무니만 빼는거야?!》

《화포라도 한방 시원하게 갈겼으면…》

하지만 군령은 어길수가 없었다.

노가 많은 왜적의 배는 점점 등개네 싸움배와의 거리를 좁혀들어왔다.

《돌격신호기발이 올랐나?》

《아직 아닐세.》

《저놈들이 저렇게 가까이 오는데…》

정말 가까이에서 왜적들이 내쏘는 조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한꺼번에 발사된 탄알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와

갑판의 널쪽들을 마구 물어뜯었다.

《이러다 다 죽겠다!》

당황해하는 군사들도 보였다. 그러나 돌격장이 죽었으니 그들을 지휘할 사람도 없었다.

《제길, 어째 돌격기가 안 오르는게야?!》

이때였다. 쩌렁쩌렁한 고함소리가 갑판을 짓눌렀다.

《모두 내 말을 들으라!— 돌격기가 오르기 전까지 모두 제자리들을 지켜라!》

지휘다락우에 올라선것은 손에 강궁을 틀어쥔 등개였다. 불편이 피자박이 된 등개는 무서운 눈길로 왜적들을 쏘아보고있었다. 픽픽 소리를 내며 조총탄알들이 날아와 주변의 기둥과 란간들을 뜯어댔지만 등개는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면서 어서빨리 반돌격을 알리는 신호기가 올랐으면 하고 좌수사가 타고있는 지휘선쪽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돌격기만 올라봐라. 저 왜장놈의 가슴팍에 기어코 활촉을 박을테다!)

하지만 돌격기는 안타깝도록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퇴각》하는 판옥선들의 사이로 거북선이 들어서는것이 보였다.

《반돌격이다!》

돌격기가 오른것은 바로 그때였다.

격군들은 힘을 합쳐 배를 돌려세웠다.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에 설치된 노는 근접거리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휘여들어있었기때문에 기동성에서 아주 효과적이였다.

거북선의 뒤를 따라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은 다시 시작된 밀물을 타고 반달형의 포위환을 형성하였다.

《화포를 발사하라!》

리순신장군의 군령이 신호기로 각 전함들에 전달되였다.

《사정없이 들부셔라!》

쾅, 콰쾅ㅡ

멸적의 포문이 왜적의 배를 겨냥하여 불을 뿜었다.

왜적들은 휘둥그래진 눈으로 판옥선들사이에서 슬며시 나타나는 거북선을 얼나간듯 바라보았다. 섬오랑캐들에게 그 배는 지금껏 본적이 없는 분명한 바다괴물이였다. 정신이 핑 돌 지경이였다. 그통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세례는 피할념도 못하였다.

《어어, 저… 저게 뭐야?! 괴물이다… 바다괴물이다!》

《천조대신님이시여, 살려주옵소서!》

갑자기 왜적들의 배에서는 일대 수라장이 펼쳐졌다.

(괴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사가께는 술기운탓인지 아니면 어디서 피여나는지 모를 매캐한 연기때문인지 자꾸만 앞이 흐릿해지는 제 눈을 손등으로 비벼가며 졸병들이 마구 손짓을 해대면서 고아대는 앞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엉, 저게 뭐야?!》

깜짝 놀란 가끼누마 마사가께는 하마트면 다락에서 아래로 곤두박질할번 하였다. 반돌격해오는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의 선두에 괴물같은 형국의 배들이 서있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외형만 보아도 퉁방울처럼 치뜨고 희번득이는 눈이며 쩍 벌린 아가리로 꾸역꾸역 토해내는 무시무시한 연기, 뿔이 돋은 룡대가리와 주름잡힌 목이며 거무스름한 몸뚱이를 온통 뒤덮은 날카로운 창끝들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바다괴물을 련상시키였다.

왜장 가끼누마 마사가께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조총을 쏘라!》

마사가께의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왜졸들은 저저마다 총

대들을 뽑아들고 거북선을 향해 꽝꽝ㅡ 철알들을 쏘아댔다.

하지만 거북선은 꿈쩍도 안하였다.

《으악, 들이받는다!》

쿵ㅡ 하는 둔중한 소리가 울리고 다락이 삐이걱 소리를 내며 갑판에 무너져내렸다. 그토록 큰 배가 통채로 움씰거렸다.

거북선에 들이받기운 호화스런 다락배는 어디가 깨졌는지 뿌지직ㅡ 뿌지직ㅡ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뚱이를 한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앗, 제길할!》

마사가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무거운 갑옷을 활활 벗어던지고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여들려고 하였다. 그때 어디선가 윙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게 뭔지 알아차릴새도 없이 자기 몸이 허궁 뒤쪽으로 나떨어지는것을 느끼였다.

《으악!》

가슴에 화살이 박힌 가끼누마 마사가께는 첨벙ㅡ 하고 물속에 떨어지고말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에 눈돌리는 놈도 없었다.

바다물을 꼴깍꼴깍 삼키며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마사가께… 그는 자기의 함대가 여지없이 박살나는 장면을 더는 지켜보기 괴로운듯 눈도 못 감고 깊디깊은 바다물밑 어두운 곳으로 조용히 사라져버리였다.

전멸의 운명에 빠져든것은 비단 가끼누마 마사가께의 함대뿐이 아니였다.

며칠후 당포, 당항포앞바다에서는 구로시마와 가메이의 대함대가, 한산도를 지나 견내량쪽에서는 와끼사까의 침략선들이 그리고 안골포어귀에서는 구끼와 가또의 싸움배 수십여척이 변변히 대항 한번 못해본채 조선수군의 공격앞에 차례차례 녹아나버렸다.

조선남해의 제해권은 완전히 조선수군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였다.

원래 도요또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계책이란 《수륙병진》 즉 바다와 륙지로 동시에 쳐들어가 일거에 목적을 달성해버리는것이였다.

《수륙병진》작전계획에 따라 왜적수군은 물밀듯이 북상하는 지상부대의 진격을 뒤받침하면서 조선서해로 깊숙이 들어가 륙군과 합세하여 전쟁을 결속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중임을 맡고있는 수군이 리순신장군에 의해 남해가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자 위협을 느낀 왜적륙군은 더이상 북상에 매달릴수 없었다. 평양성까지 강점하여 한껏 기고만장해졌던 섬나라오랑캐놈들은 더는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바다를 잃은 왜적들은 더이상 허망한 《수륙병진》작전계획에 미련을 품을수가 없었다. 수군의 좌절과 동시에 고립무원한 처지에 빠져든 륙지의 왜적들은 차지한 계선에서 완전포위에 들 위험에 빠져들었다. 해상보급로의 차단이란 곧 내륙깊이 쳐들어간 전 왜군의 완전포위와 나아가 혹독참담한 괴멸을 의미하였기때문이였다.

마침내 적들은 총퇴각을 시작하였다.

고니시 유끼나까와 가또 기요마사, 우끼다 히데이에와 구로다 나가마사, 모리 요시노리가 평안도와 함경도, 한성과 황해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략적요충지들마다에서 저저마끔 퇴각을 부르짖었다.

군침을 질질 흘리며 조선땅에 함부로 발을 들이밀었던 날강도 섬오랑캐놈들은 불과 1년도 채 버티여내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만을 산더미처럼 남긴채 꽁지가 빳빳해서 줄행랑을 놓았다.

관군과 의병들은 도처에서 도망치는 왜적들을 섬멸하기 위한 일대 추격전을 개시하였다.

욕심을 참지 못해 남의 나라 땅에 침략의 검은 발을 들이밀었던 왜적들에게 구차하게라도 살아남을 단 한가지 방도는 항복하는 길뿐이였다.

놈들은 휴전을 제기하였다.

쌍방간의 모든 군사행동을 잠시 중단하자는 놈들의 제의는 조정의 론난을 불러일으키였다.

바야흐로 전몰의 문턱에서 헤매는 왜나라야수들에게 시간을 줄것이 아니라 그 명줄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항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허나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량반관료배들속에서는 《강화담판》의 기회를 리용하여 어쩌면 이 전쟁을 끝장낼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론이 대두하였다.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리유로 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다음해인 계사년(1593년) 9월부터 전쟁은 일시 중지상태에 들어가게 되였다. 일체의 군사적행동들은 모두 억제되였다.

남해가의 좁은 지역에 몰켜든 왜적들은 감히 그밖으로 나올념을 못하였다.

이렇게 해를 넘긴지가 벌써 3년, 그 《전쟁의 일시중지》바람에 기약을 모르는 태평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게 된것도 사실이였다. 실지로 많은 사람들속에서 더는 전쟁이 없으려니 하는 말들이 신빙성을 띠고 전파되고있었다.

그러니 삼군(삼도수군)의 말직군교인 팔동이까지 삼보녀와의 혼사문제로 등개에게 성화를 먹이는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것이였다.

하지만 등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달랐다.

그렇게 쉽게 물러갈 왜적들이면 애초에 이 땅에 들어오지

조차 않았을것이였다. 저기 저 부산의 좁은 골목에 오골오골 틀고앉은 섬오랑캐놈들은 《강화담판》을 구실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치째진 상처를 혀바닥으로 핥으며 다시 달려들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승냥이들처럼 가쁜숨을 고르고있을뿐이였다. 멋모르고 들어왔다가 호되게 얻어맞고 물러선 놈들이라 소모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것이였다. 분명코 적들은 얼마간 힘을 축적하고나서 다시 밀려들것이 뻔했다. 단지 오늘일지, 래일일지 그것을 알수 없을따름이였다.

얼마전 한산도에 갔던 등개는 하루빨리 거북선무이를 다그치며 바다경계를 강화하라는 통제사 리순신장군의 명을 받으며 제 생각이 백번 옳았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옳거니! 리순신장군의 생각이 저러할진대 내 어찌 군복입은 사람으로서 추호인들 허망한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장군의 명을 목숨으로 받잡겠소이다!》

등개는 그날 리순신장군앞에서 이렇게 굳은 맹세를 다짐했었다. …

그러니 삼보녀와의 혼사문제도 당분간은 뒤로 미루는것이 옳은 처사라 생각되는 등개였다.

《자네 생각은 고맙네만 아직은 때가 아닌것 같애.》

《또 그 소린가. 임자 고집은 여전하구만.》

팔동이는 도리머리를 흔들며 혀를 끌끌 찼다.

《삼보녀가 애타하는 심정도 알아줘야지.》

그의 말에 등개는 말없이 서있었다.

륙지쪽으로 길게 뻗은 돌산도를 옆에 끼고 순찰선은 좁은 물목을 빠져 전라좌수영이 있는 려수반도쪽으로 배머리를 돌리였다.

2. 꽃잎을 닮은 해안

장공마을에서 북쪽, 그러니까 남해가의 돌산도가 려수반도쪽으로 머리를 기웃하고있을 때 그 목부위에 해당되는 바로 그곳에 펼쳐진 바다를 해녀들은 《꽃바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꽃바당이란 꽃잎을 띄워놓은 바다 혹은 꽃같은 바다라는 뜻인데 그 바다가 꼭 잎을 활짝 펼치고 쏟아지는 해빛을 받으며 즐거웁게 남실거리고있는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방불케 했기에 붙여진 이름이였다.

해녀들이 많이 살고있는 장공마을을 마주한 천마산에 올라보면 그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 이름그대로 그 바다의 해안은 꼭 네잎을 펼치고 바람에 하늘거리고있는 아름다운 꽃모양이다.

그러니 지금 해녀들이 물일을 하고있는 바로 그곳은 네잎중의 한잎을 닮은, 꽃잎을 닮은 해안이였다.

저녁바람이 선들선들 불기 시작한 꽃바당우에는 아직도 많은 부표(해녀들이 사용하는 부유기구)들이 둥둥 떠있었다. 그것들의 사이로 별과 바다물에 탄 해녀들의 둥실한 얼굴들이 쑥쑥 떠올랐다.

《푸우ㅡ》

물밖에 머리를 내밀자마자 한껏 참았던 숨을 내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올랐다. 그뒤를 따라 마치 누가 한꺼번에 더 많은 숨을 들이쉬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한껏 줄어들었

던 허파에 바람을 채우는 소리까지 쒸익ㅡ쒸익ㅡ 들려왔다.

금방 물밑바닥에 내려가 바위등에 찰싹 달라붙은 조개따위를 몇개 뜯어가지고 올라온 삼보녀까지도 숨이 그리웠던듯 허억ㅡ 허억ㅡ 소리를 내면서 걸탐스레 공기를 들이마셨다.

제법 차거워진 바다바람이 해녀들의 얼굴에 부대끼였다.

《날씨도 차지는데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꾸나!》

《그러자요, 형님!》

《나도 그럴래요!》

여기저기서 겨끔내기로 웨치는 소리가 들렸다.

해녀들은 물우에 떠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물장난을 치고있던 부표들을 끌고 기슭쪽을 향하여 헤염을 쳐나갔다. 길죽길죽한 박의 속을 파내여 물우에 둥둥 뜨게 만든 부표들에는 큼직한 그물망태가 하나씩 매여달려있었는데 그안에는 해녀들이 건져올린 바다의 선물들이 넘쳐날듯 가득가득 들어있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기슭에 다달으자 해녀들은 성큼성큼 물밖으로 몸들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물망태들을 훌쩍훌쩍 어깨우에 둘쳐메더니 찬바람을 피해 쉼터안으로 닝큼닝큼 날아넘어들어갔다.

쉼터래야 바다에서 일하는 해녀들이 얼어든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쪼이며 쉬는 곳으로서 흔히 주변의 막돌들을 주어다가 바람막이를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공간이였다.

차디찬 바다물에 몸의 온기를 여지없이 앗긴 해녀들로서는 그만큼 정겨웁고 아늑한 공간은 다시없어보이는 그러한 곳이였다.

삼보녀도 제법 묵직하게 담긴 그물망태를 어깨에 걸쳐메고 쉼터안에 뛰여들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에그, 추워라.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지려나?》

불을 쬐던 강씨가 누구에게라 없이 하는 말이였다.

강씨는 이 무리속에 유일한 대상군이였다. 대상군이란 해녀들속에서 자기들의 우두머리격인 해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가져다붙인 호칭이였다. 상군이니, 중군이니, 하군이니 하는것은 다 대상군의 아래였는데 그것은 물속에서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오래 일을 할수 있는가에 따라 나뉘여 붙여진다.

물론 륙지에서 떨어진 남해가의 작은 섬이였을망정 당시 그 어느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량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기 돌산도에서 상군이니, 중군이니 하는따위들은 모두가 다 천하디천한 해녀들속에서만 통용되였다.

하지만 워낙 목숨을 내걸고 하는 바다일인지라 해녀들에게 이런 도제관념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신분제도와 대등하다 할만큼 제딴의 위엄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고작해서 쉼터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것만이 아니라 해녀들의 일상사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까지 가지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따스한 불기운에 몸만이 아니라 얼어들었던 마음까지 스르르 녹아내려 이 푸념, 저 푸념을 쏟아내는 이 쉼터안에서 그들을 동정해주고 걱정해주며 조언을 주는것은 오로지 대상군과 상군들의 몫이였다.

물일을 할 때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게 상군이고보면 깊디깊은 해녀들의 마음속까지 헤아려야 하는 그 일에서는 상군이상 적임자가 없을듯싶었다. 그래서 그런지 대체로 상군들은 젖통이 불룩한 젊은 아낙네나 머리를 곱게 땋아내린 처녀들보다는 나이개나 있는 년장자들이 되군 하였다.

강씨도 원래는 이런 상군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하지만 수

년전 왜적들이 이 섬에 쳐들어왔을 때 대상군이였던 길가집 용이 할매를 원통하게 잃고난 후 해녀들의 한결같은 추천을 받아 하루아침에 대상군이 된 강씨였다.

성깔지고 괴벽스런 이 날바다우에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맡겨야 하는 대상군을 해녀들은 아무나 쉽게 정하지 않았다. 반드시 몇십년간 바다일에 숙련된 상군들중에서 덕이 있고 지혜로우며 포옹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 대상군으로 받들었다.

때문에 대상군이라면 해녀들의 무리속에서는 관가에서 나온 아전나부랭이따위는 갖다댈수도 없는 큰 위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게나 말이예요. 앞으로 몇날이나 더 물에 들어갈수 있을가요, 형님?》

《글쎄, 아마 기껏잡아 한 사나흘이나 되겠는지…》

강씨의 말에 해녀들은 머리속으로 무슨 속구구들을 해보는지 한동안 말들이 없었다.

바람을 등지고 앉은 덕에 잔등이 시려난 강씨는 한걸음 더 가까이 불무지쪽으로 다가앉으며 자기 그물망태에서 꺼낸 전복 몇개를 불속에 던져넣었다.

《이거야 어디 등짝이 시려서 살겠니. 아무래도 담을 좀 더 높여야 할가부다.》

이쯤되면 래일은 틀림없이 쉼터둘레의 바람막이가 조금 더 높아질게 뻔했다.

《하긴, 그런것 같기두 해요. 이 삼보녀의 어깨가 다 굽어든걸 보시라구요.》

좌중의 눈길이 자기에게로 쏠리자 쑥스러워난 삼보녀는 황급히 고개를 외로 틀었다.

뭇해녀들의 눈길에 치여 공연히 고운 가슴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삼보녀를 바라보는 강씨의 눈가에는 대견한 빛이 넘쳐 흘렀다.

어느모로 보나 흠할데가 없는 삼보녀였다.

솔솔 전복 구워지는 냄새가 쉼터안을 감돌았다.

《에그, 벌써 다 익은가보네. 어머니, 하나 드세요.》

삼보녀는 불무지안에서 잘 구워진 전복을 하나 골라서 강씨쪽으로 슬쩍 밀어놓았다.

《에그, 그래두 제 시고모가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저러는걸 좀 보지. 아들없는 사람 시샘나서 살수가 있나, 쯧쯧.》

《그러게 누가 아들을 낳지 말래나?》

《태우질 않는걸 낸들 어쩌노… 어디 가서 배워올수도 없는노릇이고… 그놈의 아들타령에 낳아놓은 계집애가 벌써 몇인고?》

《호호호…》 하며 모두들 즐거이 웃음꽃을 피웠다.

《형님은 좋겠수다. 저런 끌끌한 조카며느리감을 척 앞에 놓고 앉았으니…》

저마끔 한마디씩 던지는 걸죽한 롱질에 삼보녀의 두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에그, 그놈의 입심들 하구는 참…》

강씨는 민망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삼보녀를 감싸주느라 짐짓 좌중을 나무라는체 하였다.

《이거 좀 점잖게들 있지 못해, 왜 가만있는 애기를 못살게 굴어!》

그러나 좌중의 웃음소린 더 높아만 갔다.

강씨도 보매 매우 흡족한 표정이였다. 강씨는 볼수록 삼보녀가 마음에 들었다. 물일에서도 죽은 제 어미를 릉가하는 삼보녀였다. 어떻게 성질머리 사납고 밸통이 세기로 마을에 소문난 조카녀석 등개가 저렇게 맘씨곱고 인물곱고 품행

이 방정하여 아들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넘보는 우물집 삼보녀를 소리개가 병아리 덮치듯 훌쩍 나꿔채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노릇이였다.

(허 참, 닮기는 신통히 제 애비를 닮았다니까.)

등개를 보느라면 꼭 젊었을적의 제 오라버니를 떠올리게 되는 강씨였다.

등개의 아버지, 그러니까 강씨의 손우오라비는 남도일대에서 소문난 상씨름군이였다. 제아무리 황소같은 힘을 가진 씨름군이라고 하여도 그의 깍지걸이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씨름판에 그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좀처럼 살바에 발을 꿰기 저어할 정도였다. 그처럼 등개 아버지의 깍지걸이는 남도씨름판에서 유명하였다. 바위처럼 뚝하니 웅크리고있다가 불시에 달려들어 량팔로 상대방의 허리를 안아 조이는데 어지간히 근력이나 씀직해뵈던 사람들까지도 금방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러대며 괴롭게 몸을 비틀어대기가 일쑤였다. 한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한 다음에야 쿵ㅡ 하고 메치고나면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된것이였다.

등개의 아버지가 소를 끌고 마을로 돌아올 때면 온 동네가 떨쳐나 제일처럼 기뻐해주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으니 대개 그러한 사람들로는 생원나으리나 고을의 사또 혹은 륙모방치를 휘두르기 좋아하는 아전들이였다. 특히 아전나부랭이나 구실아치 같은것들은 용력이 센 등개의 아버지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였다.

장정 두세사람은 넉근히 둘러메칠 정도로 힘이 센데다가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그가 무서워 아전나부랭이들은 그 동네에서 감히 기를 펼수가 없었다.

그러니 속이 상하는것은 유독 강씨 혼자뿐이였다. 등개의

어미라는것은 등개를 낳구나서 일찌기 산후탈인가 하는 모진 병을 만나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었다. 강보에 싸인 등개를 아들맞잡이로 안아키운 강씨로서는 저러다 등개가 아비까지 없는 아이로 될가보아 늘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동네사람들은 모두 등개의 아버지로 하여 토호들의 가혹한 수탈과 아전들의 무지막지한 행패질에서 벗어날수 있어 좋았겠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언제건 잡아먹을 기회만을 노리며 승냥이들처럼 이발을 바득바득 가는 아전들과 토호들의 낯빛을 볼 때마다 강씨의 마음은 금방 싸늘하게 얼어드는것만 같았기때문이였다.

툭하면 《역적》이고 턱하면 억울한 《화적》루명을 쓰고 죽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새 말이지. …

그러다 종내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한번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 《리지팡이》라 불리우는 량반이 묵어간적이 있었다. 《리지팡이》라 해서 그 량반의 이름이 《지팡이》거나 벼슬이름이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의 벼슬이 사헌부 지평이였는데 사헌부라는것이 대개 벼슬아치들의 능력과 수완을 조사장악하며 온갖 위법행위들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있었던지라 사헌부에서 나온 지평이라면 현령이나 현감따위들은 비록 품계차이는 얼마 없었어도 아주 땅바닥에서 설설 기는 정도였다.

량반중엔 청렴한 관리가 드물다고 지평벼슬을 지내는 리씨라는 량반도 달고다니는 뒤소문이 좋지 못하였다. 그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리지팡이》라고 별명을 달아놓았던것이다.

리지팡이의 부친은 본래 어떤 지체높은 량반가문의 후손이였다고 하였다. 헌데 점차 가세가 몰락하여 한성 어느 세도가댁에 문객으로 밥술이나 축내게 되였는데 어떻게나 권모

술수를 잘 꾸몄던지 그것이 맞아떨어져 그 집의 딸을 정실로 맞게 되였다. 처가집덕분에 마침내 머리에 옥관자를 붙이게 된 리지팡이의 부친은 대궐 어느 구석짬에서 짭짤한 벼슬이나마 한자리하게 되였는데 결국 못난 그의 자식도 사헌부의 지평이라는 벼슬감투를 뒤집어쓸수 있게 되였다는것이다.

아무튼 그 모든 소리들은 다 그 리씨의 세도줄이 당당하다는 말을 보태주는 이야기뿐일따름이였다. 그래 그런지 그를 따라다니는 구중(벼슬아치들이 나다닐 때 시중을 들며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도 여간만 악독스럽지 않았다.

사또는 고을에 잠간 들린 리지팡이를 위해 풍악을 잡히고 요란한 주안상을 차려 내왔다. 기생들도 나오고 장고와 가야금에 맞추어 춤가락도 펼쳐지니 온 고을이 그야말로 떠나갈듯싶었다.

헌데 리지팡이를 따라온 구중 두놈이 술개나 얻어먹고 잔뜩 취한김에 다른 곳에서처럼 애꿎은 백성들의 가산이나 털어볼가 하고 방망이를 하나씩 옆구리에 차고 마을길로 들어서게 되였다. 아무렴, 큰 산같은 지평나으리가 뒤에 있는데 무지렁이같은 백성놈들이 어디라고 감히 맞선단 말인가.

비칠비칠 팔자걸음을 걷던 놈팽이들의 걸음은 어느 한 초가집의 사립문앞에서 멎게 되였다. 응당 열려있어야 할 문짝이 신수사납게 닫겨있었던것이다. 이에 화가 동한 놈팽이들은 냅다 발길로 문짝을 걷어찼다. 사립짝은 허줄하게 매달려있었는지 단방에 떨어져 마당에서 뒹굴었다. 놈팽이들은 그것을 보고 좋다고 히히닥닥거리였다.

방안에 누워 솔곳이 잠이 들었다가 와당탕하고 제 집마당에 뭐가 떨어져나가는 요란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란 그 집 할멈은 무슨 일인가 하여 벌컥 장지문을 열었다.

《못된놈의 로친이… 뻔히 안에 있으면서도 문까지 닫아걸어?》

할멈의 모습을 띄여본 놈팽이들은 제 몸도 가누지 못해 기우뚱기우뚱거리다가 아무렇게나 혀가 돌아가는대로 말을 내뱉아버리였다.

《문을 닫아걸고… 뭐… 술이라도 마셨나?》

시까스르는 놈팽이들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진 할멈은 《대체 뉘들이시오?》 하고 물으며 지팽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다.

《누굴 찾으시오?》

《누구긴 누구야, 로친이지…》

《로친, 나리님들이 모처럼 오셨는데 어서 주안상을 큼직하게 차리구래.》

《주안상이라니, 난데없이 웬 주안상 말이요?》

《주안상을 몰라? 그럼 알기 쉽게 설명해줄가. 술상을 차리란 말이야, 술상을!》

놈팽이들은 술잔을 들이키는 흉내를 내면서 서로 마주보며 좋다고 너털웃음을 쳤다.

《하루 세끼 목구멍가심할것도 변변히 없는터에 난데없이 술상이란 웬 말인고?》

《챠, 이 로친네 봐라.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인데…》

《되겐 뻣뻣하게 나오는데?》

《로친, 나리님들의 약을 자꾸만 올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빨리 술상을 차려.》

《아니면 술사먹게 피륙이라도 꺼내놓던가…》

《그거 그럴듯해. 어서 움직여, 이 늙다리 할망구야!》

놈팽이들은 무작정 빈털터리 할멈을 쥐여짜낼 잡도리였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죄다 가져가는수가 있어!》

말을 마친 그놈은 뜰안에 하나밖에 없는 장독곁에 다가가더니 독을 그러안고 끙ㅡ 하고 힘을 쓰는것이였다. 그러자 장독은 중심을 잃더니 옆으로 나자빠지였다.

《에구, 에구… 저걸 어쩌노!》

기겁한 할멈이 발을 동동 굴렀다. 허나 장독은 모난 돌에 얻어맞더니 딱ㅡ 하는 애처로운 소리와 함께 여러쪽으로 깨지며 무너앉는것이였다. 장국물이 쏟아져나와 사방으로 튀였다.

《이 불한당같은 놈들! 이놈들아, 백주에 이게 무슨 짐승같은짓이냐?!》

눈앞에서 전 재산과도 같은 귀한 장독이 맥없이 깨여져나가는것을 본 할멈은 두손으로 제 무릎만 털썩털썩 쥐여박았다.

《그래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신을 신은채로 우르르 집안으로 쓸어들어간 놈팽이들은 장농을 부시고 창호지를 찢다못해 아궁이에 달려들어 솥을 뽑아내려고 악을 써댔다.

바로 그때였다.

《이놈들!》 하는 벽력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놈팽이들의 몸뚱아리가 허궁 들렸다. 그리고는 어쩔새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부엌문밖으로 날려가 마당에 쿵쿵 소리를 내며 처박혔다.

할멈네 집 부엌문밖으로 성큼 걸어나오는것은 다름아닌 등개의 아버지였다. 할멈네 집에 불량배들이 뛰여들었다는 말을 듣고 앞뒤 안 가리고 한걸음에 달려온 그였다.

《아이쿠!》

《이크!》

장국물에 범벅이 된 흙바닥에 코를 처박은 놈팽이들은 연

방 죽는다고 소리들을 질러댔다.

《사람 죽인다!》

《사람 살려라!》

그러나 결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등개의 아버지는 흙바닥에서 뒹구는 두놈의 멱을 량손에 거머쥐고 번쩍 일으켜세우더니 힘껏 두놈의 머리를 서로 짓쪼아놓았다.

《아이쿠!》

《악!》

얼굴들을 싸쥐고 나자빠진 놈팽이들은 발바닥으로 땅을 두드리며 통곡소릴 질렀다. 그러더니 놈들은 더 있어야 매벌이밖에 안된다고 생각했던지 후닥닥 울밖으로 달아빼는것이였다.

몇걸음 뛰던 놈들은 갑자기 뚝 멈추어서더니 아직도 자기들을 노려보는 등개의 아버지쪽에다 대고 《네놈이 감히 이 어른을 건드려! 어디 혼나봐라!》 하고 소리를 치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등개 아버지가 몸을 움씰하는듯 하자 다시 덴겁하여 줄행랑을 놓았다.

그것을 울바자 한옆에서 빠짐없이 지켜보고있던 강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꼭 무슨 불길한 일이 하나밖에 없는 제 오라비에게 들이닥칠것만 같았다.

지금도 생각하면 강씨는 그때 왜 자기가 오라버니에게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한마디 말을 못해주었는지 뼈아프게 자책이 되였다. 하긴 머리꼭대기까지 화가 돋아있는 오라버니가 녀동생의 말이나 듣고 몸을 사릴 사람도 아니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일로 해서 등개 아버지는 관가에 붙들려가 몹시 얻어맞고 인사불성이 되여버렸다.

후에 들으니 간특한 구중놈들은 그때 관가로 뛰여가 리지

팡이라는 량반에게 어느 로친의 집에서 란동을 부리는 무뢰배 한놈을 붙잡다가 되려 그 주먹에 얻어터지기만 하였다고 고해바쳤다는것이였다.

제 하인들의 못된 버릇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리지팡이라는 량반은 감히 제가 부리는 노복들에게 불상놈이 손을 댔다는게 종시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그놈을 잡아들여 곤장맛을 좀 보여주라고 함께 있던 사또에게 말을 했다고 하였다.

빨래줄같은 리지팡이의 어마어마한 뒤배경에 환장을 했던 사또는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두억시니같은 아전들을 대여섯이나 풀어 등개의 아버지를 붙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죽도록 매를 안기게 하였다.

매를 들고나선것은 아까 혼쭐이 나 도망을 쳤던 바로 그 구중놈들이였다.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내여 내려치는 호된 매질에 억대우같던 등개의 아버지는 그만 반병신이 되여 담밖으로 내쳐지게 되였다.

강씨는 더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불을 놓은 다음 야밤삼경에 솔가도주하여 여기 돌산도까지 건너오게 되였다.

돌산도에서 그들을 받아준것이 바로 삼보녀의 할아버지인 곡진이였다. 곡진은 배를 뭇는 장공들을 담책한 장주였는데 등개의 아버지가 차츰 몸이 추서는듯 하자 그에게도 도목일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눈썰미가 빠른 등개의 아버지는 인차 한다하는 도목수가 되여 장주 곡진과 함께 리순신장군의 령에 따라 거북선을 뭇는 일에도 참가하게 되였다. 곡진은 늘 등개의 아버지와 붙어앉아 이것저것을 론의하였다. 등개와 삼보녀의 혼사문제도 바로 거기서 락착이 된것으로 강씨는 알고있었다.

강씨도 돌산도에 건너와서 해녀가 되였다. 그들이 눌러앉

은 동네가 장공마을이면서도 해녀마을이였던 까닭에서였다.

강씨의 권고로 등개는 철이 들면서부터 곡진장주의 밑에 들어가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등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어 부지런히 배무이장을 오가며 열심히 배웠다.

등개가 배무이장에 장공일을 배우러 가고나면 항상 그와 붙어다니던 팔동이는 함께 놀 동무가 없어 늘 심심해하였다. 장공일을 같이 배우자고 권고도 해보았지만 팔동이는 그런데 취미가 없어하였다. 그렇지만 등개와 떨어져있기가 아쉬워 늘 배무이장주변에서 빈둥거렸다.

이따금 강씨는 해녀들과 함께 바다로 오고가다가 배무이장 근처의 모래불에 홀로 멍하니 앉아있는 팔동이를 보게 되면 《너도 재간을 한가지 배우지 그러누나.》 하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였다.

그때마다 팔동이는 《난 그런거 안 배워요. 난 춤군이 될터예요.》 하고 주먹으로 코밑을 쓱 씻고는 거북바위쪽으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표주박사건》이라 불리우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팔동이는 마을에 공리(공물관계일을 맡아보던 아전)가 온것도 모르고 거북바위근처에서 혼자 너덜너덜 춤을 추고있었다.

《오라버니!》

자기를 찾는 부름소리에 뒤를 돌아본 팔동이는 대뜸 반색을 지었다.

거북바위에서 마을로 향한 소로길 변두리에 삼보녀가 서있었던것이다.

《아이, 오라버니는 그냥 춤을 추는데 힘들지도 않은가봐.》

팔동이는 얼굴에 뒤집어쓰고있던 탈바가지를 냉큼 벗어 등뒤로 감추며 멋적게 《헤헤—》 하고 웃었다.

《누군가 했더니… 또 등개에게 밥을 날라주러 가니?》

팔동이의 말에 삼보녀는 손에 들고있던 보자기를 뒤로 감추었다.

《흥, 누가 그 오라버니에게 밥을 날라다주나? 별소릴 다 듣겠네. 이건 배무이를 하느라 수고하는 할아버지랑 울 아빠에게 가져가는거거던. 그 오라버니밥은 그 집 고모님이 요즘 몸이 말짼것 같애서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가져다주마 하고 함께 쌌을뿐인걸.》

삼보녀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둘러댔다.

《됐어, 발이 저려하긴… 말을 들어보니 이제 너희네 집 하구 등개네 집이 사돈이 된다더라. 네가 등개의 새각시가 된다는 소리겠지 뭐. 등개의 새색시가 되면 삼보녀두 좋지 않아!》

팔동이는 삼보녀의 약을 올려주느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흉내까지 내보이였다.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럼 오라버닌 누구한테 장가드나? 그 탈바가질 붙들구 세월 다 보내게…》

삼보녀는 이렇게 톡 쏘아주고는 밥보자기를 옆구리에 끼고 배무이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삼보녀야, 가만…》

팔동이는 장난기가 동한 모양이였다.

《에, 한바탕 춤을 추었더니 막 목이 마른데 물이라도 한모금 주구 가려마.》

팔동이의 성화에 못이겨 삼보녀는 밥보자길 내려놓고 그 안에서 호리병과 함께 깜찍스럽게 생긴 표주박을 꺼내들었다.

《누가 곱단다고… 물까지 달래.》

삼보녀는 눈을 흘기면서도 표주박에 물을 따라 팔동이에게 내밀었다.

표주박을 받아든 팔동이는 한번 숨을 후ㅡ 하고 불어내고는 꿀떡꿀떡 소리를 내면서 걸탐스레 샘물을 목구멍으로 쏟아넣었다.

《햐, 거 물맛 참 시원하다.》

팔동이는 팔소매로 입술을 쑥 닦고나서 손에 들고있던 표주박을 다시 삼보녀에게로 내밀었다.

《등개 그 자식 팔자만은 정말 부럽단 말이야. 삼보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때 등뒤에서 갑자기 《에헴ㅡ》 하는 헛기침소리가 들렸다.

팔동이와 삼보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다.

처음 보는 낯선 총각이 호기심어린 눈을 해가지고 바라보고있었다.

《에헤, 늬들은 여기서 대낮에 뭣들을 하는게야? 어스크레한 놈들같으니라구…》

보매 나이도 어슷비슷할것 같은데 첫 대면부터 반말을 하는게 팔동이의 귀에 상당히 거슬리게 들렸다.

《이건 또 어디서 굴러온 놈팽인데 감히 여기서 큰소리를 치는게냐?!》

팔동이는 허리춤에 두손을 가져다붙이고 이렇게 대들었다.

《에끼, 고현놈! 공리어른의 자제분도 몰라보다니… 알고있어? 우리 아버진 공리야. 네놈들한테서 공물을 걷어들이는 큰어른이란 말이야!》

그제서야 팔동이는 불청객의 우아래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아하, 이제 보니 네가 그 공리네 집 <둘째멍청이>댔구나. 네 소문은 이미 익히 들었다.》

그 말에 둘째멍청이가 시뜻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너도 날 알구있구나. 그래, 난 공리네 집 둘째멍청이가 옳다. 사람들이 모두 날 그렇게 부르더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라.》

팔동이와 삼보녀는 어이없어 《하하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양을 본 둘째멍청이도 제가 말을 잘한줄 알고 덩달아 웃었다.

《가만, 네 손에 든게 뭐냐?》

둘째멍청이가 삼보녀의 손을 가리키였다.

삼보녀의 손에는 방금 팔동이가 물을 마신 그 표주박과 호리병이 들려있었다. 둘째멍청이가 가리키는게 바로 그 호리병이였다.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갖고있니? 아버진 내가 그걸 다치려면 못 다치게 하면서도 왜 그걸 너에게 주었을가? 분명 그안에 신선한테서 가져온 선단이 있다 그랬는데…》

삼보녀는 어이없어 뭐라고 말할지 몰랐다.

《이런 멍텅구리라구야… 그래, 동네 누렁개는 다 너네 개란 말이냐?》

팔동이도 어처구니가 없어하였다.

헌데 가만히 있던 둘째멍청이가 팔동이의 말을 듣고나더니 와락 달려들어 삼보녀의 손에서 호리병을 나꿔채는것이였다.

《어마나?!》

깜짝 놀란 삼보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거나말거나 둘째멍청이는 병마개를 열더니 호리병을 하늘로 쳐들고 그 구멍안을 들여다보는것이였다. 그통에 호리병안에 조금 남아있던 샘물이 쏟아져 둘째멍청이의 상판에 그

대로 들부어졌다.

찬물을 상판에 뒤집어쓴 둘째멍청이는 놀라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푸하하!》

한옆에서 그 모양을 구경하고있던 팔동이가 둘째멍청이가 노는 꼴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렸다.

《선단이 다 녹아버린 모양이구나, 괘씸하게!》

둘째멍청이는 애꿎은 호리병을 힘껏 집어던졌다.

《남의 호리병은 왜 던지면서 그래?!》

끈이 달린 호리병은 둘째멍청이의 손을 떠나 공중제비를 하더니 높은 나무가지에 걸려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왜 남의걸 함부로 집어던지는게야!》

화가 동한 팔동이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집어던졌다고 그래?》

금시 둘째멍청이는 울먹울먹해졌다.

《이런 반편이라구야… 누가 이런 자식을 여기까지 데려왔어?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해!》

팔동이는 손에 쥐고있던 탈바가지를 내흔들며 소리쳤다.

무섭게 생긴 탈바가지를 보자 둘째멍청이는 화닥닥 뒤로 두어걸음 물러나더니 쏜살같이 마을쪽으로 달아나버리는것이였다.

《어디서 저따위 반편이 다 생겨났을가!》

팔동이는 달아나는 둘째멍청이의 등뒤에다 대고 주먹을 내흔들어보였다.

《저걸 어쩌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호리병인데…》

삼보녀는 나무에 매달려 데룽데룽거리는 호리병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걱정마, 내가 내려줄게.》

팔동이는 일단 삼보녀를 안심시키고나서 호리병만 올려다보며 저걸 어떻게 내리울것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저 높은 곳까지 닿을만 한 막대기는 당장 없는것이고 그렇다고 신짝이 걸렸을 때처럼 돌팔매질을 할수도 없었다. 호리병이 박살이 날 념려가 있었다.

(나무에 오르면 되지 않아!)

그러나 팔동이는 나무에 오르는 재간이 통 없었다.

하는수없이 팔동이는 수를 쓰기로 하였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걸… 하지만 괜찮아. 가만, 삼보녀! 밥이 다 식겠는데 어서 할아버님께 가져다드리는게 어떻니? 호리병은 깜빡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다구 해라. 내가 인차 저걸 내려서 가지구 갈테니 걱정말고 먼저 가, 응?》

밥이 식는다는 소리에 삼보녀는 아쉬운대로 발길을 돌리였다.

《빨리 따라와야 해요!》

허나 팔동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삼보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팔동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무이장일이 끝나 마을로 돌아가던 곡진장주와 등개 그리고 등개 아버지와 삼보녀의 아버지가 삼보녀와 함께 거북바위에 도착했을 그때까지도 팔동이는 호리병을 내리우지 못하고있었다.

《너 아직도 그걸 못 내리웠어?》

삼보녀에게서 말을 다 들은 등개가 팔동이에게 나무라는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애를 써봤지만 난 안되겠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지 않구선 저걸 내리울 방도가 없어.》

팔동이의 입에서는 맥빠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한번 해볼가?》

곡진의 일행은 그들이 노는양을 지켜보기만 할뿐이였다.

등개는 장공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버릇처럼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자그마한 손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나무에 매달려 흔들거리고있는 호리병을 찬찬히 여겨보더니 엇!ㅡ 하고 힘을 주는것과 동시에 그것을 올려던지는것이였다. 호리병의 얇은 끈이 건너간 굵은 나무가지에 면바로 들이박힌 도끼날은 그 끈을 단박에 두동강내버렸다. 데룽데룽 매달려있던 호리병은 새파란 풀을 밟고있는 곡진장주의 발치로 뚝 떨어져내렸다.

《허허, 자네 아들 솜씨가 쓸만 하네그려.》

호리병을 받아든 곡진이 등개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원, 어른도… 애 듣는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등개의 아버지도 나쁘지 않는지 허허 하고 웃음을 지었다.

곡진은 품속에서 장도칼을 꺼내더니 아무 미련없이 호리병을 세로 자르기 시작했다.

《장주어른, 그건 왜 자르시오이까?》

등개 아버지의 물음에 곡진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네.》 하며 더 다른 말을 안했다.

잠간사이에 곡진의 손에서 하나의 호리병은 두개의 표주박으로 되여버렸다.

등개와 삼보녀를 가까이로 부른 곡진은 그들의 손에 그것들을 하나씩 쥐여주는것이였다.

《이것도 인연이니 잃어버리지 말고 고이 간수하도록 하여라.》

등개와 삼보녀는 각각 자그마한 표주박을 손우에 받쳐들고 얼떠름해 서있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싸고있던 어른들은 그 모양을 바라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혼기에 이른 처녀, 총각들이 표주박을 나눠갖는것은 돌산도에 전해져내려오는 오랜 풍습이였다.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표주박을 받은 처녀, 총각들은 그것을 깨뜨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소중히 간수하였다. 그러다가 정작 시집장가가는 날이 오면 그것에다 혼례술을 부어마시고는 백년언약의 상징으로 청실홍실로 묶어다가 신방에 걸어놓았다. 그러면 하나로 합쳐진 표주박처럼 두사람의 마음도 하나로 결합되게 되여 백년을 해로하게 된다고 믿고있었다.

이것으로 두집사이 오고가던 혼사말은 결판이 난셈이였다.

등개와 삼보녀는 그때부터 약혼한 사이로 되였고 이제 좋은 날을 받아 혼례식을 올리기로 되여있었다.

헌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왜적을 치러 나갔던 삼보녀와 등개의 부모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등개는 혼례식을 뒤로 미루고 전라좌수영의 수군이 되였다.

등개가 손에 들고나선것은 진짜 큰활이였다. 아버지를 닮아 힘이 장사인데다가 그동안 남몰래 수련해온 보람이 있어 등개의 활은 쏘면 쏘는대로 왜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어느 바다싸움때에는 호화스런 다락배우에서 거들먹거리던 적장까지 한대의 화살로 단숨에 쏘아맞힌 공을 세운것으로 하여 군교로 발탁이 된 등개였다. …

강씨에게는 생각하면 할수록 대견스럽기만 한 아들 같은 조카였다.

(란리나 가시구선 제꺽 조카놈 혼사를 매듭지어주어야지.)

강씨는 정이 넘친 눈길로 삼보녀의 이곳저곳을 더듬어보았다.

《에그, 형님은 안 가실려우?》

물일하는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던 상군 하나가 삼보녀에게 넋이 팔린 강씨에게 핀잔조로 이르는 말이였다.

《으응? 오, 가야지.》

강씨도 불기운에 김이 문문 피여오르던 물옷을 벗고서 바구니를 끄당겨 그안에 있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머, 저게 뭐예요?!》

난데없이 삼보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녀들은 《무얼?》 하고 되물으면서 삼보녀의 손끝이 가리키는쪽으로 고개들을 기웃했다.

멀리 수평선너머로 지는해가 보였는데 그를 배경으로 돛을 올린 배 한척이 빠른 속도로 해안 저쪽을 향해 접근하고있었다.

《저쪽으로도 배가 들어오는가?》

먼바다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를 여태 본적이 없는 해녀들은 의아한 눈빛들을 감추지 못하였다.

《저리로 배가 들어오는게 뭐가 신기해?》

《글쎄, 난 한번도 본적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

《아마 우리 수군배가 먼데까지 나가서 순찰하고 돌아오는 모양일테지. 얼마나 고생들이 많을고…》

《혹시 공물을 걷으러 오는 관청의 배가 아닐가?》

《무슨 공물타령이람.》

《에그, 혹시나 저게 오랑캐놈들의 배가 아니요?》

《원, 재수빠지게스리… 한산도인가 어디 어귀에선가 리순신장군이 길목을 턱 가로막고있는터에 제놈들이 예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여든단 말인가.》

《글쎄, 그건 그렇기도 한데…》

《게다가 지금은 <강화>인가 뭔가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는

가분데 어찌 왜적들이라고 함부로 나댕길텐가.》

《그 말에두 일리가 있어. 그 <강화>라는게 벌써 몇년을 끌어오고있으면서도 아직 결판을 못 냈지그래.》

《왜적들이 종시 항복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수작질을 부리고있는게 분명하다니까.》

《에구, 그저 냅다 치면 속이 시원하련만…》

《자자, 팔자에 없는 점들은 그만들 치소그려. 입방아만 찧다가 집식구들 저녁 굶기겠나?》

《옳아요,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지 그러다 정말로 식구들 저녁 굶기겠어요.》

해녀들은 이렇게 지껄지껄하면서 그동안 물이 쭉 빠진 그 물망태들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둘이 같이 나누어 들기도 해가지고 대상군의 뒤를 따라 마을을 향해 걸음들을 놓았다.

해가 저물어 어스름이 살짝 내려덮인 돌산도의 로송숲속으로 해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들려왔다.

3. 이제 남은 단 한가지

주변바다 야간순찰을 마치고 귀항한 등개는 팔동이에게 뒤일을 부탁하고는 곧 뛰어내려 수영쪽을 향하여 잰걸음을 놓았다.

(내가 너무 서두르는게 아닐가? 벌써 나왔을리 만무할텐데…)

등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통제사 리순신이 왜적의 길목을 막느라고 한산도에 나가있으니 전라좌수영의 일은 우후(수군통제사의 보좌관, 정3품의 벼슬) 리봉태가 좌지우지하고있었다. 헌데 우후는 통제사와는 사뭇 달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이 없었고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보는적이 드물었다. 그래서 번을 마친 군교들은 순찰보고를 위해 장시간을 대청아래서 기다리기가 일쑤였다. 우후의 게으른 습성을 잘 알고있는 어떤 군교들은 번을 서고는 제창 보고를 위해 수영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주막 같은데 들려 막걸리를 한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중천에 떠오른 다음에야 흐느적흐느적 수영으로 가군 하였다. 그렇더래도 착실하게 얼마동안을 기다릴게 뻔했다.

등개도 몇차례 그런 일을 당해보아 공연히 빨리 간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설사 또 헛걸음을 걷는다고 하여도 마음이 찔려서 다른 군교들처럼 주막집 같은 곳으로는 갈수가 없었다.

허나 웬걸, 수영의 대문은 이른아침부터 활짝 열려져있었다.

(오늘 아침은 해가 서쪽에서 떠올랐는가? 어떻게 된 일이야? 아하, 벼룩이에게라도 물려 새벽잠을 설치신게로군.)

이런 생각을 하며 수영안에 들어서니 정말 우후가 벼룩이에게 궁둥이를 물린 사람처럼 잔뜩 오만상을 찌프리고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있었다.

《교련관 등개 번을 마치고 돌아왔음을 아뢰오.》

등개는 섬돌앞에 다가가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사뢰였다.

《무어 다른 일은 없었느냐?》

처음부터 곱지 않은 눈으로 등개를 바라보고있던 우후가 뜨직뜨직하는 말이였다.

《별다른 징후는 없었소이다.》

《없었다? 없었단…말이지.》

우후는 등개의 보고에 뭔가 석연치 않아하는 태도를 나타내였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느냐?》

등개는 갑자기 물어보는 우후의 질문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갑자기 왜 이래?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분명 다른게 없었는데…)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이다.》

그러나 우후의 질문은 계속되였다.

《어제 밤엔 바다감시를 누가 했느냐?》

《팔동이와 제가 나갔었는데 둘이 번갈아 가며 번을 섰소이다.》

《그놈은 어째 아니 왔느냐?》

《지금 배를 지키고있소이다.》

그 말에 우후는 벌컥 화를 내였다.

《배를 지켜? 배나 지키라고 술한 화포들을 실어서 바다

에 내보낸줄로 생각하느냐? 도대체 네놈들은 번을 제대로 서기나 했어?》

(갑자기 웬 트집이야?!)

우후의 이 말은 좀 억울한 질책이였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들은 등개는 가슴 한구석이 섬찍해왔다.

《네놈들이 눈을 감구 졸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왜적들의 배가 수영앞에까지 버젓이 활개를 치며 들어온단 말이냐? 이래도 번을 제대로 섰다고 우길셈이냐?!》

《수영앞에 왜적배가 들어오다니… 그건 무슨 소리오니까?》

등개는 깜짝 놀라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걸 내게 물어? 이 괘씸한 놈같으니라구… 네놈이 밤새 자빠져 코고는새에 왜적들이 돌산도를 기습하였다. 이제 이 일을 어찌할것이냐?》

우후는 발까지 탕탕 구르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등개는 박달나무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골속에서 윙윙ㅡ 소리가 나는 바람에 우후의 말을 더이상 알아들을수 없었다. 오직 돌산도가 간밤에 왜적의 급습을 받았다는 그 말만이 귀속에서 뱅뱅 돌았다.

(돌산도가 급습을 당하다니?! 돌산도가… 아니, 그럴수 없다!)

등개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수영을 나와 포구까지 와닿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장작개비처럼 뒤잔등에 떨어지던 우후의 노성이 띄염띄염 머리속에 떠오를뿐이였다.

《이 끓는 기름가마에 빠뜨려 죽일놈들같으니라구… 썩 나가서 자초지종을 알아오지 못해?!》

《자네 무슨 일인가? 얼굴에 시커먼 구름장이 떠도네그려.》

배다리에 걸터앉아 등개가 돌아오길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팔동이 정신나간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다가오는 등개를 띄여보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았다.

《큰일났네. 돌산도가 간밤에 급습을 받았대.》

《뭐라구, 돌산도가?! 누가 그랬단 말인가?》

《왜구들이래.》

《임자 무슨 소릴 하나, 왜구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단 말인가?》

《글쎄, 나두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좌우지간 섬에 빨리 건너가 자초지종을 알아오라는 우후의 령이네.》

《큰일났군.》

팔동은 등개와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

삐걱삐걱 노를 젓는 소리만이 배전에 가득찼다.

배는 인츰 돌산도의 해안에 접근하였다.

등개는 배를 세우지 말고 해안을 따라 계속 노를 젓게 하였다. 왜적들이 돌산도를 덮쳤다면 분명 해안에서 멀지 않은 마을일텐데 200리가 훨씬 넘는 해안선을 발로 모조리 걸어본다는것은 우둔한 생각이였다. 게다가 여기저기 띠염띠염 마을들이 널려있어 급습당한 마을을 면바로 찾아내기가 조련치 않았다. 차라리 이렇게 해안을 훑으며 배를 몰아가느라면 어렵지 않게 그곳을 찾아낼것 같았다.

배전밖으로는 거무스레한 돌산도의 풍경이 흘러가고있었다. 말이 없는 돌산도는 묵묵히 바다우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번을 선다면서도 왜적의 침입 하나 막아내지 못한 등개를 날카롭게 쏘아보고있는듯싶었다.

(등개, 네가 그러고도 조선수군의 군교냐!)

등개는 차마 돌산도의 사람들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말 돌산도가 왜적의 기습을 받았을가?)

흔들거리는 배우에서 등개는 가능한 모든 가설들을 다 따져보았다.

계사년(1593년)에 진행된 그 유명한 진주성싸움이후로 싸움의 일시중단을 제기한 왜적들은 서생포ㅡ 거제로 압축된 남해안의 좁은 구역안에 들어박혀 좀처럼 나올념을 못하고있었다. 륙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이따금 산속에 숨어지내던 패잔병부대들이 굶주림을 참다못해 마을들에 내려와 략탈을 했지만 그것도 싸움의 일시중단 초시기에 일어난 일들이였고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모든것이 안정되여있었다.

멋모르고 밝은 세상에 용감하게 나왔다가 날아드는 신바닥에 대가리를 깰번 하고 깜짝 놀라 어두운 돌짬안에 몸을 숨긴채 숨만 할딱거리는 새앙쥐의 꼴이 된 왜적들은 피수들의 엄명에 의해 좁은 지역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있었다.

특히 왜적의 수군은 거제도 서쪽지경으로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있었다.

부산포에서 남해로 통하는 왜적들의 해상통로는 한산도에 나가있는 리순신장군에 의해 이미 든든히 차단되여있었다.

그러니 본거지가 있는 부산포에서부터 여기 돌산도까지, 그것도 한산도를 거쳐야만 하는 어려운 배길을 타고 왜적들의 기습이 단행되였다는것은 과히 믿기가 어려운 일이였다. 게다가 어제 밤엔 등개자신이 직접 그 배길에 나가 감시를 진행하지 않았던가!

(왜적이 거기로 기여들었다면 내 눈에 안 띄였을리가 없을텐데…)

등개는 종내 의문을 풀수 없었다.

물론 이 넓디넓은 바다에 배길이 하나밖에 없을수는 없다. 그러나 한산도의 주변은 이미 철통같이 봉쇄되여있다는것을

왜적들도 잘 알고있다. 그러니 돌산도를 기습한게 정말로 왜적들이 한짓이라면 기필코 한산도만은 에돌아왔을것이다. 남쪽으로 쑥 내려갔다가 먼바다를 돌아서 다시 북서쪽으로 배길을 잡으면 얼마든지 돌산도로 들어올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리유가 있었던걸가? 그곳은 파도가 너무 세차고 물결이 거칠어서 오래된 배군들도 가기 저어하는 곳이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다. 요행 큰 파도를 만나지 않고 천신만고를 해가며 돌산도근처까지 왔다손치더라도 바로 돌산도의 코앞에는 전라좌수영의 싸움배들이 기치를 펄럭이며 항상 대기상태를 갖추고있지 않는가. 이런 조건에서 돌산도에 선뜻 배를 댄다는것이 가당한 일이겠는가. 섬오랑캐들로서는 죽음의 구뎅이에 스스로 발을 들이미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거리일것이다. 간특하고 교활무쌍한 왜구들이 스스로 저 죽을 구뎅이에 제발로 기여들어왔다는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무엇때문에 왜적들이 돌산도를 노렸는가. …

모든 가설들을 정리해보면 이제 남는것은 단 한가지, 돌산도를 들이친 왜적들에게 죽음마저도 불사해야 할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는것뿐이였다.

4. 그럴만한 리유

《저기다!》

갑판에서 서성거리던 군사들이 갑자기 흥분하여 떠들기 시작하였다.

《저기 지붕이 무너진걸 좀 보게.》

《왜적들의 급습을 받은데가 바로 저 마을인가보군.》

배는 천천히 머리를 돌리며 장공마을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배를 멈춰라!》

제일먼저 뛰여내린 사람은 등개였다.

《등개, 어딜 가나?》

뒤에서 팔동이 찾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네 집에 제꺽 좀 다녀오겠네. 그동안 배를 부탁하세.》

등개는 손세까지 써가며 팔동이에게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는 마을 안쪽을 향하여 총총걸음을 놓는것이였다.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걸음을 재촉하는 등개의 마음은 뭐라 말할수 없이 뒤숭숭하였다. 그것은 언덕에 가려 정확히는 볼수 없었지만 어쩐지 지붕이 무너앉은 바로 그 집이 다름아닌 고모 강씨네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고모네 집은 멀쩡하였다. 집안으로 나드는 사람들만 없었다면 전혀 아무 일도 없은듯싶을 정도였다.

등개는 고모를 부르며 퇴마루로 뛰여올라갔다.

퇴마루에 서있던 아낙네들이 서둘러 등개에게 자리들을 내주었다.

웅기중기 모여선 사람들을 비집고 큰방으로 들어서던 등개는 뜻밖의 광경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머리에 물수건을 댄 강씨가 두터운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그곁에서는 아래마을 의원이 두눈을 감고 강씨의 맥을 짚어보고있었다.

《웬 일이예요?!》

등개는 자리에 풀썩 앉으며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는 조카를 바라보며 강씨는 말을 못하고 머리만 조금씩 끄덕여보였다.

《자네 고모가 칼에 맞았다네.》

옆에 앉았던 의원의 말이였다.

《뭐라구요? 어딜…》

등개는 고모가 덮고있던 이불을 와락 들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원의 만류로 그렇게는 못했다.

《상처가 썩 깊으니 바람이 들면 안되네. 옆구리에 칼을 맞았는데 다행히 요긴한덴 비껴간 모양일세. 피를 많이 흘려서 기가 허해졌은즉 일체 말이랑 시키지 말라구.》

조카를 바라보는 강씨의 두눈귀로 주르르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등개는 의원의 말을 들으며 고모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두손으로 꼼꼼히 닦아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등개로서는 자기를 키워준 고모가 곧 어머니같은 존재였다. 평생 과부로 늙어온 강씨에게도 등개 역시 친아들맞잡이였다. 그런만큼 강씨는 강씨대로, 등개는 등개대로 못내 가슴이 아팠다.

등개는 고모의 손목을 꼭 쥐고 한동안 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모가 그만 고개를 끄덕이는것을 보고서는 결연히 일어나 나오고말았다.

밖에서는 어느새 모여온 군졸들이 여기저기 몰켜서서 마을에 덮쳐든 참혹한 재난을 저들도 함께 뒤집어쓴듯 반나마 지붕이 내려앉은 근처의 집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있었다.

《저기 저 불탄 기둥에 매여달린 치레거릴 보라구. 정말 세상에 악귀가 따로 없겠네그려. …》

《이거야 어디 피가 끓어서 견딜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원쑤를 속시원히 갚아준단 말인가?!》

군졸들은 주먹들을 불끈 쥐고 열변을 토해내였다. 이즈음이면 밥짓는 연기에 코를 벌름벌름거리며 《누구네 안댁이 오늘은 손맛을 뵈는게로군. 아하, 오늘 그 집에 먼 사돈령감이 온다 했거니!》 하며 걸죽한 롱담이랑 곧잘 주고받던 군졸들이였던지라 마을이 화를 당한것이 꼭 자기들때문인듯 밀려드는 죄책감에 머리들을 차마 들수 없어했다.

가슴이 쓰리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밤 바다경비를 맡았던 등개로서는 금시 심장을 칼로 토막토막 저며내는듯 했다.

등개는 삼보녀가 몹시 걱정이 되였다.

(삼보녀는 무사할가? 장주님 집이랑은 어떻게 되였을가?)

삼보녀네 집쪽을 바라보던 등개는 그만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다.

저기 불에 타다만 기둥이 기웃하고 넘어간 곳은 분명 삼보녀네가 살고있는 그 집이였다.

등개는 서둘러 그쪽으로 뛰다싶이 발걸음을 옮기였다.

반나마 허물어진 삼보녀의 집뜨락엔 괴괴한 정적만이 흐르고있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인기척이란 도무지 느낄수가 없었다.

시허연 재무지가 등개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혹시 삼보녀가 왜적들에게?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등개는 머리를 흔들어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다. 삼보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고 믿고싶었다.

그러나 등개는 삼보녀의 집마당안으로 선뜻 들어설수 없었다. 깨여진 동이쪼박들이며 땅바닥에 나딩구는 모든것들이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게다가 깨여진 그 동이쪼박들에는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검붉은 피방울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것이 아닌가!

등개는 이제 한걸음만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재앙을 직접 목격할것만 같았다.

등개의 두발은 땅우에 녹아붙은듯 떨어질줄 몰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 저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삼보녀가 홀로 쓰러져 신음하고있는듯 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등개는 참다못해 땅바닥에 스며들고있는 피자욱을 멀찌감치 에돌아 마당을 가로질러 토방앞에까지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없이 자기를 올려다보고있는 문고리를 조심히 잡아 슬쩍 당겨보았다.

갑자기 덜컹ㅡ 하고 뭔가 내려앉는 소리가 나더니 돌쩌귀가 떨어진 방문짝이 통채로 등개쪽으로 넘어지는것이였다.

얼결에 두손으로 문짝을 붙든 등개는 쏟아져내리는 불먼지에 한동안 눈을 감지 않으면 안되였다. 문짝을 한옆으로 치우고 방안을 둘러보니 예상그대로 안은 온통 수라장이였다. 장농이란 장농은 모조리 열려져있고 집안의 물건들은 몽땅 바닥에 쏟아져있었다. 무엇 하나 제자리에 놓인것이 없이 죄다 뒤집히고 널려져있었다.

(이건 분명 왜적들이 한짓이다!)

등개의 눈앞에는 미친듯이 달려들어 재물을 략탈해가는 난

쟁이 섬오랑캐무리들이 금시 보이는듯싶었다.

(악귀같은 놈들! 삼보녀의 집안을 이 꼴로 만들다니! 헌데 장주어른과 삼보녀는 어데로 갔을가? 설마…)

등개는 또다시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불안감만은 어쩔수 없었다.

놈들의 기습이 한밤중이나 이른새벽에 진행되였으면 그 시간에 삼보녀는 분명 할아버지와 집에 있었을것이였다. 혹시 우물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왜적이 오는것을 보고 몸을 피했을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바로 삼보녀의 집앞에 있는 우물을 보고서는 거기에도 미련을 걸수가 없었다. 분명 삼보녀는 피할 겨를이 없었을것이였다.

하지만 등개는 그런것을 믿고싶지 않았다. 이건 오직 제 생각일뿐이라고만 단정하고싶었다. 《그렇지만 혹시…》 같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하고싶지 않았다.

토방에 풀썩 주저앉은 등개의 머리속에는 삼보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 삼보녀!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등개는 어제 밤 바다순찰을 잘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였다. 여기 돌산도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돌렸더라면, 우후가 뭐라고 하든 귀항길을 이쪽으로 잡고 바다감시를 더 철저히 하였더라면 그까짓 왜적배쯤이야 단숨에 해치울수 있었을텐데…

모든것이 다 자기의 잘못때문인듯싶었다.

(삼보녀…)

삼보녀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등개의 가슴속에 북받쳐올랐다.

터벅터벅 지친 발을 끌고 삽짝문앞을 조용히 스쳐지날즈음이면 어느결에 알았는지 부엌문을 열고 나와 방긋이 웃어주

던 삼보녀. 그가 떠준 샘물은 왜 그리 시원했으며 그가 웃는 웃음은 왜 그리 정다웠던가!

왜적에게 뺏겨서는 안될, 뺏길수도 없는 자기만의 삼보녀였다.

삼보녀를 생각하느라 한껏 충혈된 등개의 눈에서는 금시라도 시뻘건 불길이 막 쏟아져나올듯싶었다.

등개는 더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아니,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사고는 바로 이 순간에 급히 정지되여버린것 같았다. 뒤따라온 군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마디만은 귀에 쏙 들어오는것이였다.

《쪽발이들이 웬 목적으로 예까지 왔다는거요?》

이것은 키가 너무 꺽두룩해서 《창대》라고 별명이 붙은 군졸의 목소리였다.

《주릴 틀 놈들같으니…》

말끝마다 《주릴 틀 놈》이라고 버릇처럼 외워 《주리대》라 불리우는 오씨의 목소리도 들렸다.

등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옳다, 섬오랑캐종자들은 모조리 잡아다 주릴 틀 놈들이다. 아니, 사지를 찢고 열길 바다속에 처넣어도 씨원치 않을 놈들이다!)

누군가 등개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구.》

돌아보니 팔동이였다.

어릴적 친구이며 바다싸움에서 세운 공로로 리순신장군에 의해 자기와 한날한시에 군교로 발탁이 된 팔동은 등개가 마음을 의탁할만 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였다.

보매 팔동이는 모든것을 다 눈치챈 모양이였다.

《나약해지면 안되네.》

등개는 그러고싶지 않았다. 삼보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꽉 차올랐다. 그러자면 우선 왜적들이 돌산도를 급습하던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야만 하였다.

《의원어른!》

자기 생각에 옴해있던 등개는 고모네 집에서 의원이 나오는것을 띄여보고는 곧장 그리로 달려갔다.

《의원어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오이다.》

《뭐 말인가? 아, 자네 고모의 병세 말이지? 아직은…》

《아니, 그게 아니라…》

등개는 의원의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겠소이다.》

《글쎄, 자세한건 나도 모르지.》

의원은 절레절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래두 아는껏 좀 가르쳐주사이다.》

등개의 간절한 청에 마지못해 의원은 잠시 뭔가 더듬는듯 하더니 뜨직이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이지… 이른새벽녘쯤인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동네개들이 요란스레 짖고 하더니 삼보녀네 집 지붕에 불이 이는게 아니겠나! 바삐 와보니 삽짝문곁에 자네 고모가 쓰러져있더구만. 헌데 옆구리로 피가 배여나와 옷이 화락하니 젖어있었는데 가만 보니 아직 숨이 붙어있더란 말일세. 그래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 데려다 눕히고서 상처를 보았는데 섬오랑캐들의 칼에 찔린 상처가 분명터구만. 헌데 상처는 과히 깊은데 정통을 찌르지 못한것을 보니 칼쥔 놈이 서투르지 않았으면 몹시 당황해있은게 분명해. 아무튼 자네 고

모는 명이 긴 사람이니 인츰 회복이 될걸세. 내 의술은 높지 못해도 그것만은 장담할수 있네. 안됐네, 내가 알고있는건 이뿐일세.》

의원은 말을 마치고 몇오리 안되는 턱수염을 한번 내리쓸었다.

《그렇게 되였군요.》

등개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저, 혹시 우물집 장주어른과 삼보녀는 보지 못했소이까?》

《우물집? 글쎄, 그앤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네. 참, 그러고보니 그 집 곡진령감도 안 보이데…》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가요?》

《웬걸, 더러 있었네만 저 동쪽으로 난 숲속길에 사람들이 몰려갔다가 칼에 맞은 그들을 다 업어왔다네. 곡진령감과 그의 손녀는 죽은 사람들속엔 분명 없었어. 그래, 집엔 가봤나?》

《예, 그 집엔 누구도 없었소이다.》

《변고로다. …변고로다.》

의원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아래마을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한옆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팔동이가 등개에게 다가왔다.

《산 사람속에도 없고 죽은 사람속에도 없으면 도대체 귀신이 업어갔단 말인가?》

《왜적들에게 랍치당한것이 분명해.》

《왜구들이 그들을 어째 랍치한단 말인가?》

《가만 보니 재물이나 략탈하겠다고 쳐들어온 놈들같지가 않아. 뭔가 딴 목적이 있는게 분명해.》

《딴 목적? 자네 약혼녀 하나를 업어가겠다고 예까지 들어온단 말인가?》

《삼보녀가 아니라 곡진장주를 노린것 같애.》

《뭐, 곡진장주를? 곡진장주가 뭘 어쨌는데?》

등개는 갑자기 한손바닥에 다른 주먹쥔 손을 쩍 하고 쳤다.

《그래, 맞았어. 놈들에겐 그럴만한 목적이 있었던게야.》

《?!…》

《자네 생각해보라구. 놈들이 부산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산도를 에돌아야 하고 우리 순찰선을 피해야 해. 그리구 어떻게 발이 맞아서 예까지 온다쳐도 코앞에 있는 좌수영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동해야 했을걸세.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안되면 놈들은 제 목숨이 위태롭다는걸 뻔히 알거란 말이야. 난 지금까지도 왜적이 돌산도를 기습했다는 말을 듣고 어째서 그랬을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네. 굶주림을 참지 못해 략탈이나 하려 했다면 위험천만한 여기가 아니더라도 더 손쉽게 뺏어먹을데를 얼마든지 찾을수 있었을거란 말이야. 그리구 다른 집들은 모두 무고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 왜적들이 략탈이나 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보는건 필경 잘못된 생각일세. 놈들은 략탈을 목적으로 여기에 오지 않았어. 놈들에게는 바로 여기가 아니면 안되는, 꼭 여기를 쳐야만 하는 그럴만한 일감이 있었네. 아까까진 그게 뭔지 명확치 않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점점 선명하게 느껴지네그려. 그 목적이란, 일감이란 분명 곡진장주였어.》

등개는 분한듯 옆에서 굴러다니던 나무가지를 하나 주어들고 뚝 하고 분질러버리였다.

그러나 팔동은 아직도 리해를 못하겠다는듯 한 표정이였다.

《곡진장주라… 곡진장주가 뭐 어쨌단 말인가?》

《챠 이런… 자네 벌써 잊었나, 곡진장주는 리순신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어낸 첫 사람들중의 한분이란걸?》

그제서야 팔동은 제 무릎을 철썩 갈겼다.

《그러니까 놈들이 노린것이 곡진장주와 우리 거북선이였단 말인가?》

팔동이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바로 그거야. 놈들은 곡진장주가 거북선을 만드는데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은것 같애.》

《아하, 곡진장주를 붙잡아감으로써 더는 우리가 거북선을 못 만들게 하자는…》

《틀림이 없을걸세. 우리는 못 만들게 하고 제놈들이 만들어보겠다는 수작일지도 모르지…》

《헤엥! 제놈들이 거북선을 만든다구? 어림도 없는 소리. 아무리 그래도 곡진장주가 그렇게 호락호락 비밀을 대줄것 같은가!》

《그러기에 삼보녀를 데려간 모양이야. 배무이도 모르는 삼보녀를 놈들이 왜 랍치해갔겠나? 보나마나 삼보녀를 미끼로 곡진장주를 겁박하자는 수작일테지.》

《글쎄… 그런게 아닐수도 있어. 그냥 곡진장주를 붙들어가자니 한그물에 넣었을수도 있지.》

등개의 주먹에서 뿌드득ㅡ 하는 소리가 났다.

팔동이는 위로가 될 말을 찾지 못하여 등개의 어깨를 쓸어주기만 하였다.

《정말로 일이 그렇게 된것이라면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게 분명해. 그러니 신심을 잃지 말라구.》

말이나마 고마웠다.

등개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팔동이, 자넨 어서 수영으로 돌아가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아뢰주게. 난 마을주변을 좀더 둘러봐야 할것 같네.》

팔동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구. 삼보녀는 꼭 살아있어.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게 돼.》

이렇게 말하고난 팔동은 일어나서 배가 있는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5. 돌아온 추격선

추격선이 돌아온다는 통보가 왔다. 돌산도가 왜적에게 기습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후가 등개네보다 한발 먼저 출발시켰던 전라좌수영의 협선이였다.

등개는 급히 몸을 돌려 꽃바당쪽 포구로 잰걸음을 놓았다.

멀리서 한척의 좁고 빠른 배가 물결을 일구며 포구로 접근하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돛을 걷은 배는 포구가까이로 들어서더니 속력을 떨구었다.

이윽고 배가 멎어서고 배다리 있는데로 사다리가 드리워졌다.

등개와 함께 섬에 남았던 군졸들은 우ㅡ 하고 그리로 몰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군졸들을 아무나 붙들고서 저마끔 따지듯 물었다.

《제기랄것, 그 난쟁이종자들이 어디로 내뺐는지 코빼기도 볼수가 없었소!》

《이런 륙실헐…》

놈들을 놓쳐버린 군졸들은 격분에 차서 서로 언성들을 높이며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창대가 들고있던 창자루끝을 땅에다 쿡 찍으며 금방 배에서 내린듯 한 군졸들에게 생억지를 부리였다.

추격선에 탔던 군졸들은 마치도 섬오랑캐들을 놓친것이 저들의 죄인듯 긴 목에 피대를 돋구며 따지고드는 창대가 못마땅해 볼들이 부어가지고 두덜거리였다.

《젠장, 쪽발이들이 내빼는데서야 여간 암팡져야 말이지.》

《우리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는걸 잘 아는 놈들이니 별 방법이 있을라구.》

《그래두 내가 말하던 그쪽으로 뛴게 틀림없는것 같네. 아까 그 랑자도 그 어방을 가리키지 않던가!》

낯이 시꺼먼 군졸이 뾰족수염이 돋은 턱을 들어 물결에 삐걱거리는 배다리쪽을 피끗 가리키며 넌지시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등개는 저도 모르게 그 군졸이 가리키는 배다리쪽을 바라봤다.

거기에서는 두명의 군졸이 들것을 들고 조심스레 사다리를 내려서고있었다. 그들의 어깨너머로 다른 군졸들이 든 두번째 들것이 보였다.

《누군가?》

들것들이 사다리를 내려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주위에 엉거주춤 모여선 군졸들속에서 제나름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아까 바다에서 건져올린 그 랑자 같은데…》

《어디 사는 애기라나?》

《여기 돌산도 아니면 근방 어디 가까운 섬일테지.》

《물일하던 애기같지 않던가?》

《노나 젓던 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말에 함께 섰던 격군 한명이 벌컥 성을 내였다.

《모르긴 왜 몰라! 난 저 랑자가 누군지 알구있네.》

《엉, 누군데?》

《임자네들 생각 안 나나? 곡진장주네 집 큰애기말이야.》

《그럼, 저 애기가 곡진장주의 외손녀…》

그제서야 군졸들은 털썩ㅡ 하고 무릎들을 쳤다.

《옳거니, 곡진장주에게 이쁘장한 손녀딸이 하나 있었지.》

《있다뿐인가! 남해일판에서야 그만한 인물이 더는 없다던데…》

군졸들은 멀어져가는 들것을 속이 상한듯 바라보면서 눈살들을 찌프리였다.

《그래두 저렇게 끌려가던 도중에 내려뛰기라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 놀라긴 또 얼마나 놀랐을고…》

군졸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에익, 모조리 오라를 지어 주릴 틀어버릴 놈들같으니!》

어느결에 곁에 와 섰던 주리대가 참지 못하고 두주먹을 내흔들었다.

저마끔 떠들어대는 군졸들과 얼마간 거리를 두고 서있던 등개가 그들의 입에서 튀여나오는 곡진장주의 손녀라는 소리에 펀뜻 정신이 들었다.

(곡진장주의 손녀라니?! 그럼 삼보녀가…)

등개는 자기앞으로 다가오는 들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다음순간 등개는 들것에 실려오는 랑자가 삼보녀가 옳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잠간 멈추거라.》

등개는 손을 들어 들것을 들고 가던 군사들을 멈춰세웠다.

모두의 눈길이 등개에게 쏠렸다.

등개는 총총걸음을 옮겨 들것옆으로 다가갔다.

《아니?!…》

등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비슷한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과연 들것우에 누워있는 이 인사불성의 랑자가 삼보녀란 말인가?!

마구 풀어헤쳐진 머리칼이며 창백해진 두볼…

등개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야 정신을 잃고있는 이 랑자가 전혀 삼보녀같지 않았다.

그러나 등개는 그가 바로 삼보녀인것을 육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평소에 너무도 많이 보아온 삼보녀의 아름다운 모습… 바다에서 금방 나와 늘 함초롬히 젖어있던 머리칼이며 가볍게 내려덮인 길다란 속눈섭과 그리고 이악한 그의 성미처럼 꼭 다물려있던 물앵두같은 빨간 입술이 무척 낯익기때문이였다. 아니, 다름아닌 삼보녀의 머리칼이고 삼보녀의 속눈섭이며 삼보녀의 입술이라는것을 등개는 깨달았다. 그렇다, 이 랑자는 삼보녀가 분명했다.

《삼보녀!》

등개는 군졸들앞이라는것도 잊고 약혼녀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렀다.

《삼보녀, 정신차려!》

그러나 삼보녀는 등개의 애타는 부름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것 같았다.

등개는 죽은듯 누워있는 삼보녀를 흔들어대며 더 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삼보녀! 나야, 나… 등개란 말이야! 어서 정신차려!》

그랬으나 맞붙어있는 삼보녀의 두눈섭은 여전히 떨어질줄 몰랐다.

등개는 벌써 제정신이 아닌듯싶었다.

《군교나으리, 빨리 의원댁부터 가야 할듯 하외다.》

나이든 군사가 그 광경을 보다못해 이런 말을 비쳐서야 등개는 훌떡 제정신을 차리였다.

등개는 부리나케 군사들을 재촉하여 아래마을 의원네 집으로 줄달음을 놓았다.

숨이 턱에 닿아 웨치는 등개의 부름소리를 들은 의원은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여 버선발로 뛰여나와 대문을 열었다.

《의원님, 의원님! 이 일을 어쩌면 좋소이까?》

등개의 얼빠진 소리를 들으며 삼보녀의 맥부터 짚어보던 의원이 《어서 썩 땅바닥에 내려놓지 못해!》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엄청나게 크게 지른 의원의 고함소리에 얼이 나간 군사들은 영문도 모르고 들것을 흙바닥에 털썩 내려놓았다.

의원은 어정쩡하여 서성대는 군사들을 밀쳐버리고 들것에 달려들어 그것을 와락 뒤집어버렸다.

그 서슬에 들것우에 누워있던 삼보녀가 흙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나떨어졌다.

《아니, 이게 무슨짓이요?!》

등개가 와락 달려들어 의원의 멱살을 거머쥐였다.

그러나 의원은 막무가내였다.

《흥분하지 말게. 이 애기를 살리고싶거들랑 어서 물러나라구.》

의원의 저력적이고 묵직한 목소리에 등개는 어찌할지 몰라 눈만 끔뻑거렸다.

《비키래두!》

재차 밀어버리며 하는 의원의 말에 등개는 의원의 멱에서 욱였던 손을 풀며 뒤로 성큼 물러섰다.

의원은 등개 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엎어진 삼보녀의 등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두손바닥으로 잔등을 아래

서 웃방향으로 힘을 주어 쑥쑥 밀어주기 시작하였다.

《다들 대문밖에 나가 기다려. 쓰지 못할 놈들, 초보적인 처치방이야 알고있어야지!》

대문밖에 물러난 등개의 귀전에는 여전히 두손바닥에 힘을 주어 삼보녀의 잔등을 문질러대는 의원의 끙끙대는 소리가 가슴을 조여대듯 들려왔다.

(도대체 뭘 이리 꾸물대는거야?)

등개는 채 닫기지 않은 문틈으로 대문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땅바닥에 엎어진 삼보녀는 의원의 몸집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제길할!)

그때 갑자기 안에서 윽윽ㅡ 하는 소리가 났다. 죽은듯 기척이 없던 삼보녀의 입으로 쿨럭쿨럭 짠물이 쏟아져나오는것 같았다.

목구멍을 통해 밖으로 쏟아져나오는 짠물때문에 숨이 꺽막혀 한동안 모지름을 쓰던 삼보녀는 마지막물까지 깡그리 뱉아내자 크게 한두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더니 다시금 풀썩 쓰러지는것이였다.

《거기 누가 없느냐?》

호기찬 의원의 부름소리가 들렸다.

《네ㅡ》

부엌쪽에서 길게 끄는 애된 계집애의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의원은 쪼르르 달려나온 계집애에게 《어서 더운물을 떠다가 세수를 시켜라!》 하고 분부하였다.

계집애는 《알았사와요.》 하고 잽싸게 말하고는 쓰러진 삼보녀의 머리칼을 귀뒤로 슬쩍 넘겨보더니 냉큼 일어나 방으로 뛰여들어갔다.

《자, 이젠 어서 병자를 집안으로 들이세.》

의원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등개가 벌컥 대문안에 들어섰다.

그런 그의 놀란 눈이 사발만큼이나 커졌다.

아직 정신은 차리지 못하였지만 방금전까지 하얀 백지장처럼 질려있던 삼보녀의 두볼에 살짝 피기가 돌고 제법 가르랑거리는 숨소리도 들리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이까?!》

《어떻게 되긴, 가뜩이나 물을 잔뜩 먹어놔서 숨도 쉬지 못하는데 반듯이 눕혀놓고 달려오다니… 어쩌자는게야, 얼굴색이 창백한걸 보고도 몰라? 눈들은 다 뜸자리인가?》

의원은 등개며 군사들을 한그물에 넣고 마음껏 질책을 해댔다.

등개가 떡판같은 제 잔등을 들이밀어 삼보녀를 업어서는 안방에 들여다 조심히 눕혀놓았다.

더운물이 담긴 소래를 든 계집아이가 사뿐사뿐 퇴마루로 걸어왔다.

《다른 사람들은 가보아도 되겠네.》

의원의 그 말에 등개가 군사들쪽에 사의를 표했다.

《이크, 이건 또 뭔가?》

방안으로 향하던 의원이 퇴마루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들것을 보고 깜짝 놀래였다.

《아뿔싸!》

등개는 그제서야 배에서 내리워지던 또 하나의 들것생각이 났다.

《바다에서 함께 건져낸 사람같소이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오나 아무튼 정신을 차리면 까닭을 알게 될것이니 명부터 구하고봅시다요.》

의원이 다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먼저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도 사내는 물을 과히 먹지 않은 모양이였다. 하지만 바다물에 오래동안 떠있은탓에 실신한 상태였다.

등개가 총각을 둘쳐업고 웃방으로 올라가 계집애가 펴놓은 이부자리우에 조심히 눕혀놓았다.

《이애, 아무 옷이나 갈아입혀라.》

《네.》

계집애는 고개를 까닥 숙여보이고 사람들이 나가자 방문을 소리없이 닫았다.

퇴마루로 나온 등개는 퍼그나 시간이 흘렀음을 느끼고 의원에게 인차 다시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그 집을 나왔다.

등개가 다시 의원댁에 찾아간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였다. 한것은 짬을 내여 불타버린 삼보녀의 집을 보수할래, 우후의 닥달질도 받을래 짬을 못 냈던 까닭이였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등개를 띄여본 의원은 반색을 하며 맞아들였다.

《역시 젊은이들이니 회복이 아주 빠르더구만. 특히 총각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먼저 그를 만나보라구.》

등개는 의원을 따라 큰방으로 들어갔다.

침상에 누워있던 젊은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의원을 보더니 웃몸을 일으키려들었다.

《가만 누워있으라구, 젊은이. 어디 좀 보세.》

의원은 젊은이를 황급히 만류하며 이불을 들치고 팔목을 끌어내다 맥을 짚어보았다.

《괜찮아. 아주 좋아지고있네. 젊음이 부러울 지경이군.》

의사의 말에 젊은이는 볼에 홍조를 띠웠다.

《다 의원어른 덕분이오이다. 저를 구원해주어 정말 고맙소이다.》

《허허, 고맙긴… 임자를 구원한건 내가 아니라 우리 좌수영의 군사들일세. 인사를 하겠으면 이 사람한테 하라구. 이 사람이 바로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니까.》

의원이 등개쪽으로 손짓을 해보였다.

《그렇소이까?》

의원의 말에 젊은이는 등개쪽으로 머리를 돌리더니 《고맙소이다.》 하고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이거 나한테 인사할것 없소. 좌우간 자네의 인사는 내 전해주겠소.》

등개는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헌데 자넨 어떻게 되여 이런 지경이 되였나?》

등개가 묻자 젊은이는 허리쪽이 시큰거리는지 량미간을 쪼프리였다. 그리고는 잠간동안 숨을 멈추고서 속으로 끙끙거리였다. 어딘가 속이 말짼 모양이였다. 한동안 얼굴을 붉히며 괴로워하던 그는 한숨을 푸ー 하고 내불었다.

《나는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란 사람이우.》

이렇게 첫마디를 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관포라는데서 만호의 벼슬을 지내던 그의 부친 송이첨은 경상우수영 후부장으로 옥포해전에 참가했다가 날아드는 왜적의 흉탄에 가슴이 뚫려 한을 품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원서는 땅을 치며 통탄하고싶었지만 피나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다. 눈물이나 쥐여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그의 머리속에는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부친의 령혼을 어떻게 하면 지하에서나마 편히 잠들수 있게 위로해드리겠는가 하는 오직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그래 결심한것이 부친이 왜구와의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으니 마땅히 왜장우두머리의 목을 베여다가 그것으로 제를 지내드리겠다는것이였다.

그는 허줄한 차림을 하고 왜수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부산포로 스며들어갔다. 거기서 받은 갖은 천대와 멸시는 이루다 말할수 없었다. 불때기, 물긷기, 개나 돼지도살에 심지어는 뒤간치기까지도 모조리 그의 소임이였다.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하루에도 열두번 밖으로 뛰쳐나오고싶었지만 오로지 부친의 혼백을 위로해드릴 제물감을 마련할 일념으로 꾹 참고 견디여냈다.

당시 부산포에 갇힌 왜적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먹을것은 점점 바닥이 나고 무서운 병마가 항상 막사주위를 어슬렁거리였으며 그칠새없이 일어나는 소요때문에 늘 불안속에 허덕이고있었다. 한껏 굶주림에 지쳐버린 섬오랑캐놈들은 왜장들이 먹다 남긴 떡부스레기 하나를 놓고서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칼부림을 하는 형편이였다. 저들끼리 벌리는 죽일내기때문에 왜장놈들은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어느날 너무도 배를 곯은 왜적놈 하나가 해변가에서 파도에 밀려나온 이름을 알수 없는 송아지만 한 괴상한 물고기를 발견하였다. 그놈이 너무 기쁜김에 저들 무리에 대고 소리치는 바람에 하늘이 저들에게 보내준 선물이라며 창과 칼을 들고 숱한 왜적들이 몰켜들었다.

물고기의 대가리며 몸뚱이, 지느러미 등에 달라붙어 칼질을 해대는 놈들에게 누군가 조용히 이르는 사람이 있었다.

《다치지 않는게 좋겠소. 천벌을 받게 될거요.》

송원서였다. 그는 이 말을 남긴채 올리미는 속을 겨우 잠재우며 왔던 길로 되돌아섰다.

《조선놈의 자식, 뭘 안다구 참견질이야!》

《저놈은 우리가 모두 굶어서 죽기를 바라는 놈이야.》

《속이 다그어댄다, 먹고볼판이지!》

원서를 향해 침을 뱉은 무리들은 고기를 썩썩 베여 시뻘건

살을 입이 미여지도록 경쟁적으로 쓸어넣었다.

가까운 야산에 오른 원서는 후리후리한 속을 진정시킬 생각으로 잔디를 깔고 드러누워버렸다. 좀 있으려니 솔곳이 졸음이 밀려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가…

갑자기 여러 놈이 달려들어 두손과 두발을 붙잡는통에 송원서는 벌떡 잠에서 깨여나고말았다.

《이게 무슨짓이요?! 이걸 놓소!》

송원서는 놈들의 우악스런 손아귀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놈들은 막무가내였다. 놈들은 원서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움켜쥐더니 도살장으로 짐승을 끌고 가듯 산아래로 급히 내려가는것이였다.

놈들은 저들의 막사가 주런이 세워져있는 목책안에 이르자 송원서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흙바닥에 이마를 짓쪼은 송원서는 벌컥 일어나 도끼눈을 해가지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위에는 온통 살기를 띤 놈들뿐이였다.

문득 한 막사안에서 제법 으리으리한 갑옷을 떨쳐입은 왜장놈이 걸어나왔다.

그리고는 곧장 송원서의 앞으로 다가왔다.

《네가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왜장은 당장 송원서를 때려죽이기라도 할것처럼 눈알을 부라리였다.

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얼결에 고개만 끄덕이였다.

피발이 선 눈으로 송원서를 바라보던 왜장놈은 갑자기 옆구리에 찬 칼을 쑥 뽑아들더니 원서의 턱밑에다 들이대는것이였다.

《이놈아, 지금 그 고기를 먹은 나의 군사들이 배를 그러쥐고 돌아가고 그중 둘은 죽기까지 했다.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귀신살이 뻗친듯 하다는데 네놈만이 그것을 막을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어서 액막이를 하라!》

왜장놈은 당장 송원서의 목을 칠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건 또 무슨 낮도깨비 잠꼬대같은 소리야. 액막이라니? 누굴 무당으로 아는게 아니야?)

《난 무당이 아니요!》

이렇게 송원서는 소리를 지르고싶었다. 그러나 서늘한 칼기운에 입이 얼어붙었는지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까짓거, 죽는것보다 까무라치는게 낫다는데 내라고 무당노릇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송원서는 머리를 외로 틀고 침을 세번 내뱉았다.

《좋소, 그런 액풀이쯤은 문제될게 없소. 단 내 말에 모두가 따라야 하외다.》

왜장놈은 황황히 원서의 목을 겨누었던 칼을 거두었다.

마음이 으쓱해진 원서는 우선 놈들을 바다가로 데리고 가서 커다란 구덩이를 파도록 하고는 거기에 물고기, 아니 물고기뼈를 묻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물고기를 먹고 죽은 그 졸병놈들도 함께 묻도록 하였다.

으스스한 바람이 불어치는 해변가에 커다란 모래무지가 생겨났다. 그앞에 원서는 요란한 제상을 차리도록 하였다.

이젠 송원서가 《귀신쫓는 굿》을 할 차례였다.

(우리 마을에 왔던 무당이 굿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한참 사설질을 늘어놓던것 같은데… 뭐라고 하댔던가, 제길…)

원서는 첫마디가 생각나지 않아 입을 봉하고 무작정 아까부터 손에 들고있던 붉은 술이 달린 왕방울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섬오랑캐놈들은 굿이 시작되는줄로 알고 넙적넙적 엎드려 대가리들을 틀어박았다.

(에라, 모르겠다!)

원서는 《신》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요란스레 방울을 한두번 흔들고나서 어디선가 얻어들은 풍월을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어화 술걸어라
돈걸어라 떡걸어라
쿵자쿵자에 굿이로구나
쿵자쿵자에 신내린다

홀애비죽어 하무자귀야
총각죽어 몽달귀야
무당죽어 걸닙귀야
쇠경죽어 신선귀야
선달죽어 호반귀야
처녀죽어 간신귀야
과부죽어 탄식귀야
너도 먹고 니가서라
… …

원서는 섬오랑캐놈들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어릴 때 보아온 무당들의 흉내를 내였다. 제가 보기에도 제법이였다.

왈랑절랑 왕방울을 흔들며 원서가 다가오면 기겁한 놈들이 연신 굽석굽석 대가리를 조아렸다. 그럴수록 원서는 더욱 승이 나서 방울을 흔들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동추야 달밝은데
처녀총각 단 둘이 놀다가
상한나서 죽은 귀야
시오마니 몰래 쌀퍼주구
엿사먹다 목구멍메여 죽은 귀야
너도 먹고 니가서라
천만리로 방송하고
억만리로 가소사
…

온 해변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액막이굿놀음》은 날이 어두워져서야 끝났는데 왜적들은 혼맹이 빠져 아예 녹초가 되고말았다.

헌데 이상하게도 송원서가 《굿》을 하고난 뒤 더는 아무도 배아픔이나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좌우간 그것은 송원서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놈들은 송원서가 《액풀이굿》으로써 자기들의 체내에 기여들었던 악귀를 몰아내주었다고 믿고있었다. 왜장놈까지도 송원서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것 같았다.

다음날 왜장놈은 송원서를 불러다가 역관(통역)노릇을 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아무래도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가진 송원서를 물이나 길어오고 장작이나 패며 짐승도살 같은 험한 일을 시키는게 몹시 께름직했던 모양이였다.

원서는 대번에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하루아침에 송원서는 왜적들속에서 무시 못할 인물로 되여버렸다. 역관으로 된 원서는 아무때나 왜장놈의 막사를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었다.

어느날 병졸들이 모두 술에 취하여 거꾸러지고 털부숭이왜

장놈도 곯아떨어진 밤에 그는 거사를 단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곳에서 밤파도소리만 간단없이 들릴뿐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했다.

원서가 발벰발벰 막사안에 들어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왜장놈의 목을 따자고 하니 그게 별로 달갑지 않았다. 글쎄 요까짓 놈의 모가지나 가지고 부친의 령혼을 위로해내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그래 그는 결심을 바꾸었다.

(아니다, 같은 값이면 가또 기요마사놈이나 그보다 더 큰 도요또미 히데요시놈의 모가지를 따다 제를 지내야 한다.)

그는 다시 발톱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조선과 일본사이에 《강화담판》이 벌어지면서 전란의 검은구름은 저 멀리로 사라지는것 같았다.

(이렇게 전란이 끝나는것은 아닌지. 그럼 아버님의 복수는…)

원서는 부산땅에 떠도는 《강화》의 분위기를 목격하며 이러다가 영영 뜻을 이루지 못할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왜장놈이 그에게 대마도(쯔시마)로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원서에겐 더없는 기회였다. 대마도를 거쳐 일본땅에 가면 틀림없이 조선침략의 원흉 도요또미 히데요시놈을 만날수 있게 되리라. 그놈의 목을 뎅겅 베여 왜란의 화근을 들어내고 보란듯이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리라!

드디여 배가 뭍을 떠났다. 왜구들은 그를 창고 같은데 가두고 절대로 갑판우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꼬박 이틀밤을 원서는 그안에 갇혀 지냈다. 그러다보니 배가 대마도가 있는 동남쪽으로가 아니라 그 반대켠인 서남쪽으로 내려가 한산도를 멀리 에돌고있다는것도 알수 없었다.

깜깜한 야밤에 배는 어느 항구엔가 정박하였다. 목적지에 다달은듯 배는 더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놈들은 원서를 내놔줄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았다.

원서는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쩐지 지금 배가 닿은 곳이 대마도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체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배를 타고 하루낮 하루밤이면 가닿을 거리였다. 헌데 이놈의 배는 어찌된 영문인지 연이틀이나 그냥 바다에 떠있었던것이다.

아무래도 배는 애초에 대마도를 목적지로 하고 떠난것 같지가 않았다.

원서는 놈들의 속심을 알수가 없어 몹시 초조하였다.

시간이 얼마 흐른 뒤 문득 사람을 강제로 태우는지 아우성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나서 곧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가는듯 하였다.

배가 떠난지 얼마 안되여 미욱스레 생긴 왜졸 한놈이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왜장이 부른다고 알려주었다.

원서는 금방 살아날것만 같았다. 바다바람을 맞으니 답답하던 속이 한결 시원해지는듯 했다.

원서는 왜장놈이 보낸 졸병놈의 뒤를 따라 갑판우로 올라갔다.

갑판우에는 후렁후렁한 검은 옷을 걸치고 검은 삿갓으로 상판을 가린 섬오랑캐놈들이 잔등에 환도들을 두어자루씩 둘러메고서 둥그렇게 원을 짓고 서있었다.

웬 일인가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뜻밖에도 거기에는 웬 늙은이 하나와 그의 손녀벌쯤 되여보이는 랑자 하나가 왜구들에게 붙잡혀있는것이였다.

왜장은 원서더러 통역을 하라고 하였다.

《우리 말을 듣겠느냐?》

늙은이는 오래전부터 놈들의 시달림을 받았는지 묵묵히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다시 왜장놈이 물었다.

《도해첩을 내놓겠느냐?》

이번에도 그 늙은이는 말이 없었다.

성이 꼭두까지 치민 왜장놈은 《빠가야로! 그래봐야 욕을 볼건 네 손녀뿐이다!》 하고 뇌까리더니 갑판에 우글거리는 졸개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원서는 왜장의 말을 통역해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가 없었다.

(이 로인장은 누구고 이 랑자는 누군고? 그리고 도해첩이란 또 웬 말이고…)

원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어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그런데 돌원숭이같은 졸개들은 왜장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기다렸다는듯이 랑자를 묶은 포승끈을 끊어버리더니 짐승처럼 마구 달려들어 그의 옷을 발기발기 찢는것이 아닌가!

원서는 너무도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만들! 이게 무슨 짓거리란 말인가!

그것을 본 늙은이가 무섭게 몸부림을 쳤다.

《이 악귀같은 놈들아! 내 손녀를 다치지 말아!》

피가 거꾸로 솟고 두주먹이 후들거렸지만 원서는 종시 결심을 못 내렸다.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 부친의 복수도 못해보고 그러면 몇년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

송원서는 그때의 참을수 없는 광경이 머리속에서 되살아났는지 마르고 탄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이 사람, 그만 진정하구 물이라도 좀 마시라구.》

의원이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그릇을 건넸다.

물그릇을 받아든 원서는 한사발을 단번에 마시고나서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난 그 늙은이가 그렇게 강기가 있는줄은 짐작도 못했지요. 그 늙은이는 온몸을 묶어놓은 포승줄을 끊을듯이 악을 쓰더니 그게 뜻대로 안되자 <귀신한테나 썩 물려가거라!> 하고 소리칩디다. 여간만 고집이 센 늙은이가 아니더군요. 글쎄, 나중엔 왜장의 얼굴에 침까지 뱉더구만요. 화가 동한 왜장놈과 졸개들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그 늙은이를 두들겨패기 시작합디다. 난 더 참을수가 없었소. 눈앞에서 그런 일을 목격하구서야 피가 끓는 대장부로서 어찌 참아낸단 말이요! 그래 부친의 복수구 뭐구 다 집어치우구 얼른 그 랑자를 덥석 안아들구 바다물속으로 훌쩍 뛰여들고말았소. 우리가 물에 뛰여들자 놈들이 복닥소동을 일으킵디다. 조총을 쏴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여하튼 총알에는 요행 맞지 않고 놈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였소. 꽁지가 빳빳해서 도망치는 길이였던지라 놈들도 우릴 추격할 생각을 못하는 모양이였소. 헌데 난 헤염을 잘 치지 못하여 물속에 자꾸만 가라앉는데 그 랑잔 본시 헤염에 능했던지 나를 부축하고도 헤염을 곧잘 칩디다. 그 덕에 요행 목숨을 건지게 되였소. 헌데 시간이 갈수록 파도가 세지고 나를 건사하느라 그 랑자도 어지간히 지쳐 둘이 다 빠져죽게 되였더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수군이 나타나 구원해주었소그려.》

송원서는 말을 마치자마자 쿨럭쿨럭하고 기침을 터쳐내였다.

《허허, 관포만호 송이첨어른이라고 하면 옥포바다싸움때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왜장놈을 둘씩이나 겨드랑이에 끼고 바다물에 뛰여들었다는 그분을 말하는건가?》

의원은 제법 그의 부친을 알기라도 하는듯이 반색을 띠였다.

《우리 부친을 아시오이까?》

《아다뿐일가! 만나뵌적은 없지만서도 내가 무척 존경하는 분들중의 한사람이라네. 그러니 자네가 관포만호 송이첨어른의 자제였단 말이지. 훌륭한 부친을 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라구. 과시 용장의 자제답구만.》

의원은 송원서의 손을 꼭 붙잡고 대견한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관포만호 송이첨은 등개도 한번 본적이 있었다. 의원이 말하는 옥포바다싸움에서 송이첨은 왜적이 배에 오르자 칼을 뽑아들고 무수한 적병의 모가지를 삼대베듯 하다가 칼이 부러지게 되자 적장 두놈을 그러안고 바다물에 뛰여들어 목숨바친 사람이였다. 게다가 사천앞바다싸움때에 바로 자기 눈앞에서 숨을 거둔 돌격장 송만춘장군의 동생이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아들이고 조카라고 생각하니 송원서의 인품이 더 돋보이는것 같았다.

《삼보녀를 구해주어 정말 고맙네.》

등개는 송원서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였다.

등개의 갑작스러운 인사에 송원서가 의아해하자 의원이 제꺽 《자네가 구해준 그 랑자가 바로 이 사람 약혼녀라네.》 하고 귀띔을 해주었다.

그제서야 송원서는 《아하, 그런 사이였소그려.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판이요. 그 랑자덕에 목숨을 건진건 바로 나니까요.》 하며 반색을 하였다.

오래간만에 의원의 집 퇴마루로는 사나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등개는 의원에게 삼보녀를 부탁하고나서 고모네 집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어느새 해가 떨어졌는지 저녁바람이 휘익ㅡ 불어와 옷자락

을 들추어놓았다.

등개는 고모네 집을 향해 걷다말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의원네 집쪽을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분명 도해첩이라고 했지? 그래, 도해첩… 헌데 그게 무엇이길래 섬오랑캐놈들이 그렇게 도사리며 찾는걸가?)

등개는 뭐라고 딱히 찍어 말할수는 없어도 분명 그 도해첩이라는것이 왜적들이 감행한 이번 돌산도사건과 련관이 있다는것만은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다.

돌산도기습, 곡진장주의 랍치, 왜장이 찾고있다는 도해첩. 이 세가지는 분명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고있었다. 하지만 등개는 그것이 무엇인지 딱히 종잡을수가 없었다.

(도대체 도해첩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곡진장주가 가지고있었다?)

등개는 의원집을 뒤에 두고 휘적휘적 웃마을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6. 별빛 흐르는 돌산도의 밤

등개는 하루밤을 고모의 곁에서 보낼 생각이였다.

강씨는 몸이 많이 추선 모양이였다. 조카가 들어서는것을 본 강씨는 그래도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어서 들어오라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좀 어때요?》

등개는 고모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푹 자고났더니 이젠 괜찮다.》

그러나 등개가 보기에도 고모는 기력이 딸리는것이 퍽 알렸다.

《나 오늘은 고모곁에서 자구 갈라우.》

《원, 녀석두…》

강씨는 고맙다는 말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그리고는 상처자리가 쑤시는지 얼굴 한쪽볼편을 찡그리는것이였다.

《계속 편치 않은가보군요.》

《괜찮대두 그러누나. 의원님이 발라준 약이 효험을 내느라 그러겠지…》

강씨는 조카가 마음을 쓸가보아 다시 얼굴에 웃음을 실었다.

아무거나 이부자리를 하나 가져다 고모곁에 편 등개는 전복과 허리띠를 풀어서 머리맡에 개여놓고 팔베개를 하며 벌렁 드러누웠다.

《하루종일 고단했겠는데 어서 좀 쉬려무나.》

반듯이 누워 천정만 올려다보고있던 등개는 고모의 그 말에 머리만 슬쩍 옆으로 돌려보다가 그쪽으로 아예 돌려눕고 말았다.

한쪽팔로 머리를 고인 등개는 다시한번 고모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다.

(고열이 나면 안된다고 의원님이 말했는데…)

등개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강씨는 《왜, 열이 높으냐?》 하고 물었다.

《아니예요, 무엇을 좀 생각해보느라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사내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어릴 때부터 등개는 남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비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늘 들으며 자라왔다. 그렇게 자란 등개여서 그런지 그도 웬만한 일쯤에는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 기질이였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살고 하는 이번 돌산도사건은 등개의 모든 신경들을 죄다 건드려놓은듯싶었다.

등개는 눈을 바로 떴다.

《고모, 고모는 무슨 도해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도해첩?》

강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가 그러디, 도해첩이라고?》

《방금 나도 얻어들은 소리인데…》

《그런 소릴 들었어? 나도… 분명 내가 칼에 맞고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도 바로 그 도해첩얘기였단다.》

등개는 놀랐다. 무심히 던진 물음인데 고모가 그에 대해 알고있을줄이야. …

《고모, 좀 자상하게 말해주세요.》

강씨는 다시 상처가 쑤셔나는듯 입술 한쪽귀를 꼭 깨물었다. 하지만 신음소리 같은것은 새여나오지 않았다.

한동안 그러다 강씨는 《새벽에 물을 길러 동이를 끼고 우물가로 나갔댔지.》 하며 두눈을 슬며시 감는것이였다.

잠시후 강씨는 《그래, 옳거니.》 하며 머리를 한번 끄덕이더니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소곤소곤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강씨는 매일 아침 이른새벽이면 남먼저 일어나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바다쪽으로 쑥 나가있는 거북바위앞에서 치성을 드리는것을 하나의 습관처럼 굳혀오고있었다. 숱한 해녀들의 생명과 그날 수확에 대해 소임한 대상군이고보면 오히려 그 정성이 모자랄가봐 늘 걱정을 하는 강씨였던것이였다.

그날 새벽에도 강씨는 여느때보다 빨리 잠을 깨였다.

(무슨 소리가 들렸던것 같은데… 꿈이였나? 원 참, 가위에 눌렸던 모양이로군.)

강씨는 울렁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어 도닥도닥 두드리며 《호—》 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불었다.

속옷을 여민 강씨는 날이 밝았는지 가늠해보느라고 창호지를 바른 장지문쪽을 건너다보았다.

아직 날이 밝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했다.

(그만 일어나야 할가보군.)

주섬주섬 머리맡에 개여두었던 저고리를 털어입은 강씨는 낭자를 두손으로 더듬어 머리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를 꼼꼼히 살핀 후에 부엌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찾아끼고 문밖에 나섰다.

상쾌한 새벽공기가 기분을 띄워놓았다.

(가볼가?)

맑은 공기를 함씬 들이킨 강씨는 발에 익은 길을 따라 우물쪽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하나밖에 없는 우물은 강씨의 집에서 좀 떨어져있었다.

동네에 우물이 하나뿐인것은 옛날부터 돌산도에 내려오는 미신에 의해서이다. 돌산도에 첫살림을 폈던 먼 조상들은 대개가 배를 뭇는 장공들이였는데 그들은 섬도 그 무슨 배처럼 생각했는지 구멍을 많이 뚫러놓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더 파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아래마을, 웃마을이 그 우물 하나에 매달려 살아오고있었다. 강씨네 집과 삼보녀네 집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있는 그 우물은 섬식구들의 유일한 담수원천이였다. 이웃이긴 하지만 강씨네 집보다는 삼보녀네 집이 우물에서 더 가까워 동네에서도 《우물집》이라고 하면 삼보녀네 집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있었다.

드레박질 두번에 동이가 가득찼다.

강씨는 (오늘 바다에 나가선 우선 쉼터둘레의 돌담을 좀더 높여봐야 하겠다.) 하고 혼자생각을 굴리며 동이의 겉에 묻은 물기를 손으로 닦아내였다. 그리고는 동이를 들어 머리우에 받친 똬리우에 올려놓았다.

이제 갈 곳은 바다가근방에 있는 거북바위였다. 대가리를 바다쪽으로 뻗치고 앉아있는 그 바위에 올라서면 꽃바당이 한눈에 안겨든다.

강씨는 바로 그 펑퍼짐한 바위등에 제물들을 갖추어놓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치성을 하군 했었다.

물동이를 머리우에 이고 우물을 돌아나오던 강씨는 문득 삼보녀네 집에 불이 켜진것을 보게 되였다.

(삼보녀네도 방금 일어난 모양이구나. 우물집 큰애기가 부지런해. …)

강씨는 조카며느리가 될 삼보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입귀에 웃음을 실었다.

(등개 그녀석이 색시복은 있어.) 하고 속웃음을 지으며 동이에 손을 얹고 한손으론 치마자락을 걷어올리고나서 코끝으로 어두운 발아래를 간신히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얼핏 강씨는 나지막한 신음소릴 들은것 같았다.

(?…)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다른 소린 더 들리지 않았다.

(허ㅡ 이젠 나이가 들면서…)

강씨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겨짚었다.

바로 그때 다시 《억!》 하는 숨이 넘어가는듯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분명 소리가 났어. 삼보녀네 집 같은데…)

등골이 오싹해진 강씨는 그 자리에 굳어져버린채로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불이 켜진 삼보녀네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분명 소리는 그쪽에서 났다.

(무슨 일일가?!)

강씨는 저도 모르게 삼보녀네 집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누가 두런두런 말하는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들부시는것 같기도 하고…

(누굴가? 저 집엔 장주어른과 삼보녀밖에 더 없을텐데…)

그곳에서 울려나오는 말이 똑똑히 들려오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분명 곡진장주의 목소리가 아닌것만은 분간해낼수 있었다.

그를 확인이라도 해주려는듯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재차 새여나왔다.

《도해… 도해첩, 그게 어디에 있소?!》

강씨가 바싹 긴장해지는데 이번에는 《억!》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구인가의 타격에 의한 큰소리여서 강씨는 자기의 판단을 확신했다.

더럭 겁이 난 강씨는 곡진장주네 집 삽짝문곁에 바싹 붙어섰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여 《삼보녀야!》 하고 소리쳐불렀다.

그때 바로 곁에서 얼굴에 시커먼 복면을 한 사나이들이 불쑥불쑥 솟아나더니 사정없이 강씨에게 접어들어 그의 옆구리에 칼을 박는것이였다. 살을 비집고 들어오는 선뜩한 기운에 강씨는 눈앞이 흐려지며 몸의 중심을 잃었다. 어느 놈인가의 우악스러운 손바닥이 입까지 꾹 덮쳐눌렀다.

딱!—

머리에 이였던 물동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여지면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였다.

그 소리에 놀란 동네 개들이 소란스럽게 컹컹 짖어대기 시작하였다.

강씨는 옆구리로 온몸의 힘이 죄다 빠져나가는것만 같았다.

시커먼 땅바닥이 한쪽귀옆으로 빠르게 와닿았다. 쿵— 하고 머리가 어딘가에 세차게 부딪치는감을 느꼈는데 그와 동시에 무수히 많은 별찌들이 눈앞에서 무질서하게 떠돌아다니는것이였다. …

《그래 끝내 난 삼보녀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의식을 잃고말았지. 그 다음은 전혀 생각이 안 나.》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어요. 의원님이 인츰 손을 썼기에 망정이지.》

웃마을의 열살잡이 아이가 갑자기 게우고 설사를 심하게 하면서 배를 싸쥐고 대굴대굴 구운다 하여 의원이 집의 심부름군애와 함께 새벽길에 나섰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고

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깨여나 밀려오는통에 왜구들이 줄행랑을 친것이였다.

등개는 다시 팔베개를 하고 반듯하게 누워버렸다.

《그러니 고모도 어렴풋이 도해첩이란 말을 들었구만요. 삼보녀를 구원해준 송원서라는 그 사람도 바로 왜적들의 배에서 뛰여내리기 직전에 왜장놈이 장주어른에게 도해첩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소리를 들었다던데… 참, 그 사람이 바로 관포만호 송이첨어른의 자제래요. 일전에 옥포바다싸움때에 적장을 두놈이나 껴안고 물속에 뛰여들었다던 그 어른 있잖아요. 바로 그분의 자제가 어떻게 그 배에 올라있다가 삼보녀를 구해냈다지 않아요. 참…》

《정말 고마운 젊은이로구나. 네가 단단히 사례를 해야겠다.》

강씨의 말에 등개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귀를 잡고 절을 했어요. 헌데… 장주어른이 감추어두었다는 도해첩이란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분명 왜적들이 그걸 노렸겠는데…》 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보나마나 중요한거겠지. 곡진장주야 거북선까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냐.》

그 말에 등개는 벌떡 몸을 일으켜세웠다.

《가만, 고모! 그러고보니 그 도해첩이란게 혹시 거북선도해를 묶은 책을 말하는게 아닐가요?》

《무어라구? 난 곡진어른에게 그런 도해첩이 있다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는데…》

강씨도 어지간히 놀라는 눈치였다.

《생각해보세요, 고모. 기세등등해서 날뛰던 놈들이 왜 부산에 쫓겨갔나요. <수륙병진>이고 뭐고 하던것을 바다에서 우리 리순신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막아버렸기때문이지요. 전

에 바다싸움때랑 보니 놈들이 우리 거북선만 나타나면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여념이 없더구만요. 거북선이 있는 한 놈들은 다시 바다로 기여들지 못할거예요.》

《그러니 놈들이 어쩐다는거냐?》

《우리 거북선한테 쓴맛을 봤으니 아마 약점을 찾자고 덤빌거예요. 그러자니 거북선의 도해첩이 꼭 필요할거구요. 아니면… 아니면 놈들이 거북선을 무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틀림없어요.》

《그럴가?》

《틀림없어요. 놈들이 정말로 거북선을 무을 생각이라면… 어엉?》

등개는 혼자생각에 깜짝 놀라며 고모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니 놈들이 <강화담판>을 구실로 재침준비를 하고있다는 통제사어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소리예요.》

강씨의 눈도 휘둥그래지였다.

《<강화담판>이란 다 개나발이였어요. 놈들은 뒤에서 재침입을 준비하고있어요. 도해첩도 아마 그래서 필요했을거예요. … 이제야 모든게 석연해지는것 같아요. 어째서 놈들이 여기까지 기여들어왔나 했더니만… 알겠다ㅡ 그때문이였구나. 악귀같은 섬오랑캐놈들!》

등개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떨어댔다. 모든것이 분명해졌다. 돌산도기습, 곡진장주의 랍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도해첩이야기, 결국 이 모든것들은 《재침입》이란 세 글자를 가리키고있었던것이다.

《그럼 곡진장주를 잡아간건…》

《거북선을 무어보자는 수작이지요.》

강씨는 속이 한줌만해졌다.

《에그, 저걸 어쩌노…》

《왜요? 장주어른이 쉽게 변절할 사람인가요!》

《무슨 말을… 내가 아는 곡진어른은 속심이 굳은분이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왜적의 말따위는 듣지 않아! 그러니 그분 고생이 오죽하시겠냐. 에그…》

강씨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고모, 장주어른이 종내 거북선비밀을 불지 않는다면 놈들이 어떻게 할가요? 거북선과 같은 배가 없이는 우리 수군과 맞서는것이 불가능하다는걸 뻔히 아는 놈들이 포기하진 않을테고 그러니 남은건…》

《도해첩이구나!》

《그래요. 놈들은 도해첩을 못 찾고 곡진장주만 랍치해갔으니 어른이 제놈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 방도로 도해첩을 무조건 찾으려고 할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도해첩이 왜적들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해요. 찾아서 지켜내야지요.》

《그래, 그래야지.》

《우선은 한산도에 나가있는 통제사어른께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하겠는데.》

《그래, 통제사어른이 곡진장주와 거북선을 만들었으니 혹시 도해첩에 대해서도 뭔가 알수 있겠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등개는 답답한듯 몸을 일으키더니 장지문을 활짝 열고 멀리 동쪽하늘을 바라보았다.

(교활한 왜적들이 《강화》의 막뒤에서 다시 쳐들어올 꿍꿍이를 하고있었구나! 통제사어른의 선견지명에 정말 탄복하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저저마끔 어두운 밤하늘꼭대기에서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었다.

풀벌레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 하늘이 평온해보였다.

《음ㅡ》

등개는 낮게 신음소리를 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멩이가 맺힌듯 마음이 가벼웁지 못했다.

그러나 등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돌산도의 밤은 자연대로의 고요속에 새고있었다.

7. 할수 있을 때 할수 있는껏

아침해가 떠오르자 등개는 섬에서 배를 하나 얻어타고 곧바로 수영으로 건너갔다.

급한 걸음에 등개는 장청(영에 소속된 군교들이 모여서 일보는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거기에는 이미 팔동이가 나와 사색이 된 얼굴로 등개를 기다리고있었다.

《마침 잘 왔네. 다 알구 왔겠지?》

팔동이는 등개를 만나자마자 동이 전혀 닿지 않는 말부터 꺼내들었다.

《그건 무슨 소린가? 뭘 알구 온단 말인가?》

《챠, 이런… 아직 밤중이구만.》

팔동이는 등개의 한쪽팔을 잡아끌어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일세.》

《무슨 소린가? 좀 알아듣게 얘기하라구.》

《글쎄 그날 내가 우후를 만났더니 밤새 번을 어떻게 섰느냐고 따져묻는게 아니겠어. 그래 사실대로 <소인은 잠을 잤고 대신 교련관이 선것으로 아오이다.> 했지. 그랬더니 우후가 자갈밭의 개구리처럼 풀쩍풀쩍 뛰면서 자네가 우정 왜적의 배가 지나가는것을 보고서도 눈을 감아주었다는거야. 가만 보니 이 기회에 자네나 내 감투를 아예 벗겨버릴 잡도리같애. 우후로 말하면야 기회가 좀 좋은가. 전에 통제사어른이 우리가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하여 군교로 발탁시키겠다고 할 때 저 우후가 나서서 훼방놀던 일을 생각해보라구. 그때 못한 분풀이를 이제 하자는게 뻔해.》

팔동이는 속에서 열이 나는듯 씩씩 단김을 내뿜었다.

《그랬으면 어쨌단 말인가? 난 하나도 무서운게 없네. 왜냐하면 우린 잘못한게 조금도 없거던.》

《허나 우후는 그렇게 보지 않지. 어쨌든 돌산도가 기습을 받은것은 사실이니까.》

《그랬대두 그것은 자네 잘못이 아닐세. 루명을 써도 다 내가 뒤집어쓸터이니 자넨 조금도 걱정을 말라구.》

등개의 말에 팔동이는 짐짓 노여운 표정을 지었다.

《난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야. 왜 자네 혼자 바가질 뒤집어쓰겠다구 그래. 그럼 난 뭐가 되라는건가? 섭섭하네, 섭섭해.》

팔동이는 앵돌아져 애꿎은 흙바닥만 점도록 주시하며 씩씩거렸다.

《팔동이 이 사람아,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주게. … 참, 실은 내 자네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네.》

팔동은 눈길을 들어 등개를 바라보았다.

《난 빨리 여기 상황을 한산도에 나가있는 통제사어른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네. 통제사어른만이 여기 일을 바로잡

을수가 있어. 내 생각 같아서는 왜적이 재침입을 준비하고있다는 통제사어른의 말씀이 분명한듯싶네. 왜적들이 돌산도를 기습한것도 다 그런 까닭에서였지.》

《자네 뭘 좀 알아냈나?》

팔동은 등개의 말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내였다.

《그래, 놈들은 바로 우리 거북선을 노리고 들어왔댔어. 장주어른의 집을 들이친 놈들이 그더러 도해첩을 내놓으라고 했다는거야. 헌데 장주어른은 내놓지 않았지. 그러니 놈들이 장주어른과 삼보녀를 랍치해갔던거야. 삼보녀는 요행 살아돌아왔지만 장주어른은 아직 놈들 손아귀에 있네. 그러니 이것 보라구. 만일 놈들이 계획대로 거북선의 도해첩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참화는 막을수 없게 돼. 놈들의 기도는 반드시 짓부셔버려야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팔동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여기 일은 내게 맡기고 자넨 어서 한산도로 건너가 통제사어른께 이 사실을 알리게. 통제사어른이라면 뭔가 방책이 꼭 있을거네.》

등개는 팔동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네. 그건 걱정말라구. 내 어떤 일이 있어도 통제사님께 그 소식을 전하지.》

팔동이도 등개의 손을 마주잡고 흔들었다.

《가만, 갔던 길에 경상우수영에 좀 들려주게나.》

《우수영엔 뭣 하러?》

《사람 하날 좀 알아봐주게.》

《누군데?》

등개는 얼핏 주위를 살펴보더니 팔동의 귀에 대고 가만가만 속삭였다.

그의 말을 듣는 팔동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또 자네 걱정주머니가 흔들거리는게지? 걱정 붙들어매게나. 꼭 알아봐주지.》

《그럼 믿겠네.》

등개는 말을 마치자 돌아서서 우후를 만나러 대청으로 나갔다.

우후가 벌써 나와있었다.

《우후나으리께 문안드리오—》

등개는 손을 앞으로 마주잡은채 허리를 굽석 구부리며 인사부터 하였다.

그 모양을 내려다보던 우후는 답례는 고사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갔던 일은 어찌되였느냐?》 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물음을 던졌다.

《왜적들의 급습이 있은것은 사실이오이다. 장공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사온데 곡진이라 하는 장주어른을 놈들이 끌어갔다 하오이다.》

《음— 헌데 그 손녀라는 계집은 돌아왔다지?》

등개를 바라보는 우후의 눈빛은 음험하였다.

(추격선의 군사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모양이구나. 하긴 살아돌아온거야 뭐 죄될게 있담.)

등개는 《그렇소이다. 곡진장주의 외손녀도 함께 끌려갔댔사오나 도중에 왜적들의 배에서 뛰여내렸다고 하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 장한 일을 했으니 상이라도 줘야 할가보군.》

등개는 속이 좋지 않았다. 우후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위를 박박 긁어놓는 소리뿐이였다.

《헌데 왜적들이 곡진장주는 어찌하여 잡아갔다 하던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적들이 곡진장주어른에게

무슨 도해첩인가를 내놓으라고 강박했다 하오이다. 헌데 말을 듣지 않자 아예 끌고 간줄로 짐작되나이다.》

여우처럼 치째진 우후의 눈이 도해첩이라는 말에 반짝 빛났다.

《도해첩?! 무슨 도해첩말이냐?》

우후의 물음에 등개는 한순간 망설이였다.

(괜히 확실치도 않은것을 내 맘대로 말했다가 엉뚱한 사람만 잡는게 아니야?)

등개는 정확한것이 밝혀질 때까지 도해첩에 대해선 발설하는것을 고려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 소인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수가 없소이다.》

《그럼, 그걸 누가 안단 말이냐?》

《소인 생각에는…》

등개의 머리속에는 문득 삼보녀가 떠올랐다. 삼보녀는 곡진장주의 하나밖에 없는 살붙이이니 그라면 뭔가 알수 있을것만 같았다. 그러나 삼보녀가 알고있을것이라는 말을 할수도 없는노릇이였다. 괜히 그 말을 우후한테 했다가 삼보녀가 욕을 볼수 있었다. 등개는 애초에 우후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소이다.》

등개는 시치미를 뚝 따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빨리 돌산도에 다시 건너가 삼보녀에게 도해첩에 대해 자초지종 물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후는 등개의 머리속을 환히 꿰뚫고있는듯싶었다.

《그럼 빨리 돌산도에 다시 건너가 그 장주의 손녀를 내앞에 끌어다놓도록 하여라.》

《예에?!》

등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건 무슨 영문이오이까?》

등개는 불쑥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여나가는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어허, 네 이놈! 감히 뉘앞이라고 방자를 떠는게냐! 계집을 잡아다 대령시키라면 그렇게 할노릇이지 어째 화를 돋구는게냐! 혹시 그 계집과 잘 아는 사이라더니 지금 그래서 네가 나에게 따져묻고싶은게냐?》

우후는 발을 탕ㅡ 구르며 버럭 성을 내였다.

등개는 뭔가 일이 꼬이고있다는감을 느끼였다. 그렇다, 지금 일은 등개의 생각대로 되고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삼보녀는 틀림없이 잡혀오게 될것이였다.

《우후나으리, 그런게 아니오라 지금 그 곡진장주의 손녀가 몸이 추서지 못해 움직일 형편이 못되오이다. 그러니 설사 불러온다 해도 며칠 회복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하오이다.》

그러나 우후는 더욱 발광을 부리였다.

《불상놈이 군교가 되고 털벙거지를 하나 얻어쓰더니만 이젠 제법 건방을 떨 작정이구나. 에끼, 이런 고현놈 봤나! 돼먹지 못하게 감히 누굴 훈시하려들어? 게 누구 없느냐? 어서 이놈을 썩 치워버리지 못해!》

우후는 대청바닥을 쾅쾅 밟으며 객기를 부렸다.

그바람에 어느 구석에 숨어있던 군졸 몇이 달려나와 등개의 팔을 량쪽에서 잡아끌었다.

《어서 가소이다.》

등개는 자기를 잡아끄는 군졸들의 성화에 못이겨 대청을 물리고 장청으로 나왔다.

장청에 모여있던 군교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등개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찰나 낡은 북 찢어지는듯 한 우후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어서 돌산도로 건너가 그 장주의 손녀라는 계집년을 잡아다 내앞에 꿇어앉혀라! 제발로 걷지 못하겠다면 꼬챙이에 꿰여서라도 끌고 와야 한다. 감히 상놈이 량반에게 훈시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 소리를 들은 군교들은 《또 뱔통이 거꾸로 뒤집힌 모양이군.》 하며 혀를 끌끌 찼다.

《자네 큰일났구만. 어쩔셈인가?》

등개가 걱정이 된 군교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말들을 하였다.

《우후나으리가 저쯤 나오는걸 보면 아마 이번은 무사히 넘길것 같지 못하네그려.》

《자네 약혼녀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차라리 자네가 가서 데려오는것이 더 낫지 않을가.》

《누구 좋으라고 그짓을 한단 말인가? 아직 몸이 추서지두 못한 아녀자를 붙잡아다 문초라도 받게 하고싶은가?》

《등개, 자네 약혼녀랑 며칠 어디 가서 숨어있으라구. 시간이 지나면 우후나으리도 성이 좀 가라앉을거야.》

《자네 그걸 말이라구 하나? 그러다 군률에 걸리면 공연히 죄목이나 늘거네. 내 말대로 하라구. 자네가 건너가서 약혼녀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오게. 우후나으리가 아무리 세도가 당당한들 죄가 없는 그 랑자를 어떻게야 할라구?》

《그럼, 우리가 두눈을 시퍼렇게 뜨구있는데… 다른 일은 없을걸세. 몇마디 말이나 물어보고 인츰 돌려보내겠지.》

동료들의 지꾲은 권유에 등개는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암만 그래두 난 가지 않겠네. 아니, 가지 못하겠어. 그건 차마 못할짓이네.》

등개가 그렇게 나오자 군교들은 더 할 말이 없어졌다.

《마음대루 하라구. 가구말구 하는거야 자네 맘이지. 허나 자네가 가지 않으면 누구든 우리들중에 한사람이 대신 가야 하는데 참으로 일이 딱하게 될수 있네.》

장청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에익!》

등개는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아서 더는 장청에 머무를수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수영안을 훌쩍 나와버렸다.

어디든 발길이 닿는데로 걷고싶었다. 정처없이 걷는 그의 눈앞에 제법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초가집이 한채 보였다.

(저게 뭐야? 팔동이가 말하던 주막집이로구나. 에라, 모르겠다. 저기나 한번 들려볼가?)

등개는 주막집을 향하여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나 주막집앞에 서있는 크지 않은 노가지나무앞에서 그는 뚝 멎어서고말았다. 차마 주막집안으로는 발길을 들일수가 없는 그였다.

등개는 다시 돌아서고말았다.

(등개, 너도 이젠 다된 놈이로구나. 전란도 끝나지 않았는데 술을 처먹을 생각을 다 하다니!)

등개는 앞에 펼쳐진 뙈기밭머리에 앉아 파도가 밀려드는 포구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바다건너 돌산도가 바라보였다.

등개는 정말 곡진장주에게 도해첩이란것이 있긴 있었을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긴 저 돌산도에 거북선을 무어내는 암영이 있고 거북선 건조담책인 곡진장주가 살고있다는것까지도 내탐해낸 놈들인데 분명 놈들은 도해첩에 대해 뭔가 알고 왔던게 분명해. 그러니 도해첩은 장주어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거야. 하지만 놈들은 찾아내지 못했지. 장주어른이 어떤 사람이라

고 그걸 순순히 내놓는단 말인가. 그때문에 장주어른은 끌려가게 되였구… 왜적에게 도해첩을 빼앗기는 날에는 놈들의 재침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곡진장주어른은 나라의 역적으로 락인될거야. 그렇게 되면 삼보녀는 또 어떻게 되는가?)

등개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였다.

(아니, 삼보녀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둘수는 없어. 도해첩은 무조건 내가 먼저 찾아내야 해. 그래야 삼보녀도 지킬수 있고 거북선도 지켜낼수 있어. 거북선을 지켜내면 이 바다도 지키는것으로 되는거야. 그러니 결국 지금 상황에서 제일 급한건 도해첩을 먼저 찾아내는 일이다. 장주어른이 도해첩을 감춘 장소만 알면 좋겠는데… 도해첩을 과연 어디다가 숨겨두었을가?)

등개는 곡진장주가 도해첩을 숨겨두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곳들을 머리속에 떠올려보았다.

(곡진장주의 집은 벌써 왜적들이 다 뒤졌다. 항아리속에 감추는것도 안전하지 못해. 천장도 쥐새끼들때문에 그리 믿음직스러운데가 못되고… 제길할, 이거야 도대체 알수가 있나! 만일 나에게 그런 도해첩이 있었다면 어디다 감추었을가?)

거북선도해첩이라면 제법 부피도 꽤 있을터이니 아무곳에나 막 감추어둘수도 없을것이였다.

(혹시 삼보녀는 어디 짐작이 가는데가 없을가?)

등개는 갑자기 떠오른 삼보녀생각에 무릎을 털썩 치였다.

(그래, 삼보녀야, 삼보녀! 곡진장주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삼보녀라면 할아버지가 어디에다 도해첩 같은걸 숨겨놨을지 짚이는데가 분명 있을것이다.)

등개는 한시바삐 삼보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덧 해는 하늘중천을 지나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었다.

(벌써 유시(17시부터 19시사이)가 되였나? 이쯤이면 삼보녀가 수영에 도착하구두 남았겠구나.)

등개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삼보녀를 만나야겠어.)

그는 수영쪽으로 달려갔다.

8. 투옥

등개가 수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한낮이 퍽 기운 뒤였다. 여느때 같으면 번을 서는 군교 몇을 내놓고는 수영이 조용했을 무렵인데 오늘은 왜서인지 그렇지 않아보였다.

높다란 담에 둘러막히우긴 했지만 그안에서 일어나는 번잡스런 소음은 여기 행길에까지 그대로 새여나오고있었다.

등개는 수영의 대문을 몇걸음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할가?)

분명 삼보녀가 붙들려왔을것은 뻔한노릇이였다. 명목상으로야 돌산도급습건에 대한 조사라고 하겠지만 우후의 기본목적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것은 등개가 생각하건대도 헨둥한 것이였다.

우후는 원래 통제사 리순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통제사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다 아니꼬와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팔동이와 등개가 군공을 세웠다 하여 통제사가 군교로 발탁시키자고 하니 제일 강하게 반대해나섰던게 다름아닌 우후 리봉태였다. 아무리 전란시기라고 하여도 신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게 그의 주장이였다. 량반과 상놈의

하늘같은 차이를 분명히 해두지 않는다면 장차 량반이 상놈에게 업수임을 당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말에 통제사는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그대는 어찌하여 작은것만 보려 하고 큰것은 보려 하지 않는가!》

무도한 왜적이 대군을 일으켜 조상의 뼈가 묻힌 이 땅을 유린하여 나라가 국난을 당하고있는터에 한가하게 신분이나 따지고있느냐 하는 질책이였다.

《하오나…》

《우후는 내 말허리를 꺾지 말라. 왜적들과의 간고한 싸움을 겪으며 수군의 많은 기둥감들을 애통하게 잃어버렸다. 허나 이제 치르어야 할 싸움이 더 많거니와 그 가렬성에 있어서도 전에 못지 않을것이다. 헌데 싸움배를 지휘할 장수가 부족하니 왜적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구걸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전란을 당하여 남녀로소 가림없이 왜적을 치겠다고 떨쳐나선 마당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찌 마다하겠는가!》

그래도 우후는 숙어들지 않는 기색이였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뿐이였다.

그때부터 통제사에 대한 모든 불만은 그가 군교로 임명한 팔동이와 등개에게 고스란히 쏟아져내렸다.

통제사도 한산도에 나가있는 마당에 우후 리봉태의 전횡을 막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는 리지팡이로 불리우던 그 시절처럼 여전히 힘이 약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가 과거에 등개의 아버지를 때려 반병신을 만들어놓은 리지팡이라는것을 등개를 제외한 돌산도사람 누구나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였다.

그것을 알게 되면 큰일을 칠것 같아 강씨는 아직 조카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피줄은 속이지 못한다고 우

후에 대한 등개의 증오심은 뿌리가 깊은것이였다.

전에 삼보녀를 우후가 끌어갔을 때에도 등개는 당장 우후를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였었다. 아마 강씨와 곡진장주가 말리지 않았다면 등개는 우후의 목을 베던지 무슨 결딴이 났을것이다.

그때도 통제사가 와서야 사태는 수습이 되였다.

통제사 리순신장군이 그토록 성이 난것은 등개도 처음 보았다. 그의 노성앞에 우후는 다리마저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어디 대낮에 남의 집 귀한 딸자식을 붙들어다 제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들려 한단 말이냐!

통제사가 격분한것은 바로 이때문이였다.

사실 우후가 삼보녀를 넘보기 시작한것은 그보다 썩 오래전부터였다.

어쩐 일로 돌산도에 건너왔던 우후는 달밝은 밤에 해변가에 나왔다가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불무지곁에서 춤을 추는 해녀들속에서 삼보녀의 어여쁜 자태를 목격하게 되였다. 삼보녀를 제것으로 만들 우후의 궁리는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그래서 조용히 알아보니 삼보녀의 할아버지는 거북선의 건조담책인 곡진장주였고 통제사 리순신의 각별한 보호속에 있는 인물이였다. 만일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못 놀려 소리가 나는 날에는 가뜩이나 자기를 시답지 않게 보는 통제사가 가만있을것 같지 않았다.

제 욕구를 못 채워 속이 상한 우후는 늘 벌레씹은 상을 해가지고 문밖출입도 잘 안했다.

헌데 뜻밖에도 우후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통제사가 곡진이 새로 무은 거북선의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며칠간 수영을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우후의 낯빛에는 다시 활기가 넘쳐흘렀다.

새로 무은 거북선이 먼바다로 나가자 우후는 그달음으로 배를 타고 돌산도로 건너갔다.

우후는 돌산도 장공마을어귀에 배를 가져다붙이고 심복들을 시켜 삼보녀를 잡아오라고 호령했다. 허나 우후의 심복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물일하러 나갔는지 삼보녀가 집에 없었던것이다.

화가 동한 우후는 바다에 나갔으면 쫓아가서라도 삼보녀를 무조건 잡아오라고 심복들의 궁둥이를 발길로 걷어찼다.

구중녀석들이 삼보녀를 끌고 돌아온것은 저녁녘이 다되여서였다.

우후는 삼보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물러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눈치가 빤한 구중녀석들은 입들을 싸쥐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사라졌다.

호젓한 물결우에 떠있는 배의 갑판우에는 우후와 삼보녀 둘만이 남게 되였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삼보녀라 하옵니다.》

《너 나를 아느냐?》

《전라좌수영의 우후나으리인줄로 아나이다.》

달밤에 가만가만 울리는 삼보녀의 청고운 목소리에 우후의 애간장은 박박 타는듯싶었다.

《그럼 내 세도줄이 얼마나 든든한지도 잘 알겠다?》

우후의 그 말에 삼보녀는 대답이 없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팔자도 고칠수도 있다. 그래, 어떠냐?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겠느냐?》

삼보녀가 거절한것은 두말할나위도 없었다. 우후의 끈덕진 요구를 삼보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량반의 체면을 지키시오이다. 소녀신분이 아무리 비천하다 하오나 나으리의 수청을 드는 기생은 결코 아니오이다. 공연한 수고로 세월을 보내지 마소서.》

삼보녀의 대답은 대쪽같았다.

호락호락 굽어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지만 이 정도로 나올줄은 몰랐던 우후였다.

《비천한 계집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드는게냐? 량반의 은총을 입어 혹여 가세라도 펴이게 되면 황송해할노릇이지 돼먹지 못하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네가 매를 맞아야 말을 듣겠느냐?》

그래도 삼보녀는 굽어들지 않았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우후의 호령이 떨어지자 구석에 숨어 우후가 노는 꼴을 지켜보고있던 구중 두명이 《예잇—》 하며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괘씸한 년이로다! 이년에게 버릇을 가르쳐주어라!》

우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구중들은 매채를 꺼내들고 악—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만!》

통제사의 목소리가 울린게 바로 그때였다.

거북선을 타고 려수반도를 떠나 바다를 한바퀴 순회하고 돌산도로 돌아오자마자 우후가 잡아간 삼보녀를 놓아달라고 애원하듯 매달리는 해녀들의 말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온 통제사였다.

통제사의 뒤에는 등개가 서있었다. …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우후가 자기와 삼보녀 그리고 통제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죄를 들씌우지 못해 애를 박박 쓰고있다는것을 등개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가 딱 번을 서는 날 돌산도가 왜적에게 침습당

하는 사건이 터졌으니 참으로 일은 공교롭게 된것이다. 통제사에게 받은 모욕을 어느때든 앙갚음하려고 벼르던 우후로서는 이 사건을 통해 곡진장주를 모해함으로써 그를 적극 뒤받침해주던 통제사의 얼굴에 먹칠을 해보려고 책동할수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삼보녀도 가만둘리 만무하다는게 등개의 생각이였다. 그러니 삼보녀가 순순히 풀려날것은 바랄것도 못되는 일이였다.

막연한 불안감이 흉벽을 지지리 내려눌렀다.

(누구 말대로 삼보녀를 한동안 어디 숨겨두는편이 낫지 않았을가?)

하지만 한켠으로는 (뭘 잘못했기에 숨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팔동이를 한산도로 보냈으니 곧 옳바른 처사가 있게 될것이라고 등개는 믿고싶었다.

(이제 통제사어른만 오게 되면 우후의 이 놀음도 끝장이 날테지.)

등개는 마음을 다잡고 꾹 닫겨있는 솟을대문의 둥근 쇠고리를 두손으로 쾅쾅 두들겼다.

삐거덕ㅡ

불그스레한 나무대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량쪽으로 쭉 갈라졌다.

파수를 서던 군사들은 등개를 마주보기가 무척이나 괴로운듯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는 눈치였다.

아마 군졸들까지도 그와 삼보녀의 관계를 다 아는듯 했다.

(그러니까 삼보녀가 벌써 잡혀와있구나.)

피가 정수리에 몰리는지 관자노리의 피줄이 풀떡거렸다.

마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동시에 등개의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등개는 헛기침을 길고 마당안에 한발을 들여놓았다.

처음 눈에 뜨인것은 흙바닥에 깔린 커다란 멍석이였는데 그것은 군률을 위반한자들이 생겼을 때 매를 안기기 위해 마련되군 하는 매자리였다. 하도 써본지가 오래되여 곰팡이냄새가 나던 그 멍석이 오늘은 마당복판까지 들려나와 해빛을 쪼이는데 그우에는 오늘 매자리의 주인공인듯 머리를 풀어헤친 웬 랑자가 부복하고있었다.

그 녀자의 뒤모습을 보는 순간 등개는 그만 가슴이 철렁하였다.

매채를 들고 섰던 라졸 두엇이 등개를 보고 목들을 움츠리였다.

등개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렇다, 저건 틀림없이 삼보녀다! 삼보녀가 지금 매를 맞고있다!

등개는 섬돌앞으로 썩 다가갔다.

《나으리, 나으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소이까?》

그 말에 우후는 발끈 성을 내였다.

《어허, 이 발칙하고 당돌한 놈 같으니라구! 이놈, 네놈이 지금 내게 따져묻는거냐?》

몇오리 안되는 우후의 턱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소이다. 감히 나으리께 따져묻건대 지금 나으리는 무엇을 하고있소이까?》

등개는 쓰러진 삼보녀를 손으로 가리키며 우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어서 이놈을 썩 끌어내가지 못해!》

우후는 발을 탕 구르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등개는 끄떡도 안했다.

《다시 묻겠소이다. 나으리, 이게 대체 무슨짓이오이까?》

《뭐라구, 무슨짓? 저런 고약스런 불상놈을 봤나!… 에잇, 이놈아!》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치민 우후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등개에게 집어던졌다.

날아드는 벼루에 가슴팍을 얻어맞은 등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옆에 서있던 군졸의 손에서 매채를 뺏아들었다.

정황은 급작스레 무섭게 번져져갔다. 그냥 놔두면 등개의 손에 들린 저 매채에 우후의 골통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일이였다.

옆에 있던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그만하지 못할가!》 하는 큰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눈길은 그쪽으로 쏠렸다.

《통제사나으리!…》

대문간에 서있는 사나이는 뜻밖에도 통제사 리순신이였다. 숱많은 그의 두눈섭은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고있었다.

통제사는 노한 표정을 짓고 대문간에 떡 벋치고 서있었다.

등개는 마음이 울컥해지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통제사나으리, 이거야 어디 분통이 터져 살겠소이까!)

등개의 두눈동자에는 이런 불만의 호소가 가득 실렸다.

호ㅡ 하고 한숨을 내쉬는 군사들도 더러 보였다. 통제사가 왔으니 이젠 등개와 삼보녀가 살아났다는 안도의 숨이였다.

가장 바빠난것은 우후 리봉태였다. 이렇게 갑자기 통제사가 들이닥칠줄 몰랐던 우후는 온몸에 얼음을 들쓴듯 정신이 아찔하였다.

당황해난 우후는 섬돌아래로 뛰여내려 통제사의 앞으로 황급히 다가왔다.

《통제사대감…》

《저놈 묶어라!》

우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제사의 불호령이 떨어져내렸다.

헌데 통제사의 손길에 군졸들이 어안이 벙벙해했다. 통제사의 화살촉같은 집게손가락이 분명 우후가 아닌 등개를 가리켰기때문이였다.

《못 들었느냐?!》

통제사의 령이 다시 떨어져서야 머리를 기웃거리던 군졸 두엇이 달려가 매채를 들고있던 등개에게 포승을 지웠다.

등개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통제사는 막무가내였다.

《그놈을 끌어다 옥에 처넣어라!》

《예잇ㅡ》

등개는 무엇인가 말하고싶었지만 입이 종시 떨어지지 않았다.

옥문이 절컥ㅡ 소리를 내며 닫기고나서도 영문을 리해할수 없는 등개는 눈만 그저 껌뻑거릴뿐이였다.

등개를 옥에 끌어가도록 령을 내린 통제사는 마당을 한바퀴 휘ㅡ 둘러보고나서 대청마루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내여놓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통제사는 멍석우에 쓰러져있는 랑자의 모습을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옆에 서있는 우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통제사대감, 돌산도가 얼마전 새벽에 왜적의 기습을 받은 사실을 알고계시오이까?》

《무어라고?! 돌산도가 기습을 받다니?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고. 좀더 자세하게 말해보라.》

통제사는 실지로 돌산도급습사건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팔동이를 만나지 못하고 전라좌수영으로 떠난 길이였으니 통제사에게 있어서 왜적에 의한 돌산도사건은 참말로 천만뜻밖

의 일이였다.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고? 죽은 사람은 몇이나 되는고?》

《여러채의 살림집이 깡그리 불타고 죽은 사람도 여럿이나 되오이다.》

《어허, 변고로다. 그럼 장공마을은 어찌되였는고?》

그 물음에 우후는 통제사를 쳐다보았다.

《왜적들이 침입한 곳이 바로 장공마을이로소이다.》

《무어라구, 장공마을을?!》

통제사는 억이 막혀 한동안 말을 못했다.

《돌산도를 들이친게 대체 어떤 놈들인고?》

《장공마을에 대해 환히 아는 놈들인듯 하오이다.》

《근거가 있는 소린고?》

《그렇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곡진장주만 훌쩍 잡아갈수 있겠소이까. 분명 왜적의 간자가 돌산도에 박혀있는게 틀림없소이다.》

통제사는 우후의 입에서 나오는 점점 더 험악한 소리에 기함할 지경이였다.

《곡진장주가 잡혀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린고?》

《그 장주의 손녀라는 저 계집의 입에서 나온 소리오이다.》

우후의 말에 통제사는 놀란 눈으로 멍석쪽에 눈길을 돌렸다. 곡진장주의 손녀라면 삼보녀가 틀림없을터인데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는지 죽은것처럼 기척도 없었다.

《자세히 말해보라.》

통제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피로운듯 눈을 감고 등받이에 웃몸을 맡겨버렸다.

어디선가 꿀벌이 웅웅ㅡ 하고 울어대는것 같았다. 허나 그것은 통제사의 귀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우후가 옆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있었지만 통제사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 곡진장주를 랍치해갔단 말이지! 내가 방심했던탓이로군. 정말 방심했어. … 놈들이 거북선을 노릴수 있다던 그의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였구나. 다른 사람은 다 생각 못했지만 그만은 미리 내다보았거던.)

통제사는 뼈아픈 죄책감으로 눈을 뜰수 없었다.

허나 그의 마음이 쓰린지 알알한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후는 금방 삼보녀를 통해서 얻어들은 소리에 제 말까지 보태가며 횡설수설을 늘어놓고있었다.

《저 계집의 말이 왜적들이 곡진장주에게 그 무슨 도해첩인가를 요구했다 하던데 그것을 내놓지 않자 무작정 배로 끌고 갔다고 하오이다. 배에 올라서도 왜적들은 그냥 곡진장주에게 도해첩의 행방을 따져묻더라 했소이다.》

《뭣이, 그럼 거북선도해첩을!》

그제서야 우후도 《아하!》 하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게 거북선도해첩이였소그려. 과시 왜적이 탐낼만 한 물건이로소이다. 그러니 대감, 제 추측이 틀림이 없다면 그 곡진장주는 분명 왜적에게 넘어간듯 하오이다. 대감의 말대로 그게 정말 거북선도해첩이라면 왜적들은 아마 곡진장주에게 거절할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을것이오이다. 응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날아나겠는데 곡진장주가 무엇을 택했을지는 삼척동자도 가히 짐작할수 있을것이외다. 분명 곡진장주는 왜적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도해첩을 감춘 장소를 손녀에게 대주었고 저 계집은 그것을 찾겠다고 구사일생을 가장해 다시 들어온듯 한데 도해첩을 뺏기면 제 할애비를 살릴수 없겠으니 아무리 물어도 모른다고만 뻗쳐대는 꼴이로소이다. 쯧쯧쯧.》

우후의 혀를 차는 소리만이 마당가에 떠돌았다.

군졸들은 너무나도 놀랍기만 한 우후의 말을 듣느라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있었다.

그때 마당가의 고요를 깨뜨리며 통제사의 령이 내렸다.

《곡진장주가 왜적에게 넘어갔다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로다. 곡진장주는 나와 함께 거북선을 무은 장공으로서 내가 잘 아노라. 그는 절대로 쉽사리 굴복할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눈앞에 물증이 보이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모든 험담은 용서할수 없다. 그리고 저 랑자도 속히 놓아주도록 하라. 왜적이 거북선에 눈독을 들인다는게 분명해진 이상 우후는 빠른 시일내에 도해첩을 찾도록 할것이며 모든 군사들은 각성들을 높이고 절대로 해이되지 않도록 하라.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있어 제일가는 금물이 바로 이것이다. 전시에 란동을 부리고 군률을 문란시킨자들은 엄격히 처벌할것이다. 여봐라! 아까 마당에서 야료를 부리던 놈을 이리 끌어내오너라!》

군사들의 낯빛은 시커멓게 질렸다. 통제사가 군률을 들먹인다는것은 곧 목을 벤다는 소리와 같다는것을 모르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우후!》

통제사가 불렀다.

《무슨 일이오니까?》

우후는 통제사의 곁에 다가가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저놈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여라.》

우후는 리순신의 곁에 착 붙어 허리를 굽히고 조용조용 귀속말을 넣었다.

우후의 말을 듣고있던 통제사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후가 하는 말에 동감을 표하는듯 했다.

우후는 곧 통제사에게서 물러나 허리를 쭉 폈다.

얼핏 통제사의 얼굴을 훔쳐보니 시름이 가득 몰렸다는것이

한눈에 알린다.

(흥! 통제사의 속이 꽤나 알알하겠는걸. 허접쓰레기 같은 불상놈들에게 함부로 은혜를 베풀면 안된다는것을 이제는 알았을테지.)

우후는 속으로 깨고소해하였다.

한편 리순신은 마음이 번거로왔다. 우후의 말을 듣고보니 등개가 곡진장주가 늘 외우던 외손녀사위감이 틀림없었다. 그게 아니라도 리순신은 등개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등개를 볼 때마다 그는 섬오랑캐놈들과 바다에서 처음으로 싸움을 벌렸던 옥포앞바다가 자꾸만 생각이 났다.

그때 판옥선과 협선, 포작선들로 이루어진 조선수군의 함대는 옥포항구에 몰켜있는 50여척의 왜적함대를 향하여 무섭게 돌진하였다. 하늘과 바다를 통채로 뒤흔들듯 쾅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발사된 화포알들이 련이어 적선들을 통쾌하게 들부시였다. 죽음을 고하는 왜적의 아우성소리가 싸움마당에 떠들썩하였다. 원래 옥포항구라는것이 거제도 안쪽으로 우묵하니 패여들어간 곳에 위치했던지라 조선수군함대에 의해 입구를 봉쇄당한 왜적들로서는 그 어디로도 빠질 곳이 없었다.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 조롱안에 든 새였다.

조선수군함대의 섬멸적인 타격에 왜적수군은 꼼짝없이 녹아났다.

궁지에 몰린 적들은 필사적으로 발악하여나왔다. 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를 무는 격이랄가.

일제히 발사되는 놈들의 조총탄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배전 여기저기에 들이박혔다. 비록 조선함대의 드센 공격으로 적들의 서렬은 흐트러졌지만 워낙 수가 많았던지라 놈들의 최후발악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통에 어느 배에선가 장대가 부러져 거기에 매놓았던 군기가 떨어지게 되였다.

《기발이 떨어진다!》

리순신장군은 아연한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기발이 떨어지다니?!)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배전을 차고 한 군사가 바람처럼 날아올라 꺾어지는 장대를 붙잡는것이 보였다.

(그렇지! 아무렴!)

리순신장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군사는 군기가 매달린 장대를 두손으로 틀어쥐고 하늘높이 쳐들었다.

주위로 적들이 내쏘는 조총탄알이 무수히 날아와 박혔지만 그 군사는 아랑곳도 않고 꿋꿋이 서있기만 하였다. 그야말로 불사신같았다.

(참으로 장할시고!)

리순신장군은 뿌듯해지는 마음과 함께 감탄을 거듭하였다.

(저런 군사들이 있는데야 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고!)

리순신장군은 큰소리로 령을 내렸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멸적의 기세높이 조선함대는 기발을 펄럭이며 포위환을 좁혀들어가 왜적함대에 불세례를 후련하게 들씌웠다.

싸움이 끝난 후에야 리순신장군은 바로 그 군사가 곡진장주가 제 외손녀사위감으로 점찍어둔 젊은이였음을 알게 되였다. 이름은 등개라던지… 그때부터 리순신장군은 싸움마당에 나갈 때마다 등개라는 그 젊은 군사를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는 보면 볼수록 대견하게만 느껴지는 젊은이였다. 특히 눈앞에 왜적만 나타나면 범처럼 펄펄 뛰며 용맹을 떨치는게 마음에 꼭 들었다. 전란초기에 진행되였던 사천앞바다싸움때에 단 한대의 화살로 3층다락배우에서 거들먹거리던 왜장놈의 멱을 꿰뚫어 바다에 처박는 등개를 본 리순신장군

은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그를 전라좌수영의 군교로 발탁시켰다.

군교가 된 등개에게서 처음으로 절을 받아보던 그때의 흐뭇한 감정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었다. 리순신장군은 등개를 보면서 앞으로 수군을 이끌고나갈 든든한 버팀목을 하나 찾아냈다고 내심 기쁨을 금치 못했었다.

그런 쓸만 한 놈이 군률을 어겼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군률은 자비가 없는 법이다. 병서에 이르기를 군률은 인정의 어느 한 꼬투리도 슴배여들수 없는 자못 지엄한것이라고 했다.

통제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뚫어지게 한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아래서 군졸들이 쓰러진 삼보녀를 질질 끌다싶이 하며 수영밖으로 내가고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온몸이 포승끈에 결박당한 등개가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참으로 결심하기 힘든 상황이였다.

마침내 통제사는 자리에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듣거라! 자고로 기강이 해이된 군사는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고 했다. 교련관 등개는 전번 바다싸움에서 세운 공이 있다 하여 군교로 발탁이 되였으나 제가 잘나 그렇게 된것으로 여기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심히 방종한 처사를 보였다. 무장이 된자로서 이런 란시에 상하구분이 없이 제 뻘대로 놀아대니 이런 군사를 어디다 쓰겠는가! 마땅히 선참으로 목을 베여 군률의 엄함을 알려야 할것이다!》

통제사의 말을 들은 우후는 속이 다 후련하였다.

(눈꼴사납게 놀아대더니… 네놈이 제 죽을줄을 모르고 그

렇게 날뛰였지.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이놈!)

《허나…》

통제사의 말은 계속되였다.

《왜적과의 바다싸움에서 세운 전공이 있고 지금까지 군생활을 착실하게 해온것을 고려해서 목은 베지 않을터이다. 듣거라. 교련관 등개에게 장형 80대를 안기고 돌산도배무이장에서 로역을 치르게 하라!》

《예잇ㅡ》

통제사가 말을 마치자 등개는 등골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다리에 맥이 탁 풀려 금시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것만 같았다.

장형 80대. 그만한 매쯤은 이미 각오한것이였다. 지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는것은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그자체였다.

휘익ㅡ 하고 찬바람이 몰려왔다.

9. 회남이

등개는 이전에 돌산도에서 회남이를 한번 본적이 있었다.

몇해전, 그러니까 섬오랑캐놈들의 1차침입이 좌절되고 《강화담판》의 미명아래 일시적인 태평시기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 해말 돌산도 장공마을근처에 절름발이 회남이가 지팽이를 짚고 나타났었다.

《곡진장주어른을 찾아왔는데 혹 알고있거들랑 어느 집인지 좀 가르쳐주시구려.》

고모를 만나보느라고 돌산도에 왔다가 다시 수영으로 돌아가던 등개는 자기를 불러세운 절름발이청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후렁후렁한 저고리안으로 넌지시 드러나보이는 구리빛가슴팍이며 무어라 말할수 없이 틀이 진 몸가짐이 시원시원한 그의 성격을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런가 하면 오목한 눈이라든가 찌프러진 량미간, 도드라진 이마와 잘근잘근 씹어대는 입술을 보느라면 이 친구의 고집이 보통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장주어른은 어째서 찾으시는거요?》

등개는 생전처음 보는 사람이 삼보녀네 할아버지를 찾아왔다는데 호기심이 동하여 거꾸로 그에게 물음을 들이댔다.

그러자 그 절름발이의 눈살이 대뜸 꼿꼿해졌다.

《알면 대주고 모르면 그냥 가오. 꼬치꼬치 캐묻는게 성가신 사람이구만.》

아하, 이건 오히려 제편에서 역증이다.

일이 그쯤 번져지니 절름발이에 대한 등개의 호기심만 더욱 커졌다.

《왜 찾는가 묻는데 곱게 대답이나 할노릇이지 역증을 낼 건 또 무어란 말이요!》

등개의 그 말에 절름발이는 홱 머리를 돌리더니 무섭게 쏘아보았다.

《지금 나하구 여기서 시비를 가르자는게요?》

《시비면 시비, 못 가를건 또 뭐요. 내 비록 당신처럼 한가한 사람은 아니오만 정 소원이라면 바쁜 일 다 제쳐놓고라도 얼마든지…》

보매 어느 한쪽도 호락호락 물러설것 같지 않았다.

절름발이는 땅바닥에 지팽이를 쿡 박아세우더니 넓은 천으로 둘러감은 허리띠를 풀어 다시금 꽉 동여맸다.

(이것 보지, 정말 해보자는거야?)

등개는 공연히 절름발이의 비위를 긁어주었다는 생각이 피끗 들었다.

성미가 괴벽할것 같은 이 친구가 만약에 자기에게 행패질이라도 하려든다면 사내자존심에 도망은 칠수 없는노릇이고 그렇다고 지팽이가 없으면 제 몸도 유지 못할듯 한 이런 사람에게 팔을 걷고나서서 버릇을 가르칠수도 없는노릇이였다. 게다가 몇번 당해보았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은 여느 다른 사람보다 자존심이 몇배로 강해 조금만 저보고 어쩌는것 같으면 발끈발끈 성을 내며 대들기가 일쑤였다.

(젠장, 일이 시끄럽겐 되였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팽이를 쥔 절름발이와 몸싸움을 하고싶지는 않았다.

《당신 속이 정 풀리지 않는 모양인데 우리 저걸로 시비

를 갈라봅시다그려.》

등개는 마을입구를 지키고 서있는 돌장승의 발치에서 굵은 나무몽둥이를 하나 주어들었다.

《그걸로 어찌자는거요?》

등개는 시치미를 뚝 따고 이렇게 말했다.

《맨손으로 이 나무를 두토막 내는 사람이 가타부타 할것없이 이긴걸로 칩시다.》

절름발이는 등개가 내미는 나무몽둥이를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보더니 머리를 기웃기웃거리며 이리저리 뜯어보는것이였다.

(어때? 이만한 굵기면 손을 들고 나앉는게 좋을것 같은데…)

등개가 보기에도 제가 내민 그 나무몽둥이는 보통 굵직하지 않았다. 자기가 꺾자고 해도 힘개나 뽑아야 할것이였다.

허나 절름발이도 배짱이 여간만 아니였다.

《좋소. 나부터 하겠소!》

절름발이는 팔을 쑥 걷어올리며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물러서지 않겠다? 좋아, 사내라는건데… 어쨌든 이 친구 마음에 들어.)

등개는 흥그러운 마음으로 절름발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몽둥이를 손에 든 절름발이는 그것을 툭툭 손바닥에 두드려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는것이였다. 그러더니 몽둥이를 곧바로 세우고 그 밑둥아리를 두손으로 꽉 틀어잡는것이였다. 그리고 눈을 감고 무엇인가 한참 념불 같은것을 외우고는 번쩍 눈을 뜨고 추켜들었던 몽둥이를 천천히 눈앞에 가로눕히는것이였다. 이어 천천히 모아잡았던 두손중의 한손을 몽둥이의 다른 한끝으로 이동시켰다.

이윽고 그의 목에 피줄이 살아올랐다.

《윽!》

힘쓰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따라 툭ㅡ 하고 나무가 부러져 나갔다.

《?!》

등개는 깜짝 놀랐다.

토막이 난 몽둥이를 량손에 하나씩 갈라쥔 절름발이는 거친 숨을 내불며 등개를 바라보았다.

《히야, 자네 대단한 근력을 소유하고있소그려!》

등개의 감탄은 진심이였다. 과히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였다.

《그쯤한걸 가지고 뭘 그러오. 보매 그쪽도 두부근육같지는 않은데.》

그 말에 등개의 얼굴빛은 순간에 달라졌다.

《어디 하나 맞춤한 놈으로 골라보시오.》

등개는 자기는 나무몽둥이를 아예 세워잡고 찢을 잡도리였다. 강궁을 당기느라 억세게 단련된 두팔로 본때를 보여주리라 단단히 결심했다. 벌써부터 팔뚝에 불끈불끈 힘이 솟는것 같았다.

《옛소, 이걸로 해보오.》

절름발이가 내미는것을 받아들던 등개는 《이건 뭐요?》 하고 화를 냈다.

그의 손에 쥐여진것은 절름발이의 지팽이였다.

《이걸 어쩌라는거요?》

등개는 지팽이를 다시 절름발이에게 내밀었다.

《자넨 좋은 사람같구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거긴 나쁜 사람이란 말이요?》

등개는 세상에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다는 투로 절름발이의 말을 받아넘겼다.

《회남이라 불러주오. 한때 나도 바다에서 배를 타던 사람이요. 악귀같은 섬오랑캐놈들이 조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그만 다릴 다쳐 이렇게 배에서 내리게 되였소그려. 헌데 배놈이 바다를 버리고 가면 어데로 가겠소. 그래 배를 만드는 장공이 될 결심을 품게 되였소. 소문을 들으니 배무이술에선 돌산도의 곡진장주님을 따를만 한 사람이 없다더구만. 그래 이렇게 제잡담하고 나선 길이요.》

절름발이는 사람좋게 웃었다.

그러니 등개의 마음도 스르르 풀리는듯 했다.

《그런것도 모르고 공연히 자네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구려. 이거 미안하게 되였소. 실은 우리 고모가 바로 곡진장주네 옆집에서 살고있다오. 저기 마을로 들어가면서 한 댓채 그냥 지나치느라면 우물이 나지는데 그 다음에 있는 집이 바로 곡진장주님의 집이요. 이거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면 좋으련만 내 길이 바빠놔서…》

《일없소. 바쁜 사람 지체시켜 참 미안하오. 이렇게 마주친것도 인연이면 인연인데 거기 함자나 알구 헤여집시다.》

회남이의 이 말에 등개는 아차! 하고 이마를 쳤다.

《내 정신 좀 보오. 항상 이렇다니까. 그럼 통성명을 틉시다래. 내 이름은 등개요. 경오년(1570년) 9월생이구.》

《저런! 난 경오년 정월생이요. 앞으로 날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소.》

《제기랄, 팔자에 없는 동생이 생겨서 기쁘시겠소.》

등개와 회남이는 돌장승이 서있는 마을어귀 나무그늘밑에서 큰소리로 웃으며 한바탕 떠들고나서 그만 제 길들을 찾아 걸음을 놓았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섬에 건너갔던 등개는 회남이라는 절름발이가 이 섬에 전혀 나타난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삼보녀에게 물어보니 어느날 어둑새벽에 알지 못할 사람 하나가 문밖에서 서성거리는걸 보긴 봤는데 들어오지 않

고 곧장 돌따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것이였다.

그때 등개는 별 이상스런 사람도 다 있다고 속으로 혀를 차고는 인연이 되면 언제든 다시 만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후 회남이란 존재는 점차 등개의 기억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불쑥 땅속에서 솟아나듯 회남이가 나타난것이다.

좌수영의 섬돌밑에서 우후의 심복들이 내려치는 강매에 아예 혼절해버린 등개를 겨우 거적에 싸서 돌산도 그의 고모네 집에 엎어놓은것이 불과 사흘전이였다.

등개는 맞은 여독이 퍼렇게 올라 볼기짝에 초약을 한가득 바른채로 회남을 맞았다.

《이게 회남형 아니요!》

《허, 날 잊진 않았구만.》

회남은 등개가 첫눈에 자기를 알아보는것이 무척 기뻤다.

회남의 갑작스런 출현과 자기의 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것이 못내 점직하여 등개는 이판사판이다 하고 능청부터 떨었다.

《엄살은 그만 부리라구. 볼기짝이 그만한것도 다행일세. 안 그런가, 동생?》

《제길! 형님대접받기 그렇게 좋으면 어디 실컷 그래보우. 헌데… 왜 그때 말도 없이 사라졌소?》

등개는 상처투성이의 볼기짝을 비스듬히 움직이며 회남을 쳐다보았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네. 갑자기 이 삐걱다리가 말썽을 일으키는데 괜히 일손바쁜 장공들에게 짐만 될것 같아서… 그래서 내절로 물러나고말았네.》

《그렇소? 그럼 지금껏 어디에 몸을 담고있었나?》

그 말에 회남이는 벌쭉 웃었다.

《꼬치꼬치 캐묻는 성가신 버릇은 여전하구만. 이래저래 세상을 돌아다녔지. 아무리 병신이기로서니 내 몸 하나 건사 못할가, 허허허!》

회남은 껄껄 크게 웃는데 등개는 허거픈 웃음을 지어보였다.

《헌데, 듣자하니 그 곡진장주어른이 왜적들에게 랍치되여 갔다면서?》

불쑥 꺼내든 곡진장주소리에 등개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건 어데서 들었소?》

《자네 왜 이러나? 내 다리는 남들만 못해도 이 두귀쪽만은 그래도 아직 성성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자네 약혼녀가 수영에 불리워가 욕을 봤다는 얘기도 들었네.》

회남이의 말에 등개는 《후유ㅡ》 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불었다.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회남은 모든걸 알고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그때문에 이 목이 뎅겅하고 달아나는줄 알았네. 무슨 정신에 내가 그랬는지…》

《자네도 참… 그 성미를 고치지 않았다간 앞으로 더 큰 욕을 볼수도 있어.》

회남이는 혀를 끌끌 찼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오? 아마 자네가 내 처지에 빠졌대도 달리는 행동하지 못했을걸.》

등개는 허공에 대고 주먹을 내흔들었다.

《참, 거 삼보녀를 구원해온게 누구라구?》

《아, 송원서. 관포만호 송이첨어른의 자제라우. 그 만호나으린 임진년 바다싸움에서 그만…》

등개의 말에 회남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그거 안됐구만. … 헌데 어떻게 되여 왜적의 배에 함께 타구있었다오?》

회남의 호기심은 정말로 끈질길 정도였다.

《기구한 사연이 있었더구만. … 제길,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우. 이제 보니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사람 성가시게 하는 재주는 자네두 나만 못지 않소그려.》

회남이는 그 말에 히쭉 웃음을 지어보였다.

《자네 약혼녀를 구원해주었다니 대체 어떤 사람일가 궁금해서 그러지.》

《원, 알구싶은것두 많다.》

등개는 공연히 손을 홱 내저으며 입만 다시였다.

《그나저나 행처를 모른다는 그 도해첩이 문제지. 그걸 찾아야 곡진장주나 삼보녀에게 루명을 들씌우지 못할텐데…》

《쩌쩌, 도해첩얘기까지 다 알구…》

그 말에 회남이는 화가 난듯 말했다.

《자네 정말 날 밥병신 취급할셈인가?》

《챠, 이런… 내가 잘못했네. 아, 잘못했다니까!》

등개는 우격다짐으로 회남이의 무릎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쯤한 일에 뭘 그다지나… 형님이란게 체통에 어울리지 않소그려.》

《허허허…》

회남이는 종내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그통에 등개도 허허ㅡ 웃었다.

《제길, 그나저나 그 도해첩이란게 뭔지 알수 없단 말이요. 리순신장군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곡진장주어른한테 분명 거북선도해첩이 있은듯 한데 그걸 감춘 장소는 누구도 모르니

그걸 어찌 찾겠나?》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 우후라는 량반이 아예 곡진장주 어른을 역적으로 몰아붙일 잡도리라던데… 그렇게 되면 자네 약혼녀는 또 어찌되겠나? 도해첩을 찾아 바치는 길만이 루명을 쓰지 않을 유일한 출로일세.》

《말이야 쉽지. 헌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도해첩을 대체 어디 가서 찾아낸단 말인가?》

회남이는 대답은 않고 그 물건이 마치 방안에라도 있는듯 사방을 둘러보기만 하였다.

《도해첩이야 보통책처럼 생겼을테지. 없는건 못 찾아두 있기만 하다면야 그걸 찾아내는것은 문제도 아닐걸세. 단지 그걸 언제, 어떻게 찾는가가 문제일뿐이지.》

갑자기 등개의 낯에 화기가 돌았다.

《어랍쇼. 자네도 도해첩에 꽤 관심이 큰것 같은데… 혹시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게 아니요?》

《하하하! 하긴 나도 그 도해첩에 영 무관심한건 아니지. 헌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방도가 떠오르는 법이라네. 자네 약혼녀가 조금 거들어준다면 도해첩을 쉽게 찾을수도 있고.》

등개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짓고있었으나 그러면서도 회남의 말에 뭔가 짚이는것이 있어 묻는 말이 예리해졌다.

《그건 대체 무얼 념두에 둔 소리요?》

《말해달라나?》

《물론.》

《그럼 가까이 오게.》

회남이는 등개의 귀에 대고 몇마디 수군거리였다.

《뭐요? 자네 정말…》

등개는 끝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쳤다.

《그것도 방도요? 참 어이가 없군.》

《왜 그러나? 그만하면 꽤 괜찮아보이는데.》

등개는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회남이가 내놓은 방도라는게 듣고보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것이였다. 글쎄 할아버지인 곡진장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삼보녀가 아무 책 하나를 자기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어디다 감춰두면 둘이서 그것을 찾아보자는것이였다. 그렇게 여러번 해보느라면 엉뚱한 곳에서 진짜 도해첩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것이였다.

《아이들 숨박곡질같군.》

《그럼 자네한테 더 좋은 방도가 있나? 있으면 어서 내놓으라구. 들어보구 좋으면 그대루 해보자니까.》

그러나 등개에게 그런 방도가 있을리 만무하였다.

대답이 궁해진 등개는 다시한번 회남의 제의를 곰곰히 따져보았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 혹시 그러다가 회남이 말처럼 진짜 도해첩을 찾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다음순간 등개는 자기가 래일부터 배무이장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구. 자네도 말하지 않았나. 방도는 간단해야 한다구… 그렇게 찾을것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눈길이 분산되지 않겠소. 이미 도해첩은 숨겨졌으니 모두 곡진장주의 립장에 서서 그 도해첩을 찾아보는게 훨씬 더 빠를것 같소. 우선 중요한 문제는 아래마을 의원댁에 가서 삼보녀를 만나는것이네. 아무래도 이 일은 자네가 해줘야 할것 같네. 아다싶이 난 래일 아침부터 배무이장에 나가야 하니까. 어떤가?》

《그럽세, 그야 뭐 어렵겠나.》

회남이의 말에 등개는 한결 마음이 개운해지는듯 했다.

어느덧 돌산도 장공마을에도 밤이 찾아와 모든것을 어둠속에 덮어버리였다.

한낮의 시름들은 다 잊고 등개와 회남이는 솔곳이 잠에 들었다.

꿈에서 등개는 삼보녀집 장농뒤에서 도해첩을 찾아내였다. 도해첩을 찾아들고 막 기뻐하는데 창호지를 찢으며 누군가의 팔이 쑥 들어오더니 등개의 손에 쥐여진 그 도해첩을 덥석 뺏아들고 눈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였다.

(아, 도해첩!)

깨여나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히 돋아있었다.

(휴, 꿈이였구나.)

등개는 소매로 이마를 쑥 훔쳐내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뒤척이였다.

문득 등개는 옆에 누운 회남이를 쳐다봤다.

(저런?)

등개는 깜짝 놀랐다. 이불밖으로 나온 회남이의 팔이 자기쪽을 향해있었는데 그 손모양이 꿈에서 본 그 손과 흡사했던것이다.

(수군에 있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했지. … 불쌍한 친구야. … 후ー 그나저나 팔동이 이 친구가 빨리 와야 할텐데…)

등개는 턱밑까지 이불을 바싹 끄당기고는 조금 뒤치락거리다가 이내 다시 굳잠에 들고말았다.

10. 《환대》

《자, 어서 내려라! 닝큼!》

말대가리처럼 긴 상판에 쫀마게(우로 묶어올린 왜상투)를 한 왜장놈이 꽥 소리를 지르자 그뒤에 서있던 졸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곡진을 배전밖으로 밀쳐냈다.

《어이쿠.》

짐짝처럼 굴러떨어진 곡진은 어디를 세게 얻어맞았는지 한동안 운신할념을 못했다.

《어서 걸엇!》

왜장놈은 곡진을 독촉했다.

곡진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다. 눈을 떠보니 옆에서 팔을 낀 두놈에게 끌려가고있었다.

(예가 어딘고?)

곡진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며 이쪽저쪽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곡진의 눈에는 모든것이 설었다.

(왜나라땅인게다. 헌데 이놈들이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걸가?)

놈들은 곡진을 끌고 잎이 반나마 떨어진 떨기나무숲속을 곧장 꿰지르더니 어느 한 가옥의 대문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이어 대문안에서 보기만 해도 흉물스런 얼굴의 왜구들이 쏟아져나오더니 제법 량옆으로 렬을 졌다.

곡진을 예까지 데려온 말대가리 왜장놈이 심복들앞에서까

지 자세를 바로잡는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대단한 벼슬에 든 놈같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왜놈들이 곡진을 끌어간 곳은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마도였고 돌울타리를 높이 둘러친 이 집은 바로 대마도에서 2인자로 자처하는 다이라의 집이였다.

곡진은 놈들에게 끌리워 문안으로 들어갔다. 놈들은 외따로 떨어진 별채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꺾어 뒤마당 련못가를 향하여 내처 걸음을 옮겼다.

곡진이 가지 않겠다고 악을 써대자 놈들은 주먹질, 발길질을 마구 해댔다. 반나마 정신을 잃은 곡진을 놈들은 물우에 솟아있는 정자안으로 거침없이 끌고 들어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는 사라져버렸다. 곡진은 정신이 아물거리는 속에 놈들의 뒤모습을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있던 곡진은 싱긋한 물냄새에 조금 정신이 드는듯 했다.

주위에는 땅거미가 깃들었다. 정자옆에서 홰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곡진은 탁탁 불찌를 튕기는 홰불과 알지 못할 무늬들이 찍힌 이상한 옷들을 입은 왜인들을 둘러보면서 자기가 지금 왜나라땅에 잡혀와있음을 확신했다.

《음.》

곡진은 제스스로 몸을 일으키려다 얻어맞은 자리가 쑤시는듯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옆에 서있던 두명의 졸개가 다가와 곡진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더니 움쭉 들어 몸을 일으켜세웠다.

곡진의 눈앞에 후렁후렁한 검은 옷을 걸친 체소한 늙은 왜인 하나가 꼿꼿이 몸을 편채 마주서있었다.

자기 팔을 붙들고있는 졸개들의 손이 떨고있는것으로 보아 이 체소한 늙은이가 이 집의 절대적권한을 가진 주인이고 졸개들이 모두 그를 범처럼 무서워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왜인의 작고도 맵짠 눈알에서 싸늘한 랭기가 풍겨나고있었다.

그 늙은 왜인은 손을 쳐들며 곡진에게 자리에 앉을것을 권유하였다.

곡진의 발치에는 어느새 방석 같은것이 하나 놓였다.

무지막지한 졸개들의 손아귀에 짓눌려 곡진은 그 방석에 털썩 주저앉아버리였다.

늙은 왜인이 졸개들에게 가벼운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졸개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뒤걸음으로 사라졌다.

한동안 왜인은 곡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곡진은 굳이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한참후에야 늙은 왜인이 먼저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아래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조선의 으뜸가는 장주님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소. 그건 다 내가 부덕한탓이니 부디 새겨두지 말길 바라오.》

늙은 왜인은 제법 류창하게 조선말을 번졌다.

《난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온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붙잡혀온 몸이니 구태여 례절을 차리지 않아도 무방하오.》

곡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혀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가 초대를 한셈 치시오. 솔직한 말로 이렇게 모셔오지 않았으면 장주어른이 제발로 오시겠다 했겠소? 그러니 부하들이 거칠게 군게 있다면 내 얼굴을 봐서 용서를 해주시오.》

《난 당신을 모르는데…》

곡진의 말에 늙은 왜인의 입이 헤벌쭉하니 벌어졌다.

《하하하, 난 첫눈에 장주님을 알아보았는데…》

《?》

곡진은 다시한번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다. 그래도 도무지 본 생각이 나지 않아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몇해전… 저 조선남단의 바다에서 저를 구원해준 일이 생각나지 않소이까?》

왜인은 품속에 손을 넣더니 자그마한 나무인형 하나를 꺼내여 상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새까맣게 옻칠을 한 나무인형과 마주앉은 왜인을 번갈아 살펴보던 곡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몇해전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시험항행을 나갔다가 풍랑에 밀려 거의나 숨이 꺼져가는 표류자를 구해준 일이 떠올랐다.

(그럼 그때 그 표류자가 저 왜인? 제길할!)

곡진은 그가 왜인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옷도 조선옷을 입었고 말도 조선말을 류창하게 했으니 왜인일것이라는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장주어른이 그때 저를 구원해주신 덕분에 오늘은 이 다이라가 이 섬의 두번째 인물이 되였소이다. 나로 말하면 평생 장주어르신께 머리칼을 베여 신을 삼아드려야 할 사람이지요.》

자기를 다이라라고 소개한 늙은이는 곡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까딱해보였다.

《그때 장주어른이 내여준 배를 타고 섬에 돌아온 나는 그 배와 어른이 배워준 배무이술을 밑천으로 큰 리윤을 얻게 되였소이다. 글쎄, 그 배를 가지고 일본땅은 물론이고 조선과 중원을 비롯해 그 어디인들 안 가본데가 있었겠소이까. 헌데 다른 배들은 조그마한 풍랑에도 쉽게 깨여지고 뒤집혀

졌지만 그 배만은 웬간한 파도에도 끄떡없더란 말이요.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를수 있은건 다 장주어른의 덕택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나이다.》

곡진은 눈을 감은채 아무런 말도 없었다.

불현듯 그때의 일이 어제런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옳아, 바다에서 건져낸 그 사람의 손에 바로 저 나무인형이 쥐여져있었었지…)

…그때 나무인형을 손에 쥔 표류자는 정신을 잃고 다 죽어가던 상태였다. 곡진은 파도에 흔들리는 나무궤짝우에 쓰러져있는 그를 업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표류자는 이틀만에야 정신을 차리였다.

장주가 미음을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멀뚱멀뚱 눈을 뜬채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곡진은 그의 웃몸을 일으켜세워 미음을 떠먹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였는지 그가 손에 들고있던 나무인형이 떨어져 걱정에 싸여 곁에 앉아있던 삼보녀의 발치에 굴러내리게 되였다.

삼보녀는 얼결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표류자의 입에서 알지 못할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불을 들치고 막 삼보녀에게로 다가가려고 하였다.

곡진이 진정하라며 눌러앉히자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여 우는것이였다.

가만 들어보니 딸자식의 이름을 부르는듯 했다.

(아마 풍랑에 모두 잘못되였나보다.)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든 곡진은 한동안 그를 돌봐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동안 삼보녀는 용이 할매네 집에 가서 머물도록 하였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삼보녀만 보면 미친듯이 《유

미에야…》 하며 제 딸자식인듯 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음소리를 냈기때문이였다. 아마도 삼보녀를 자기의 딸과 헛갈린 모양인지…

며칠이 지나 몸을 추세운 그에게 곡진이 그의 딸애이름을 두고 왜년의 이름같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순간 얼굴을 붉혔다가 손을 내저으며 그런게 아니라 자기는 유씨성을 가졌고 딸은 미혜, 유미혜라고 얼버무렸었다.

《그랬댔군. 난 그것도 모르고…》 하고 곡진은 넘겨버렸던것이다.

곡진은 가족을 다 잃고 아예 폐인처럼 되여버린 그가 제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갈수 있도록 배뭇는 재간을 조금씩 가르쳐주었다.

한 서너달이 흐른 뒤 곡진은 그가 제손으로 무어낸 배를 바다에 띄우게까지 되자 그 배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제는 마음을 놓을수 있게 된것이다.

그는 떠나면서 곡진에게 거듭거듭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었다. …

다이라는 그때처럼 다시한번 고개를 숙여보였다.

곡진은 생각키우는것이 있어 물었다.

《이제는 딸이 퍼그나 컸겠소. 당신이 말한 조선이름을 가진 미혜말이요.》

순간 다이라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다.

《오호? 기억력이 대단하시오. 역시 조선인들 머리는… 예, 잘 지내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는바요. 실은 유씨가 아닌 유미에, 유미에 다이라요.》

《흥, 거짓은 갈데 없는 당신들 기질이지.》

다이라는 대꾸없이 두손을 모아 얼굴앞에 대고 까딱 숙여보였다.

《그래, 새삼스레 그때 인사나 나누자고 날 여기로 붙잡아왔소?》

곡진은 왜인의 인사를 받기가 거북스러워 무뚝뚝하게 이런 말로 대꾸하였다.

《아, 물론 그건 아니요. 실은 장주어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내가 부탁을 좀 했댔소.》

《저 무도한 인간백정들에게 말이요?》

《원, 그렇게 입에 힘을 주기까지야… 그런 일에 재간을 가지고있는 젊은 친구들을 나는 많이 알고있소. 칼밖에 모르다나니 좀 무례스러운게 탈이긴 하지만 이렇게 당신을 내앞에 모셔다놓지 않았소.》

《흥! 왜 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나 어서 말하오.》

곡진은 맞았던 부위가 쿡쿡 쑤셔났지만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곡진장주, 내 부탁은 당신으로서는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요. 그저 나에게 새 배를 하나 무어주었으면 하오. 사례는 내가 황금으로 후히 해드리리다.》

《새 배?》

《그렇소, 배요. 당신이야 배무이에선 으뜸이 아니요.》

다이라는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징그럽게 웃었다.

《무슨 배를 만들어달라는거요?》

곡진의 물음에 다이라는 두손바닥을 마주쳐대고는 고개를 우로 쳐든채 두눈을 감는것이였다.

한동안 그러고있던 다이라는 눈을 살며시 뜨며 말하였다.

《당신네 수군에 있는 그… 듣자하니 거북선이라고 한다던가… 그 배를 하나만 만들어주면 당신에게 황금을 주겠소. 물론 집에 돌아가고싶다면 그렇게도 해주구.》

곡진은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구, 날더러 거북선을 만들라구? 천하에 뻔뻔스러운 놈이군.)

그러나 곡진은 불끈불끈하는 속생각과는 다르게 천연스레 대꾸를 하였다.

《대체 얼마로 치를셈이요?》

그 말에 다이라의 낯빛이 밝아졌다.

《먼저 황금 세근을 선불로 드리겠소. 배가 완성되면 그의 곱을 더 받게 될것이요.》

《흥, 고작…》

곡진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 황금 여섯근이 작소?! 그거면 저기 나고야나 교또 같은데서 제일 큰집을 통채로 사가지고 꽃같은 미인들속에서 일생을 풍청대며 놀구먹을수 있소. 아니면 벼슬을 한자리 크게 해먹어도 될게요. 여기 대마도 도주가 바로 도요또미관백의 총애를 받는 막하장수인 고니시 유끼나가의 사위되는 사람이라오. 나와 아주 절친한 사이이니 아마 내 청이라면 거절하지 못할게요. 당신이 이번에 나를 도와준다면 내 당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소. 자,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지지 않소. 어떻소?》

《정말 쪼물짝하구려. 당신 그릇이 그게 다요? 왜나라땅을 통채로 주겠대도 모르겠는데… 고것이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소. 참새를 놓고 크냐작냐 따지는 격이군. 당신은 나를 잘못 보셨소그려.》

곡진의 말에 다이라의 얼굴빛이 금시 어두워졌다. 똑바로 뜬 그의 세모눈에서 살기가 뿜어져나왔다.

《장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데 당신은 앞에 앉은 이 늙은이를 조롱하는구려. 당신 처지에서 그건 매우 좋지 않고 또 위험한 행동이라는것을 그래 모르시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처지를 재빨리 깨닫는것이 어느때보나 유익하다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잡혀온 포로란 말이요. 즉 당신의 생사여탈권이 내 손안에 쥐여있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다이라의 어조는 순간에 싹 달라졌다.

바람이 휘이ㅡ 차가운 기운을 휘뿌리고 달아났다.

《알만 하오. 그때 당신을 구원한데 대해 난 한생을 후회할거요. 당신을 증오하오. 그러니 내게서 뭐 기대할 생각은 아예 마오. 어서 나를 집으로 보내주오.》

곡진은 강경한 어조로 다이라에게 들이댔다.

그러나 다이라는 히물히물 웃으며 알릴듯말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손녀가 보구싶겠소. 정 그렇다면 손녀까지 데려다 함께 살게 해주겠소. 어떻소?》

《내 손녀 손끝 하나 건드렸다간 네놈의 생간을 씹어먹구 말테다!》

곡진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아아,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 마오. 당신이 일단 여기에 온 이상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오. 그러니 손녀를 여기에 데리고 오는것이 당신에게 훨씬 리로울거요. 이미 당신은 나라의 역적이 되였으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가 어떻게 되리란건 뻔한 일 아니요.》

《역적이 되다니… 누가 역적이라는거냐?!》

다이라는 삵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 당신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너무 격해서 그러지 말고 어디 내 말을 마저 들어보오. 당신이 감춰둔 그 도해첩은 이제 조만간 이곳으로 당도하게 될거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여기에 와

서 거북선을 만들고있다는 소문을 이미 퍼뜨려놓았소. 도해첩이 없어지고 거북선이 여기서 만들어지고있다면 그래, 당신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것 같소? 틀림없이 당신은 역적으로 락인될거요. 이미 그랬는지도 모르지. 당신의 손녀도 마찬가지일테구. 그렇게 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소. 차라리 그럴바에는 우리 요구대로 제꺽 배를 하나 만들어놓구 손녀를 데려다가 아무데로나 가서 풍청대며 살란 말이요.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에 남을수도 있소. 곡진장주, 잘 생각해보오. 절개니 뭐니 하며 어리석게 놀다가는 당신만 깨깨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요. 살길은 여기에 얼마든지 있소.》

갑자기 곡진은 심장을 칼로 베여내는듯 한 아픔을 느끼였다.

《비렬한ㅡ》

곡진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게 숨을 내쉬였다.

그 모양을 바라보던 다이라는 《좋소. 그럼 내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지.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못하오. 부디 현명한 결심을 내리길 바라오.》라고 말을 던지고는 고개를 한번 숙여보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곡진은 눈앞이 가물가물해졌다.

(역적이라니, 내가… 역적이 되다니?! 아, 원통하구나!)

곡진은 몸을 가눌 기력도 없어 한동안 돌바닥에 그대로 쓰러져있었다. 싸늘한 기운은 그대로 그의 몸을 엄습하여 혈관속으로 흐르는 피에서 더운 열을 깡그리 앗아가는듯 했다.

핑ㅡ 하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디선가 몰려든 찬바람이 곡진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아버렸다.

11. 의심

등개가 배무이장에서 일한지 며칠이 안되여 한산도에 건너갔던 팔동이 불쑥 나타났다.

《등개!》

《팔동이!》

등개와 팔동은 서로 부둥켜안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자네 우후에게 대들었댔다며? 그 성미는 여전해.》

《말말게. 하마르면 군률에 걸려 목이 잘리는줄 알았네. 통제사어른이 아니였다면 자넬 두번다시 못 볼번 했어.》

팔동이는 등개를 잡았던 두팔로 그를 밀쳐내였다.

《흥! 그따위 소린 하지도 말게. 제가 감히 어디라고 군률을 들먹인단 말인가! 먼저 군률에 걸어 죄를 따질 사람이 누군데?》

《죄를 따지다니, 그건 또 무슨 가을뻐꾸기같은 소린가?》

《아, 거… 당포해전때 돌격기가 올랐는데도 저 혼자 살겠다구 몸을 사렸던게 누군줄 알아? 응당 맨 앞장에 서야 할 장수가 왜적의 탄환이 비발치듯 하자 그게 무서워 뒤걸음쳤거던! 그때 우후나으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구 내 손을 붙들고 뭐랬는지 아나? <팔동아, 팔동아! 이거 갑자기 아래배가 뒤틀리는구나.> …그리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래갑판에만 처박혀있었지. 흥! 내 이 말은 아직 누구에게도 발설을 안했다만… 군률을 따질려면 응당 이것부터 따져야지. 안 그런가? 똥묻은 개주제에 누굴 보구…》

팔동은 제잡담 혀를 끌끌 찼다.

《에끼, 그럼 나도 개란 말인가?》

등개가 발끈하여 주먹을 내흔들자 팔동은 얼른 자라목을 해가지고 그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얼른 그 주먹을 내리우라구. 그렇지 않으면 또 간지럼을 피우겠어!》

간지럼이라는 말에 등개는 갈비살이 꿈틀거렸다.

등개는 팔동이를 콱 밀쳐버리고 일어나 냅다 저쪽으로 뛰여갔다.

《서라!》

팔동이도 덩달아 모래불로 뛰여갔다. 두손을 쳐들고 뛰고 쫓아가는 등개와 팔동의 뜀박질은 한동안 계속되였다.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 둘 다 모래불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리고는 가쁜숨을 고르느라 씩씩거렸다.

《제길, 이게 무슨 꼴이야. 철딱서니가 없는 애들처럼…》

《왜, 또 겨드랑이가 근질근질한가?》

손가락을 빼든 팔동이 등개를 《위협》하였다.

《저리 치우지 못해, 며칠 나가있더니 아주 버릇이 고약해졌군.》

《요즘 녀석들은 웃어른을 존경할줄 모르는게 탈이라니까.》

《챠아, 수염턱이 아직 까칠한게 무슨 웃어른이야?》

팔동은 정색해진 등개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빈정거렸다간 등개의 주먹 두어개쯤은 건사할것 같았다.

《아아, 그러지, 그러지. 손자의 말도 들을 때 가선 들어야 한댔으니까.》

《이걸 그저…》

등개가 다시 주먹을 쳐들어보였다.

《하하하!》

서로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은 다정스러웠다.

《갔던 일은 어찌되였나?》 하고 등개는 물었다.

팔동은 흐트러진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점잖게 말을 받았다.

《일이 공교롭게 되여 통제사어른은 못 만났지만 대신 죽은줄 알았던 내 형을 한분 만나보았네.》

《응, 형이라는건?!》

《챠, 이런 까마귀골이라구야. 내 말했지, 우리 가문에 대맹선을 타는 형이 한분 있다구… 이종사촌말이야!》

《아하… 헌데 그 형님께서 어쨌다는건가?》

《알고보니 그 형님이 바로 경상우수영에 적을 둔 령선이더군.》

《어이쿠, 할아버지때부터 짠물에 쪘다 했더니 가문팔자에 없는 령선님이 다 나오구…》

등개는 령선이라는 말에 어지간히 놀랐다. 수군에서 령선이라면 보통 세줄이 아니였던것이다. 수군이라 하면 괴춤에 주척으로 3치정도의 둥근 패쪽을 찼다. 그 한쪽면에는 아무 포구의 수군 아무개라고 이름과 년령, 용모의 특징과 거주지를 밝혀쓰고 다른 한쪽면에는 그것을 만든 년월일을 쓰며 량쪽에다 전자(고대글씨)로 화인장(불도장)을 찍었다. 다같이 최하층의 군졸이면서도 이 둥근 패쪽을 찬자라야만 수군이라 일러주며 수군은 그 소임을 대대로 물려 내려갔다. 일단 수군이 된자는 다른 신역을 지지 않아도 되였다. 수군은 일단 배에 오르면 령선의 지휘를 받았다. 령선은 배 한척을 맡은자이다. 그런 배 10척을 통령선이 통솔하고 30척이면 천호가 이끌었다.

전란초기 왜적이 풍우같이 밀려든다는 소문만 듣고도 병사니, 절도사니 하는 금관자, 옥관자를 단 량반들이 제 혼자

살겠다고 황급히 줄행랑을 놓는통에 군통솔체계는 일시 마비되였다. 그러던것을 삼도수군통제사 리순신이 수적으로 적은 군선들과 수군들을 휘동하여 남해의 물목을 타고앉아 도요또미 히데요시가 오래동안 다져온 《수륙병진》의 기도를 꺾어놓았다. 그 첫 싸움에서 목숨걸고 싸운 사람들은 다 평범한 수군들이였다.

그제서야 선조왕이 막급한 사태에 대처하여 량인이나 천민들속에서도 출중한 싸움인재를 발탁하라는 어지를 내리여 그 바람을 입어 등개나 팔동이 그리고 팔동이의 이종사촌 같은 천민들이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감투를 쓰게 된것이였다.

팔동은 바람결에 시끄럽게 날리는 머리털을 입김으로 내불며 하던 말을 차근히 이어나갔다.

《자네가 부탁한대로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에 대해 형님에게 직방 물어보았더니 아 글쎄, 우리 형님이 그 집 래력을 소상히 알고있는게야.》

《그래?!》

팔동은 등개의 애타하는 얼굴을 마주보며 마른침을 꿀떡 삼켰다.

《송만호의 자제들속에 원서라는 이름을 가진 글도령이 있었다네.》

《있었다는건? 그럼 지금은 없다는건가?》

《글쎄…》

《무슨 얼빠진 소린가, 바로 말하라구!》

가랑잎에 불달리듯 하는 등개인지라 벌써 량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졌다.

그런 꼴이 보기 좋았던지 팔동이는 일부러 말꾸레미를 늦추었다.

《허어, 그 못돼먹은 성미… 내 말을 들으라구. 송이첨어

른이 장렬하게 전사하자 원서도령이 기어이 원쑤를 갚겠다고 혈서까지 써놓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네. 그후로 종무소식이네. 혹 부산포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죽었다는 말도 있고… 왜적들을 잡으러 승냥이굴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 죽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노릇 아닌가. 그래 형님도 그 글도령이 살아있단 얘길 듣고는 눈물을 다 흘렸네. 형님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 약혼녀를 구해준 그 젊은이가 관포만호 송이첨어른의 둘째도령이 확실해. 생김새도 그렇구… 또 그가 자네에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맞는걸 봐선…》

《음ㅡ 팔동이, 이번 길에 정말 고생많았네. 내 잊지 않고 자네 좋아하는 막걸리를 한사발 내겠네.》

등개의 그 말에 팔동은 피씩 웃었다.

《쳇… 자네 약혼녀한테서 그 턱을 받아먹었네. 그래두 또 내겠다면야 사양하지 말아야지.》

팔동의 입에서 갑자기 삼보녀소리가 나오자 등개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건 무슨 소린가, 삼보녀한테서 턱을 받아먹었다는건?!》

《흥, 방금은 제 살점이라도 떼줄것처럼 너스레를 떨더니만 약혼녀소리 한마디에 이렇게 태도가 싹 달라지네그려.》

팔동은 괜히 딴전을 부리면서 등개의 약을 올려주었다.

《어서 말하라구, 삼보녀가 뭘 어쨌게… 맞아보겠나?》

등개가 주먹을 추켜들었지만 팔동은 더욱 씨물거렸다.

《진정하라구, 자네 약혼녀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야?》

팔동이는 등개가 주먹을 내리우자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산도에서 돌아온 저녁이였다. 같은 배를 타고있는 늙

은 수군이 찾아와 우후가 팔동이를 찾는다는 전갈을 알려 주었다.

그가 한산도를 다녀온것은 우후도 모르는 일이라 팔동은 어딘가 미심쩍어하였다. 이틀동안 배가 아프다고 핑게를 댔는데 우후가 그걸 눈치챈 모양이다. 늘 사람의 속을 찌르는 것 같은 우후의 세모진 눈이 벌써부터 기분나쁘게 안겨왔다.

(혹시 어느 놈이 밀고를?)

팔동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수군의 뒤를 쫓았다.

그날 우후를 만난것은 뜻밖에도 팔동이 잘 아는 길거리주막집의 뒤골방에서였다.

팔동이는 볼수록 뺨치고싶은 관기같이 예쁜 주모로 하여 이 주막집을 수없이 찾아들었어도 호사한 뒤골방은 처음인지라 얼굴이 지지벌개져 그처럼 좋아하는 도깨비장물도 마실념을 못하고 꿔온 보리짝처럼 무료히 앉아만 있었다.

《왜, 술맛이 없는게지? 아니면 내게 뭘 꺼리는게 있든가…》

《나으리, 그럴리가 있겠소이까. 제가 군교로 된게 뉘 덕이라고…》

팔동은 얼굴에 어색한 빛을 띠우며 뒤더수기를 쓱쓱 긁었다.

《알긴 아는구나. 그때 통제사령감이 너희들을 발탁시키려 할 때 내가 끝까지 반대를 했었다면 너희들은 결코 군교로 되지 못했을거다. 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보고는 못참는 성미니까. 그러나 난 그러지 않았어. 그게 왜서인줄 알아?》

대답을 재촉하는듯 팔동을 쳐다보는 우후의 세모진 눈이 뱀처럼 차거웠다.

팔동이는 무어라 대답을 못 찾고 두눈만 껌뻑거렸다.

《전부터 너를 눈여겨보아왔는데 제법 입도 무거운듯 하고 또 그만하면 쓸만 해보이더구나. 그냥 시골구석에 처박아두기는 아깝다 그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

우후의 물음에 팔동은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굽석거렸다. 전부터 보아왔다는것은 아마 우후가 싸움마당에서 뺑소니를 쳤던 당포해전을 두고 하는 말일테고 입이 무겁다구 하는건 그것을 여직 누구에게도 발설치 않은것을 보고 그러는것일테지만 자기를 그냥 시골구석에 처박아두기 아깝다는 말만은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우후는 팔동의 이런 아리숭한 마음을 어느새 알아차렸는지 계속 지껄였다.

《내게 찰싹 붙으면 넌 팔자를 완전히 고칠수가 있어.》

《예에, 팔자를요?!》

《그래, 내가 조만간 한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너를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다. 나만 따라나서게 되면 네 팔자쯤 고치는건 일두 아니다. 어때?》

우후는 음흉한 눈길로 팔동을 쳐다보았다.

《나 같은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니 될 말이 아닌줄로 아오이다.》

팔동이는 맘에 없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건 너한테 달렸지. 내 말만 잘 들으면 고생거리가 순간에 달라지는게구… 또 기생 따라주는 술잔도 받아볼수 있지.》

우후는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제 턱수염을 배배 꼬았다.

《우후나으리, 정말 고맙소이다.》

팔동은 넙죽 엎드려 절까지 하였다.

《절까지야 무슨… 그래,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느냐?》

《나으리, 그야… 여부가 있겠소이까.》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나오리라 생각했다. 응, 자, 어서 마셔라.》

팔동이는 그제서야 막걸리가 찰랑거리는 뚝배기사발을 쳐들었다.

우후는 뾰족한 하관에 몇오리 남지 않은 짧은 턱수염을 내리쓸며 팔동이 막걸리사발을 비우기를 기다렸다.

팔동이 말끔히 마셔버린 뚝배기사발을 상우에 내려놓기 바쁘게 우후의 심사 뒤틀린 소리가 들렸다.

《너도 보았다싶이 이번에 통제사령감의 명으로 그 계집을 곱게 놔주었다만 내 눈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 두고봐라. 이제 그 계집은 틀림없이 제 할애비가 숨겨둔 도해첩을 찾아쥐고 왜나라로 도망치려 할게다. 그 계집이 도해첩과 함께 사라져버리고나면 모든것은 끝장나고만다. 그러니 너는 빨리 군사들을 이끌고 돌산도로 건너가 그 계집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있다가 도해첩을 찾기만 하면 제꺽 붙잡아다 내앞에 끌어오너라.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러니 저더러 삼보녀를…》

우후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계집을 다시 붙들어야 하겠다. 넌 아이적부터 등개라는 녀석과 친한 사이였다니 네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려도 추호의 의심도 사지 않을게다. 그러니 이 일에 너만 한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네가 정말로 내게 쓸모있는 일을 한다면 너는 출세의 지름길을 찾게 될것이다. 단 한가지 명심할것은 절대로 이 말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된다는것이다. 만일 그 계집이 눈치를 채고 그로 하여 나라의 국보가 행여 왜적들의 손으로 빠져나가는 날에는 되려 귀양길이나 가게 될것이니까.》…

어깨숨을 툐는 등개의 눈언저리가 이지러졌다.

《그러니 지금 삼보녀를 감시하려 여기에 왔단 소린가?》

등개의 눈은 팔동을 노려보는듯 했다.

《마저 들어보게나.》

팔동은 우후의 령을 거역할수 없어 배를 타고 돌산도로 건너오게 되였다. 그러나 도해첩이 왜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를 한다는것이 말은 그럴듯해도 어디까지나 친구의 약혼녀를 몰래 살펴야 하는 일이였던지라 팔동에게는 어딘가 당당하지도 못하고 또 껄끄럽게만 생각되였다. 출세의 길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친구의 약혼녀를 섬겨바치고 립신양명을 얻을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그래 난 에라, 모르겠다. 직접 찾아가서 툭 털어놓구 말해줘야 하겠다 하구 곡진장주의 집엘 찾아갔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말을 꺼낼수가 없었네. 대신 삼보녀가 전어를 구워주기에 그저 자네에게 받을 인사삼아 그냥 받아먹구 나오구말았다네. 어때, 내가 잘했지?》

팔동은 우습강스럽게 한쪽눈을 찡끗해보였다.

《에끼, 싱거운 자식!》

등개는 팔동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툭 치였다. 그리고는 《허허…》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말았다.

《헌데, 그 집에 사람이 많다는건?》

《마을사람들이 달라붙어 집을 수리하고있었네. 거기에 송원서도 있더구만. 아마 이젠 몸이 다 나은것 같애.》

《송원서가?》

《그 글도령이 보기와는 다르던데. 기운개나 쓰더구만.》

《그런가?》

등개는 삼보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날 얼마나 원망할가. 헌데 나는 종일 배무이장에만

붙박혀있으니…)

그러나 지금의 등개로서는 삼보녀를 도울 방도가 없었다.

《다 리해할걸세. 자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아닌가. 그리구 이 팔동이가 우후나리의 덕분에 돌산도에 뻐젓이 드나들게 됐으니 집수리는 걱정말게.》

등개는 어느새 자기의 속마음까지 헤아리는 팔동의 말이 고마왔다.

《고맙네.》

《고맙기는… 참 등개, 자네 회남이란 사람을 아나?》

《회남이? 다리를 저는 사람 말이지. 깊이까지는 몰라두 안지는 퍽 오래되였네. 갑자기 그건 왜 묻나?》

팔동이는 말없이 이마살을 찌프리고 땅바닥만 내려보았다.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하라구.》

등개가 영문을 몰라하며 한편으론 속이 달아 다우쳐물었다.

《이번에 돌산도에 갔다가 거북바위근처에서 웬 절름발이가 어물거리길래 붙잡아서 따져물었더니 자네 이름을 대더구만. 어떤자인가?》

《글쎄… 내보기엔 사람이 듬직하던데. 경상도수군에 있다가 부상을 당했다더군. 마음도 순진해보이구.》

팔동은 대뜸 인상을 찌프렸다.

《수군에 있었다는건 누구의 말인가? 거 내보기엔 그닥 어진 사람같지 않던데… 눈빛이 좀 달라. 자넨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도해첩얘기를 다 나누었더군.》

팔동의 핀잔에 등개는 어지간히 기분이 상하였다.

《내가 보기엔 회남인 좋은 사람일세. 덮어놓고 의심하면 쓰나.》

《거야 마찬가지지. 자넨 왜 날더러 송원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나?》

등개는 그 말에 심중한 낯빛을 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때 알지 못할 사람을 덮어놓고 섬에 들일수는 없지 않아.》

《그가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이라는거야 이번에 확인되였지. 회남이라는 그 사람도 자네가 믿는다니 나도 내 생각을 거두겠네.》

분명 팔동의 말속에는 또 다른 말이 있었다.

등개가 그만한것쯤 눈치 못 챌리 만무하였다.

《자넨 지금 나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지? 뜸은 그만 들이구 어서 말을 하게. 아니라고는 말고…》

등개의 두눈을 한동안 마주보던 팔동이 역시 신중한 어조로 말을 뗐다.

《난 자네를 보는 순간부터 이 말을 꺼낼가말가 생각이 많았네. 생사람에게 함부로 감투를 씌우는건 좋지 않지. 하지만 임잔 너무 사람들을 좋게만 대하거던. 그러다 큰코 다칠수 있네.》

사실 팔동은 등개에게 이 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이 없는 혼자만의 추측이기때문이였다. 그것이 틀린것이라면 백번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에 하나 그 추측이 옳은것이라면 회남이를 남같지 않게 생각하고있는 등개나 삼보녀에게는 큰 불행일것이였다.

(차라리 다 말해주자. 털어놓고나면 내속도 좀 가벼워지겠지…)

무엇이나 가슴에 품고있는 성격이 아닌 팔동은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등개가 어떤 감정에서 듣게 되겠는지 속으로 가늠해보며 제가 보고 느낀것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12. 서낭당에서 찾은 흔적

돌산도 장공마을에서 맞은켠쪽 천마산포구로 가느라면 동구길어구에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것이 《천하대장군》이라는 글이 씌여진 돌장승이다.

언제 누가 거기에 다듬어 세워놓았는지는 알수 없어도 마을을 지켜준다는 기원과 오랜 숙망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 돌장승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종일 찌는듯 한 해빛에 온몸을 까맣게 태우고 바다로부터 불어치는 온갖 눈비바람을 고스란히 한몸에 맞고 서있는, 이제는 긴긴세월의 풍화작용으로 구멍까지 숭숭 나기 시작한 돌장승이 제법 섬사람들과 친숙해져 언제나 커다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인자스런 얼굴로 자기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대해주군 한다.

그옆에 어지간하게 솟은 돌무지가 있는데 장공인들은 그것을 《서낭당》(성황당)이라고 부른다. 이곳을 지날 때는 어부든 장사치든 의례히 돌무지우에 돌 세개를 주어다가 얹어놓고 침을 세번 뱉는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소이다.》

《빨리 마파람이 잦게 하여주소이다.》

해녀들도 가는 길이 아무리 바빠도 돌 한개는 슬쩍 집어던지고 간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쌓여진 돌이 무지를 이루고 누구나 그에 눈길을 보내고있어 이제는 장공마을의 입구에 선 돌

장승과 서낭당이 돌산도에서는 이 고장의 징표이면서도 하나의 자연경관을 이루었다.

그만큼 서낭당과 돌장승은 신령스러운 위엄을 띠고 장공마을의 수호신답게 늘 선하고 착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을 가져다주고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돌장승ㅡ《천하대장군》과 서낭당이 하루밤사이에 파헤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팔동이 통지를 받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토록 위엄있고 신령스럽던 돌장승이 자빠져있고 서낭당돌무지는 헤쳐져 길가 한쪽켠에까지 널려져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돌장승을 자빠뜨리려고 발치의 흙을 마구 파냈으며 나중엔 서낭당 밑바닥까지 싹 들춰냈다.

팔동은 돌장승과 서낭당이 왜 이런 모욕을 받았는지 알수없었다. 마을의 수호신을 넘어뜨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고 불안한 풍설이 돌며 온통 뒤숭숭하게 만들려는 나쁜 놈들의 책동같았다.

처음에 팔동을 찾아온 삼보녀는 입을 벌린채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 얼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삼보녀!》

팔동의 부름에 삼보녀는 흠칫 놀랐다.

《왜 그렇게 놀라니?》

《저… 저기… 가봐.》

《무슨 일이야? 어디 편치 않아?》

《서낭… 당에…》

《엉?》

삼보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떠듬떠듬 말을 하였다.

그제서야 팔동은 와뜰 놀라며 삼보녀를 뒤에 두고 급히 뛰여갔다.

(이게 무슨짓이야?! 어느 개자식이 간밤에 이런짓을 했을가?)

팔동은 길바닥에 머리를 박은채 넘어져있는 돌장승부터 보았다.

돌장승이 얼굴을 땅에 박고서 웃는지 우는지 모를 이상야릇한 낯색을 하고있었다.

그때 《저…》 하는 삼보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삼보녀는 민망스러운듯 저고리고름만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말끝을 흐리였다.

《왜 그래? 뭔가 내게 할 말이 있는것 같은데 사람속 궁금케 말고 어서 말해.》

안달이 나하는 팔동을 바라보던 삼보녀는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저쪽으로 좀…》

(?!…)

팔동은 영문을 몰라하며 그가 가리키는 마을쪽으로 제 먼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서낭당에서 퍼그나 떨어진 마을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을 때 또다시 《저…》 하는 삼보녀의 목소리가 팔동이를 멈춰세웠다.

《도대체 왜 그래?》

팔동은 머리를 돌려 삼보녀를 바라보았다.

삼보녀는 겁에 질린듯 걸어온 길 뒤쪽과 숲이 우거진 길모퉁이쪽을 번갈아가며 살펴보는것이였다.

《오늘은 꼭 귀신한테 홀린 사람처럼 이상해.》

정말 삼보녀는 귀신한테 홀린 사람같았다. 아까 넘어진 돌장승을 볼 때부터 낯빛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안절부절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영문

때문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씨원하게 말을 해보라니까. 이거야 어디 속이 답답해서 견딜수가 있나.》

팔동은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무엇때문인지 어서 말을 해봐.》

삼보녀는 입술을 깨물며 뭔가를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을 내린듯 입을 열었다.

《돌장승을 넘어뜨린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애요.》

삼보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만 팔동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엉, 그걸 어떻게 알아? 그놈이 누군데?》

《돌장승을 보는 순간 알았어. 분명 그가 그랬을거예요. 그밖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라는건 대체 누구를 보구 하는 소리야?》

《절름발이…》

이렇게 말해버린 삼보녀는 혹시 그가 가까이에서 제 말을 엿듣고있지나 않나 하는 겁먹은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좀 자세히 말해, 어째서 회남이가 돌장승을 넘어뜨렸는지…》

팔동의 물음에 삼보녀는 겁기가 가득 어린 목소리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바로 엊저녁에 그가 나를 찾아왔댔어요. 아니, 말하자면 우리 집 울바자곁에서 내가 먼저 그를 알아봤어요.》

삼보녀의 이야기는 흥미있었다. 확실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름발이 회남이는 의심이 가는 작자였다.

《그러니까 말을 요약해보면 엊저녁때 회남이가 찾아왔… 아니, 울바자곁에 있는 회남이를 발견하였고, 그가 이말저말

꺼내던 끝에 등개와 토론했다던 도해첩찾는 방도를 제입으로 설명해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군 하시던 곳이 어디 어디냐고 물어보아 서낭당일수도 있다는 말이 우연히 튀여나왔다, 그 말이지?》

《응, 거기다가 돌장승에 새똥이랑 묻으면 닦아주던 얘기까지 해줬어요.》

삼보녀의 말을 들은 팔동의 눈앞에는 돌장승의 밑바닥을 파내고있는 절름발이 회남이의 모습이 환영되며 안겨왔다.

…달빛을 등지고 부지런히 흙을 파제끼는 어둠속의 사나이, 이미 옆에 있는 서낭당돌무지는 밑바닥까지 죄다 파헤쳐진 상태고 이제는 말 못하는 돌장승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것을 흙바닥에 넘어뜨린다. 그리고는 감자밭의 메돼지처럼 여기저길 들쑤시며 뭔가를 찾고있다. …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팔동은 애써 머리를 흔들어 그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다.

(회남이가 등개에게서 도해첩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것은 사실 아닌가. 가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필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했을가? 혹시 돌장승과 서낭당에 손을 대는것을 사람들이 반대해나설가봐… 차라리 그를 만나 속씨원히 물어보자.)

팔동은 겁에 질려있는 삼보녀를 달래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알아볼테니 어서 집으로 가봐.》

그러나 삼보녀는 조금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듯 했다.

《할아버진 늘 돌장승이 넘어지면 불행이 닥친다고 외우군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돌장승에 대한 할아버지의 애착은 남달랐어요. 내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할아버진 돌장승앞에까지 마중나오시군 했는데 먼발치에서 바

라보느라면 돌장승과 할아버지는 서로 친한 사이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없는 지금에 와서 돌장승까지 넘어졌으니 놈들에게 붙잡혀간 할아버지에게 꼭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긴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요.》

비로소 팔동은 넘어진 돌장승을 보고 그렇게도 불안스러워한 삼보녀의 마음을 리해할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으실거야. 이제 제꺽 돌장승을 바로세우지.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라구.》

《돌장승을 넘어뜨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놈을 붙잡아 혼뜨검을 내줘야 해.》

삼보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팔동은 집쪽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기는 삼보녀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집문안으로 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자 오던 길로 돌아섰다.

(도해첩을 찾느라고 서낭당을 뒤졌구나. 헌데 감히 돌장승까지 넘어뜨렸단 말이지. 이자식, 가만두지 않을테다!)

그는 씩씩거리며 다시 서낭당쪽으로 씨엉씨엉 걸었다. 때마침 그쪽에서 회남이가 지팽이를 짚고 마주 오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나선 팔동은 다짜고짜 회남이의 멱살을 거머쥐였다.

《자네짓이지? 바른대로 말해.》

그러나 회남이의 팔뚝힘이 만만치 않았다.

《이걸 놔! 미쳤나?》

회남이는 가볍게 팔동이의 손을 치워버렸다.

그 서슬에 팔동은 하마트면 넘어질번 하였다.

《내가 돌장승을 자빠뜨리는걸 자네 눈으로 봤어? 왜 애매한 사람에게 함부로 루명을 씌워?》

《자네밖에 그럴 사람이 또 있어? 곡진장주가 늘 거기 가군 했다는 말을 듣고서 도해첩을 찾으려고 자네가 거길 뚜졌지? 서낭당을 파헤친것도 모자라 돌장승까지 넘어뜨려? 이제 그러다 천벌을 받아!》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성하지? 정말 내가 서낭당을 파제끼고 돌장승까지 넘어뜨렸다면 천벌이 내려서 사지를 뻗었을텐데 왜 이렇게 성성한가 말이야! 돌장승얼굴에다 밀가루 발라놓고 국수값 내라 한다더니 동다리(조선봉건왕조시기에 무장들이 입던 겉옷의 일종. 두루마기와 비슷하나 등뒤 아래가 터졌다.)나 걸쳤다고 막 덮어씌우네그려.》

팔동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것 봐라, 꽤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실직고하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군. 어디 그래 봐라.)

《이제 어떤 천벌이 쏟아지는지 똑똑히 알게 될게다.》

팔동이는 마지막말마디에 힘을 주고나서 서낭당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마음대로 해보게. 하지만 날 보는 그런 눈초린 감아버리게.》 하는 회남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서낭당에 가니 이미 군사들과 마을사람들이 넘어진 돌장승을 제자리에 들여세우고 흐트러진 돌무지를 정리하고있었다.

팔동은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가만, 이게 뭐야?!)

팔동이는 돌장승뒤에 있는 큰 나무곁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엽전처럼 동그란게 땅에 꼭꼭 찍혀 자리를 내였는데 이슬에 젖은걸로 보아 간밤에 생긴 자욱이 분명하였다.

팔동은 돌장승곁에서 땀을 닦고있는 한 군졸을 소리쳐불렀다.

《방금 여기 절름발이가 왔다갔지?》

그 군졸은 《그렇소이다. 아까부터 저기에 서있더랬는데 우리가 돌장승을 세우고나니 보이지 않았소이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가 이 나무밑에 서있었나?》

그 물음에 군졸은 뒤더수기를 벅벅 긁었다.

《글쎄… 돌장승을 옮기느라 잘 보진 못했는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던것 같소이다.》

《분명 그랬나?》

《예, 그렇소이다. 분명 여기까진 오지 않았던줄 아오이다.》

《음ㅡ 아, 알았네. 가보라구.》

군졸은 허리를 한번 굽히고 동료들속에 섞여들었다.

…

《그러니 자네 생각에는 회남이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건가?》

지금까지 팔동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등개가 되묻는 말이였다.

《그렇네. 분명 내가 본것은 지팽이자국이였네. 낮에 왔을 때에는 그 나무밑에까지 오지 않았다는데 그걸 봐선 간밤에 거기에 왔던것만은 틀림이 없어. 헌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겠지. 속이는게 아니면 뭐겠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팔동의 말은 등개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회남이! 그는 왜 자기가 한 일을 터놓지 못하는가. 또 왜 도해첩을 혼자 몰래 찾으려고 하고. 혹시 그가 도해첩을 찾는것이 다른 목적때문이 아닐가? 회남이…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등개는 회남에 대해 빨리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팔동이, 사람을 수영으로 띄워서 회남이에 대해 우리가 알고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네. 정말로 그가 수군에서 배를 탄게 맞는지, 그의 다리가 정말로 왜적과의 싸움에서 그리된것인지. 이것만 알아내면 진실이 밝혀질 거네.》

《좋네, 그렇게 하지.》

등개와 팔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세나. 래일 아침일찍 자넨 또 배무이장에 나가야 할테지?》

《그야 물론. 에에, 섬에 같이 있으면서 삼보녀를 만날새도 없네.》

《래일 삼보녈 보면 인살 전해주지. … 내가 없었다면 자넨 어찌될번 했나? 이담에 막걸리 한사발, 아니 두사발 사는걸 잊지 말라구.》

팔동은 지껄이며 발치에 떨어진 나무꼬챙이를 하나 집어들고는 휘ㅡ 멀리로 던져버렸다.

《갑자기 왜 한사발이 두사발로 불어나나?》

《글쎄, 여러말말구 두사발 내라면 공손히 내게. 난 혼자구 자네는 약혼녀까지 두명이니까 내가 두사발 받아먹는거야 응당한거지.》

《차라리 세사발 받으라구. 고모님 몫까지 합쳐서 말이야.》

《아차! 옳아, 고모님생각을 못했군. 정 그러면 고모님 섭섭치 않게 세사발을 마셔줘야지. 가만, 뭐 세사발?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래? 내가 뭐 죽은 사람인가!》

《에끼, 이 사람아! 세사발 받는게 무슨 죽은 사람… 누워서 받는게 죽은 사람이지. 싫으면 그만두게나.》

《아니, 두말말고 세사발로 하세!》

《하하하!》

겨끔내기로 터져나오는 두 사나이의 웃음소리가 해변가를 지나 소나무숲을 거쳐 다시 세운 돌장승이 지키고 서있는 장공마을쪽으로 멀어져갔다.

13. 잠들수 없는 밤

강씨는 요즘 들어 상처가 많이 나았다.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조금 부축해주면 퇴마루를 내려서 울바자가 있는 곳까지는 제발로 걸을수 있었다. 바다일로 단련된 몸이라서 그런지 하루하루 나아가는게 눈에 뜨일 정도였다.

등개는 배무이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선 고모가 있는 큰방에 들려 문안인사부터 여쭈군 하였다.

오늘도 팔동이와 문앞에서 헤여진 등개는 큰방으로 들어가는 퇴마루에 올라서서 《고모님!》 하고 우정 밝은 목소리로 찾았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강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등개는 조심히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추운데 힘들었지?》

강씨는 이불밖으로 손을 내밀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아니예요, 바람이 그렇게 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모님은 좀 어때요?》

등개는 고모의 곁에 주저앉아 이불밖으로 나온 거칠거칠한

그의 손을 꼭 감싸쥐였다.

《이젠 다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아.》

조카를 대견스레 바라보던 강씨는 살풋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바람이랑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의원어른이 그러는데 바람을 맞아 덧나면 안된대요. 참, 의원어른은 벌써 다녀갔어요?》

등개는 초약을 달인 냄새가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래, 그 사람이랑 같이… 거 그때 삼보녀를 구원해주었다던 그 총각 있잖니, 이름이…》

《송원서 말이예요?》

《그래, 그 송씨란 총각. 의원님하구 같이 왔댔다. 총각이 아예 의원님댁에 눌러앉은 모양이더라. 왜적들에게 부모를 다 잃어 외토리라면서?》

《예, 그래요.》

그 말을 들은 강씨는 《에그, 저걸 어쩌노.》 하면서 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내였다. 대상군답지 않게 눈물이 헤픈 강씨였다.

《너무 걱정을 말아요. 란시인데 어쩌겠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등개는 가뜩이나 깊은 상처를 입고 고생하고있는 고모가 병이 더할가봐 위안을 하였다.

그러나 강씨는 《그래, 탈이지. 모두 그렇게 가족들을 잃고나서 가슴들이 쓰려서 어찌한다더냐?》 하면서 또다시 머리맡의 수건을 들어 눈굽에 가져가는것이였다.

《참, 고모님두…》

등개는 고모의 따스한 손을 정차게 어루쓸었다.

《오, 너 시장하겠구나. 어서 밥먹어라.》

강씨는 하루종일 힘들게 일을 하다 들어온 조카앞에서 괜

한 사설질을 늘어놓았다는 생각에 부엌쪽으로 등개를 떠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먹지요 뭐. 고모님도 식사전이겠는데…》

《아까 의원님이 왔다가신 후에 삼보녀랑 같이 한술 들었다. 삼보녀가 말은 안해도 네 걱정을 수태 하는 눈치더라. 보면 볼수록 참 정이 가더구나.》

《말도 안하는데 내 걱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고모님이 어떻게 아셔요?》

《내가 대상군 몇년짼데 그것도 모를가. 눈빛만 보아도 알지. 그애가 널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는지 아니?》

강씨는 괜히 조카의 손등을 찰싹 쳤다.

《에이구, 이 란리가 빨리 끝나야 너희들 혼례도 치를수 있을텐데.》

《고모님도 참… 삼보녀가 고모님 눈에 들었다면 저도 기뻐요.》

강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여났다.

《이런 싱거운 녀석, 너도 빨리 삼보녀에게 장가들고싶은게다? 호호!》

강씨의 말에 량볼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등개는 《아니, 나야 뭐… 란리가 빨리 끝났으면 했지 장가가고싶은 생각은 아직 없어요.》 하고 말하더니 후닥닥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는것이였다.

그러는 조카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강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한껏 어렸다.

(저녀석 장가가는 날을 오라버님이 보셨다면…)

강씨는 갑자기 먼저 간 오라버니가 생각났다.

(오라버니가 제 아들이 저렇게 자란것을 보셨으면 얼마나 대견해할고…)

부질없는 생각에 넘어난 눈물이 베개잇을 적시는통에 강씨는 또다시 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어느 틈에 밥을 다 먹었는지 문이 벌컥 열리며 등개가 들어왔다.

《고모, 왜 그러세요? 몹시 아파요?》

등개는 고모의 손에 쥐여진 수건을 뽑아들고 고모의 눈물자욱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됐다. 이젠 가서 자거라. 원, 녀석두…》

강씨는 애써 얼굴에 웃음을 지어보이며 머리를 끄덕해보였다.

그러나 등개는 갈 잡도리가 아니였다.

《오늘두 여기서 자겠어요. 고모와 같이 자는게 마음이 편해요.》

등개는 장농우에 얹어놓았던 이부자리를 내려다가 강씨옆에 펴놓고 누웠다.

정찬 눈길로 조카를 바라보던 강씨는 《네 좋을대로 하려무나.》 하고 말하며 조용히 두눈에 물기어린 웃음을 담았다.

장공마을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이따금 어느 집 개가 컹컹하고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러고나선 다시 고즈넉한 정적만이 집주위를 맴돌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별들이 까박까박 조으는 소리가 들릴것만 같았다.

《불을 끌가요?》

《놔둬라. 이따 내가 끄마.》

등개는 머리를 돌려 고모쪽을 피뜩 바라보았다.

《안 주무세요?》

그 말에 강씨는 입귀에 웃음을 그리더니 《어쩐지 잠이 안

오는구나.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나도 이젠 늙었는가보다.》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는 고모를 바라보고있던 등개는 아주 그쪽으로 돌아눕고말았다.

《나도 잠이 안 오는군요.》

《불을 끄라니?》

《아니, 그런게 아니예요.》

《그럼,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강씨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등개는 《후유ㅡ》 하고 한숨을 내불었다.

강씨가 나무랐다.

《사내자식이 무슨 한숨이니? 방바닥이 다 꺼지겠구나.》

그래도 등개는 시무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도대체 왜 그러니?》

《저… 고모. 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개는 뭔가 머리속이 복잡한 사람처럼 낯빛이 컴컴해가지고 천천히 말을 뱉기 시작하였다.

《만일 도해첩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주어른과 삼보녀는 어떻게 될가요?》

그 말에 강씨는 갑자르면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분명 장주어른은 역적의 루명을 쓰게 될거고 역적가문이라고 삼보녀도 관기로 처박히게 되겠지요?》

등개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피뜩 강씨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강씨는 우정 엄한 목소리를 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너 혹시 삼보녀와 약혼한 것을 후회하는게 아니냐?》

《아니, 그런건 아니예요.》

등개는 서둘러 고모의 말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강씨는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조용했어도 저력이 있었다.

《그런것 같지 않구나. 너는 지금 만약 도해첩이 나타나지 않아서 장주어른이 역적의 루명을 쓰게 되고 삼보녀가 역적의 자손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을 하고있지?》

《아니란데두요.》

등개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를 내고는 고모의 눈길을 피해 얼굴을 돌리였다. 허나 강씨의 눈길은 조카의 피부를 찌르는듯 했다. 또 그가 하는 말 한마디한마디는 심장을 쿡쿡 쑤시는것 같았다.

《등개야,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고모의 말에서는 무시할수 없는 그 어떤 위압감 같은것이 느껴졌다.

등개는 눈길을 돌려 고모를 바라보았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낱낱이 들여다보는듯 한, 그래서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서는 감히 마주 바라보기조차 벅차보이는 고모의 두눈은 지금 자기의 불안스런 표정뒤에 감추어진 진짜얼굴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듯 시선이 고정되여있었다.

하지만 등개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강씨는 맑고 흐트러지지 않은 조카의 눈동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지금껏 아껴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등개야, 내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나는 너를 낳아 젖먹여준 친어미도 아니고 또 네게 가슴아픈 말을 탕탕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기울인 사람도 못돼. 허지만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 네 고모로서, 너의 성장을 늘 옆에서 지켜보

며 먼저 간 네 어미를 대신하여 너를 감싸주고싶어 나름 애써왔던 너의 유일한 피붙이로서 한마디 해야겠다.

등개야, 한번 정을 준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 못쓴다. 지금 그애옆에 남은게 누가 있니. 할아버지 한분만을 믿구 살던 그애가 왜적들에게 그분마저 빼앗기고 혼자가 돼버렸구나. 이제 너마저 그를 배척해버리면 정녕 그애가 갈 곳이 어디란 말이냐? 뭐, 도해첩을 찾지 못하면 그애 할아버지가 역적이 된다구? 도해첩을 찾든 못 찾든 곡진어른은 절대로 역적이 아니야. 그건 이 고모가 장담할수 있어. 삼보녀도 그렇다. 삼보녀와 네가 약혼을 한 이상 너희들의 운명은 이미 한 바줄에 꽁꽁 묶여있는거나 같애. 등개야, 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맘속에 품고 사는 이 고모를 실망시키지 말아. 자신을 믿듯 그들을 믿어라. 우선 믿고 그 다음 도해첩을 찾아낼 궁리를 해야지 않겠냐.

난 네가 크면서 아버지를 꼭 닮는게 두려운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네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대가 바르신분은 쉽지 않단다. 그런 아버지를 빼닮으며 성장하는 너를 보는게 이젠 내 기쁨이다. 너는 꼭 네 아버지처럼 굳센 사람이 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강씨의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용하게 시작해서 조용하게 끝났다. 그러나 등개의 가슴속에 일으킨 파문은 잔잔하지 않았다.

등개는 고모를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거친 바다일에 험해진 얼굴과 주름진 이마와 세꽌아진 손등, 어릴 땐 몰랐었는데 퍽 수척해지고 허약해진 몸이 눈에 아프게 밟혀들었다. 하지만 등개는 고모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버티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왔다.

《예, 알았어요. 내 꼭 도해첩도 찾고 삼보녀도 지켜내겠어요.》

등개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넙죽 절을 하였다.

그러자 강씨는 《재밤중에 무슨 절이냐. 고단하겠는데 어서 쉬여라.》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알겠어요, 고모님도 어서 주무세요.》

등개는 이불을 끌어올려 강씨의 드러난 어깨를 가리워주었다.

《원, 녀석두…》

강씨는 조카를 바라보며 정답게 웃었다.

《참, 등개야.》

《예.》

강씨의 부름에 등개는 잠자리에 들다말고 돌아보았다.

《회남이란 사람을 잘 아느냐?》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의아해진 등개는 고모를 향해 바로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난 어쩐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후두둑 뛰군 한단다.》

《예?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강씨는 벌써 심장이 쿵쿵 뛰는듯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말도 없었다.

(호ㅡ 내가 지금 등개에게 괜한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젠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을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강씨는 아무리 눈은 잘못 본다치더라도 쿵쿵거리는 심장만은 속일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씨는 저녁쯤에 병을 보아주느라고 집에 들렸던 의원어른을 배웅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등개에게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14. 고모가 들려준 이야기

《허, 이젠 상처가 아주 많이 좋아지셨구려. 약은 꼭꼭 드시우?》

저녁녘이 다되여 강씨를 찾아온 의원이 하는 말이였다.

나이가 많은 의원은 매일 이맘때면 강씨를 찾아와 그의 회복상태를 알아보군 하였다.

《그럼요. 삼보녀가 나에게 얼마나 극진한지 모른다우. 매일이다싶이 찾아와 이것저것 시중을 들어주군 하는데 미안해서 어디 견디겠소. 빨리 털구 일어나야 할텐데…》

《그런 결심이 중요한게요. 약보다도 말을 잘 듣는게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라우. 그 다음에 약을 써야 효과가 뚜렷하지. 참, 내 약을 새로 지어왔는데 새살이 돋고 허해진 기운을 보충하는데 좋을거외다. 여보게, 어서 그걸 꺼내드리게.》

의원은 말을 하다말고 뒤에 앉은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예, 저… 의원님이 이걸… 정성이 여간이 아니시오이다.》

허리춤에 달고 온 약첩을 풀어 건네주는것은 송원서였다.

낯빛이 희여스름한데다 어깨가 둥실하고 넓은게 듬직해보였다.

약첩을 받아든 강씨는 눈에 물기를 머금고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아이구, 의원님도 어지간하외다. 이렇게 귀한 약을 올적

마다 지어오시니 참 송구스럽소이다.》

《별말씀을 다 하시오. 우리 딸년이 바다물에 빠졌을 때 대상군이 아니였다면 어쩔번 했소. 그게 고마워서 그러는거니 다른 생각말고 아침저녁으로 달여드시오.》

《의원님도 참…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요. 마음도 비단결이외다.》

강씨의 말이 끝나자 의원은 《허허…》 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얘, 삼보녀야.》

강씨는 얼굴을 돌려 문쪽에다 대고 불렀다.

《예ㅡ》

빠끔히 문이 열리며 삼보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리 올라오너라. 의원어른이 또 약을 지어오셨구나.》

강씨의 말에 삼보녀는 고개를 수그린채 방안으로 들어와 차분히 앉았다.

강씨는 손에 들고있던 약첩을 삼보녀에게 쥐여주며 《이걸 보아라. 아침저녁으로 달여먹으면 기운을 차리는데 그렇게 좋다누나. 너도 함께 쓰자꾸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삼보녀는 펄쩍 뛰였다.

《아이, 어머닌 별말씀을 다 하세요. 약은 나누어쓰지 않는댔어요. 의원님이 지으신 약이라면 분명 좋은 약일테니 어머니가 쓰시고 얼른 자리를 터세요.》

《허허, 우물집 큰애기가 정말 속이 깊구나. 그래, 귀한 약재로 만든것이니 네가 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달여드려라.》

의원은 또 한번 수염을 내리쓸었다.

약첩을 들고 그만 물러가려고 일어서던 삼보녀는 불시에 다리관절에 힘이 빠지며 풀썩 주저앉았다.

《에그, 무슨 일이냐?!》

강씨가 놀라며 삼보녀의 손을 붙잡았다.

《이애, 이리 오너라. 어디 맥을 한번 짚어보자.》

의원은 삼보녀의 손목을 끌어당겨 가볍게 감아쥐더니 두눈을 꾹 감았다. 한참만에야 눈을 슬며시 떴다.

《네가 요즘 맘고생이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말아라. 그러다 성한 사람도 속병나는수가 있다.》

옆에 앉았던 강씨가 《후유ㅡ》 하고 한숨을 내불었다.

《약첩을 보니 제 할아버지생각이 또 나는 모양이로군. 매일 아침저녁으로 할아버지의 약을 그리도 효성스레 달여드리더니만… 에그, 주책머리없이 내가 또…》

강씨는 혼자말을 중얼거리다가 소스라쳐 머리를 흔들고는 삼보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삼보녀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로부터 좋은 사람은 하늘이 보살핀다고 했다. 너희 할아버진 좋은분이시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테지. 암, 그렇구말구.》

강씨의 말에 삼보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수그리고있었다.

그때 문득 의원의 뒤에 말없이 앉아있던 송원서의 입에서 《저…》 하는 외마디말이 길게 새여나왔다.

모두의 눈길이 저에게로 쏠리자 송원서는 쑥스러운듯 낯빛이 뻘개지였다. 거기다가 제 얼굴에 와닿는 삼보녀의 눈길까지 의식했는지 부끄러움을 타는듯 그쪽으론 아예 얼굴을 돌릴념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였다.

어색한 순간이 잠간 흘렀다.

마침내 송원서는 용기를 내였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생각에도 장주어른은 무사하실것이라 보오이다. 놈들은 절대로 장주어른을 해칠수 없소이다. 그때 놈들 배에서

소인이 느낀바도 그렇고…》

《뭐라구?》

《그게 무슨 소린가? 좀 자상히 말해보게나.》

의원과 강씨의 재촉을 받은 송원서는 어려움을 잊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저 랑자는 그럴 경황이 못되여 느끼지 못했을수 있겠지만 저는 정신이 똑똑한 상태였기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수 있었소이다. 제보건대 놈들은 장주어른에게서 그 무슨 도해첩이라는것을 찾고있었소이다. 그 도해첩으로 말하면 놈들에게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매우 귀중한것이였던것 같소이다. 놈들이 여기 돌산도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여들었던것만 보아도 그렇고. 놈들은 그것을 장주어른이 가지고있다는것까지 정확하게 알고있었지만 어쨌든 손에 넣진 못했소이다. 그러니 놈들로서는 도해첩을 손에 쥐기 전에는 그 보관장소를 유일하게 알고있는 장주어른을 해칠리 만무하다는게 저의 짧은 소견이로소이다.》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구만. 그러니 곡진어른은 필시 무사할걸세.》

의원까지 맞장구를 치다보니 곡진장주가 무사하리라는 송원서의 말은 확실시된듯 했다.

《문제는 도해첩이오이다. 도해첩만 찾게 되면 장주어른을 무사히 빼낼수도 있을것이외다.》

송원서의 말은 정말 귀가 번쩍 트이게 했다.

《빼내다니… 어떻게?》

의원은 늙은이답지 않게 빠른 말씨로 물었다.

《일단 도해첩을 찾구나선 섬오랑캐놈들과 거래를 하면 되오이다. 놈들은 우리가 도해첩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응해나올것이오이다. 그 거래를 잘만 하면 장주어른을 빼내올수 있소이다.》

송원서의 말을 들은 삼보녀의 눈은 반짝 빛났다.

(할아버지를 빼내올수 있다니. 그게 정말일가?)

삼보녀는 송원서의 말이 고마웠다. 아무리 터무니없을지라도 그의 말을 믿고싶었다. 어쩌면 꼭 그의 말대로 될것 같은 생각이 마음을 다그어대는듯 했다. 그의 눈에 비낀 송원서는 자신감에 넘쳐있는 모습이였다.

(정말 그렇게 되였으면…)

허나 다음순간 (들판의 쥐무리처럼 허구많은 왜적들인데 어느 놈이 잡아간줄 알구서 거래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리고 설사 송원서의 말대로 된다고 하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왜적과 만나는것을 나라에서 승인하겠는가 하는것도 큰 문제였다. 그러지 않아도 뒤에서는 지금 할아버지를 역적이라 쉬쉬하는 판에 도해첩을 가지고 왜적과 거래를 하겠다고 나서면 정말로 역적으로 치부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였다. 과연 이런것을 송원서가 모른단 말인가?

《물론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어려울것이오이다. 그러나 선만 잘 툐으면 그리 힘든 문제도 아니오이다. 제 생각에는 회남이가 적중할듯싶은데…》

좌중은 깜짝 놀랐다.

《회남이라니?! 그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젊은이 말인가?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도와줄수 있단 말인가?》

의원의 물음이였다.

그러자 송원서의 입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듯이 대답이 척척 흘러나왔다.

《전에 섬오랑캐놈들속에 침투하여 왜적수군두목의 모가지

를 노리며 칼을 갈고있을 때 내가 있던 부산포쪽에서 분명 회남이란 그 절름발이를 본적이 있소이다. 행상군차림이였는데 시시한 물건따위들을 가져다가 왜적들과 장사를 하는것 같았소이다.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특이한 걸음새때문에 그에게 자꾸 눈이 갔기에 대번에 알수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오이다. 제 생각에는 분명 회남이에게 왜적들과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련결되여있을듯 하오이다.》

송원서의 말에 방안에는 일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럼 회남이란 젊은이가 왜적의 끄나불?!》

《끄나불이란 말은 안했소이다.》

《그게 끄나불이란 소리와 뭐가 다른가?》

《먹구살기 힘드니 장사를 했나보오이다.》

이때 강씨가 《내 생각에도 그는 왜적의 끄나불이 분명한것 같네.》라는 말을 하여 좌중을 더 놀라게 하였다.

강씨는 뒤에 앉은 삼보녀를 돌아보더니 《얘, 너 내가 그 절름발이가 낯이 익다고 말하던게 기억나니?》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삼보녀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헌데 잘못 본것 같다구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말하였다.

《아니다. 그때는 생각이 안 나 그랬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돌산도가 급습받기 바로 사흘전에 그를 이 섬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 분명 그 절름발이였어. 뒤산에서 너의 집을 내려다보던게 눈에 선하다. 잘못 보았겠지 하고 그때 무심히 스쳐보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명 절름발이가 너의 집을 노리고있었던게 확실해.》

삼보녀는 등골에 소름이 오싹 돋아나는감을 느끼였다.

《그게 정말이세요?!》

《넌 이 대상군을 못 믿겠니?》

《그런게 아니라…》

《의원님, 이런 땐 어떡허면 좋소? 관가에 속히 알려야 하지 않겠수?》

《그럼 왜적들과의 거래는 어쩌고?》

《글쎄, 그건 또 그렇기두 한데…》

방안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송원서가 아니였다면 이 불쾌스런 침묵은 그냥 지속될번 하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여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 회남이는 회남이고 우선은 도해첩을 찾는게 급선무이오이다. 도해첩부터 찾아야 그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왜적들과 거래를 해볼수도 있겠소이다. 도해첩을 어떻게 찾겠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해야 할것 같소이다.》

《글쎄, 그 도해첩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옆에 앉아있던 의원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송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경이 셋 모이면 못 보는 글이 없다는데 하물며 도해첩 같은거야 못 찾아내겠소이까. 지혜를 모으면 불가능한것도 아니오이다. 제 생각에는 우선 곡진장주어른과 가장 절친했던 사람들부터 만나보는게 좋을듯 하오이다.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느라면 장주어른의 평소 습관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거구. 그런것들을 한데 모아본다면 얽혀드는 실마리들을 찾아 밟아나가게 될게구, 또 도해첩을 숨겨둔 장소도 알아낼수 있을것이오이다.》

송원서의 말에 의원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듣구보니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그럴수도 있겠어. 헌데 자네가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라는게 바로 여기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일세. 한명 더 있다면 이 집 조카 등

개가 더 있는데 그애는 줄창 나가돌아다니다나니 아마 도해첩에 대해선 모를게 뻔해. 그러니 평소에 곡진어른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나와 저기 앉은 대상군어른과 그리고 삼보녀뿐일세. 자네 말대로라면 우리 셋중에 도해첩을 숨겨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분명 있단 말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런데 세명이 전부오니까?》

《그래. 더는 없네.》

《세명뿐이라…》

송원서는 처음에는 의원을, 다음에는 강씨를, 나중에는 삼보녀의 얼굴을 차례차례 살펴보았다. 누구도 모르는 눈치였다.

그때 《한명이 더 있사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세사람의 눈길이 삼보녀에게 쏠렸다.

얼결에 말을 던졌던 삼보녀는 모두가 저만을 쳐다보자 얼굴이 빨갛게 익어버렸다.

《괜찮다. 어서 말해보아라. 누굴 보고 그러는거냐?》

옆에 앉았던 강씨가 삼보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수집음을 몹시 타는 삼보녀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마주볼 용기가 없는듯 강씨만을 바라보며 뜨직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늘 외우군 하시던 사람이 한명 있소이다. 그는 고아였던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장공일을 배워준 전 장주님이예요. 할아버지는 늘 그분의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며 참 따뜻한분이였다고 말씀하군 하셨나이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묘소를 찾아 꽃을 놓아주던 기억이 나나이다.》

《전 장주라면… 그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냐.》

《예, 물론 그렇사와요. 헌데 할아버지에게 그분은 참으로 남달랐던가봐요. 아마 친아버지같은 존재였던것 같애요. 할아버지는 자주 마음이 번거로우실 때면 뒤산에 있는 그분의

묘소를 찾아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군 하셨사와요.》

《으음, 그랬구나. 너의 할아버지도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수태 하셨지.》

의원은 버릇처럼 수염을 내리쓸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네사람은 저저마끔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러다 밤을 예서 새겠다. 서로마끔 도해첩에 대해 생각들을 해보구 래일 다시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눠봅세다. 얘, 원서야. 우린 그만 일어나자. 딸년이 저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어서 가봐야지. 자, 우린 이만 가보겠소.》

의원이 방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왜, 저녁이나 들구 가시지 않구.》

《딸년을 혼자 놔뒀는데 걱정이 되여서요. 그럼 이만 갔다가 래일 또 들리겠쉐다.》

《아이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얘, 삼보녀야. 의원어른 좀 바래드려라.》

의원과 강씨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송원서와 삼보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참이였다.

《어마나, 누구세요?!》

갑자기 삼보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 서있는것은 놀랍게도 절름발이 회남이였다.

《저… 등개가 안 왔나 해서…》

회남이의 변명은 어딘가 어색스러웠다.

《왔으면 들어올게지 밖에서 뭘 하는건가? 들어와서 기다리느라면 인츰 올걸세.》

힘든 몸을 일으켜 의원을 바래주러 나왔던 강씨가 하는 말이였다.

《그럼 있다 오겠소이다. 그럼 전…》

지팽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멀어져가는 회남이를 바라보는

네사람의 마음들은 모두 하나같았다.

(우리 말을 엿듣고있은게 아닐가?)

…

《그래, 네 생각은 어떻니?》

저녁녘에 있었던 일들을 고모로부터 자세하게 듣고난 등개의 심정은 복잡하기 이를데없었다.

《그러니 고모님은 회남이 나쁜 사람같아 보인다는거로군요.》

《글쎄, 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아는 회남은 나쁜 사람이 아니예요.》

등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다음날 이른새벽 밖에서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거 누구요?》

어두운 속에서 신발을 찾아신고 대문을 열어주고보니 팔동이였다.

《자네 새벽부터 웬 일인가?》

《이거 큰일났네. 돌장승이 자빠지더니 액운이 동네에 낀것 같애.》

팔동은 귀신한테 홀린 사람처럼 두눈이 휘둥그래져있었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그건 대체 무슨 소린가?》

《글쎄 뒤산의 무덤들이 발칵 뒤집혔네. 여러개나 되는데 참으로 끔찍하구만.》

《뭐, 무덤들이?! 누가 그랬다나?》

《몰라. 메돼지같지도 않아. 분명 사람이 그랬어.》

《무슨 흔적 같은건 못 찾았구?》

《또 그 망할 놈의 지팽이자욱이 있었네.》

《지팽이자욱? 그럼 또 회남이?!》

《그걸 알게 뭔가! 보나마나 또 시치미를 뗄게 뻔한데. 아

무래도 그 자식 일을 치겠어. 감히 무덤들을 파헤쳐?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간 큰 변이 났다고 소동이 일텐데… 내 생각 그대루 말하네만… 그놈은 틀림없는 왜놈의 간자… 간자네. 이건 틀림이 없을걸세.》

《그가 지금 어데 있나?》

《몰라. 지금 찾고있는중일세.》

《제길할! 자넨 산쪽을 훑으라구, 난 바다쪽엘 나가보겠네.》

팔동은 왔던 길로 다시 줄달음을 놓았다.

15. 덫

그날 새벽이후로 회남이는 종적을 감추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회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심히 훼손된 조상의 무덤들을 그날 아침중으로 다시 손질하고나서 때아닌 때에 제사를 올리게 되였다.

회남이를 놓쳐버린 마을사람들은 저저마끔 분개해하였다. 이제 붙잡기만 하면 하나 남은 그의 성한 다리까지 마저 분질러버리겠다고 윽윽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어쨌거나 조상의 령혼을 욕보였다고 마을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남이의 얼굴을 볼수 없었다.

웃마을과 아래마을에서는 회남이가 왜적의 간자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이 부산포에서 목격했다는 그 절름발이가 바로 마을에서 돌아치던 회남이가 분명하다는 말까지 보태여져 많은 사람들이 회남이가 틀림없이 부산포쪽으로 달아났을것이라고 추측들을 하고있었다.

이번에 파헤쳐진 무덤들중에는 곡진장주에게 장공일을 배워주었던 전 장주의 무덤도 있었다. 그러니 곡진장주가 거기에 묻어놓았던 도해첩을 회남이가 파내가지고 달아나버렸다는 말의 신빙성이 꽤 있어보였다.

조금 있더니 그날 새벽에 마을 뒤산 묘지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절름발이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은 때라 똑똑히는 못 보았

는데 별스레 마당에서 강아지가 끙끙 울길래 밖에 나갔다가 뒤산 묘지쪽에서 뭔가 시꺼먼 형체들의 움직임을 느꼈다는것이였다. 잠에 취해 허깨비를 본 모양이라고 여기면서 그땐 그냥 스쳐지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틀림없이 그때 그 허깨비가 다리를 저는것 같았다는것이였다. 다리저는 허깨비란 올데갈데 없이 회남이란 말처럼 들리였다.

그리하여 도해첩은 분명 전 장주의 무덤에 있었고 도해첩을 찾아낸 회남이는 그것을 안고 부산포쪽으로 내뺐다고 사람들은 믿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의 모든 걱정은 삼보녀에게로 쏠리였다. 가뜩이나 삼보녀를 아니꼽게 여기고있는 우후인데 도해첩까지 없어졌다는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마침이다 하고 삼보녀를 잡아먹을듯이 길길이 날뛸게 뻔했기때문이였다. 등개의 아버지를 반병신으로 만들었던 리지팡이에게 삼보녀까지 당하게 하고싶지 않은게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도해첩과 관련된 소리가 일체 마을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구나 신경을 썼다.

하지만 소문이란 언제까지나 한자리에서 머물지 않는 법이니 어느때건 발없는 이 말이 우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때문에 팔동이까지도 얼굴빛이 시꺼멓게 죽어있었다. 삼보녀를 감시하다 도해첩을 빼앗아올데 대한 령을 받고 장공마을에 들어왔던 팔동은 이제 우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여 자기에게 호된 추궁을 하게 될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였다. 잃어졌다고 소문이 난 그 도해첩을 꼭 다시 찾아낼 방도가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그런 방도가 팔동이의 머리에는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팔동의 얼굴에는 먹장구름이 덮인듯 어두운 그늘이 가셔질줄 몰랐다.

바로 그때, 팔동이의 마음을 틔워주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삼보녀의 집에서 도해첩을 숨겨둔 장소가 표기된 략도가 나타난것이였다.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다름아닌 등개였다.

《팔동이, 략도… 략도를 찾았네!》

《뭐, 략도라니… 무슨 략도말인가?!》

《도해첩을 숨겨둔 장소가 표시된 략도말이야!》

등개의 말에 팔동이는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런 략도가… 어디… 어디서 찾았게?》

《삼보녀네 집에서지 어디긴 어디겠나.》

등개는 손에 들고있던 짐승가죽쪼박을 팔동이의 눈앞에 흔들어보이였다.

《어서… 어서 좀 보자구!》

팔동이는 략도를 받아들자마자 쭉 펴보았다.

략도를 들여다보는 팔동이의 낯빛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게 뭐야?! 그러니 도해첩을 감춘 장소가… 장주의 무덤이 아니란 말인가?!》

팔동은 놀란 표정으로 등개를 바라보았다.

《보면 모르겠나! 도해첩을 숨긴 장소는 장주의 무덤이 아닐세. 전 장주의 무덤은 표시조차 안되여있어.》

《그럼 회남이가 파갔다는 그 도해첩은 뭔가?》

등개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눈만 슴벅거리고있는 팔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헛소문일뿐이야. 도해첩은 애당초 거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팔동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씩씩 내쉬고 들이키

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헛소문이 분명하지? 그런걸 제길,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 하며 자기 한손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치는것이였다.

《공연히 가슴을 조였댔어. 회남이가 전 장주의 무덤에서 도해첩을 파내갔다는 소리는 다 뜬소문이였네.》

《그럼 뒤산의 무덤들은 어떻게 된건가?》

팔동이의 물음에 등개는 한동안 갑자르며 대답을 못하였다.

《좌우간 누군가 무덤들을 들친건 사실이야. 도해첩을 찾는게 우리뿐이 아니라는거지.》

《자네 그 말은…》

《그렇네. 분명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있어. 대충 짐작은 가. 우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놈을 꼭 잡아내야만 하네.》

등개의 말에 팔동은 놀라는 눈치였다.

《짐작이 간다구? 대체 그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팔동은 숨도 한번 들이쉬지 않고 내처 물음을 던졌다.

《글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할뿐이네. 확실치 않으니 말해줄수 없구만. 괜한 사람 오해하게 하면 큰일이거던. 그놈이 제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한다구?》

《그래.》

등개는 팔동이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을 하기 시작했다.

팔동의 얼굴에 의혹의 빛이 짙어졌다.

《그러니 자네 생각엔 그놈이 분명 제발로 나타난다는거지?》

《그렇다니까.》

《놈이 정체를 드러내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나?》

《놈에겐 시간이 없네. 도해첩이 여기 돌산도를 떠나 수영으로 들어가고나면 도해첩을 손에 넣기가 그만큼 힘들어질게 거던. 때문에 어떻게 하나 여기 돌산도에서 도해첩을 쥐려 할거야. 헌데 도해첩의 략도를 찾았다는 소문이 이미 난 이상 도해첩을 빼앗을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는것을 놈도 짐작할거란 말이야.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놈은 분명 오늘 밤에 움직이려 할걸세.》

《자네 말을 듣고보니 그럴법하구만.》

팔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개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니 팔동이, 자넨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달이 뜨거들랑 원서를 데리고 거북바위쪽으로 나와주게나. 난 이길로 삼보녀의 집에 다녀올테니.》

《알았네. 걱정말고 다녀오라구.》

뜨거운 눈빛으로 마주보던 두 젊은이는 서로 고개를 크게 끄덕여보이고는 헤여졌다.

어두운 나무그늘속에 숨어있던 차거운 바람이 삼보녀의 집을 향해 큰걸음을 걷는 등개의 바지가랭이며 팔소매에 매달려 장난질을 치다가 달아나버리였다.

《있어?》

삼보녀의 집앞에서 한번 소리친 등개는 문을 쑥 열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16. 달밤의 륜무

《삼보녀!》

고개를 수굿한채 토방아래 벗어든 신발을 찾아 신고있던 삼보녀는 깜짝 놀라 두팔로 동가슴을 그러안았다. 그가 다름아닌 등개인것을 알아본 삼보녀는 《아이, 놀래라. 심장 떨어질번 했네.》 하며 놀란 가슴을 다독이였다.

삼보녀의 모습이 우스운듯 벌쭉거리던 등개는 《놀랐어? 우정 놀래우자 그런건 아닌데…》 하며 뒤더수기를 긁었다.

점직해하는 등개가 보기 멋적어진 삼보녀는 《하두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 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등개는 그냥 서있기가 어색하여 마당에 굴러다니던 나무잎을 하나 주어들고 토방에 앉았다.

《오늘 밤에 달이 뜰가?》

등개의 물음에 삼보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초저녁이니 달이 안 보여. 그렇지만 밤이 되면 꼭 달이 뜰거래. 대상군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이 없을거야.》

어두운 하늘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삼보녀가 하는 말이였다.

《그래, 우리 고모가 뜬다고 했으면 꼭 뜰거야. 준비는 다 됐겠지?》

등개의 물음에 삼보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달이 뜨면 모두 해변가로 나올거야. 헌데… 정말 거기서

도 와?》

《그럼,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누가 불을 지펴주겠어.》

그 말에 삼보녀는 신코숭이로 공연히 바닥을 꼭꼭 눌러놓으며 두볼에 보조개를 그렸다.

등개는 삼보녀의 옆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가쁜하게 동여맨 허리끈속에 감추어져있는 싱싱함이 등개의 모든것을 사로잡고있었다. 가만히 서있어도 이 지경인데 삼보녀가 춤까지 출 때면 등개는 그야말로 무아경에 빠질 정도였다. 춤판에서 삼보녀는 동리 그 어느 처녀들보다도 빼여났다. 불무지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부르고 다같이 둥실둥실 춤을 추지만 유독 그속에서 삼보녀만은 등개의 눈길을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평소에는 수집음을 그렇게 타는 삼보녀인데 어떻게 춤판에만 들어서면 싹 달라지는지 등개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처녀들과 손을 잡고 불무지를 빙빙 돌며 노랠 부르고 춤을 추는 삼보녀는 어느새 제가 알고있던 그 얌전단지가 아니였다. 삼보녀는 생기발랄하고 쾌활한 처녀였다.

등개는 바로 그런 그가 좋았다. 삼보녀를 통해 등개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군 하였다. 사실 말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는 등개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떠올릴수 있는 기억의 토막이란 어머니가 달밝은 밤에 불무지곁을 돌며 춤을 추군 했다는 고모 강씨의 이야기뿐이였다. 그 이야기속에 나오는 등개의 어머니는 꼭 삼보녀처럼 평소에는 수집음을 잘 타 늘 얼굴이 복숭아처럼 익어있다가도 춤판에만 들어서면 비둘기같은 동작과 귀여운 걸음새로 춤판의 이목을 대번에 끌어당기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바로 삼보녀처럼…

그래서 그런지 삼보녀가 춤을 출 때면 등개는 멀찌감치 떨어진 나무그늘뒤에 홀로 숨어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고있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오늘 밤에도 삼보녀는 틀림없이 등개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것이였다.

《뭘 생각해?》

난데없는 물음에 삼보녀는 고개를 들고 등개를 바라보았다.

《얼굴색이 어쩐지 좋지 않아. 또 할아버지를 생각해?》

할아버지라는 말에 삼보녀는 말없이 고개를 다시 수그렸다. 타는듯 한 눈길로 발아래를 내려다보고있는 삼보녀의 두볼로 맑은 이슬방울이 굴러내렸다.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는 삼보녀를 보는 등개의 마음은 몹시 쓰리고 아팠다.

(내가 공연한 소리를 했나보다.)

등개는 어떻게 삼보녀를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속이 상했다.

바다를 지킨다고 활을 메고 나서고도 눈앞에서 돌산도가 급습을 받는것도 막아내지 못했으니 사실상 등개는 삼보녀를 쳐다볼 면목이 없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으로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어.》

《그게 왜 거기 잘못이야, 섬오랑캐놈들때문이지.》

《아니, 내 잘못이 옳아. 내가 그날 바다감시를 똑바로 했더라면 어디라고 그놈들이 기여들겠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등개는 무릎을 털썩 치며 한숨을 후ー 하고 내불었다.

삼보녀는 눈물을 거두고 토방에 앉아있는 등개를 살며시 돌아보았다. 숱진 눈섭을 한데 모아붙여 이마에 내천자를 그린 등개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측은해보였다.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 그런 얼굴을 하면 싫어.》

하지만 등개는 삼보녀의 말은 듣지 못했는지 모아붙인 미간을 펼줄 몰랐다.

《할아버진 어떻게 되셨을가? 무고하실가? 이렇게 날씨가 차지면 늘 무릎이 아파 고생을 하시댔는데…》

등개는 멀리 파도소리가 들려오는 바다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중얼거렸다.

흑흑 느껴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길, 난 왜 놈들이 할아버지를 노릴수 있다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가?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주먹으로 토방을 치는 소리가 쿵ㅡ 하고 울렸다.

그 소리에 놀란 삼보녀가 눈물이 가랑가랑 맺힌 눈으로 등개를 바라보았다.

등개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고있었다.

《하지만 삼보녀, 너무 걱정하지 마. 난 할아버지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저 바다건너 왜나라땅에라도 쫓아갈테니까.》

《그런 말 말어. 거기까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러나 등개는 고집스레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삼보녀는 아직 다 몰라. 할아버지를 구원하는 길이 곧 거북선의 비밀을 지켜내는 길이고 거북선의 비밀을 지켜내는 길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야. 난 이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삼보녀의 눈에는 수심이 가득 비끼였다.

《이제 두고봐. 도해첩을 노리는 왜적의 간자는 꼭 우리 손에 붙잡히고야말걸. 그렇게만 되면 삼보녀의 할아버지도 구원할수 있어. 그러니 삼보녀도 맥을 놓지 마. 오늘 밤이 제일 중요하단걸 알지?》

삼보녀는 등개의 부리부리한 동자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삼보녀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뜨겁고도 강렬한 느낌을 받은 등개는 배심이 든든해져 감발을 꽉 졸라매였다.

《어서 가자구, 달이 떠온다.》

등개는 벌떡 토방에서 일어나 제 먼저 기운차게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삼보녀도 고개를 수굿한채 발벰발벰 소리없이 등개의 뒤를 따랐다.

해변가에 다달으니 누가 지폈는지 이미 불무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불무지곁에는 아래마을, 웃마을의 처녀들이 오구구 모여앉아 짝짜그르르 웃음판을 펼치고있었다.

《이젠 혼자서 가.》

등개가 뒤에서 걸어오던 삼보녀에게 말했다.

삼보녀는 고개를 들고 등개와 저쪽 불무지쪽에 모여 떠들고 있는 처녀들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였다.

삼보녀의 두눈을 다시한번 들여다본 등개는 입술을 앙다물고 거북바위쪽으로 몸을 돌려세웠다.

《이봐요!》

갑자기 삼보녀가 그의 걸음을 멈춰세웠다.

등개는 돌아보았다.

삼보녀는 또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오는듯 고개를 푹 수그리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사이로는 《부디 조심해.》 하는 소리가 새여나왔다.

그 말을 들은 등개는 행복스런 웃음을 얼굴에 가득 담았다.

《걱정말어.》

이렇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등개는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호ㅡ 하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쉰 삼보녀는 등개가 더 보이지 않자 불무지쪽으로 종종걸음을 놓았다.

등개는 어둠속에서 삼보녀를 눈으로 바래우며 무엇인가 생각하고있었다.

(내가 지금 잘하고있는걸가? 이제라도 그만두는것이 낫지 않을가?)

그러나 다음순간 등개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일단 시작했으니 어떻든 끝을 봐야 해.)

등개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해풍에 떨고있는 나무들사이로 빠져 불무지가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거북바위쪽으로 다가갔다.

가보니 이미 팔동이와 송원서가 한걸음 앞서 나와있었다.

숲속에서 나오는 등개를 띄여본 팔동이 손을 흔들었다.

《벌써들 나왔구만. 오래 기다렸나?》

등개는 이렇게 말하며 팔동이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몇걸음 뒤에 서있는 송원서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송원서도 고개인사를 하였다.

《밤중에 안됐네. 하지만 도해첩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니 량해해주리라고 믿네.》

등개는 팔소매를 썩썩 걷어올렸다.

《자, 시작해보세. 불들을 걸라구!》

이내 준비해두었던 홰들에 불이 붙여지고 바위주변이 환히 드러났다.

등개는 품속에서 똘똘 만 짐승가죽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손으로 정히 펴가지고 불뭉치쪽으로 기웃하게 들어올렸다.

그것은 도해첩의 위치가 표시된 략도였다.

《그게 략도인가?》

《그렇네. 삼보녀가 찾아낸게 바로 이거야.》

팔동과 송원서는 등개의 손에 들린 략도를 신기해서 쳐다보았다.

《어디 좀 보세.》

등개가 선뜻 략도를 넘겨주자 팔동은 얼른 받아 불빛에 펼쳐보았다.

《좀 보라구. 이게 략도래.》

송원서도 그 략도라는것에 무척 흥미가 동하는듯 했다.

팔동의 어깨너머로 략도를 들여다보던 송원서는 략도속의 거북바위와 실지 눈앞에 있는 거북바위를 연방 대조해보았다.

《이것만 있으면야 눈을 감구서도 도해첩을 찾아낼수가 있지!》

팔동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홰아래 략도를 펼쳐놓고 작은 돌을 주어다가 네 귀퉁이를 지질러놓았다. 그렇게 하니 략도가 더 잘 보였다.

《여길 보게. 분명 거북바위잔등에다가 표시를 해놨구만. 그러니 바위등부터 훑어보자구.》

《그렇게 하세.》

등개의 말에 팔동과 송원서는 바위등으로 기여올라갔다.

《여기에 올라오니 도해첩냄새가 막 나는것 같은걸.》

팔동이 풀숲에 떨어진 바늘찾는 놈처럼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하는 말이였다.

《주의하라구. 도해첩냄새가 아니라 자네 허리춤에 달린 호리병이 기울어져 막걸리가 새여나오는 냄새일세.》

바위아래서 그들을 바라보던 등개의 말이였다.

《뭐라구? 이크, 젠장… 다 흘렸구나. 이놈 거부기가 내 술을 훔쳐먹었구나!》

팔동은 짐짓 성이 난듯 거북바위를 발로 쾅하고 내리밟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아이쿠!》 하면서 발바닥을 넌떡 들고 껑충껑충 뛰였다.

《찾으라는 도해첩은 안 찾고 웬 뜀박질이야?》

등개의 물음에 팔동은 대답할 짬이 없는듯 했다.

그 모양을 보다못해 송원서가 《도해첩을 찾게 되였다니 너무 좋아 저러는 모양이구려.》 하고 한마디 했다.

그러거나말거나 팔동은 지붕우에 올라간 닭처럼 한발을 들고 널뛰기를 하더니만 어느결엔가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는것이였다.

《왜 그러나?》

팔동이 고개를 돌린쪽을 바라보니 거기서는 처녀들이 불무지결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달밝았다 계명산천에
달밝았다 강강수월래
달밝았으면 오늘 밤도
승전이라네 강강수월래
나는 좋네 나는 좋네 강강수월래

석달열흘 기다려도
나는 좋네 강강수월래
우리 님은 승전하여
오실테니 강강수월래
간다간다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님따라서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

손에 손을 맞잡은 꽃같은 해녀들이 삼보녀의 선창에 맞추어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달밤이면 왜적의 침입을 경계하여 부르군 하던 《강강수월

래》가 이제는 돌산도의 해녀들속에서도 인기를 끄는 노래가락이 되였다.

…
바늘 가는데 실 안 가랴 강강수월래
열두바다 건너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너 죽으면 내가 있다 강강수월래
내 죽으면 하늘 있다 강강수월래
어서 싸워라 나라일에 강강수월래
죽은 주검에 꽃이 핀다네 강강수월래
…

팔동은 아예 넋을 잃고 그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송원서도 그런 춤판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기는 처음이였던지라 불빛에 얼른얼른 드러나는 처녀들의 얼굴과 세련된 춤가락들을 얼이 빠진 사람처럼 여겨보고있었다.

바위아래서 그들을 바라보고있던 등개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리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반원형으로 주위를 둘러싼 컴컴한 숲은 등개의 시야를 차단해버리였다.

문뜩 등개는 지꿎은 시선이 자기의 등뒤를 찌르는듯 한 감촉을 받았다.

홱ㅡ 하고 몸을 돌려 그쪽을 보았으나 거기에는 어둠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도 신경을 도사린탓인가 등개에게는 바람이 나무가지를 스치는 소리까지도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가까이 왔구나.)

등개는 그것을 육감적으로 느낄수 있었다. 비록 눈에는 보

이지 않았지만 등개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그렇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때가 되였다!)

등개는 한두걸음 옆으로 물러서더니 거북바위의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큰돌을 하나 들춰내고 작은 돌을 꺼내고 한웅큼씩 모래를 긁어내였다. 다시 돌판을 들어내고 또 작은 돌을 끄집어내였다.

마침내 등개의 손에 무엇인가 잡히는 느낌이 왔다.

(이것이다.)

등개는 손에 잡힌 그것을 꺼낼가말가 잠간 망설이였다. 온몸의 신경은 등뒤 한곳에만 집중되여있었다.

《뭐하나?》

갑자기 등뒤에서 팔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뜰 놀란 등개는 얼결에 도해첩을 쥔채로 손을 쑥 뽑았다.

《야, 도해첩이다! 도해첩을 찾았구나!》

송원서가 달려와 등개를 얼싸안았다.

《찾았다!》

송원서의 팔에 감겨 허공중에 들린 등개는 《찾았다!》 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팔동이까지 달라붙어 셋은 그만 모래불에 나딩굴었다.

《하하하!》

《끝내 찾았어! 우리가 먼저 찾아냈어!》

《제길, 이런 곳에 숨겨져있는걸!》

《이럴 때 한잔해야지.》

팔동은 허리춤에 달려있던 호리병을 떼여 등개에게 내밀었다.

《한모금 쭉 내게.》

그러나 등개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럴줄 알았어. 자넨 원래 금주가니까. 원서, 자넨?》

송원서도 도리머리였다.

《제길, 기쁜 날에 다들 왜 이래? 그럼 할수 없지.》

팔동은 호리병의 마개를 열어 한모금 마시고는 다시 닫았다.

《자, 이젠 어떻게 한다?》

팔동이 묻는 말이였다.

《어떻게 하긴, 바쳐야지. 그래서 찾은게 아닌가.》

팔동의 말이 리해가 안되는듯 송원서가 물었다.

《그건 그래.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안 와서 그래.》

팔동의 말에 송원서는 더욱 의문스러움을 나타내였다.

《기다리다니, 누굴? 누가 여기로 오나?》

그때 등개의 큰 목소리가 울렸다.

《여보게들, 저기 왔어!》

세사람의 눈길은 동시에 등개의 손끝에 쏠리였다.

등개의 손끝이 가리킨 나무숲 어두운 곳에서 딱딱하는 단조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을 씹으며 아까부터 그들을 노려보고있던 사나운 짐승이 이발을 드러내고 나오는듯싶었다.

조금씩, 조금씩 불빛에 모습이 드러났다.

《으악!》

팔동은 너무 놀라 기절할 지경이였다.

온통 시커먼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무서운 귀신탈을 걸친 괴물 같은것이 절뚝거리며 천천히 다가오고있었던것이다. 딱딱하는 소리는 그의 지팽이끝에서 나는 소리였다. 꼭 금방 무덤을 뛰쳐나온 도깨비의 형상을 한 회남이는 곧바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있었다.

등개는 손에 들고있던 도해첩을 등뒤로 감추었다. 그앞을

원서가 막아서고 또 그앞을 팔동이 막아나섰다.

《죽고싶지 않거들랑 도해첩을 내놔라!》

가까이 다가온 절름발이의 입에서는 듣기만 해도 오싹 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튀여나왔다.

이때 팔동이 한발 앞으로 나섰다.

《절름발이! 네가 담도 크구나. 제발로 예까지 찾아오다니!》

그러나 회남이는 팔동이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온 정신은 등개의 뒤에 감추어진 도해첩에만 쏠려있는듯 하였다.

회남은 팔동에게 입을 다물라는 신호로 손을 들어보이고나서 천천히 등개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화가 부쩍 동한 팔동은 《이 자식이!…》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회남에게 달려들었다.

《헉!》

명치끝을 주어맞은 팔동이 회남의 어깨를 간신히 붙잡아 넘어지진 않았으나 얼마를 못 버티고 스르르 미끄러져내렸다.

그것을 본 송원서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남이 한발자국 다가가면 등개와 송원서는 한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회남이 잔등에 지고있던 칼집에서 날이 시퍼런 환도를 쑥 뽑아들었다.

《이리 내놔! 그럼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등개와 송원서는 입들이 얼어붙은듯 아무 말도 못하였다.

《셋까지 세겠다.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둘 다 목없는 귀신이 될줄 알아라. 자, 하나!…》

그러면서 회남은 등개와 송원서의 눈앞에 칼날을 이리저리 그어보이며 위협했다.

《둘!…》

등개와 송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긴장한 눈빛들이 오고갔다.

《셋!》

갑자기 등개가 등뒤에 감추었던 도해첩을 거북바위꼭대기로 집어던졌다.

회남의 눈길이 순간 그쪽으로 쏠리였다.

때를 놓치지 않고 송원서가 회남에게로 날아들어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발길로 냅다 걷어찼다.

쟁강ㅡ 하고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환도는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이어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되였다.

등개는 얼른 거북바위우로 뛰여올라 도해첩을 찾아들었다.

원서와 회남은 필사적으로 격투를 벌리고있었다.

송원서가 밀리는게 알렸다. 회남의 타격에 원서가 입술이 터진것 같았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위태로울것 같았다.

《원서, 뛰자!》

등개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바위를 훌쩍 날아내리며 회남의 동가슴을 모두발로 내질렀다.

난데없이 날아든 등개의 타격에 회남은 가슴을 싸쥐고 데구루 굴렀다.

《어서 뛰자!》

등개는 얼떠름해있는 송원서에게 다시한번 큰소리를 질러대고는 쓰러져있는 팔동이를 어깨에 둘쳐멘 다음 바다쪽을 향하여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환도를 주어든 회남이가 그들을 쫓아왔다.

《서라, 서지 못해?!》

딱딱ㅡ 급하게 울리는 절름발이의 지팽이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려왔다.

《저기 환한데로 나가자!》

등개는 송원서를 끌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륜무를 추고있는 해녀들의 불무지를 향해 죽기내기로 달음박질쳤다.

《사람살려라!》

창피를 무릅쓰고 소리를 지른것은 송원서였다.

불무지를 돌며 춤을 추고있던 해녀들은 숲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그쪽으로 얼굴들을 돌리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났는데…》

저저마다 홰불을 하나씩 쳐든 해녀들이 등개와 송원서를 향해 마주 달려왔다.

《으악!》

뭣에 발목이 걸린 송원서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공중제비를 한번 하더니 해녀들의 발치에 나가떨어졌다.

《무슨 일이예요?!》

처녀들이 우르르 몰려와 에워쌌다.

얼굴에 온통 땀투성이, 모래투성이가 되고서도 연방 뒤를 돌아보던 송원서는 더는 절름발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자 《후유ㅡ》 하고 한숨을 내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예요?》

일부 왁살스러운 해녀들이 다우쳐물어댔다.

송원서는 말할 기력도 없는듯 저쯤에서 숨을 헐떡거리고있는 등개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도해첩을… 찾았…소.》

등개는 품속에서 도해첩을 꺼내여 삼보녀에게 넘겨주고는 아예 모래바닥에 퍼더버리고 주저앉고말았다.

《도해첩을 찾았다구요?!》

와ㅡ 하고 해녀들이 몰려들었다.

《어디 보자, 도해첩이란게 대체 뭐야?》

《어떤 물건인데 사람을 그렇게도 맘고생을 시키다니…》

해녀들은 송원서와 등개는 제쳐놓고 삼보녀의 손에 들린 도해첩을 보겠다고 저저마다 성화였다.

그러나 삼보녀는 도해첩을 높이 쳐들고 《얘들아, 가만있어. 함부로 보는 책이 아니야. 이건 나라의 국보란다.》 하고 침을 박았다.

국보라는 말에 해녀들은 일시 즘즘해졌다.

《삼보녀야, 그게 바로 네게 억울한 루명을 들씌웠던 물건이냐?》

《그래, 바로 이 도해첩이야.》

《그럼, 이젠 삼보녀가 루명을 벗을수 있겠구나!》

《아무렴, 삼보녀가 누구라구!》

《그래서 이들도 도해첩을 찾고 여기로 곧장 달려온건가?》

그 말에 등개와 송원서는 동시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도해첩을 막 찾았는데 글쎄 탈바가지를 쓴 회남이가 불쑥 나타나 빼앗으려는게 아니겠소. 여러명이나 끌고 왔는데 우리 셋이서 어디 당할수가 있어야지. 그래 불이 환한 여기로 막…》

송원서의 너스레에 해녀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였다.

《거짓말, 그 얼굴에 다 씌여져있는데요. 절름발이가 무서워 뛰여왔지요?》

원서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매만지며 어둠이 다행이라 생각하는듯 했다.

《절름발이따위가 뭐가 무섭다고 범 본 노루처럼 공중제빌다 한담, 호호호.》

해녀들은 저저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우습게 볼게 아니요. 이건 정말이요.》

송원서의 변명에 처녀들은 더 크게 웃었다.

《자, 얘들아! 그만들 웃구 <강강수월래>나 한판 또 추어보지 않을래? 탈바가질 썼다는 귀신들이 천리만리로 달아나게!》

삼보녀의 말에 해녀들은 와ㅡ 하고 환성을 올렸다.

《옳다옳다. 도해첩도 찾았겠다… 이렇게 기쁜 날에 춤을 추지 않으면 또 언제 춤을 추겠니! 얘들아, 어때?》

휘파람소리가 울리고 등개와 송원서 그리고 아직 정신을 덜 차린 팔동이와 불무지를 둘러싸고 해녀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빙빙 돌기 시작했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간다간다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님따라서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바늘가는데 실 안 가랴 강강수월래
열두바다 건너 나는 간다 강강수월래
…

달밤의 륜무는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어둠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서있던 회남은 고개를 가로흔들더니 지팽이를 끌고 다시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17. 물고기부신

《도해첩을 끝내 찾아냈소이다!》

팔동은 손에 받쳐들고있던 보를 정중히 벗겼다. 마지막 한 꺼풀이 벗겨지자 도해첩은 드디여 밝은 해빛아래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흐흐, 이게 그 도해첩이란것이냐?!》

팔동이가 내미는 도해첩을 받아든 우후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해첩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그래,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그 계집년이 이걸 가지고 있더냐?》

그 소리에 팔동은 명치끝이 알알해와 잠간 낯빛을 찡그리였다.

《아니오이다. 도해첩은 다른데 있었소이다. 배무이장에서 일하고있는 등개와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가 힘껏 도와준 덕에 찾을수 있었소이다.》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우후는 놀라는 눈빛이였다.

《그렇소이다. 일전에 곡진장주의 손녀를 왜적의 배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사람인줄로 아뢰오이다.》

팔동의 말에 우후는 수염을 썩 내리쓸었다.

《과시 량반가문의 후손이 다를지고. 그를 불러다가 큰 상을 내리도록 해야겠다!》

《이미 밖에 대령시켜놓았소이다.》

《그래? 그럼 어서 불러들여라!》

급창(말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남자종)의 부름소리에 좌수영의 대문이 삐걱ㅡ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헌데 환히 트인 공간으로는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만이 아니라 두사람이 더 들어왔다.

대청마루에서 그들을 넌지시 내려다보고있던 우후는 대뜸 눈살을 찌프리였다.

《저놈이야 일전에 군률을 문란시켰던 그 군교놈이 아니냐! 예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여놓느냐?!》

우후의 노성에 팔동이 제꺽 여쭈었다.

《그때 군률을 문란시킨 죄로 배무이장에 갔던 전 교련관 등개가 옳소이다. 헌데 도해첩을 끝내 찾아낸게 바로 저 사람이오이다. 그가 아니였다면 도해첩은 찾지 못했을것이오이다.》

팔동의 설명에 우후는 못마땅한 기색을 지으며 눈길을 옮겼다.

《어허, 게다가 저 괘씸한 계집년까지?》

우후는 완전히 기분을 잡쳐버린 인상이였다.

팔동은 도해첩의 략도를 삼보녀가 찾아냈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말문이 막혀버렸다.

《너는 어째서 저런것들을 한가득 끌구 왔느냐?》

우후의 노여움은 고스란히 팔동에게로 쏟아져내렸다.

《저, 도해첩을 찾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또 우후나으리께 도해첩을 바치는것을 직접 보고싶다고 하기에 제가…》

《공을 세웠다구? 그럼 나더러 저놈들 궁둥이라도 두드려주란 말이더냐! 이런 망할것들…》

우후는 쩝쩝 입을 다시였다. 그러다가 문뜩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다시 낯빛에 화기를 띠웠다.

《어ㅡ 가만, 그러니 상을 주어야 한다 그 말이지? 아무렴, 그래야 하구말구.》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우후는 세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손짓을 보냈다.

《옳다, 너희들이 도해첩을 찾느라고 수고를 하였다. 큰일을 했으니 응당 상을 내려야지. 암… 헌데 어떤 상이 좋겠는지 제마끔 말해보거라.》

그러나 세사람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응당 할 일을 한것뿐이오이다.》

등개의 말이 상당히 우후의 기분에 거슬렸음은 더 말할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우후는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응당 할 일이라… 그래, 응당 할 일이였지. 그럼 내가 알아서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 전 교련관 등개를 이 시각부터 다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으로 받아들인다. 군기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던 지난날의 과오는 컸지만 도해첩을 찾아온 그 공 또한 작지 않으니 어찌 모른다 하겠는가. 듣거라, 등개는 급수군이 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라!》

순간 팔동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급수군이라니? 그럼 물을 긷는 군사가 되라는 말인가? 그게 상이야?!)

팔동은 분을 참지 못하는 등개가 또다시 무슨 일을 칠지 걱정되였다.

허나 등개의 입에서는 《황송하오이다.》 하는 단마디밖에 흘러나오지 않았다.

안달아난 팔동은 등개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곡진장주의 손녀 삼보녀는 이제부터 역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곡진과 완전히 의절을 하고 생업에만 착실히 종사하도

록 하라ㅡ》

등개에 이어 삼보녀에게로 떨어지는 우후의 상이란 결국 할아버지와의 의절이였다. 삼보녀는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우후는 《다음은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고?》

우후의 물음에 송원서는 고개를 쳐들다말고 등개와 삼보녀를 피뜩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듯 《나으리께 조용히 아뢰고싶소이다만…》 하고 말꼬리를 흐리였다.

우후는 쾌히 그것을 수락하고 후원으로 데려가라고 눈짓을 하였다.

군사 두엇이 송원서를 데리고 후원쪽으로 가고 등개와 삼보녀는 그만 나가보라는 우후의 손짓에 밀려 수영 담장밖으로 쫓기다싶이 나오고말았다.

뒤따라나온 팔동이 씩씩거렸다.

《뭐, 급수군? 자네 제정신인가? 왜 급수군이 되겠다고 했어?》

등개의 낯빛은 례사롭지 않았다.

《난 급수군이 되겠다고 한적이 없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방금 <황송하오이다.> 하구 말한건 누군데?》

팔동이는 도대체 등개의 속을 알수가 없어 어리둥절해졌다.

《그건 그랬지만 급수군이 되란 소리에 한 말이 아니였네. 다시 군사가 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는 말이 고마워 그랬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는거야 좋은 소리가 아닌가.》

《제길… 자네한텐 약이 없다니, 에에…》

등개는 그러는 팔동의 가슴을 툭 쳤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 팔동이 등개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됐네, 됐어… 참, 우후가 송원서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던데… 자넨 그걸 느끼지 못했나?》

팔동의 물음에 등개는 고개를 흔들었다.

《글쎄…》

그러나 팔동은 뭔가 단단히 속에 맺힌 사람처럼 진정하지 못하였다.

《보아하니 우후가 량반과 상놈을 갈라보는 눈치더란 말일세.》

《그럴수도 있지 뭘 그러나.》

등개의 대답은 더욱 팔동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럴수도 있다니, 어쩌면 자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수가 있나?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먼저 달아뺀 놈들이 어느 놈들인데… 량반? 흥, 개나 물어가라지. 죽어 백골이 된 다음에야 귀하구 천한 뼈다귀가 어디 있어? 같은 족속들이라고 싸고도는 꼴이란 참 눈이 시려서…》

팔동은 주먹을 내흔들었다.

《그러게 이놈의 세상은 량반놈 세상이라 하지 않던가.》

《세상은 량반놈 세상이여도 백성도 싸안고있는게 나라일세. 제길할, 내가 또 공연한 입씨름을… 가세, 기분두 쓸쓸한데 막걸리나 한사발 걸치세그려.》

그러나 이번에도 등개는 팔동의 청을 거절했다.

《혼자 가라구. 난 좀 봐야 할 일이 있네.》

그제서야 팔동은 등개의 뒤에 서있는 삼보녀를 언뜻 쳐다보았다.

《그럼 그렇게 하라구. 외기러기신세인 이놈은 할수가

없군.》

팔동은 손을 한번 쳐들어보이고는 엊저녁에 삼보녀가 부르던 《강강수월래》를 코소리로 내불면서 마을쪽으로 흐느적흐느적 걸어갔다.

팔동이 가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등개는 삼보녀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삼보녀는 어떻게 하련? 돌산도로 건너가야지?》

《혼자서는 싫어. 함께 건너가. 정말 급수군이 되여 여기 떨어지려구 그러는건 아닐테지?》

등개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볼일이 좀 있어. 그러니 먼저 돌아가. 가서 우리 고모님을 좀 돌봐줘.》

《거기는 안 와?》

《내가 안 가면 삼보녀가 춤을 출 때 불은 누가 지펴주겠니. 제꺽 볼일만 보구선 돌아가겠어.》

등개의 말에 삼보녀는 고개를 까딱까딱하였다.

《나도 나왔던김에 대상군어머니 상처에 좋다는 약재를 좀 얻어가지고 가겠어. 의원어른이 몇가지 알려는 주었는데 구할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그 말에 등개는 좀 안심이 되는듯싶었다.

《그럼 약재를 얻어가지고 인츰 섬으로 건너가. 나도 인차 뒤따라가겠어.》

삼보녀는 눈을 내리깔고 등개의 발치만 바라보고 서있다가 등개가 《어서 가.》 하고 재촉해서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삼보녀까지 보내고난 등개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였다.

이제는 우후가 송원서를 데리고 간 후원쪽 담장안쪽을 살피는 일만이 남았다.

(지금쯤 송원서가 어떻게 하고있을가? 놓치면 안될텐데…)

살금살금 후원쪽 담장을 에돌아간 등개는 옆에 서있는 나무의 아지를 잡고 낑낑거리며 담장우로 올라갔다. 누구도 없는것을 확인한 그는 올라올 때와는 반대로 가볍게 후원 안뜰로 날아내렸다.

락엽이 발밑에서 밟히며 바삭바삭 소리를 내였다. 등개는 소리를 죽여가며 후원에 붙은 안채쪽으로 바투 다가섰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며 있노라니 안에서 우후와 송원서가 나누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등개는 손끝에 침을 발라 문창호지에 조금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안에는 우후와 송원서가 마주앉아있었다.

헌데 우후의 낯빛이 심상치 않았다.

우후의 앞에 놓인 널직한 상우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어떤 물건이 하나 놓여있었다.

가만 보니 우후가 그것을 보고 몹시 놀란것 같았다.

《령주님이 보내는 인사를 가지고 왔소이다. 이걸 보이면 아실거라 하셨소이다.》

송원서의 말이였다.

우후는 눈을 크게 뜨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듯 했다.

송원서가 《으흠!》 하며 량눈섭을 세우자 우후는 화뜰 놀라고는 곧 뒤에 있는 궤를 여는것이였다.

등개는 눈에 쌍심지를 켰다.

우후의 두손은 와들와들 떨리고있었다. 그가 궤속에서 꺼낸것도 역시 크기와 생김새가 책상우에 놓인것과 비슷하였다.

우후는 그것을 상우에 먼저 놓여있던것에 가져다가 마주 대놓았다. 딱 들어맞았다.

(부신이로구나!)

등개는 저 물고기처럼 생긴 부신(둘로 쪼개여 한쪽은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한쪽은 보관하였다가 뒤에 증거로 삼게 만든 물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생각하며 귀를 강구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후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있었다.

《아까 제 소개를 안했던가요. 령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떨지 마오. 지체에 어울리지 않소그려.》

송원서의 말투에는 어딘가 야유가 섞여보였다.

《바라는게 뭐요?》

우후는 독사라도 마주하고 앉은듯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당신한테 아주 소용없는 그런 물건짝이요. 우린 당신 목숨값으로 큰걸 요구하지 않겠소. 도해첩만 주면 조용히 물러가지.》

《욕심이 지내 과하구만. 곡진장주를 붙들어갔으면 됐지 이젠 도해첩까지 가져가겠다?》

《건 당신이 상관할바가 못되오. 어서 도해첩이나 꺼내놓구려.》

우후는 완전히 송원서의 손아귀에 쥐여진듯 하였다.

우후는 허리를 꾸부정해가지고 뒤로 돌아앉아 다시 궤를 열더니 도해첩을 꺼내드는것이였다.

《옛소. 도해첩이요.》

우후가 건네주는 도해첩을 받아 송원서는 앞에 놓인 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귀중한 보물이라도 만난듯이 책표지를 정히 손바닥으로 쓸어보는것이였다.

그때 우후가 소매속에 감춰두었던 단검을 몰래 꺼내드는것이 등개의 눈에 보였다.

(앗!)

우후는 어느새 칼을 들어 힘껏 송원서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러나 미리 짐작하고있었던듯 송원서는 날래게 몸을 피하고 우후의 칼은 상우에 푹 박히고말았다.

성이 독같이 난 송원서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대뜸 그 칼을 뽑아들고 우후의 목에 가져다대였다.

《이거 왜 이러시오, 우후나으리! 그래 내가 여기 혼자 왔을상싶소? 내가 죽으면 옥포앞바다에서 포로가 되였던 당신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앞에서 종내 우리에게 변절하고야만 그 과거가 영영 흑막속에 묻힐것 같은가. 천만에! 나를 보호해주어도 모자랄판에 어리석게 칼을 빼들 생각을 하다니. 난 아직도 당신이 자기가 변절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같이 잡혔던 군사들의 목을 직접 베여버린 사실을 잊지 않구있소.》

한순간에 송원서에게 제압당한 우후는 밸을 부리듯 그를 왈칵 두손으로 떠밀었다. 그리고는 송원서가 칼을 들이댔던 목부위를 슬슬 쓸어보았다.

창호지에 뚫은 구멍으로 그 광경을 낱낱이 본 등개는 속으로 울컥 밸이 치밀었다.

(우후, 네가 그런 놈이였구나! 역적놈!)

등개는 막 달려들어가 두놈의 목을 당장에 따버리고싶었다. 그러나 등개에게는 살아있는 송원서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송원서가 왜적의 간자임을 알면서도 꾹 참아왔던것이다.

송원서가 왜적의 간자라는것을 등개는 이미전부터 알고있었다. 처음 송원서에게 의심을 가진것은 고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였다. 그때 고모는 다만 자기가 삼보녀네 집 울바자앞에서 칼에 맞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을뿐이였다. 그러나 등개의 머리속에 송원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것이였다.

고모는 그때 분명 《도해첩이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는

어떤 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었다. 그 목소리의 임자는 다름아닌 돌산도기습을 직접 이끈 놈의 목소리였을것이다. 헌데 송원서는 놈들이 곡진장주와 삼보녀를 끌고 배에 올라서는 생뚱같이 통역을 부탁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송원서는 거짓말을 하고있었다. 곡진과 삼보녀를 붙잡은 왜적들에게는 통역따위가 필요없었다. 삼보녀네 집을 쳤을 때도 송원서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것은 등개 혼자만의 생각뿐이였다. 아무것도 증명된것은 없었다.

등개는 송원서를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다. 헌데 그 찰나에 돌장승이 넘어지고 서낭당이 파헤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의심은 절름발이 회남에게로 쏠리고있었다. 그 주위에서 발견된 지팽이자욱이 단서였던것이다.

팔동은 회남이 그랬다고 아예 확정적으로 말하고있었다. 지어 참지 못하고 간자라고까지 했다. 사실 등개도 조금 동요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까지 등개는 회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이였다.

등개는 회남이 나쁜 사람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돌장승곁에 났다는 그 지팽이자욱을 찾아가 유심히 관찰해보았다. 오른발쪽이 깊이 눌려있고 바로 곁에 지팽이끝으로 땅을 짚은 자욱이 있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회남이 걸을 때 바로 그렇게 걷는것 같기도 하였다. 알쏭달쏭해진 등개는 그 이후부터 회남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그의 걸음걸이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등개는 어딘가 돌장승곁에서 보았던 그 발자욱과 회남의 발자욱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난다는걸 포착하게 되였다. 회남이가 남긴 오른발자국은 절반밖에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회남이는 오른발을 앞끝밖에 짚지 않았다. 분명 돌장승곁에 난 오른발자국은 발뒤축까

지 동그랗게 나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왜 그렇게 걷는가고 물어보았더니 회남이 하는 말이 절룩거리는 발쪽의 신발창만 지내 닳아서 그렇게 걷는다는것이였다. 오른발을 절룩거리면 오른쪽 짚신바닥만 닳아먹어 신발이 짝짝이가 된다면서.

아무때 보아도 회남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른발 뒤축자리가 나있지 않았다.

등개는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나쁜 놈인가? 둘이 다 나쁜 놈인가?)

헌데 이번에는 무덤도굴사건까지 터지였다.

무덤도굴사건이 있은 그날 즉 회남이 사라지던 그밤 팔동이와 헤여진 등개는 돌장승부근에서 뜻밖에도 그를 만나게 되였다.

등개는 그를 보자마자 대뜸 몽둥이를 추켜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회남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였다. 마지막타격이 좌절되고 회남에게 제압당한 그 순간 등개의 머리속으로는 피뜩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것 같애.)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회남은 죽기내기로 달려드는 등개의 타격을 피하기만 할뿐 치명적인 공격은 가하지 않았던것이다. 목을 감았던 팔까지 스르르 풀어주지 않았던가!

등개는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회남의 이야기를 듣고나서야 등개는 회남이가 누구이며 지금 돌산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얽혀돌아가고있는지를 짐작할수 있게 되였다.

회남은 그날 등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송원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회남의 말로는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사람은 분명 도해첩을 노리고 돌산도에 기여든 왜적의 간자가 분명하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등개의 예감과 일치하였다. 등개는 송원서의 뒤를 밟아왔다는 회남의 말을 전적으로 확신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는 믿을만 한 사람이였다.

등개는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다음부터는 로역장의 으슥한 곳에서 자주 그와 만나 급한 문제들을 의논하였다.

등개가 지금 실행하고있는 이 계획의 구상도 실은 그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세워진것이였다. 자칭 《강강수월래》라는 그 계획은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고있었다.

등개는 자기가 구상한 계획에 대해 신심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을 꼭 성공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것을 위해 등개는 모든것을 참을 각오를 하였다. 설사 눈앞에 아버지를 죽인 원쑤가 얼른거리고 고모의 옆구리에 칼을 박았던 왜적의 간자가 말을 걸어온대도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해주리라고 생각했다.

등개는 정신을 가다듬고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우후와 송원서가 아직도 밀담을 계속하고있었다.

《흥, 같지않은 칼따위로 누굴 위협할 생각은 하지도 마오. 내 목숨을 가지고 희롱해야 당신에게 리로울건 하나도 없을게요. 도해첩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고싶거들랑 태도를 공손히 가지오.》

우후는 상우에 놓인 도해첩우에 한손을 올려놓고 무뚝뚝한 얼굴로 송원서를 노려보았다.

《하하, 탄복하게 되누만. 칼날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 매우 흥미가 있소. 역시 당신은 타고난 벼슬아치요. 괜찮소, 괜찮아!》

송원서는 입술에 침을 발라가며 속에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난 당신처럼 배짱이 있는 사람들과 섭쓸리기 좋아하오.

당신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그때 벌써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단호하게 자기 부하들의 모가지를 베여버린 당신 같은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은 인물이니까. … 난 당신이 현실적으로 사고할줄 안다고 생각하오. 어떻소, 내 말이 틀리오?》

송원서의 물음에 우후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소. 난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헤여나올수 있소. 또 남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해야 하는지 알려줄수도 있거던. 당신도 내 도움이 없이는 이 도해첩을 무사히 빼내가지 못할것이요.》

우후는 말을 마치고나서 몇오리 안되는 턱수염을 내리쓸었다.

송원서는 슬며시 칼을 거두었다.

《우후나으리, 그 소린 이 도해첩을 고스란히 내가 가져갈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처럼 들리는구려.》

송원서는 우후의 손바닥아래에 놓여있는 도해첩을 힐끔 곁눈질하였다.

우후도 송원서가 도해첩을 쳐다보는것을 눈치채였다.

《그렇게 탐이 나면 가져가시오. 그러되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조를 먼저 해줘야 하겠소. 그 약조만 지킨다면 난 당신이 이 도해첩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겠소.》

우후는 도해첩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것을 본 송원서의 입귀에 실웃음이 어렸다.

《어련하겠소. 얼마동안은 아마 나를 보구싶어두 볼수가 없을게요. 좀 바쁠테니까. 허지만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고는 장담하기도 힘들것 같소. 어쨌든 우린 서로 이웃이니까.》

(이웃? 퉤, 범이나 콱 물어갈것이지…)

우후는 낯을 찡그리였다.

《구구히 말할것 없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오. 우선 오늘 저녁에 한산도쪽으로 가는 배편이 있소. 그 배에는 네명의 군졸들이 타게 되는데 그들의 임무는 이 도해첩을 한산도에 나가있는 통제사대감에게 속히 전달하는것이요. 당신이 그 배를 탄다면 한산도수역까지는 무사통과일 거요. 난 그들에게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인 당신을 집이 있는 관포마을까지 데려다주라고 할테요. 마침 관포가 거제도 동쪽해안에 붙어있으니 거기서 부산까지는 혼자서도 가낼 수 있을것이요. 어떻소, 내 말에 동의하오?》

낯색이 밝아진 송원서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모든것이 내 마음에 드오. 당신은 이런 시골구석에만 처박혀있기는 아까운 사람이로구만.》

송원서의 침발린 말에 우후의 낯빛이 변했다.

《허튼수작일랑 걷어치우고 이젠 이 도해첩을 가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시오. 다신 당신의 얼굴을 보구싶지 않으니까.》

우후는 상우에 놓인 도해첩을 송원서쪽으로 쑥 밀어주었다.

원서는 도해첩과 함께 그옆에 놓여있던 물고기부신의 반토막까지 집어들었다.

《우후나으리, 너무 그러지 마시오.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그때도 오늘처럼 우리 일을 잘 도와주기 바라오. 그리고 이 물고기부신은 잘 건사해두는게 좋을듯 하오. 앞으로 꼭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테니까. 여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가겠소. 만일 당신이 딴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생명은 담보받을수 있소. 부디 명심하시오.》

여기까지 말하고 송원서는 몸을 일으키였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소. 좋은 인상을 안고 가게 해주어

정말 고맙소.》

송원서는 감사하다는듯 제법 고개까지 까딱해보였다.

우후는 입만 허ㅡ 벌린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송원서는 도해첩을 품속에 쓸어넣은 다음 바람을 일구며 돌아서 나갔다. 문밖을 채 벗어나기 전 송원서는 피끗 몸을 돌려 우후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마의 땀을 좀 닦소. 추운 날에 무슨 땀을 그리 흘리시오?》 하고 제법 핀잔조로 한마디 뇌까리더니 쓰겁게 웃으며 나가버렸다.

방안에 홀로 남은 우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넓은 팔소매로 질벅하게 흐르는 이마의 땀을 훔쳐내였다.

(이 천하에 너절하고 비렬한 원쑤놈들!)

등개는 너무도 격분스러워 이를 박박 갈았다. 그러다가 송원서를 놓쳐버릴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후원의 담장을 훌쩍 뛰여넘었다.

18. 가이샤꾸

우후에게 엄포를 놓고 기분이 들뜬 송원서는 수영을 나와 주막집을 찾아들어갔다. 만나보러 간다던 《우리 사람들》이란 순전히 우후를 겁먹게 하려는 수작이였고 실은 이 려수땅에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앉은자리에서 지어낸 거짓말에 위협을 느끼고 부들부들 떠는 우후를 본 송원서는 자기의 림기응변에 만족을 느끼였다.

《막걸리 한사발 주소.》

송원서는 제일 구석진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모에게 술 한사발을 청하였다.

《예, 이제 나갑니다. 잠간만 기다리소ㅡ》

송원서는 어쩐지 마음이 흥그러워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싶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주막집엔 벙거지를 뒤집어쓴 군사들이 별로 많아보였다.

《자, 밥알이 동동 뜨는 막걸리요ㅡ》

불룩한 젖통때문에 저고리가 당장 터져나갈것만 같은 주모가 치마바람을 일구며 술사발을 날라왔다.

송원서는 허리춤에서 둥그런 엽전을 두세개 끄집어내여 보동보동한 주모의 손바닥에 던져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술값을 받은 주모는 영문을 몰라 얼떠름해서있다가 송원서의 손이 제 궁둥이를 툭 쳐서야 기겁하며 저쪽으로 달아났다.

송원서는 벙그레 웃음을 짓다가 막걸리사발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한모금 넘기니 시큼하고 달큼한 막걸리의 진맛에 온몸이 짜르르해졌다. 송원서는 한모금을 더 마시고 술사발을 내려놓았다. 사발안에 남아있는 젖빛액체가 송원서의 목젖을 자극하였다.

(에라, 모르겠다!)

송원서는 사발을 들어올려 그릇에 남은 막걸리를 전부 목구멍안으로 쏟아넣었다.

《카ㅡ》

사발을 내려놓는것과 동시에 주모에게 막걸리를 한사발 더 청하였다.

《예, 갑니다ㅡ》

주모는 길게 말꼬리를 뽑으며 송원서의 앞으로 막걸리사발을 날라왔다. 그리고는 무례하고 돈이 많아보이는 이 주정뱅이가 또 제 궁둥이를 만지자고 덤빌가봐 겁이 나는듯 사발을 내려놓기 바쁘게 돌따서더니 뛰여나가는것이였다.

송원서는 사발을 들념을 않고 무심결에 바깥쪽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웬 텁석부리 두엇이 소달구지에서 죽은 돼지 한놈을 부리우고있었다. 아마 주모가 돼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도 급하게 달려나간 모양이였다.

가마니짝우에 부리운 돼지를 내려다보던 주모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대가리며 발쪽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만족한듯 허리를 펴고 창고인듯 보이는쪽에 손짓을 하는것이였다.

그러자 달구지를 몰고 왔던 그 텁석부리들이 가마니채로 맞들어 날라들여갔다.

주모가 그들을 안으로 잡아끄는것이 보였다. 송원서가 보

기에 그들은 사양하는듯 했다. 그러나 주모는 막무가내였다.

정 안 들어오겠다고 그들이 뻗치자 주모는 잠간만 기다리라는 시늉을 하고는 주막안으로 달려들어와 막걸리 두사발을 퍼가지고 나갔다.

마당에서 달구지를 돌려세우고있던 두 텁석부리는 주모가 날라온 젖빛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수염들을 벅벅 쓰다듬었다.

주모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달구지가 문밖으로 나가자 얼른 돌아서 안으로 들어왔다.

주모는 찬데 나가서있다가 몸이 얼어들었는지 몸을 자꾸 으쓱으쓱거렸다.

갑자기 송원서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매우 익숙했지만 오래전에 맡아본 그런 냄새였다.

피비린내!

야수의 후각을 자극하는 그 냄새는 바로 주모가 있는데서부터 풍겨나고있었다. 아마 아까 손으로 돼지의 이곳저곳을 만져보더니 주모의 손에 돼지피가 묻은 모양이였다. 송원서는 피비린내에 너무도 민감하였다. 코안을 자극하는 비릿한 냄새에 그는 눈살을 찌프리고 주먹을 움켜쥐였다.

(앗!)

송원서는 량쪽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렇게나 해가지고는 제 머리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대한 메아리를 막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잊고싶었지만 종내 잊을수가 없었던 과거라는 공간에서 기억의 틈을 비집고 조금씩 새여나오는 절규의 목소리였다.

《어서 내리쳐라, 내리쳐!》

《악!》

몸뚱아리에서 튕겨나 땅바닥에서 뒹굴던 커다란 머리와 잘

리운 모가지에서 펑펑 뿜어져나오던 붉은 피, 피자박이 된채 중심을 잃고 스르르 넘어지던 시꺼먼 몸통ㅡ 바로 그것은 송원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송원서, 그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였다. 그의 본명은 가끼누마 쥬스께이다. 바로 임진왜란 초시기에 침략함대를 끌고 조선남해에 기여들었던 왜적수군장수의 한놈인 가끼누마 쇼오다이의 둘째아들이였다.

가끼누마 쥬스께의 형 가끼누마 마사가께는 사천해전당시 날아드는 화살에 가슴이 꿰뚫려 잔악한 운명을 마감하였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고 재앙이였으나 도발자들에게도 결코 즐거움만을 선사해준것은 아니였다. 왜관에서 사기와 협잡속에 날과 달을 보내던 가끼누마 쥬스께도 도요또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하나밖에 없던 형을 잃었으며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잃게 되였다.

아버지 가끼누마 쇼오다이를 죽인 사람은 바로 가끼누마 쥬스께 본인이였다.

리순신장군의 령활무쌍한 전법과 전설의 전함인 거북선에 쫓겨 바다를 내주고 대마도로 도망친 왜적수군의 우두머리들은 다리부러진 노루처럼 한데 몽켜들어 패전의 죄과를 묻는 《죽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패전에 조금이라도 관여된자라면 절대로 죽음을 피할수 없는 자리였다.

숱한 왜장들의 모가지가 뎅겅뎅겅 떨어져나갔다. 패장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것이였다.

그러나 가끼누마 쥬스께만은 그것을 심상히 받아들이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바로 이제 죽을 차례가 된 패장이 다름아닌 자기의 아버지 가끼누마 쇼오다이였던것이다. 쥬스께가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는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있었다.

쥬스께의 생각에는 조선의 리순신장군과 거북선에 저들의 대함대가 여지없이 패한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리순신장군과 그의 귀선에 패한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마땅하고 응당한 필연적결과였다.

원래 가끼누마가문은 칼부림을 전업으로 하는 사무라이가 아니라 대대로 배무이를 하는 집안이였다. 몇대를 두고 내려오며 해적선들을 무어낸 까닭에 가끼누마가문은 일본땅에서 손꼽히는 가문에 속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도요또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숱한 싸움배들을 주문하는 통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까지 되여버렸다. 호경기를 맞이한 가끼누마 쇼오다이는 불과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백여척의 싸움배들을 건조하여 바다에 띄웠다.

실로 장관이였다. 바다를 뒤덮은 3층다락배들은 고삐에 매인 맹수들처럼 닻줄을 툭툭 튕기며 어서 싸움마당에 뛰여들겠다고 몸을 뒤척이는듯싶었다.

가끼누마 쇼오다이는 일개 배를 뭇는 사람으로부터 사무라이들을 거느린 장수가 되여버렸다. 그의 아들들인 가끼누마 마사가께와 가끼누마 쥬스께까지도 갑옷들을 떨쳐입고 바다를 건너갔다.

이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상대가 더는 없을것 같았다.

개전초기에 가끼누마 쇼오다이나 그의 아들들은 저희 가문에서 만들어낸 아다께부네와 세끼부네를 주력으로 한 일본의 거대함대가 조선수군과 맞붙어 패전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끼누마가문이 만들어낸 싸움배들은 해적질에 이골이 난 섬오랑캐무리들에게 너무나도 손에 익은 《자랑》할만 한 전함들이기때문이였다.

사무라이식바다싸움전법은 《등선육박전술》이였다. 해적의 피를 물려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남의 배에 뛰여올라 칼부림

을 하는것은 바다싸움에서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물려받아 너무나도 손에 익힌 전술이였다. 때문에 그쪽이라면 어지간히 자신이 있어하였다.

그러나 조선수군은 절대로 저들의 《등선육박전술》에 말려들지 않았다. 아니, 조선수군을 상대로는 그 전술이 통하지 않았다는게 더 정확할것이였다.

처음부터 조선수군은 저들의 배들을 접근시키지 않았다. 공격대형을 일단 짓기만 하면 조선수군은 벼락치는듯 한 소리들을 내는 화포들을 일시에 발사하군 하였다. 저쪽 포아구리에서 불빛이 펑끗하고 이어 희읍스름한 연기가 뭉텅 쏟아져나올 때면 이쪽 배전에는 골조가 깨지고 돛대가 꺾어지며 루대가 박살나고 불이 확 당기군 하였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련이어 날아드는 불덩이며 불화살들은 아예 저들의 싸움배들을 장작패듯 하였다. 화포를 전혀 싣지 못하는 저들의 싸움배를 가지고서는 앉아 당하는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가끼누마 쇼오다이나 그의 아들들은 저들이 만들어낸 싸움배들이 그렇게 쉽게 깨여져나가는데 기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단 다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조선수군의 싸움배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였다. 가까이 접근해서 배전을 맞대여놓고 거기로 기여올라 칼로써 끝장을 보는것뿐이였다.

허나 그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판옥선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은 그 고가 어찌나 높은지 도저히 거기로는 기여오를수가 없었다.

원래 조선수군의 싸움배들중에는 판옥선이 없었다. 력대적으로 조선수군은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이라고 하는 맹선계렬의 배들로 바다를 지키고있었다. 헌데 삼포왜란과 사량왜변, 을묘왜변 같은 왜구들과의 싸움을 직접 겪으면서 맹선계

렬의 싸움배들의 취약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맹선계렬의 싸움배들은 《등선육박전술》이 뼈속까지 물든 왜적의 맹공격을 격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선체에 갑판을 깔고 그 우에 군사들과 노군들을 함께 배치한 평선이였던 그 배들은 싸움마당에 들어가면 노를 젓는 격군과 활을 쏘는 궁수들이 한데 어울려돌아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게다가 그들은 고가 낮은 배전을 제외하고는 몸을 가리울만 한 아무런 보호수단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배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겪게 될 왜구들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선수군에 소속되여 싸움배들을 무어내던 장공들은 선조들의 배무이술에 토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싸움배를 무어낼 결심을 하게 되였다.

우선 그들이 고민한것은 격군과 궁수의 분리였다. 그들을 싸움마당에서 분리시켜놓으면 싸움에 상당히 유리할수 있었다. 노를 젓는 격군은 아래에, 활을 쏘는 궁수는 그보다 우에 배치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가 계속되였다. 다음으로 이제 건조할 배에는 싸움때마다 상대의 배에 뛰여오르군 하는 왜적들의 습성을 타산하여 적들의 배보다 훨씬 고가 높은 배전을 설치해야 하였다. 놈들이 배전에 달라붙지 못하면 효과적인 명중사격을 위주로 하는 조선수군이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수 있었다.

그 모든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줄수 있는 방도는 단 한가지뿐이였다.

장공들은 맹선의 선체우에 하나의 갑판을 더 올려놓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노를 젓는 격군들과 활을 쏘는 궁수들을 분리시킬수가 있었다. 또한 노를 젓는 격군들은 갑판아래에 들어박혀있게 되므로 적들의 창끝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될수 있었다. 웃갑판에서 활을 쏘는 군사들은 높이 세운 참나무방패판자에 몸을 숨김으로써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사격을 진행할수 있었다. 그 모든것을 갑판중심에 세운 2층루각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지휘하게 하였다. 판옥선이라는 이름도 이 2층루각에서 유래되였다.

그렇게 건조된 판옥선은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싸움배중의 하나로 손꼽히였다.

궁수와 격군이 분리된 두개의 갑판과 그우에 설치된 위력한 화포들, 거대한 몸체를 든든히 떠받드는 통나무골격들은 왜적들이 장기로 가지고있는 《등선육박전술》을 무력화시키기에는 그저그만이였다.

실지로 임진왜란 초시기에 판옥선과 맞다든 섬오랑캐놈들은 패전의 쓰라린 고통속에서 전통적인 저들의 싸움방식인 《등선육박전술》에 환멸을 느끼게 되였다.

성벽이라도 타고넘듯 사다리에 매여달리면 하늘에서 뾰족한 갈구리가 쑥 내려와 등허리를 쿡 찍어서는 더러운것이라도 털어내듯 바다물에 떨궈버리지, 요행 갈구리를 피해 꼭대기까지 올라왔다싶으면 턱밑이 창끝에 꿰여진채로 자유락하를 경험해야지, 또 두껍고 고가 높은 배전때문에 조총도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더 무시무시한것은 조선수군의 육박전술이였다.

화포일제사격에 뒤이어 조선수군은 하나같이 노를 저어 돌격해들어왔는데 덩지가 큰 조선수군의 싸움배와 부딪치고나면 저들의 싸움배는 바위에 떨어진 새알처럼 여기저기가 깨여져나갔다. 가볍고 향내가 나는 삼나무를 켜서 만든 저들의 싸움배들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통나무골조를 가지고있는 조선수군의 판옥선앞에 너무나도 허약스러웠다. 조선수군은 배를 몰고 달려와 지끈지끈 소리가 나게 들이받아놓고는 박살

이 난 배우에서 아비규환이 되여버린 저들의 머리우로 화살과 총통을 마구 쏘아대였다.

가끼누마 쇼오다이와 그의 아들들은 질겁하였다. 사방에서 패전보고가 날아들 때면 그 배를 만들어낸 저들에 대한 힐난과 질책 그리고 무서운 노성이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라다니였다.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잃게 생겼다. 조선수군을 끝내 꺼꾸러뜨리지 못한다면 패전의 모든 죄과의 화살은 고스란히 저들의 머리우에 쏟아질것이였다.

(어떻게 하나 조선수군을 격파해야 할텐데… 헌데 어떻게, 무슨 수로…)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저들과 맞서있는 조선수군은 전설의 검은 룡같은 귀선까지 보유하고있었다. 말그대로 귀신같은 그 배야말로 왜적수군 우두머리들의 최대의 골치거리였다. 온몸을 철갑으로 빈틈없이 무장한 괴물같은 귀선은 항상 뽀얀 안개속에서 나타나군 하였다. 시누런 연기를 입으로 토해내며 사방으로 불덩이를 내쏘는가 하면 어느새 달려와 와지끈 배전을 들이받아놓고는 밑창이 깨여져 가라앉는 저들의 싸움배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아다께부네나 세끼부네 같은 싸움배들은 더이상 가끼누마가문의 자랑거리가 아니였다.

쥬스께는 정말로 조선수군이 보유한 그 귀선이 증오스러웠다. 아니, 증오라기보다 강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일것 같았다.

어쨌거나 패전의 모든 죄과는 고스란히 가끼누마 쇼오다이에게로 돌아왔다.

가끼누마 쥬스께는 자기 아버지에게 패전의 죄를 전가하여

죽음을 강요하고있는 이마가 번들번들한 저 늙다리왜장의 처사가 심히 못마땅하게 느껴지였다.

《마지막소원이 있는가?》

늙다리왜장이 죽음의 판결을 받은 가끼누마 쇼오다이에게 최후의 물음을 던졌다.

가끼누마 쇼오다이는 고개를 들었다.

쥬스께가 본 아버지의 얼굴에는 비겁성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비장함 같은것이 흐르는듯 했다.

쥬스께는 이제 아버지가 하게 될 대답을 이미 짐작하고있었다. 비록 그는 사무라이가 아니였지만 앞서 자결한 사무라이들과 똑같은 대답을 할것이였다. 《바라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끄럽지 않게 생을 마무리할게 뻔했다.

그러나 쇼오다이의 입에서는 예상밖의 대답이 튀여나왔다.

《한가지 청이 있소이다.》

둘러섰던 사무라이들이 놀라운 눈으로 쇼오다이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그렇게 도고하던 가끼누마가문의 가장이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삶에 대한 그 어떤 미련이 생긴것인가?

《말해보라.》

《저의 아들이 이 자리에 와있소이다.》

《그래서? 아들이 보는데선 죽기가 겁나는가?》

쥬스께는 깜짝 놀랐다.

늙다리왜장은 쥬스께에게 물러나라고 손짓을 하였다.

쥬스께는 어찌할바를 몰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게 아니오라…》

쇼오다이의 말에 왜장은 멈칫하였다.

《죽기가 싫은가?》

대단히 시끄러워하는 왜장의 말투였다.

《저의 아들 가끼누마 쥬스께를 저의 가이샤꾸(일본봉건시기에 할복자의 목을 치는 사람)로 삼았으면 하오이다.》

가끼누마 쇼오다이의 청을 들은 왜장은 물끄러미 쇼오다이와 쥬스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오오?! 요시, 요시… 좋도록 하라!》 하고 뇌까리였다. 아무래도 죽을 놈이니 마지막소원을 들어주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여긴 모양이였다.

왜장의 승낙을 받은 쇼오다이는 어서 가까이로 오라고 아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쥬스께는 반정신을 잃은듯 어정어정 아버지의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늙어 힘이 진했으니 네가 내 마지막길을 도와야겠다.》

무릎을 꿇고 앉은 쇼오다이는 앞에 놓인 짧은 칼을 들고 흰 수건으로 칼날을 닦았다.

쥬스께는 옆구리에 차고있던 긴칼을 쑥 뽑아 손에 들었다. 늘 쥐던 검이였지만 오늘만은 별스레 차겁고 무거워보였다.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있었다.

《못하겠소이다. 전 못하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아니, 칠수 없어요!》

쥬스께는 손에 들었던 검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놈!》

갑자기 쇼오다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쥬스께의 따귀를 불이 번쩍나게 갈겼다.

볼을 쥐고 나자빠진 쥬스께는 일어설념도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빠가야로! 검을 내팽개쳐? 어서 검을 들지 못해!》

쇼오다이의 눈에서는 불이 황황 타번지는듯싶었다.

더럭 겁이 난 쥬스께는 엉금엉금 기여가서 내버렸던 검을

다시 손에 쥐였다.

《이젠 똑바루 서!》

엉거주춤 일어선 쥬스께의 뺨을 쇼오다이가 다시한번 후려갈겼다.

쥬스께는 또다시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너 같은게 내 아들로 태여나다니,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네 형 마사가께는 조선수군과의 싸움에서 용전분투하다 가끼누마가문의 아들답게 기꺼이 죽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다! 아마 네 형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검을 집어버린 너의 그 손모가질 잘라버렸을게다. 쥬스께, 잘 들어라. 모진줄 알면서도 널더러 내 가이샤꾸가 되라는것은 나처럼 죽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가문에서 만들어낸 싸움배가 조선수군과의 싸움에서 깨여져 숱한 군사들이 죽었으니 응당 내가 죽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가문의 수치를 모두 이 아비 혼자 걸머지고 가마. 대신 너는 이 아비의 복수를 꼭 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선수군을 격파할 싸움배를 무어내여 가끼누마가문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꼭 그래야만 해! 오늘의 이 치욕을 씻지 못한다면 이 아비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것이다. 아비의 원통한 죽음을 제눈으로 목격하고서도 또다시 내 전철을 밟게 된다면 그땐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 네 목을 칠것이다. 알아들었느냐?!》

쇼오다이는 우악스럽게 생긴 손으로 아들의 턱을 쥐여 자기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알게… 알겠소이다.》

《자식, 대답이 작다! 알아들었어?!》

쇼오다이는 다시 쥬스께의 뺨을 주먹으로 후려갈겼다.

《하잇!》

휘친휘친거리다가 겨우 중심을 잡은 쥬스께는 제정신을 잃

은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하잇! 하잇! 하잇!》

《그래, 장해! 그래야 하구말구. 과시 내 아들답다.》

쇼오다이는 입술짬으로 피가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있는 아들이 미더운듯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었다.

그러구나서 쇼오다이는 《죽음의 자리》로 가서 앉았다.

《시작하라!》

다시 쇼오다이는 흰 수건을 정히 들어올려 번쩍번쩍하는 칼날을 닦기 시작하였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쥬스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칼자루를 두손으로 틀어쥐고서 머리우로 높게 쳐들어올렸다.

칼을 다 닦은 쇼오다이는 칼날을 수건으로 감아쥐더니 그 끝을 자기쪽으로 돌려눕혔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웃도리를 헤치고 배를 드러내는것이였다.

《윽, 아악!》

어느새 칼날은 쇼오다이의 배에 푹 꽂혀 그의 살갗을 찢고있었다.

쇼오다이의 얼굴은 험상궂게 이지러졌다.

《윽… 어서 내리쳐라, 내리쳐! 악!》

좀처럼 죽어지지 않아 모지름을 쓰는 소리가 쥬스께를 자극했다.

《야앗!—》

쥬스께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휙— 하고 칼날을 그어버렸다. 칼날 중간으로부터 뭔가에 부딪치는듯 한 충격이 쥬스께의 손으로 전달되였다.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났다. 눈을 떠보니 몸뚱이에서 떨어져나온 아버지의 커다란 머리가 바닥에 뒹굴고있었다. 모가지가 떨어진 몸뚱이에서는 검

붉은 피가 콸콸 뿜어져나왔다.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쇼오다이의 몸뚱아리가 맥없이 옆으로 털썩 자빠졌다. 내리드리운 쥬스께의 칼끝에서는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

그때 쥬스께는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을 굳히였다.

(나만은 아버지처럼 패장이 되지 말자! 이 가끼누마 쥬스께는 조선수군을 반드시 격멸하고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테다!)

그 이후부터 가끼누마 쥬스께는 오직 조선수군의 귀선에만 집착하게 되였다. 가끼누마 쥬스께에게 필요한건 오직 귀선뿐이였다. 그것을 자기 손에 넣어야 강력한 조선수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일본군과 쥬스께에게 있어서 귀선은 말그대로 바다의 지배자였다.

가끼누마 쥬스께는 조선수군의 귀선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데 환장을 하고있었다.

마침 부산포에 건너왔던 가끼누마 쥬스께에게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가 걸려들었다. 그때 송원서는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왔다가 섬오랑캐놈들에게 발각이 되여 붙들려있는 상태였다.

가끼누마 쥬스께는 그에게서 필요한 모든것을 알아낸 후에는 무참히 그를 살해하였다. 진짜 송원서는 그에게 필요없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가끼누마 쥬스께는 송원서로 둔갑하였다. 변장은 아주 비슷했다. 오래동안 왜관에서 살다나니 또렷치는 못했지만 조선말도 제법이였고 생김새와 나이도 비슷했던 까닭에 쥬스께는 갈데 없는 송원서의 복사판이 되였다.

그로부터 몇년세월 송원서로 변장을 한 가끼누마 쥬스께는 조선남해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귀선의 비밀을 탐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밝혀내기 어려웠다. 누구도 그 배를 무어내는 곳을 알고있지 못하였다.

몇년동안 헛고생을 하고 부산포에 돌아온 쥬스께를 희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전에 옥포바다싸움때에 포로가 되였다가 서약서를 쓰고 살아돌아간 전라좌수영의 우후 리봉태에게 밀정을 들여보냈더랬는데 글쎄 그자로부터 그 귀선을 만드는 위치와 장공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왔다는것이였다.

쥬스께는 환성을 질렀다.

(그러니 전라좌수영의 아래에 있는 돌산도 장공마을앞바다에서 그 배를 무어내고있단 말이지. 곡진장주라… 그놈에게 도해첩이 있다. …)

그달음으로 대마도로 건너간 쥬스께는 배무이에서 섬나라의 일인자라고 하는 다이라를 직접 만났다. 다이라는 쥬스께의 삼촌벌이 되는 사람이였다.

귀선과 도해첩에 대한 희한한 이야기를 들은 다이라는 쥬스께의 요구를 대번에 수락하였다.

도해첩만 가져오면 귀선을 틀림없이 만들어주겠다는 약조를 받은 쥬스께는 그 돌산도라는 곳을 직접 편답하였다. 몇차례 섬을 돌아보며 곡진의 집도 눈여겨 살펴두고 침입로와 퇴각로까지도 상세하게 봐둔 그는 대마도의 해적들을 한배 가득 싣고 돌산도로 건너와 은밀하게 곡진장주의 집을 기습하였다.

애초의 계획은 곡진장주를 위협하여 도해첩을 앗아내고 조용히 빠지는것이였다.

그러나 상상밖에 강씨가 출현하고 개들이 짖어대여 마을사람들이 깨여나자 본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곡진장주와 그의 손녀를 랍치해갔다.

배를 타고 내빼던 쥬스께의 머리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가만, 저 곡진장주라는게 보아하니 호락호락 굽어들것 같

진 않은데… 저러다 도해첩을 내놓지 않고 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한다? 다른 방도가 있어야겠어.)

그리하여 쥬스께는 돌산도에 다시 침투할 결심을 내렸다. 쥬스께에게 필요한건 곡진장주나 그의 손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해첩이였다. 하긴 곡진이 리순신장군의 특별한 보호밑에 귀선을 만들어낸 담책이라고 하니 《살아있는 도해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그는 순순히 말을 듣게 생겨먹지 않았다. 그러니 곡진이나 붙잡아가지고서는 귀선을 만들어낼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다. 쌍선을 놓아야 하였다. 곡진도 잡아가고 도해첩도 찾아가고… 그러니 남는것은 곡진의 손녀뿐이였다. 물론 그 손녀는 곡진이 도해첩을 감춘 장소를 모를수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손녀를 충동질한다면 도해첩은 분명 찾을수 있을것이였다.

그리하여 송원서로 가장한 쥬스께는 제놈의 졸개들에게 유린당하는 삼보녀를 《구원》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으며 그와 함께 배에서 뛰여내려 돌산도에까지 들어서게 되였다.

하지만 쥬스께에게는 자꾸 자기의 뒤를 밟는 절름발이 회남이 무척 성가신 존재였다. 곡진이 돌장승과 서낭당이 있는 곳에 자주 가군 했었다는 삼보녀와 팔동이의 말을 엿듣고 밤중에 그곳을 들쑤시고 돌아가던 쥬스께는 자기를 감시하는듯 한 절름발이의 시선을 감촉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회남이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삼보녀로부터 전 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나서는 분명 거기에 도해첩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무덤들을 들추다가 끝내 도해첩을 찾지 못하게 되자 차라리 이 기회를 리용하여 시끄러운 회남을 제거해버리리라 작정하고 절름발이가 그런것처럼 지팽이자욱과 발자욱을 여러개 찍어놓고 사라졌다. 이것으로 하여 쥬스께는 눈에 든 가시같던 회남을 무덤도굴의 《진범》으로, 부산포에서 파

견되여온 《왜적의 간자》로 몰아붙여 자기의 시야밖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다음부터 쥬스께는 마음놓고 도해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삼보녀의 집에서 도해첩략도가 발견되고 거북바위아래서 도해첩을 끝내 찾아내게 되였던것이다.

원래 쥬스께는 그날 밤 도해첩을 등개가 삼보녀의 집에 보관하였을 때 거기서 훔쳐가지고 달아뺄 궁리도 해보았다. 그러나 절름발이 회남이 섬에 다시 나타나고 캄캄한 밤중에 혼자서 배를 몰아 섬을 탈출한다는게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요행 섬을 탈출한다치더라도 혼자 노를 저어가지고는 전라좌수영의 추격선에 붙들릴 념려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산포에서 대마도로 갈 때 받아두었던 물고기부신을 써먹기로 하였다.

우후는 본래 겁이 많은 량반이였다. 말을 들으니 그는 끓는 기름가마앞에 세워놓고 빠뜨려죽이겠다고 위협했더니 주먹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순순히 서약서를 써바쳤고 자기 부하들의 목도 서슴없이 베였다는것이였다.

쥬스께의 타산은 빗나가지 않았다. 쥬스께는 우후를 통해 품 하나 안 들이고 도해첩을 손에 넣었을뿐아니라 한산도로 가는 배편까지 얻을수 있었다. 우후가 내준 배이니 한산도앞바다는 무사통과일것이고 관포까지 가면 몇 안되는 군사들을 죽여버린 뒤 부산포쪽으로 곧추 빠지면 그만인것이다. 부산포에서 대마도까지는 걱정이 없었다. …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가?)

쥬스께는 상우에 놓았던 술사발의 그늘이 손바닥만큼이나

더 커진것을 보고는 그만 일어나 포구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날씨는 제법 쌀쌀하였다. 저녁때가 되니 파도가 조금 높아진듯 했다.

해변가에 달려들어 바위를 움켜쥐였다가는 스르르 물러나는 파도를 보니 당장 도해첩을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등개와 삼보녀의 손들같이 생각되였다.

(어림두 없다. 이젠 이 가끼누마 쥬스께님의 소유물이야!)

쥬스께는 품안 깊숙한 곳에 건사한 도해첩을 손바닥으로 두어번 두들겨보고는 활개를 치며 포구를 향해 걸음을 다우쳤다.

19. 넓은 바다 한 귀퉁이에서

우후는 약속을 지키였다. 쥬스께가 포구에 도착하니 이미 배는 거의 출항준비를 끝내고있었다. 이제 먹는물만 싣고나면 떠날수 있었다.

급수군이 먹는물을 가득 담은 나무통들을 수레로 날라왔다.

군사들은 통들을 들어다가 갑판 뒤쪽에 든든히 비끄러매놓았다. 그들속에는 창대와 주리대도 있었다.

우후가 포구로 나왔다. 군사들은 우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일렬로 쭉 벌려섰다. 쥬스께도 군사들의 맨끝에 엉거주춤 섰다.

우후는 쥬스께쪽은 보지도 않고 군사들을 향해 실무적인 말을 몇마디 하였다. 그리고는 뒤를 따르던 구중에게서 자개함을 받아서 창대에게 넘겨주었다.

《이안에 바로 통제사께 보내는 도해첩이 들어있느니라. 나라의 귀중한 국보이니 목숨처럼 간수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 길로 곧장 한산도로 찾아가서 통제사께 이 도해첩과 함께 배무이정형이랑 적은 이 종이말이까지 함께 전달토록 하라. 참, 저 관포만호 송이첨의 아들 송원서에게 급한 일이 생겨 집엘 보내야 하겠으니 가는 길에 그를 태워다주도록 하라. 먼저 관포에 들려 저 사람을 내리워주고 돌아오는 길에 한산도에 들리는게 편할듯 하다. 둘 다 급한 용건이니 잠시도 지체말고 부지런히 노들을 저어 제시간에 당도하도록 하라. 더 물어볼 말이 있는고?》

《없소이다.》

창대의 대답을 들은 우후는 쥬스께에게 끔뻑 눈짓을 해보이고는 《속히 떠나도록 하라!》 하고 령을 내렸다.

《예잇ㅡ》

군사들은 우후를 향해 읍을 해보이고 우당탕퉁탕하며 배전으로 뛰여올라갔다.

《닻을 올려라!》

창대의 호령이 울리자 닻줄을 끌어올리는 소리가 영차, 영차! 하고 들려왔다.

《돛을 올려라!》

바람을 안은 돛은 순식간에 배를 포구밖으로 밀어내였다.

배가 포구밖으로 사라지도록 우후는 그냥 한자리에 서고만 있었다.

쥬스께는 그러한 우후의 심정이 리해가 되였다.

(아마 저놈은 이 배가 콱 깨져서 내가 물에라도 빠져죽길 간절히 바라겠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될걸. 그렇게 쉽게 죽을 쥬스께가 아니거던.)

쥬스께는 우후와 또 만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멀

어져가는 해안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눈길을 돌려보니 창대가 우후가 건네준 자개함을 꼭 안고 갑판우에 서있었다. 국보가 들어있다니 아마 잃어버릴가 두려운 모양이였다. 주리대는 키를 잡고 나머지 두명의 군사들은 노를 잡고있었다.

쥬스께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저게 빈통인것을 그렇게도 모를가?)

쥬스께는 깨고소한 눈길로 창대를 바라보았다. 우후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봉인까지 해놨으니 창대도 그안에 도해첩이 있는지 없는지 알턱이 없을것이였다.

어쨌거나 우후의 바래움을 받으며 한산도를 향하여 닻을 올린 돛배는 바람을 안고 동쪽을 향하여 기운차게 내달렸다.

쥬스께는 이제 배가 관포앞바다에 들어서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손을 쓸 계획이였다. 거제섬의 동북쪽에 위치하고있는 관포에서 부산포까지는 바다길로 불과 70여리가 되나마나 하였기때문에 손을 쓸 장소로는 거기가 적당하였다. 게다가 관포앞바다에까지 도착할즈음이면 먼 바다길에 교대로 노질을 하느라고 군사들도 지칠대로 지칠것이니 기진맥진한 4명의 군사들을 쓰러뜨리는것이 별로 어려워보이지도 않았다.

좌우간 쥬스께는 그 시각을 위하여 힘을 아껴야 하였다. 관포에 도착할 때까지 선실에 들어가 눈을 좀 붙이고싶었다. 아까 초저녁에 마셨던 술기운이 이제야 마구 뻗치는 모양이였다.

쥬스께는 밀려나오는 하품을 연방 늘어지게 하면서 갑판아래로 기여들어가 아무데고 털썩 누워버렸다.

얼마나 잤겠는지…

쥬스께는 문뜩 살갗에 무엇인가 감겨드는 이상한 감촉을 받았다.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물건이

였다.

《앗!》

눈을 뜬 쥬스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닻줄에 꽁꽁 묶인 자신을 발견했던것이다.

《이게 무슨짓이요?!》

쥬스께는 발치에서 어물거리고있는 주리대에게 꽥ㅡ 고함을 질렀다.

《벌써 깨여나셨구려. 이제 목욕을 시켜주려던 참이였는데…》

《모… 목욕을 시키다니?》

《뭘 시치미를 떼면서 그러시우. 모를것이 있으면 우후나으리께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우?》

《우후?!》

《그렇소.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소만 우후나으리가 가면서 보라고 준 저 종이말이에 당신이 왜적의 간자이니 꽁꽁 묶어서 바다에 처넣구 그길로 좌수영으로 오라고 씌여있더구만.》

주리대의 말을 들은 쥬스께는 (개같은 우후 이놈! 감히 날 속여? 값을 치르게 하고야말테다!) 하고 윽윽하였다.

그러면서도 《왜적의 간자라니? 뭔가 오해가 생긴 모양이요. 난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구만.》 하고 발뺌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엇이요?》

주리대도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쥬스께의 눈앞에 손을 쳐들어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것을 본 쥬스께는 두눈이 휘둥그래지였다.

(도해첩?!)

쥬스께는 불시에 하늘땅이 꺼지는것 같았다.

《말을 못하는구만. 이러니 내가 당신이 왜적의 간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우후나으리가 서신에 밝힌대로 당신은 왜적의 간자가 분명한것 같소.》

주리대는 입안이 쓰거운듯 입을 쩝쩝 다시였다.

《죽을 차비나 하오.》

이 말을 남긴 주리대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쥬스께는 결박끈을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았다. 하지만 도무지 그것을 풀 재간이 없었다.

(아, 가끼누마 쥬스께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쥬스께는 살고싶었다. 이렇게 죽는것은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다.

(아, 살고싶다! 나는 살고싶다!)

움직일수록 결박끈은 더욱더 세게 팔목과 발목을 조여들었다.

(칙쇼! 우후, 이 개자식! 어디 두고보자! 네놈을 내 기어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방도는 없었다. 절망상태에 빠진 쥬스께는 마침내 모든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머리속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조차 생각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흔들리는 배전에 그냥 내버려두었다.

어디선가 가느다랗고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원서, 정신차려.》

쥬스께는 눈을 뜨고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저쪽 발밑에 창대와 주리대를 비롯한 군사들이 돛줄을 어디에 고정시키려는지 한데 달라붙어 잡아당기고있는 모습이 눈에 띄울뿐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젠 착각증상까지… 저승에서 찾는 소리인가?)

쥬스께는 다시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쭉 풀었다.

그러나 그때 《원서!》 하고 부르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아니다, 이건 저승에서 찾는 소리가 아니다. 분명 내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쥬스께는 눈을 번쩍 떴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역시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요? 어디 있소?》 하며 쥬스께가 휘둘러보았다.

《제길, 입을 놀리지 말라구.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알았으면 고개만 끄덕거리라구.》

쥬스께는 나무통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였다. 분명 소리는 그쪽에서 들리고있었다.

《자넬 빼내줄테니 날 도와줄텐가?》

순간 쥬스께는 온몸에 피가 용솟음치는듯 한감을 느끼였다. 죽음의 절망에서 삶의 가망을 본것이다.

쥬스께는 더 생각할것도 없이 고개를 몇번이고 끄덕이였다.

(뭔들 못하랴! 날 살려주겠다는데야…)

한순간, 한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창대와 주리대가 돛작업을 다 끝냈는지 손을 툭툭 털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쥬스께는 몸을 꿈지럭거리며 구석쪽에 숨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바로 그때 주리대와 창대의 뒤쪽에 난데없이 등개가 불쑥 나타났다.

《안녕한가, 친구들?》

주리대와 창대는 어지간히 놀라는 눈치였다.

《아니, 전 교련관이 어떻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소?!》

《나? 보다싶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헌데 이게 자네들

게 아닌가?》

등개는 뒤에 감추고있던 바른손을 꺼내들었다.

《저런, 자개함이구려. 교련관이 그걸 왜 손에 들고있는거요?》

그들의 물음에 등개도 놀라는 표정이였다.

《글쎄, 이따위 필요도 없는 물건짝을 내가 왜 손에 들고 있을가?》

등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훌쩍 바다물에 던져버렸다.

《아니?!…》

등개의 손을 벗어난 자개함은 포물선을 그으며 곧장 바다물에 철썩ㅡ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리고는 수면우에 떠올라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배전밖으로 멀어져갔다.

《그 통은 왜 집어던지는거요? 제길할!》

창대가 주먹을 내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놔! 제길, 교련관이였으면 다야?!》

창대는 성이 독같이 나서 펄펄 뛰였다. 그러나 주리대는 말한마디 못하고 자꾸 창대의 팔소매를 잡아당기기만 하였다.

《이거 왜 그래?》

창대는 주리대가 자꾸 성가시게 굴자 꽥ㅡ 소리를 지르며 그를 돌아보았다.

《저기… 도해첩이 떠내려가네!》

한참만에야 주리대가 고함을 질렀다.

《뭐라구? 저건 빈통이라며?》

《아니야, 아까 내가 도해첩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건사할데가 없어서 거기다 넣었드랬네. 바로 저안에 도해첩이 있어!》

《건 왜 거기에 넣어?》

창대가 주리대의 멱살을 잡아올렸다.

주리대는 창대의 팔뚝에 매달려 발버둥치면서도 눈으로는

떠내려가는 자개함만 바라보고있었다.

《허허, 그러다 도해첩을 영영 잃어버리고말겠는걸.》

뒤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있던 등개가 넌지시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창대가 고개를 돌려 등개를 쏘아보았다.

《교련… 아니 등개, 목에 칼을 질줄 아우!》

창대는 더이상 긴말이 없이 홀쩍 몸을 날려 바다물에 뛰여들었다.

《바줄을 던져!》

창대는 떠내려가는 자개함쪽으로 헤염을 쳐가며 소리쳤다.

《알았네.》

주리대가 발밑에 있던 바줄퉁구리를 잡아 창대가 헤염치는 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어이쿠!》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바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던 주리대는 뒤에서 등개가 밀치는 바람에 허양 바다물에 떨어져내렸다.

《바줄을 꼭 쥐게!》

등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주리대를 배전너머로 내려다보면서 야유적으로 소리쳤다.

《이게 무슨짓이요?》

노를 젓던 두명의 군사가 달려왔다.

하지만 등개는 그들도 눈깜빡할 사이에 닝큼 쳐들어 바다물에 던져넣었다. 상씨름군이였던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은 재간이였다.

《어이쿠!》

물에 빠진 군사들은 어쩔줄을 모르고 헤덤비였다.

《자, 나무통들을 내려보낼터이니 그걸 붙잡구 물장구나 치

라구! 이제 곧 순찰선이 나타날게야!》

등개는 갑판 뒤쪽에 있던 빈통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아까 그 끈으로 나무통들을 묶어서 떼를 만들어도 좋아! 여, 끈을 잘 건사했겠지?》

가까스로 나무통을 붙잡고 기여오르던 주리대는 등개의 그 말에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주릴 틀어놓구말테다!》 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자, 친구들! 또 만나세!》

등개는 키를 잡아 배의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세웠다.

등뒤에서 《교련관, 이 개자식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아, 여보게!》

쥬스께가 등개를 찾았다.

《왜 그러나?》

등개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젠 이걸 풀어줘야지!》

쥬스께는 한데 묶인 발목을 쳐들어보이였다.

《풀어준다고까진 안했는데… 에라, 까짓거 풀어주지. 헌데 자네 나한테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하네.》

《뭐… 뭘 말인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그 말 말이야.》

《알았다니까.》

등개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더니 쥬스께의 손목과 발목에 묶은 바줄을 툭툭 끊어버리였다.

《어휴, 살았군.》

손과 발이 자유로와진 쥬스께는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를 묶었던 바줄토막들을 걷어안아 배전밖으로 내팽개쳐버리였다.

《우후, 이 개자식아!…》

쥬스께는 서쪽하늘에다 대고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네놈의 간을 꺼내여 씹어먹구말테다!》

쥬스께는 도저히 진정할수 없는듯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젠 좀 조용하라구. 여긴 아직 조선수역일세.》

등개의 그 말에 쥬스께는 입을 다물었다.

《자넨 대체 누군가?》

쥬스께가 물어보는 말이였다.

《나? 나야 급수군이지. 전라좌수영의 급수군을 모르나? 이 배의 먹는물도 내가 길어다놓은건데…》

쥬스께의 물음에 등개는 딴전을 부렸다.

《자네도 참… 그럼 툭 터놓구 말해보세. 자넨 어째서 날 구원해주었나?》

쥬스께의 말에 등개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문뜩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난 급수군이 아닐세. 난 급수군따위가 될수 없어. 자네도 내가 몇년전까지만 해도 배를 만드는 장공이였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을테지? 사실 말해서 내가 가진 배무이술은 곡진장주를 릉가한다네. 곡진장주의 재간은 이미 낡았어. 곡진장주가 아무리 난다긴다하는 재간을 가졌다지만 나한테는 감히 비교가 안되지. 이 배를 보라구. 내가 만든 배인데 얼마나 빠른가? 아마 남해바다우에서 이보다 더 빠른 배는 찾기 어려울걸세.》

《그래? 이게 정말 자네가 만든 배인가?》

쥬스께는 놀라운 눈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렇네. 그저 놀음삼아 한번 만들어본걸세. 헌데 도무지 인정을 해주지 않는구만. 난 더이상 참을수가 없네. 이런 재간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그래 물통이나 들구 다녀야 옳단 말인가?》

등개의 말에 쥬스께는 좀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그렇지 않구. 헌데 날 보구 하소연하는 리유는 뭔가?》

쥬스께는 조심히 등개의 속을 찔러보았다.

《난 자네가 누구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있네. 자네에겐 내 도움이 꼭 필요해. 내가 없으면 자네의 그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네. 왜냐면…》

《가만!》

쥬스께는 손을 들어 등개의 말을 중단시켰다.

《자넨 내가 누군지 아나?》

쥬스께의 물음에 등개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

《그럼, 난 게다가 자네가 뭘 바라고있는지도 잘 알고있어. 거북선을 만들어보고싶어하지.》

정통을 찔리운 쥬스께는 더욱더 등개가 의심스러웠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자네 도대체 누군가?》

하지만 등개는 호기심어린 쥬스께의 눈길을 외면해버리였다.

《아직도 아닌보살인가. 난 이미전에 자네가 관포만호의 아들이 아니라는것을 짐작하고있었네. 자네는 도해첩을 훔치려고 들어온 사람일뿐이야. 안 그런가?》

쥬스께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등개는 쥬스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었다.

《자네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도해첩만 가지고는 그 배를 만들어낼수 없네. 거북선건조에서 기본은 도해첩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장공이거던. 도해첩은 그림에 불과하지만 장공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네. 거북선은 그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애. 자넨 잘 모를수 있겠지만 도해첩을 보고 그대로 거북선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은 제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없어. 원래 도해첩에는 제일 중요한 기본자료들을 반영하지 않는 법이라네. 그건 그 도해첩을 만들어낸 장공들의 머리속에만 존재해. 그러니 자네가 진짜거북선을 만들고싶다면 바로 나와 같은 장공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일세. 어때, 이젠 내 말이 리해가 되나?》

쥬스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도와 귀선을 만들겠다 그 말이지?》

《어허, 똑똑한걸… 말할 재미가 있어. 옳네, 정확하게 리해했구만.》

《그럼 나한테선 뭘 바라나?》

《더 나은 대우지. 지금보다 나은 처지, 지금보다 나은 대우. 사실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건 그리 크지 않다네.》

《?!…》

《그래, 어때? 자넨 이런걸 약속해줄수 있나?》

그러자 쥬스께는 《그런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내 노력해주겠네.》라고 대답하였다.

쥬스께는 오래간만에 만족스럽게 웃어보았다.

《역시 자넬 믿은 보람이 있구만.》

등개도 팔을 벌리며 호방하게 웃었다.

배는 어느덧 가덕도근방을 지나고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부산포였다.

《헌데 자네 내가 송원서가 아니라는것을 어떻게 눈치챘나?》

거밋거밋한 가덕도의 풍경을 홀린듯 바라보며 쥬스께가 등개에게 묻는 말이였다.

《그거야 자네가 알려주지 않았나.》

《내가?》

《그럼, 자네가. 내게 하던 말이 생각나지 않나? 그 말을 듣다가 제꺽 알았지.》

《무슨 말? 난 그런 말을 한적이 없는데…》

의아해난 쥬스께가 등개를 바라보았다.

《자네 날 보구 뭐라고 했나? 삼보녀를 구원할 때 자네 거기서 역관노릇을 했다고 했지?》

《그야 그랬지. 헌데, 그게 뭐 어때서?》

《어째선가구? 허허 참… 삼보녀가 말하기를 자기 집에 달려들었던 왜장은 복면을 했었는데 통역이 없이도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 합데. 그러니 뭔가 모순되지 않는가. 생각해보라구, 그래 자넨 소리와 억양을 과연 숨길수 있다고보나? 안그런가?》

등개의 말에 쥬스께는 얼굴이 붉어졌다.

《흐음ㅡ 자네 그 분석력이 놀라운걸. 그러니 자네 내 정체를 다 알고있으면서도… 이거 자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구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할테지?》

《그야 물론 고맙다는 말이지.》

등개는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지 않았다.

《뭐 품들일것두 없구만. 그럼 인사를 받으라구. 고맙네.》

그러나 등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듯싶었다.

《말로만? 말로 굼땔 생각은 애초에 버리라구.》

《그럼, 자넨 또 뭘 바라나?》

그 말에 등개는 와락 몸을 일으켜 쥬스께의 멱살을 거머쥐였다.

《자네 내 약혼녀를 놀라게 한 값을 치르지 않을셈인가? 난 그걸 용서할수 없어. 게다가 배우에서 그를 졸개들에게 던져주었댔어!》

등개의 눈빛은 순간에 사나워졌다.

멱살을 잡힌 쥬스께는 금방 숨이 막히는듯 모지름을 썼다.

《이… 이걸… 놓으라구!》

쥬스께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했다.

《에익!》

등개가 손을 풀자 쥬스께는 뒤로 벌렁 나가자빠지였다.

《어휴ㅡ 자네 손아귀힘이 보통이 아닐세그려. 그건 내가 미안하게 되였네. 나도 할수 없어 그랬다는걸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난 자네 약혼녀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네. 그럴 생각도 없었고…》

쥬스께는 열이 확확 나는듯 한 자기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입이 돌아가는대로 변명을 주어담았다.

《다행인줄이나 알아. 만일 내 약혼녀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넌 이미 이 세상사람이 아닌지 옛날이야. 그렇다구 내가 다 용서한것으로 생각지는 말라. 그건 네가 내게 갚아야 할 빚이야.》

등개의 어깨가 심히 오르내렸다.

《이거 진정… 진정해주게. 빚이라… 좋네, 인정하네. 자네가 갚으라면야 갚아야지. 자네를 위해서라면야 무엇인들 아깝겠나. 내 말했지, 자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구?》

쥬스께는 흔들리는 배전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곡진장주를 놓아주게.》

《뭐라구?!》

등개의 말에 쥬스께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는 자네한테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 놓아주라구.》

쥬스께의 눈알이 교활하게 움직였다.

《만일 내가 싫다면?》

《자넨 싫어할 까닭이 없어. 만일 그렇다면 당장에 자네의 모든게 끝을 보게 될걸.》

등개는 품속에 손을 넣어 지금껏 간수하고있던 도해첩을 꺼내들었다.

《도해첩?! 자네 아까 그것을 물속에 처넣지 않았나?》

등개의 손에 들린 도해첩을 본 쥬스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걸 왜 물속에 처넣는단 말인가. 내가 내던진건 빈통일뿐이야. 거북선을 만들자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네.》

등개는 도해첩을 쥬스께에게 내밀었다.

《이젠 이게 자네것이 되였네. 그러니 선택도 자네 몫이야. 만일 곡진장주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도 역시 거북선을 만들어주지 않을걸세. 그럼 그 도해첩도 소용없게 되지. 하지만 내 청을 들어서 곡진장주를 놓아주면 난 자네를 위해 거북선을 만들어줄걸세. 잘 생각해보게나, 어느것이 리득이고 어느것이 손해일지…》

등개는 흘러가는 물결만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쥬스께는 그러는 등개의 속을 알다가도 모를것 같았다.

《자넨 자기가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나오지 않았나.》

쥬스께의 이 말은 등개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더 나은 처지와 대우를 바라고서 완전히 돌산도를 떠난 길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물음이였다.

《그래. 난 다시 돌아갈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네. 난 한번 결심하면 다니까.》

《다시 갈것도 아니면서 왜 내버린 약혼녀를 자꾸만 걱정하나?》

《어쨌든 그는 내 약혼녀였으니까. 그의 곁엔 나밖에 다른 사람이 더 없어. 하기야 자네 같은 오랑캐족속들이 그걸 알턱이 없지.》

《그래, 그건 인정하네. 솔직한 말로 조선인들에겐 고상한 게 있어. 그렇지만 정말이지 자네 심정을 리해할수 없구만.》

쥬스께는 등개의 한숨소릴 들으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것은 아무도 없네. 나마저 떠났으니 그는 외토리가 되였지. 그게 딱 마음에 걸려 내려가질 않누만. 내가 꼭 그렇게 만든것 같은게, 사내로서 못할짓을 한것만 같은게. 하긴 내가 그렇게 만든것이나 같지. 내가 그를 떠났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 생활을 뛰쳐나왔으니까. 허나 나는 그가 불행해지는것을 지켜볼 자신이 없네. 그가 불행에 빠진다면 나는 나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게 될걸세.》

《그래서 곡진장주를…》

《옳네, 바로 그래서야. 그에게 할아버지라도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거라고 보네. 나보다는 그에게 할아버지가 더 귀중해. 그러니 곡진장주를 보내주자구. 어차피 자네한테야 쓸모가 없지 않나.》

《그럼 차라리 약혼녀도 함께 데려오는게 어때?》

쥬스께의 말에 등개는 버럭 화를 냈다.

《내 약혼녀의 손끝 하나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내 말했지? 그에게 무엇이든 강요하지 말라구. 그는 거기서 살길 원해. 나와는 다르단 말이야. 알겠어?》

쥬스께는 등개의 낯빛이 다시금 험악해지는것을 보고 속이 한줌만하게 졸아들었다.

(그래, 저놈의 요구를 무시할순 없다. 귀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놈이 꼭 필요해. 그러니 어떻게든 저놈을 진정시켜야 한다.)

《알았네, 알겠어. 그 일은 나에게 맡기구 더 신경을 쓰지 말라구.》

쥬스께는 이렇게 말하며 등개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20. 《바다의 제왕》

부산포에 들려 큰 배를 갈아탄 등개와 쥬스께는 지체없이 대마도로 향했다.

어둑침침하고 괴괴한 구릉들이 모여 밋밋한 비탈을 이룬 대마도가 다가들었다.

(끝내 오고야말았구나!)

등개는 입술을 앙다물며 배전을 꽉 움켜쥐였다.

《무슨 생각을 하나?》

쥬스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쥬스께가 자기를 주시하는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며 서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하네.》

《거짓말…》

쥬스께는 등개와 나란히 배전에 기대여섰다.

《약혼녀생각을 좀 했지. 하긴 이제사 괜한 생각일테지만…》

《자네의 심정이 리해가 되네. 헌데 말이야…》 하고 쥬스께가 말을 이었다.

《가령 곡진장주를 놓아준다면 그가 제발로 돌산도로 돌아갈수 있을가? 난 문뜩 그런 생각이 드네.》

《그건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라구. 우린 곡진장주를 돌려세우려고 그에게 허튼소릴 많이 했다네. 곡진장주는 지금 돌산도에서 모두 자기를 역적으로 치부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어. 게다가 곡진장주가 우리 섬에 도착하자마자 <바다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철갑배무이가 시작되였다고 소문도 흘렸으니 지금 그의 립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였네. 내 생각인데 아마 곡진장주는 가라고 놓아줘도 못 갈 처지일걸세.》

《<바다의 제왕>이라구? 이름이 요란하구만. 그러니 인츰내 소문도 파다해지겠는걸.》

등개의 물음에 쥬스께는 대답은 않고 웃기만 하였다.

《어쨌거나 상관이 없어. 그가 가든말든 개의치 않네. 장주어른이 내 눈앞에서 배에 올라 떠나가는걸 보는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네. 내 할바는 거기까지니까. 그를 보내는 순간 나는 이제껏 짊어지고있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걸세. 지금까진 그렇게 못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답게 살려네. 사람이 살아야 기껏 몇날을 살겠나. 난 가질수 있는껏 가지고 누릴수 있는껏 누리다가 죽으려네. 나에겐 능히 그렇게 할만 한 재간과 능력이 있어.》

쥬스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래그래. 벌써 몇번을 말하지만 귀선만 만들어내면 앞날은 걱정하지 말라구. 이 가끼누마 쥬스께가 약속할수 있어. 난 약속을 결코 허술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거던.》

쥬스께는 주먹을 들어 제 가슴을 두드려보였다.

《좋네. 자네를 믿어봅세. … 이런, 다 왔구만.》

쥬스께는 돛을 내리우라고 소리쳤다.

돛을 내리운 배는 후미진 포구안쪽으로 들어섰다.

순간 등개는 놀랐다. 좁지 않은 포구안에 새로 만들어진 싸움배들이 꽉 들어차있었는데 수풀처럼 일어선 돛대들이 하늘을 찌르고있었다.

(그럴테지. 놈들이 《강화담판》이니 뭐니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재침을 준비하고있었구나.)

등개는 이발을 꽉 깨물고 눈앞의 왜적선들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배다리가 가까워지자 배는 점차 속도를 죽였다.

선창에 박아놓은 말뚝들에 바줄까지 매여지자 배는 멈춰섰다.

《자, 대마도에 온걸 환영하네. 어서 내리자구.》

쥬스께는 도해첩을 손에 들고 제 먼저 배에서 내렸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대마도의 2인자로 자처하는 다이라의 집이였다.

《계신가?》

쥬스께의 물음에 문앞에서 보초를 서던 왜놈상투쟁이가 《하잇!》 하고 허리를 갑삭 숙였다.

《삼촌에게 내가 왔단다고 이르게.》

《하잇!》

졸개놈이 문안으로 사라지자 쥬스께는 등개를 돌아보며 한 눈을 끔뻑여보였다.

오래지 않아 졸개놈이 다시 뛰여나오며 《어서 들어오시랍니다. 어르신께선 지금 침소에 계시오이다.》 하고 귀간지러운 소리로 쑹얼거렸다.

등개는 쥬스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와는 달리 담장안쪽은 대단히 아늑해보였다.

《예서 좀 기다리라구.》

제법 아늑해보이는 집앞에 다달은 쥬스께가 뒤따르던 등개에게 조용히 하는 말이였다.

《내 잠간 들어갔다 나오지.》

쥬스께는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맞추어놓더니 미닫이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널바닥이 찌국거리는 소리가 저쪽켠으로 사라졌다.

조금 있더니 다시 그쪽에서 찌국찌국 나무바닥 딛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나오는가?)

등개는 미닫이문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는것은 쥬스께가 아니라 새둥지처럼 머리를 틀어올린 왜년이였다. 새하얗게 분칠을 한 왜년의 낯판대기를 보니 등개는 속이 메슥메슥해났다.

(퉤, 더러운 왜년.)

등개는 돌아서서 침을 탁 뱉았다.

계집때문에 기분을 잡쳐버린 등개는 공연히 오락가락하면서 발부리에 걸채는 가랑잎만 걷어찼다.

한참 걸려서야 쥬스께가 문안에서 나왔다.

그러나 쥬스께의 얼굴빛은 썩 씨원치 못하였다.

등개를 바라보던 쥬스께는 《가자구.》 하고 한마디 내뱉고는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이라의 집을 빠져나올 동안 쥬스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숲속을 꿰질러 배가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 거의 이르러서야 쥬스께는 걸음을 멈추었다.

《개자식!》

쥬스께의 입에서는 대뜸 욕설이 튀여나왔다.

《개자식! 주제에 감히 이 가끼누마 쥬스께를 업수이여겨? 이거야 분통이 터져서 견딜수가 있나!》

쥬스께는 흡사 함정에 빠진 승냥이마냥 다이라의 집쪽에 대고 으르렁댔다.

《진정하라구. 자네 왜 그러나?》

그러나 쥬스께가 이번에는 얼굴을 싸쥐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꺼억꺼억 울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미쳤어? 이거 왜 이래?》

등개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쥬스께를 쳐다보았다.

《그 개자식이 글쎄 내 도해첩을 빼앗았다네. 두눈을 퍼히 뜨고 도해첩을 떼웠어!》

《뭐라구?!》

등개는 와락 달려들어 쥬스께의 멱살을 거머쥐였다.

《무슨 개수작이야, 도해첩을 떼우다니?!》

쥬스께는 숨이 막혀 버드럭거리였다.

가까스로 등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쥬스께는 말려올라간 옷깃을 대수강 바로잡으며 무어라고 혼자서 두덜거렸다.

《바로 말해! 도해첩을 떼우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등개의 물음에 쥬스께는 한숨만 푸ㅡ 내쉬더니 아까 다이라의 방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다이라는 아주 기분이 좋은듯 하였다. 금방 계집년의 속살맛을 보고난 뒤여서 그런지 쥬스께를 맞이하는 다이라의 표정은 밝았다. 게다가 쥬스께가 내미는 도해첩까지 받아들자 다이라의 두눈은 금시 숯불처럼 이글거렸다. 여기까지는 모든것이 순조로왔다. 그런데 쥬스께의 입에서 등개와 곡진의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는것이다.

《삼촌은 자네를 그닥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더군. 그런 재간은 숙련이 없이는 절대로 습득할수 없는거라나. 저도 배뭇는 물계를 좀 안다는거지. 다이라 그 자식 아버지와 마사가께형님이 살아있을적에는 대가리도 쳐들지 못하던게 이젠 내가 외토리가 되였다고 감히 깔보고있는게야. 이거야 어디 분해서 견딜수가 있나!》

쥬스께는 옆구리에 찬 칼을 절커덕거리였다.

《그래서 도해첩을 그냥 떼웠나?》

쥬스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니 우리사이 약속은 물건너간셈이구만.》

그 말에 쥬스께는 눈을 번쩍 뜨고 등개를 바라보았다.

《아니, 나 가끼누마 쥬스께는 그런 사람이 아닐세.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 부산포에 달려가서 부하들을 데려다가 이 섬을 아예 요정내고말테네!》

《되지도 않을 소린 하지도 말라구.》

등개는 손을 획 내저었다.

쥬스께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알지 못할 괴상한 소리를 내며 쿨쩍거렸다.

《이거 제발 그치지 못하겠어!》

등개가 왈칵 성을 내자 쥬스께는 울음을 뚝 그쳤다.

《운다고 도해첩이 다시 생겨? 자넨 도해첩을 찾아와야 해. 난 자네를 위해서 거북선을 만들지 다른 놈팽이를 위해선 절대로 만들지 않을거네.》

등개의 말에 쥬스께는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그래, 맞았어. 우리 도해첩을 찾아가지고 본토로 건너가세. 꼭 여기서만 귀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거던. 본토로 건너가면 좀더 훌륭한 조건에서 무어낼수 있을거야. 귀선만 손에 넣는다면 막대한 땅과 재부가 우리한테 차례지게 될걸세. 그러니 그 개자식이 귀선을 독차지하도록 내버려둘수는 없어. 귀선은 내것이야!》

《이제야 자네답구만.》

등개는 쥬스께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자네 결심을 지지하네. 내가 자넬 돕지. 함께 모험을 해보자구.》

등개의 그 말에 쥬스께는 큰 힘을 얻은듯싶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등개와 쥬스께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 다음 행동계획을 토론하였다.

《먼저 다이라, 그 개자식에게서 도해첩을 빼앗자구.》

《저렇게 둔한 배로 어떻게 빠진다고 그래? 얼마 못 가서 자네 삼촌의 졸개들에게 붙들리고말걸세.》

《그럼 어떡하면 좋은가?》

쥬스께의 물음에 등개는 한동안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을 굴리는듯 하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옳지!》 하며 제 무릎을 철썩 갈기는것이였다.

《좋은 수가 떠올랐어.》

쥬스께는 귀가 솔깃하여 가까이 다가앉았다.

《자네 아까 그 삼촌이란 사람이 여기서 만들었다는 <바다의 제왕>이 어쩌구저쩌구했지?》

등개의 물음에 쥬스께는 눈만 껌뻑껌뻑거리였다.

《아까 곡진장주의 소리를 하다가 그 소릴 했잖아!》

그제서야 쥬스께는 《그렇지, 그 소릴 했었네.》 하는것이였다.

《자네 삼촌이 그 배를 정말 만들었나?》

등개의 물음에 쥬스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 알건대는 곡진장주가 귀선의 비밀을 끝까지 불지 않자 화가 동한 삼촌이 제멋대로 그런 배를 만들기 시작한것 같네.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아직 시험항행중이라 하데.》

그러자 등개가 반색을 지었다.

《그럼 그 배를 우리가 시험해보자구. 명색이 <바다의 제왕>이라니 그 배를 우리가 뺏아타면 자네 삼촌의 졸개들이 아무리 쫓아와도 끄떡없을게 아닌가!》

《정말!…》

쥬스께는 흥분하여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그래. 좋아, 골탕을 먹일바엔 단단히 먹이세. 다이라가 준비한 <바다의 제왕>을 우리가 빼앗읍세.》

쥬스께는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가만, 너무 흥분해서 그러지 말라구. 그러자면 우리한테 방조자가 필요해. 둘이서 도해첩과 배를 동시에 훔쳐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세. 믿음직하고 배를 잘 아는 그런 방조자가 꼭 있어야 하네.》

등개의 말을 듣고 쥬스께의 눈이 반짝 빛났다.

《자네가 말하는 방조자란 혹시 곡진장주를 념두에 둔게 아닌가?》

《말이 통하누만. 옳네, 곡진장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네.》

쥬스께는 등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듣구보니 그럴듯한 생각일세. 그는 귀선 만드는데선 따를이가 없을것이니 삼촌이 만든 <바다의 제왕>을 얼마든지 다룰수 있을걸세. 헌데 그가 우리 일을 돕겠다고 할가?》

《그건 내게 맡기라구. 돌산도로 보내주겠다면 그는 반대하지 않을걸세.》

《좋아!》

등개와 쥬스께는 두손을 짝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그들은 먼저 곡진장주가 갇혀있는 곳으로 갔다.

곡진장주가 등개를 보고 깜짝 놀란것은 두말할나위도 없었다.

《아니, 임자가 어떻게 여기에?!…》

수염이 더부룩하게 자란 곡진장주가 등개를 붙잡고 묻는 말이였다.

《장주어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이까? 장주어른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왔소이다. 그러니 더 묻지 마시고 내 말대로

움직여주사이다.》

등개는 곡진장주에게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

다음날 다이라의 귀에는 돌산도에서 잡아온 곡진장주가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다이라는 정작 도해첩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 곡진장주도 마음을 돌려먹었다고 기뻐하면서 어서 곡진장주를 데려오라고 졸개들을 몰아댔다.

《장주어른이 생각을 달리하셨다는게 사실이요?》

곡진장주를 만난 다이라가 하는 말이였다.

《왜, 별로 달갑지 않은 모양이구려. 그렇다면 생각을 고쳐하리다.》

《아아, 이거 왜 이러시오. 장주어른은 성미가 불같소그려.》

《나 곡진이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요.》

곡진장주는 무뚝뚝하게 다이라의 말을 받아넘기였다.

《장주어른의 성미가 그러하니 당신의 말을 믿겠소. 요새 어떤 놈들은 겉으로는 충의를 부르짖다가도 정작 때가 오면 손바닥 뒤집듯 하고 달아난단 말이요. 대개 그런 놈들을 보면 성질머리가 간사하고 교활하기 이를데없으며 항상 좋은 낯빛을 띠고있던자들이요. 그래서 난 낯빛에 웃음을 담고있는 자들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소. 오히려 당신처럼 직통배기가 훨씬 마음에 든단 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남을 속일 포재가 못되니까.》

다이라는 이렇게 말하며 곡진장주를 향해 의미있는 눈짓을 흘려보냈다.

그러자 곡진장주는 대번에 웃음을 터뜨리였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소. 헌데 말이요, 진실된 마음을 볼줄 모르고 제 기분이나 생각을 남에게 먹이려는 인간은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일쑤요. 그러니 나의 속을 당신에게 헤쳐

보이기는 정말로 싫소. 부담스럽소.》

곡진의 역습에 다이라는 귀밑이 시뻘개졌다.

《장주어른은 직통배기요. 마음에 드오. 참으로 조선인들은 천인에 이르기까지 예지가 있거던. … 이젠 장주어른에 대한 믿음이 생기오. 자, 나와 함께 우리 <바다의 제왕>을 보러 나갑시다. 장주어른이 손을 싸매고있는 동안 내 식대로 한번 만들어보았는데 우선 잘 보고 평가해주기 바라오.》

다이라는 그길로 곡진장주와 함께 포구로 향했다.

다이라가 직접 도해를 그리고 고심하여 무어냈다는 그 철갑함선은 크기가 자못 어마어마하였다. 울긋불긋 색칠까지 해놓으니 그럴듯해보였다.

곡진이 보기에도 조선수군의 거북선을 흉내내느라고 애쓴 것이 훤히 알렸다.

《참 잘 만드셨소.》

다이라의 안내를 받아 《바다의 제왕》안에 발을 들이밀며 곡진이 하는 말이였다.

《놀라운 수준이요. 이만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소.》

곡진의 칭찬에 다이라의 입은 헤벌쭉하니 벌어졌다.

곡진은 여기저기를 두들겨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배의 내부를 샅샅이 돌아보았다.

마지막에는 알지 못할 괴물의 대가리를 형상한 배의 이물에까지 이르렀다.

《허허, 생각밖이요. 당신네도 싸움배를 괜찮게 만들구있구만. 역시 모방에서는 기질이 있소.》

《곡진장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줄 알았소. 한생 배를 만들어온 내가 보기에도 이 배는 정말로 훌륭한 싸움배란

말이요. 당신 말대로 모방이기는 하지만 말이요. 창제란 원래 골치거리요. 단순한걸 좋아하는 일본인은 모방을 생명으로 여기오. … 그래, 당신네 귀선과 대비하면 어떨것 같소?》

다이라의 그 말에 곡진은 《글쎄…》 하며 다시 배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만하면 꽤 견뎌낼듯 하오. 허나 이 배에는 몇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구만.》

곡진은 배밑창의 어두운 구석을 한참동안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배안에 쥐가 없는것도 큰 문제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쥐가 없는 배는 타지 말라구 했거던. 허허.》 하고 웃어제끼는것이였다.

다이라는 곡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고 쥐는 또 무엇인가?

곡진은 다이라의 얼굴표정에는 관심이 없는듯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지 않는다면 이 <바다의 제왕>은 조선수군의 거북선앞에 가라앉고말거요. 그러면 <제왕>이 될수가 없지.》

곡진의 마지막 이 말을 다이라는 심중하게 여겨들었다.

《역시 곡진장주의 눈은 속일수가 없소그려. 옳소, 당신이 이 배를 진짜 <바다의 제왕>으로 만들어주면 당신의 소원을 뭐나 다 들어주겠소.》

곡진과 다이라는 밖으로 나왔다.

이때 문뜩 배다리밑쪽에서 누구들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려다보니 등개와 쥬스께였다. 헌데 그들은 보초를 서고있는 왜놈상투쟁이들과 다툼질을 하고있는것 같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거냐?!》

다이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초에게 호통을 쳤다.

갑자기 쥬스께가 보초놈의 따귀를 후려쳤다.

《쥬스께!》

성이 난 다이라가 쥬스께를 불렀다.

《뉘앞에서 손찌검이냐?! 감히 내 부하에게 손을 대?》

다이라는 발을 탕 굴렀다.

《어떻게 된 일이냐?》

다이라의 물음에 빰따구니를 얻어맞은 보초가 주춤거리며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쥬스께와 등개는 난처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사실 다이라와 곡진이 《바다의 제왕》속으로 들어가는것을 본 쥬스께는 다이라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도해첩을 훔쳐내올 결심을 하였었다. 그런데 등개가 그따위 도해첩은 내쳐두고 빨리 저들을 따라들어가서 철갑함선을 타고앉자고 하는것이였다.

《글쎄 도해첩따윈 고민하지 말게. 자네 삼촌을 인질로 붙잡고있으면 어련히 도해첩을 갖다 바치지 않으리! 자네 삼촌이 호위병도 안 데리고 배안으로 들어갔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없을걸세. 어서 결심하라구.》

등개의 말을 들은 쥬스께는 등개를 주시하며 실눈을 지었다.

마침내 쥬스께는 종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제잡담하고 《바다의 제왕》을 향하여 종종걸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종시 그 배에 오를수 없었다. 배다리밑에 몰켜서있던 한무리의 졸개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던것이다.

바로 그때 다이라와 곡진이 배다리로 나왔던것이다.

《네놈까지 이 쥬스께를 업신여겨? 죽여버리고말테다!》

쥬스께는 허리춤에 찬 칼을 쑥 뽑아들었다.

등개가 아니였다면 보초놈의 몸뚱이가 두동강나버렸을지도 몰랐다.

그 광경을 보고 사방에서 시꺼먼 옷을 입은 놈팽이들이 꾸역꾸역 몰켜들었다.

《어쩌자구 그러나, 저것들을 못 봐?》

등개의 말에 쥬스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험상궂게 생긴자들이 살기띤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쥬스께는 맥이 풀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넣었다.

《저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다이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자 그들을 빙 둘러싸고있던 졸개들이 우ㅡ 하고 몰려들었다.

《삼촌!》

쥬스께가 당황해진 눈길로 배쪽을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가만!》

다이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쥬스께가 데려온 저놈은 올려보내라!》

등개는 어찌된 영문인지 짐작할수 없었다. 그러나 다이라와 눈이 마주친 곡진장주가 고개를 끄덕이는것을 보고는 순간 절호의 기회가 단 한번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피뜩 들었다.

배다리에 올라 다이라의 옆을 스쳐지나던 등개는 와락 달려들어 빼빼 마른 그놈의 목을 뒤에서부터 그러안았다.

《움쩍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놈을 죽이겠다!》

등개는 발밑에 몰켜있는 왜놈상투쟁이들에게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섬오랑캐놈들은 두눈만 휘둥그래 뜬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떠름해있었다.

《쥬스께, 뭘 해? 빨리 올라오라!》

등개의 말에 쥬스께가 정신을 차렸다.

《길을 내라, 이놈들!》

날쌔게 칼을 뽑아든 쥬스께가 아까부터 말째게 굴던 보초놈을 단칼에 베여던지고 배다리우로 뛰여올라왔다.

《바줄을 풀라고 말하라구!》

등개가 쥬스께에게 하는 말이였다.

《이 쥐새끼들아! 어서 바줄을 풀어라!》

쥬스께가 삼촌의 목에 칼을 들이대였다.

《어서 풀라고 말해!》

어떻게나 다이라의 목에 칼날을 눌러붙였는지 피가 흘러 여윈 가슴팍을 가리웠던 옷의 앞섶을 적셔놓았다.

《바줄들을 풀어라!》

다이라가 졸개들에게 령을 내렸다.

졸개들은 다이라의 령에 어쩔수 없는듯 《제왕》을 묶어놓은 바줄들을 칼로 내리쳐 잘라던졌다.

《들어가세!》

등개는 다이라를 끌고 곡진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배안으로 몸을 숨기였다. 뒤따라 쥬스께가 달려들어와 문을 쾅ㅡ하고 닫아버렸다.

《빨리 저놈들에게 소리치라구, 한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오는 놈이 있다면 다이라의 목을 베여던지겠단다구.》

등개의 말을 들은 쥬스께는 밖에다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쥬스께가 어떻게나 엄포를 놓았는지 배다리밑에 몰켜선 사무라이들은 까딱도 못하고 떨기만 하였다.

《다이라를 묶으라구!》

등개가 소리치자 쥬스께가 달려들어 다이라를 기둥에다 꽁꽁 비끄러매였다.

《그러구두 삼촌이라구? 퉤, 개자식같으니… 이렇게 될줄 그래 몰랐어? 감히 이 가끼누마 쥬스께를 하대하다니… 이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쥬스께는 다이라의 복부에 련속 주먹세례를 안기였다.

《내 도해첩을 어디다 두었니? 대지 않으면 때려죽이고말테다!》

쥬스께는 삼촌이라고 인정사정을 보아주지 않았다. 쥬스께의 주먹에 얻어맞은 다이라의 입에서는 부글부글 거품이 괴여나왔다.

《퉤! 콱 뒈지기나 할것!》

쥬스께는 다이라의 몸뚱아리가 축 늘어지자 그의 상판에 가래를 돋구어 뱉아버렸다.

그사이 등개와 곡진은 돛대를 세워놓고 돛줄을 풀어 바람을 잡았다.

《바다의 제왕》은 천천히 자기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배가 움씰하자 쥬스께는 등개에게로 달려왔다.

《등개, 도해첩은 안 가지고 가나?》

《그건 해서 뭘 해?》

쥬스께의 물음에 등개가 퉁명스레 대답하였다.

《뭘 하다니? 도해첩이 없이는 귀선을 만들수 없다며?》

《내겐 도해첩보다 더 좋은게 있으니까.》

쥬스께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더 좋은것이라니, 그게 뭔가?!》

《정 알구싶나?》

쥬스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 따라오게나.》

등개는 쥬스께를 데리고 배의 이물끝으로 갔다.

《저기 아랠 보라구.》

등개는 괴물대가리의 아가리로 나가 아래쪽을 손짓해보였다.

호기심이 가득 동한 쥬스께는 《어딜?》 하면서 목을 쑥 빼들고 등개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두 안 보이는데…》

그러자 등개는 《그래? 그럴수가 없는데… 차라리 내려가서 보라구.》 하고는 쥬스께의 궁둥이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아이쿠!》

쥬스께는 허양 바다물에 나떨어졌다.

그제서야 쥬스께는 자기가 속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허우적거리며 기슭을 바라보니 칼을 빼든 무리들이 악악거리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질렀다.

《아, 속았구나!》

차거운 바다물에 떨어진 쥬스께는 급기야 온몸이 꽁꽁 얼어들었다. 자꾸만 아래서 누가 자기를 끌어당기는것만 같았다.

물에 빠져죽은 형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멍텅구리같은 자식! 천하에 밥통같은 자식아!)

형이 자기를 바라보며 욕을 하는것 같았다.

(아, 이 미련한 놈!)

쥬스께는 울분에 태질을 해댔다.

쥬스께는 마지막몸부림으로써 수면우로 몸을 솟구쳤다.

허나 《바다의 제왕》은 쥬스께를 외면한채 물갈기를 일구며 한옆으로 지나가고있었다.

쥬스께는 절망의 눈길로 《바다의 제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뜩 배뒤켠에 늘어진 바줄이 물면우에 끌리며 자기쪽으로 다가오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아, 저걸 잡으면 배에 오를수 있겠구나!)

쥬스께는 살수 있는 마지막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오라, 오라. 가까이만 오라!)

마침내 쥬스께의 손에 바줄의 끄트머리가 걸려들었다. 쥬스께는 그것을 명줄인양 억척같이 틀어쥐였다.

(내 이제 네놈들을 요정내고야말테다!)

쥬스께는 악을 품고 있는 힘을 다해 바줄을 타고 기여올라갔다.

21. 강강수월래

《여기다 세워라!》

곡진의 말에 등개는 돛줄을 다시 감았다.

추진력을 잃은 《바다의 제왕》은 포구를 채 벗어나지 못하고 스르르 멈추어섰다.

《자, 그럼 섬오랑캐놈들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어디 시험을 해보자. 등개야, 포에 화약을 재워라!》

《알았소이다.》

등개는 2층갑판우에 설치된 화포옆으로 달려가 아구리에 화약을 쑤셔넣었다.

《장탄!》

곡진의 말에 등개가 둥근 포알을 들어다가 포아구리로 밀어넣었다.

《장탄하였소이다!》

《조준!》

《조준했소이다!》

《좋네, 발사!》

쾅ㅡ 하는 요란한 소리가 철갑으로 둘러막힌 공간을 들었다놓았다.

《제길할, 배를 이따위로 만들다니!》

곡진은 화포 한발의 발사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직우직 소리를 내며 당장 기울어질것처럼 흔들거리는 배를 둘러보며 혀를 끌끌 찼다.

《이따위를 가지고 뭐 우리 거북선과 붙어보겠다구!》

곡진은 코웃음을 쳤다.

《장주어른, 그래도 이 포만은 쓸만 하외다. 저걸 좀 보시오이다. 적선이 불타고있소이다.》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포구안쪽은 아예 수라장이였다.

《바다의 제왕》에서 발사된 불뭉치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아다께부네가 속안에서 불이 당겼는지 검은 연기를 꾸역꾸역 뿜어내고있었다.

《이놈들이 우리 화포는 또 언제 훔쳤노? 과연 날도둑놈들이로다.》

곡진은 또다시 화포에 화약을 재우며 이렇게 투덜거렸다.

등개와 곡진은 포구에 있는 침략선들을 모조리 까부실 작정이였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가득 몰켜있는 왜적의 싸움배들을 보고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그들이였다.

《저 침략선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돌아가도 늦지는 않아!》

곡진의 말에 등개는 적극 호응하였다.

《조준!》, 《발사!》의 련이은 구령에 이어 《바다의 제왕》에 설치된 화포는 련속 불을 뿜었다.

대마도의 해안은 삽시에 아비규환이 되여버렸다.

바람까지 불어쳐 배전을 맞비비며 웅크리고있던 아다께부네

들은 걷잡을수 없는 화염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바다의 제왕》에서는 우뢰같은 소리와 함께 계속 불덩이들이 쏟아져나왔다. 섬오랑캐놈들은 거대한 불길앞에 넋을 잃고말았다. 놈들은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갈팡질팡하였다.

《그만! 등개, 이젠 그만하자구. 저 불이면 아마 대마도 전부라도 태워버릴거네. 그만하구 이젠 돛을 펼치자구. 더이상은 <제왕>께서 견딜것 같지 못해.》

곡진이 등개에게 하는 말이였다.

등개는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정시킨 돛줄을 풀기 위해 웃층 갑판으로 뛰여올라갔다.

《<제왕>이란게 이따위야! 이래가지고 우리 거북선의 발뒤꿈치에나 따라가겠어?》

돛줄매듭을 풀며 등개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장주어른, 이제 돌아가면 통제사어른이 무척 좋아하겠지요? 장주어른을 모셔왔다구 나에게 상을 내릴지도 몰라요! 하긴 쓰지 못할 이따위 물건짝을 얻어왔다구 나무람하실지도 모를 일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개는 마지막 남은 돛줄매듭을 풀어제끼며 아래층 갑판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헌데 귀가 어두운 곡진이 잘 듣지 못했는지 대답이 없었다.

(키를 보러 갔는가?)

등개는 돛을 펼쳐 바람을 가득 잡고는 배전에 붙어있는 고리에다 단단히 비끄러매놓았다.

《장주어른!》

아래층 갑판으로 통하는 계단에 발을 내디디며 등개가 곡진을 불렀다.

《어디 있소이까, 장주어른?》

그러나 곡진장주는 대답이 없었다.

《장주어른!》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는 순간 등개의 눈앞에선 무수히 많은 별찌들이 춤을 추었다.

《앗!》

털썩 쓰러진 등개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관자노리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

등개는 끝내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가.

귀에 익은 파도소리에 정신을 차린 등개는 온몸이 바줄에 꽁꽁 묶여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옆에 있는 곡진도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다.

등개는 겨우 포구멍이 뚫린 곳으로 고개를 쳐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앗, 부산포!)

배는 부산포를 가까이하고있었다.

그때 등뒤에서 갑판을 밟는 소리가 찌꾹찌꾹 들려왔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거기에는 쥬스께가 서있었다.

《왜, 놀라운가? 네가 그럴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가끼누마 쥬스께는 배반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하는 성미야. 이제 부산포에 가닿으면 너희들의 피로 제돌을 씻을테다. 나를 발로 차던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이렇게 말이다!》

쥬스께는 후닥닥 달려들어 등개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밟았다.

《윽!》

꽉 깨문 입술사이로 피가 나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구있으라구. 이제 곧 배는 부산포에 도착하게 되네.》

등개를 묶은 바줄상태를 다시한번 보고나서 쥬스께는 키가 있는 고물쪽으로 사라졌다.

옆에서 《으음ㅡ》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장주어른!》

등개의 부름에 곡진장주가 눈을 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곡진장주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듯 했다.

《배가 부산포쪽으로 접근하고있소이다. 바다에 차던졌던 그 왜오랑캐놈이 다시 살아났소이다. 다 제 불찰이오이다.》

등개의 두눈은 붉게 충혈되였다.

배가 이미 퍼그나 부산포에 가까이 접근한것 같았다.

《장주어른,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장주어른을 구원한다는게 오히려…》

《그런 소리 말라구. 이 늙은일 찾아 거기까지 와준것만도 정말 고마우이. 자네 같은 사람을 손녀사위로 맞게 된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네.》

《장주어른!》

등개는 곡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자,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용기를 내게.》

곡진은 조금 기여가더니 멈추고 머리우를 가리켜보였다.

거기에는 철갑으로 둘러막혀 어두컴컴한 갑판을 밝히려고 기둥에 꽂아넣은 홰불이 있었다.

(그렇지!)

등개도 꿈틀꿈틀 그리로 기여갔다.

《어서 내 등에 오르게!》

등개는 이를 악물고 곡진의 잔등에 기여올랐다.

곡진은 무릎을 이마가까이로 끌어당기며 등개를 웃쪽으로 밀어주었다.

《어서!》

힘이 진해가는 곡진의 안타까운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등개는 불똥이 뚝뚝 떨어지는 홰불밑둥에 이마를 대고 힘껏 우로 밀기 시작했다.

《어서!》

곡진의 재촉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불똥이 등개의 볼이며 머리카락에 마구 떨어져내렸다.

(안된다. 이놈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키를 잡고있던 쥬스께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그쪽으로 달려왔다.

《아니?!》

쥬스께는 놀랐다.

바로 쥬스께의 눈앞에는 불뭉치를 쳐든 곡진과 등개가 돌장승처럼 버티고 서있었던것이다.

불에 타 끊어져버린 포승끈들이 그들의 발치에 널려져있었다.

험하게 화상을 당한 등개의 얼굴은 마주보기조차 섬찍했다.

《어… 어쩌자구 그래?!》

쥬스께의 눈이 퉁방울이 되였다.

《여기까지 데려다주어 정말 고맙네. 부산포에 온걸 환영하네.》

등개의 입에서는 무뚝뚝한 말마디가 흘러나왔다.

그제서야 쥬스께는 그들의 발밑에 놓여있는 화약상자들을

가려보았다.

《설마 자네 지금…》

《그래. 암만 그래두 조선제일의 장주와 장공이 부산포를 방문하는데 이쯤이야 터뜨려주어야 인사가 아닐텐가!》

불똥이 화약상자결에 떨어지면서 뿌직뿌직 소리를 내였다.

쥬스께의 눈은 화등잔만큼 커졌다.

《가만, 등개! 너무 격해서 그러지 말라구. 우리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눠봅세. 그 불뭉치만 밖으로 집어버린다면 내 자네 소원을 뭐나 다 들어줄수 있네.》

쥬스께는 간절한 눈빛으로 등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등개는 요지부동이였다.

《너희 천조대신이라는 귀신한테 빌기나 해라. 지금은 그편이 더 나을것이다.》

《제발 그러지 말게. 자네 하란대로 다 하지. 배를 저쪽으로 다시 돌리라나, 응? 말만 하게. 어디로 돌리라나? 돌산도? 아니면 대마도? 가고싶은 곳이 있을게 아닌가!》

하지만 등개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눈앞에 원쑤들을 놔두고 조선군사가 가긴 어데로 가겠는가!》

쥬스께의 등골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살아야 한다!)

쥬스께의 머리속엔 그 한생각뿐이였다. 헌데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쳐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좋기는 아구리가 휑하니 뚫려있는 이물쪽이 제일 가깝지만 거기로 나가는 길은 등개가 가로막고있었다. 나들문으로 통하는 길에는 화약상자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아까 악을 쓰며 비집고 들어왔던 포구멍으로 다시 빠질 생각도 해보았지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절반도 못 벗어난채 등개에게 덜미를 붙잡힐것 같았다.

(제길, 어떤 놈이 배를 이따위로 만들었어!)

쥬스께는 후닥닥 돌아서 웃층 갑판으로 올리뛰였다. 이제 터질 화약상자로부터 한발자국이라도 멀어지고싶었다.

(살길은 돛대를 타고 빠지는 길이다!)

쥬스께는 젖먹은 힘까지 짜내여 돛대에 매여달렸다. 안에서 밖으로 내뻗은 돛대덕분에 쥬스께는 간신히 지붕우로 기여오를수 있었다. 이젠 발밑에 촘촘히 꽂혀있는 창끝들을 피하여 바다에 몸을 날리면 그만이였다. 쥬스께는 몸을 옹송그려 뛰여들 차비를 하였다.

바로 그때 큰 파도에 밀린 배가 기우뚱하니 기울어졌다. 그통에 쥬스께는 손이 미끄러져 돛대에서 나떨어지고말았다.

《으악!—》

조선수군의 거북선을 모방하여 등짝에 주런이 꽂아놓은 뾰족한 창끝은 쥬스께의 가슴을 사정없이 꿰질렀다.

쥬스께의 비명소리는 배안에까지 들려왔다.

《장주어른, 포구가 가까이 왔소이다.》

이물쪽에 난 커다란 구멍앞에 서서 앞을 내다보고있던 등개가 곡진에게 하는 말이였다.

등개의 어깨너머로 포구에 가득 들어찬 왜적들의 싸움배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순간 곡진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넘쳐흘렀다.

《등개, 부디 날 용서하라구.》

《예에? 그건 무슨…》

허나 곡진은 등개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를 콱 밀쳐버렸다.

《앗, 장주어른!—》

배전을 치는 파도소리가 등개의 웨침소리를 삼켜버렸다.

(자넨 여기서 죽으면 안될 사람이야. 꼭 살아서 통제사어

른을 찾아가라구. 왜적들을 무찌르고 우리 삼보녀랑 부디 행복하게 잘살라구.)

곡진의 두눈으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달밝았다 계명산천에
달밝았다 강강수월래
…

손에 홰불을 든 곡진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불빛을 받아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또박또박 힘을 주어 노래를 부르는 그의 눈앞에 휘영청 떠오른 달빛아래서 해녀들과 어울려 춤을 추던 삼보녀의 모습이 어려왔다. …

포구에 몰켜선 왜적들은 가까이로 다가오고있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배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괴상한 짐승대가리모양을 한 《바다의 제왕》이 거침없이 다가들어 제놈들의 배를 거의 들이받을 순간이 되여서야 비명을 지르며 황황히 내빼는것이였다.

쾅ㅡ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의 제왕》은 왜적의 싸움배들사이에 그대로 들이박혔다.

무시무시한 폭음이 울린것은 그 다음순간에 있은 일이였다. 거대한 불길과 잇달아 련속 둔중한 폭음이 부산포앞바다를 뒤흔들어놓았다.

《바다의 제왕》에서 번진 불길은 옆에 있던 왜적배들을 통채로 집어삼키였다. 부산포의 바다는 쇠물가마처럼 설설 끓어번지였다.

성난 파도가 기슭으로 밀려와 아비규환의 왜적무리를 통채로 덮쳐버렸다.

…

그 시각 꽃바당에 서서 멀리 동쪽하늘아래만 바라보고있던 삼보녀의 발치에도 흰 파도가 왈칵 끼쳐들었다. 그의 두볼로는 맑은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삼보녀는 고개를 떨구고 손에 들고있던 등개의 편지를 다시금 펼쳐들었다.

《삼보녀. 사랑하는 삼보녀…

이 편지를 보게 될즈음이면 난 아마 곁에 없을거야.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 장주어른을 모시고 꼭 돌아오겠어. 늦어도 보름달이 뜨기 전엔 돌아올수 있을거야.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때 우리가 늘 만나군 하던 도래굽이에서 날 기다려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회남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는 통제사어른이 보낸 비밀군관이래. 뒤산 무덤들이 다 파헤쳐진 그날 돌장승곁에서 그와 만났었거던. 그가 말하길 왜적들이 돌산도를 기습하기 3일전에 벌써 도해첩은 통제사어른에게 장주어른이 보냈다더라. 그것도 모르고 우린 회남이를 의심했었지.

나쁜 놈은 송원서였어. 아마 그놈은 왜적의 간자이거나 진짜 섬오랑캐놈일지도 몰라. 좌우간 이번 길에 그놈의 정체가 드러날테지. 그놈의 뒤를 캐느라고 회남이 남몰래 수고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받았어. 그러니 앞으로 만나면 잘 대해주고 사과의 말도 해줘.

팔동이 그녀석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지 원래 심성은 착한 놈이야. 언젠가 날 보구 조용히 말해준게 있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술을 마신다구 하더라. 부모의 원쑤를 갚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는데 <강화>니 뭐니 하면서 싸움을 못하게 하니 아마 속에 불이 일어 그러겠지 뭐. 이제 떠나면 그 친구가 무척 보구싶을것 같애. 화술이 나쁘다고 말도 못해주었

는데… 까짓거, 이제 만나게 되거들랑 말해줄수 있겠지 뭐.

그리고 예전처럼 내 없는 동안 우리 고모님을 잘 돌봐줘.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생도 많이 한 우리 고모님인데 제대로 된 자식구실 한번 못해드린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그래도 삼보녀가 곁에 있으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수 있어.

삼보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보름달이 뜰텐데 <강강수월래>를 또 한번 추는게 어때? 춤을 추는 삼보녀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 정녕 그 모습은 일생 잊어버릴것 같지 못해.

언제부터 삼보녀가 춤을 출 때 우등불을 지펴주겠다고 약속하구선 아직 한번도 지켜주지 못했어. 이번에 돌아가선 만사를 제쳐놓고 꼭 내 손으로 불무지를 커다랗게 만들어줄게. …

앓지두 말구 아프지두 말구 울지두 말아. 자꾸 울면 얼굴이 못쓰게 된다고 하더라. 이 담에 돌아와서 얼굴이 못쓰게 된걸 보면 내 마음이 어떨가. 부디 몸을 잘 돌봐.

보름달이 뜨거들랑 바다가에 나와서 예전처럼 <강강수월래>를 신나게 불러주렴. 그러면 삼보녀가 부르는 노래소릴 듣고서, 네가 추는 춤가락을 보고서 내가 찾아갈테니. …》

편지를 쥔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내렸다. 삼보녀의 고운 얼굴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남해가에 밤은 깊어도 해녀들이 부르는 《강강수월래》의 노래가락은 잦아지지 않았다.

어깨둥실 춤을 추는 삼보녀를 보며 팔동과 회남도 노래를

따라불렀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는 님에 대한 노래였고 애국에 대한 노래였으며 승전에 대한 노래가락이였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주위로 손에 손을 잡은 해녀들이 얼싸절싸 춤을 추며 빙빙 돌고돌았다.

삼보녀의 허리춤에 매여달린 표주박도 저 혼자 달싹대며 춤을 추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 밤새도록 우등불과 무슨 말을 속삭이는듯 했다.

바다우에 솟은 보름달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치고있었다. 어쩌면 멀지 않아 삼보녀를 만나게 될 등개의 환한 얼굴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왜적을 쳐이긴 싸움터마다에서 쿵쿵 울리던 자랑스런 승전고같기도 한 보름달이…

(끝)

중편소설 강강수월래

저 자 김 석 문
편 집 신 홍 섭
장 정 채 대 성
교 정 조 경 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9(2020)년 9월 2일
발 행 주체109(2020)년 9월 5일

ㄱ-1481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32-6